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역음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역임

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를 펴내며

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살아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전통무예의 가치를 밝혀내는 작업이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ICHCAP와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ICM의 공동 협력 사업의 결실이다.

인류무형문화유산은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하 2003년 협약)에 의거하여 정의·분류·보호되고 있다. 유네스코 UNESCO는 무형유산을 문화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발전의 보장 수단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하며, 국제사회의 의지와 관심을 모아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채택하였다.

무형유산은 공동체, 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 물품, 공예품 및 문화 공간 모두를 말한다. 무형유산은 세대 간에 전승되어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유네스코가 2003년 채택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은 다섯 개의 무형문화유산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의례 및 축제,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공예기술 분야가 그것이다. 이는 인류 문화 발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2003년 협약은 각국의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무형유산의 보호와 특히

위기에 처한 무형유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Safeguarding)’는 확인, 기록, 조사, 보존, 보호, 증진, 전승, 유산의 활성화 등 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뜻한다. 또한 무형유산의 보호를 위해 무형유산 공동체, 집단, 개인의 참여를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해당 공동체, 집단, 개인은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1차 관리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형유산 종목이나 공동체 그리고 문화 간 서열화가 조장되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 협약의 이행은 무형유산에 관한 대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 협력에 있어서 지역적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최근 수년간 무형유산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유엔^{UN}은 2030년까지 달성할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를 설정하여 사회 전 부문에서 이들 목표의 성취를 독려하고 있다. 유네스코 또한 ‘무형유산은 문화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발전의 보장 수단’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중요한 무형유산인 ‘전통무예’ 또한 각 지역과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함께 발달해왔으며, 전 세계에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개의 무예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도, 태권도, 무예타이 등 극히 일부 무예만이 체계적인 지원과 자체 노력으로 제도권 내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세계적으로 많은 수련 인구를 보유하고 다양한

학문과 연계하여 연구되고 있으며 주류 무예이자 상업 스포츠로 발전했다. 이와는 달리 대다수의 무예는 열악한 상황 속에 도태되고 있으며 때로는 소멸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유네스코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한국 전통무예인 택견이 순수 무예로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이어서 브라질의 카포에이라, 카자흐스탄 쿠레시 등 다양한 무예가 무형유산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2018년에는 한국의 전통 레슬링인 ‘씨름’이 남북한 공동 이름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심신 수련과 자기 절제, 공동체 의식 함양 등의 가치를 내포하는 무예가 국가 간 교류와 화해의 매개로서 새롭게 주목받게 된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463개 중 무예가 14개 등재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무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무예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또한, 2017년 제6회 세계체육장관회의의 MINEPS에서 ‘카잔실행계획 Kazan Action Plan’이 마련되면서,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체육교육과 스포츠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카잔실행계획’은 모두를 위한 스포츠 및 체육 활동이 폭력에 저항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바탕임을 강조하였다. 무예와 스포츠의 밀접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 추구를

위한 도구로서 무예의 역할과 잠재성 또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실제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무예를 통한 청소년 발달’을 주제로 공동 연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의 출판은 스포츠, 체육 활동이 인류 평화를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자 권리임을 확인하고, 동시에 2003년 협약의 정신에 따라 전통무예의 문화유산 가치를 보존·증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세계 각지의 무예인, 학자, 문화유산 관련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기고자가 본 도서의 탄생에 기여했다. 이와 같은 노력과 관심이 무형유산으로서 전통무예의 보호와 전승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2020년 12월

금기형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박창현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사무총장



무형유산은 세대 간에 전승되어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유네스코는 무형유산을
문화 다양성의 원동력이자 지속가능발전의
보장 수단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전통무예는 인류의 무형유산으로
각 지역과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함께 발달해왔다.



지난 10여 년간 유네스코는
전통무예를 보존하고 진흥해왔으며
그 결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중
무예가 14개 등재되었다.



국제사회에서
무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무예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체육교육, 스포츠 그리고 무예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무예의 역할과 잠재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차례

| | |
|---------------------------------------|-----|
| 서문 | 004 |
| 01 2019 열린학교, 카포에이라의 무형유산 가치 전승 | 013 |
| 02 베트남 전통무예 박호의 도전 | 027 |
| 03 현대 일본의 지역, 국가, 국제 정체성 사이의 오키나와 가라테 | 042 |
| 04 하코쿠 유검도 연맹으로 본 브라질의 유도 | 059 |
| 05 중앙아시아 전통 레슬링 | 074 |
| 06 인도 케랄라주의 전통무예, 칼라리파야트 | 087 |
| 07 레온 사람, 레온 품성이 레온식 레슬링으로 나타나다 | 102 |
| 08 고대 상인 문화가 만든 중국 산시성의 심의권과 형의권 | 120 |
| 09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가는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 133 |
| 10 무예, 만남과 화해의 근본적 가치 | 148 |
| 11 선사스페인 시대 문화유산으로 통하는 관문, 멕시코 무예 실람 | 165 |
| 12 미얀마 타잉 | 183 |
| 13 넬라이칼라키 실람밤 | 202 |
| 14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 | 218 |
| 15 전통춤과 무예에 나타난 한국 신체문화의 보존 | 237 |
| 16 중국 마을의 종교 의례와 무예 수련 | 254 |
| 17 싱가포르의 말레이 무형유산 펜각실랏 | 268 |
| 18 태권도에 평화 연구 패러다임을 | 283 |
| 19 토착무예: 문화, 연속성, 투쟁 | 300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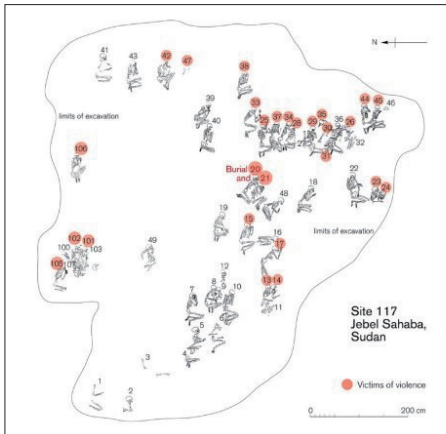
2019 열린학교,
카포에이라의
무형유산 가치 전승

오쿠니니 오바델레 캄본 Okunini Obadélé Kambon 박사

아프리카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자문위원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아프리카 무예, 카포에이라

최초의 인류인 아프리카인의 무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함블린 Hamblin에 따르면 “수단 북부 누비아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묘지 제벨 사하바Jebel Sahaba는 대략 1만 2000년에서 9000년 전으로 추정되며, 최초로 부족 간에 발생한 전투의 증거이다. 묘지 유적 117에서 발견된 59개 유골 중 절반의 뼈에서 석제 화살촉이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전투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치료한 상처가 여러 개 발견된 유골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전투가 여러 차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은 정확히 따지면 1만 3140년에서 1만 43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Graham, 2016). 현재 케냐의 나타룩에서 발굴된 또 다른 대




제벨 사하바 묘지 117 지도. 적색 표시가 잔인하게 살해된 유골을 가리킨다 ©대영 박물관

학살 유적지에서는 뭉툭한 도구, 날카로운 무기, 투사물 등으로 살해당한 시체 한 무더기가 발견되었다. “나타룩에서 발견된 형태가 온전한 12구 중 10구가 호숫가에서 끔찍하게 사망한 증거가 있었고, 호수로 추락한 경우도 있었다. 나타룩의 유해는 매장된 흔적이 없었지만, 호수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보존이 잘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다음 사실도 발견했다(Lahr 외,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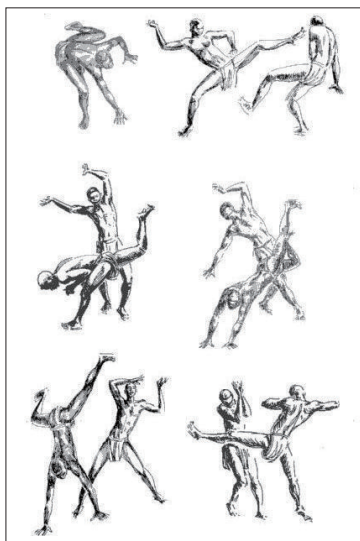


imAxw 프타호텝 무덤의 레슬링 장면(Romano, 2007)

다섯 또는 여섯 구에서 날카로운 힘에 의한 머리와 목의 상처가 보이는데 화살로 인한 상처로 추정되며, 다섯 구는 둔력에 의한 머리 상처가, 두 구는 사망 전 양쪽 무릎에 함몰 골절이, 두 구는 오른손에 골절 여러 개가, 한 구는 갈비뼈 골절이 보인다. 제자리에 있는 오직 두 구만이 사망 당시 상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지만, 손 위치를 볼 때 사망 당시 이 둘은 포박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아프리카 무예는 자기방어나 가족과 국가의 방어를 위한 훈련에서 탄생했다. 그러한 훈련의 초기 모습은  imAxw 프타호텝 Pthahotep 무덤에서 확인된다(Romano, 2007).

전통적으로 아프리카는 전쟁을 대비한 훈련과 자기방어를 위해 무예를 수련했다. 콩고어로는 키푸라, 킴분두어로는 앵골로라고 불리는 카포에이라capoeira도 그러하다. 카포에이라는 앙골라에서 처음 생겼다. 데쉬오비Desch-Obi에 따르면, 앵골로의 기술은 얼룩말이 싸우는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 치명적인 킥과 민첩한 방어술이 결합된 얼룩말의 기술은 앵골로의 관습과 관련이 있다. 네베스 이 소사Neves e Sousa는 앵골로가 얼룩말에서 이름을 따왔고 땅에 손을 짚고 날리는 킥은 얼룩말의 발차기를



네베스 이 소사(1965)가 기록한 앙골라의 앙골로. 얼룩말과 흡사한 역 발차기 장면이다.

직접적으로 모방했다고 주장한다. 땅에 손을 짚고 날리는 역 발차기는 앙골로뿐 아니라 앙골로에서 파생된 미국의 다른 무예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개성 있는 킥이다(Desch-Obi, 2008).

16세기 중반부터 많은 아프리카인이 무장한 포르투갈인에 잡혀 노예가 되어 브라질로 끌려갔는데, 이때 아프리카인의 전투 기술도 함께 가져간다. 1817년 치안 감독관 파울루 페르난데스 비아나Paulo Fernandes Viana가 언급한 아래 구절처럼 카포에이라라는 주로 탄압의 대상이었다.

휘파람을 불며 막대를 들고 도시를 배회하면서 대부분 특별한 목적도 없이 무질서를 초래하는자들

이 있다. 카포에이라라는 이름으로 유명한데, 이러한 자 모두에게 똑같이 300대와 3개월 강제 노역의 형벌을 내리며, 상해, 사망이나 기타 범죄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러하다. (Assunção, 2004)

탈몽 시바시에르Talmon-Chvacier(2008)는 1889년 12월 10일자 ‘시다지 두 리우Cidade do Rio’ 발표를 언급했다.

카포에이라라는 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끔찍한 악이다. 군주의 보안대에 서 카포에이라를 탄압하고 카포에이라 수련자를 투옥했다. 언제나 ‘모범 행위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2~3일 투옥했다. 풀려난 카포에이라 수련자는 비밀경찰에게 포섭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국가적 탄압과 낙인은 브라질의 바히아주 주지사 주라시 마갈랑이스Juracy Magalhães가 카포에이라 사범 “빔바Bimba를 주지사 공으로



빔바 사범(좌)과 파스티냐 사범(우) (파르세이루, 2020)

초청해 비공개로 시연을 감상한 1936년경까지 지속되었다”(Assunção, 2004). 이어 아순상 Assunção은 해금 解禁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얼마 되지 않아 1937년 7월 9일 교육감이 빔바 사범을 체육 지도자로 인정하고 토로로 소재 도장에 바히아주 교육·보건·사회보장부에 등재된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해금되었다. … 그 뒤 국가적 차원에서 카포에이라가 재연되었다. 1953년 7월 23일 빔바는 재선에 당선된 대통령 제툴리우 바르가스 Getúlio Vargas(1951~1954 재임)를 만났다. 대통령은 이때 “카포에이라가 유일하게 진정한 국민 스포츠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카포에이라에 대한 민족주의적 담화가 최절정에 달했다.

카포에이라 합법화에 뒤이어, 또 다른 중요한 장인, 파스티냐 사범은 “1949년… 드디어 카포에이라 앙골라센터를 설립했고, 1952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Talmon-Chvaicer, 2008).

그 뒤 카포에이라는 대중문화 측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코르당 지 오로 Cordão de Ouro」(1977), 「온리 더 스트롱 Only the Strong」(1993), 「옹박

-두 번째 미션 The Protector」(2005), 「베수로 Besouro」(2009), 「언디스퓨티드 3 Undisputed III: Redemption」(2010) 등의 영화와 첼권 시리즈(에디 골드와 크리스티 몬테이로), 스트리트 파이터 III(엘레나) 등의 게임에 출연했다. 현장의 수많은 장인과 수련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더불어, 매체를 통한 많은 노출의 결과 수천 명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한 카포에이라 집단이 전 세계에 세워졌다. 대표적인 곳으로 아바다, 코르당 지 오로, 센잘라, 무젠자, 아세 카포에이라, 카포에이라 브라질이 있다. 아이러니하게 카포에이라가 아프리카에 기원을 둔 무예이지만 카포에이라 집단 중 많은 곳의 리더가 비아프리카인이고, 특히 유라시아, 호주, 북미 등 여러 지역 비아프리카인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카포에이라 자체가 완성되는 주요 사건 중 하나는 카포에이라가 진정한 고향이자 탄생지인 아프리카로 귀환한 것이다. 카포에이라가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앙골라, 세네갈, 토고, 콩고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베냉,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말리, 모잠비크, 기니비사우에 돌아왔다. 그리고 가나 카포에이라의 선봉에는 2009년 창설된 아비비파호디 카포에이라 Abibifahodie Capoeira가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 개최한 2019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카포에이라 열린학교를 통해 카포에이라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설파한 아비비파호디 카포에이라 www.abibifahodie.com의 역할을 살펴보려 한다.

2019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열린학교: 카포에이라의 무형유산 가치 알리기

아프리카 대륙과 이주민들이 보여주는 여러 아프리카 무예와 마찬가지로 카포에이라도 공격력과 방어력 향상을 위해 춤 같은 동작을 전투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카포에이라는 '아프리카인=흑

인'의 세계관에 근거하여 신체적 요소(곡예, 무예, 춤), 음악적 요소(북, 노래), 철학적 요소(문화, 의례)를 통합한다. 열린학교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 모든 측면에서 카포에이라의 기본 원칙을 배웠으며, 이는 유네스코가 정의한 무형유산, 즉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된 풍부한 지식과 기술에 해당한다. 무형유산을 전수하기 위해 열린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목표를 세웠다.

- ① 공동체 정신 함양(집단에서 서로 돕고 함께 훈련하고 학습한다)
- ② 카포에이라의 신체적 요소를 배우는 재미있는 환경 조성(연계, 호다(카포에이라의 원형), 음악, 리듬, 곡예 등)
- ③ 음악과 영상으로 카포에이라 관련 언어, 노래, 이야기, 철학 등 아프리카 문화 소개

카포에이라 열린학교 교육 모델

교육팀은 필자인 오쿠니니 오바텔레 캄본, 크와베나 단소, 니 아르마 이렇게 셋이었다. 크와베나는 아비비파호디 카포에이라에서 2009년부터 수련을 시작했고, 니 아르마는 2015년부터 카포에이라 수련을 시작했다. 우리는 먼저 학생들이 어떤 구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열린학교를 시작했다.

개별 학생이 마음을 열고 카포에이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평가를 추가했다. 카포에이라를 수련하거나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들어본 적은 있는지 조사했다. 과거에 비아프리카 무술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도 물어보았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신체적, 철학적, 음악적 측면 등 카포에이라의 다양한 측면을 포용할 수 있게 마음이 열린 상태를 말한다. 또한 카포에이라 악기, 물건, 공예품을 소개해 학생들이 무형유산의

유형적 측면도 일부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카포에이라 열린학교는 2019년 6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6주 동안 진행되었다. 결과는 대단했다. 수업에서 세 가지 루틴을 제공했는데, 각 루틴은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 영적 측면을 강조했다. 무형유산으로서 카포에이라의 전인적 습득을 강조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아사코 Asako 아프리카인=흑인 무술 카포에이라’ 교육에서 학생들은 킥과 펀치를 막으려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배웠다. 공격을 피해서 반격 태세를 갖추도록 배웠는데,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이 접근법을 굉장히 빨리 이해했다. 이는 다시 적합성의 문제로 돌아간다. ‘적시에 적합한 조치 취하기’는 카포에이라 핵심 가치 중 하나로 다른 아프리카 무예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공격받지 않으면서 공격을 가하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에 따라 적을 유인하는 속임수를 쓰는 주요한 방법이다. 카포에이라 연행을 몇 번 본 후 학생들은 이 원칙을 이해하고 체화하여, 아프리카 무예에 대한 접근법으로 받아들였다. 무형유산으로서 카포에이라의 전승을 실제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었다.

교육 진행자는 학생들의 동작과 원칙을 항상 평가하면서 지도했으며, 한편으로 학생들이 자기 평가와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이 끝날 때쯤 일부 시간을 할애했다. 자기평가와 성찰은 교육 진행자가 전하는 무형

테마왕립학교에서 카포에이라 영상을 보여주는 오키키니 캄본
©오키키니 오바멜레 캄본



니마에서 트위어로 아사코 음악과 악기를 지도하는 오키키니 캄본 ©오키키니 오바멜레 캄본





니마에서 최종 시연을 하는 오푸니니 캄본과 학생들 ©오푸니니 오버멜레 캄본

유산의 내면화 과정으로 성장과 발전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스스로 성찰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학습 동기를 부여하며, 문제 행동, (반)사회적 행동, 비생산적인 태도 등을 교정해나갈 수 있다.

학생들은 카포에이라의 역사뿐 아니라 전반적인 고대 아프리카 무예를 다룬 다큐멘터리와 짧은 영상을 감상했다. 이 프로그램은 열린학교의 구체적인 목표에 명시된 정신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에 관한 기대에도 부합한다. 또한 베림바우(한 줄로 이루어진 활악기), 아고고(카우벨), 카시시(셰이커), 헤쿠헤쿠(패인 홈을 긁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 아타바키(북) 등의 악기를 사용하여 카포에이라 음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참여시켜 카포에이라의 영적, 정신적 측면도 강조했다. 카포에이라의 노래는 카포에이라 및 그 기원과 역사와 전통문화를 탐구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열린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 세기에 걸쳐 전승된 조상의 무예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카포에이라와 그 기원을 소개하였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이 바로 무형유산 전승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니마 스프레드아웃이니셔티브에서 어린이를 지도하는 오키니니 캄본 ©오키니니 오바멜레 캄본

무엇보다 가장 뿌듯한 결과는 2019년 8월 2일 니마에서 개최한 폐회식에서 두 학교 학생들이 모여 그동안 배운 내용을 공개적으로 시연한 것이다. 허가를 받아 주요 간선도로를 통제했다. 이 행사는 니마 국회의 원뿐 아니라 저명한 종교인과 고위 관료 들의 축하를 받았다.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담당자도 동행하여 행사에 참여했다. 시연은 여러 형식으로 진행됐다. 각 구역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 연행할 루틴 연속 동작을 지정해줬다. 폐회식에서 학생들이 이 루틴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연행하자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번호마다 동작을 지정하고 해당 번호를 부르면 그 동작을 하도록 지시했다. 그다음으로 학생들은 곡예를 선보였다. 그리고 두 지역의 학생들이 서로 대련하는 가벼운 몸싸움, 호다로 이어졌다. 의미 있는 사건은

우리가 카포에이라 열린학교, 그중에서도 폐회식 영상을 제작한 것이다. 학생들은 열린학교 수료증을 받았고, 처음에 티셔츠를 받지 못한 학생에게는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가 티셔츠를 선물했다.

카포에이라 그리고 그 음악, 역사, 이론, 수련을 접하다

종합하면 열린학교는 여러 측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그중 하나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역량을 강화한 점이다. 이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어온 스승을 본받을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아가 열린학교 프로그램은 종료됐지만, 교사는 학생을 체육 수업에 참여시키고, 학생이 카포에이라를 수련할 때 학생의 동작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다.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프리카 내 다른 지역의 무예를 배울 수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 전승에 일조했다.

무엇보다 여학생에게 남학생과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 점이 중요하다. 이는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가 명시한 목표인 ‘체육교육과 훈련을 통한 청소년과 여성의 신체·정서 발달 및 리더십 능력과 공동체 참여 향상에 기여’와도 일치한다. 최종적으로 분석하면, 아비비파호디 카포에이라의 전문가와 지도자가 심사숙고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목적이 달성되었다.

2019년 8월 2일 니마에서 조직한 행사와 같은 프로그램이 향후 개최될 열린학교 폐회식에 정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자 한다. 무형유산 전승에 필요한 공동체 참여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이다. 니마 축제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었고, 평소에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공공장소, 즉 혼잡한 도로에서 열렸기에 공동체는 폐회식을 지켜보고 참가할 수 있었다. 이로써 공동체 이해당사자는 스스로를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에 관한 증거는



오쿠니니 캄본이 크와베나 단소, 니 아라마 교사와 함께 열린학교 참가 어린이에게 증명서를 수여하고 있다. ©오쿠니니 오바델레 캄본

니마 카포에이라 축제 주최와 관련된 국회의원의 제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주요 고속도로를 통제하면 전체 공동체가 훈련, 수업, 호다 대련과 기타 관련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공동체의 개입이나 참여 없이 모든 사항이 막후에서 결정되었다면 위와 같은 계획을 제안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열린학교가 종료될 때까지 학생들에게 스트레칭, 준비 운동, 강화 훈련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또한 징가(카포에이라의 기본 스텝), 이스키바(세 가지 유형의 피하기), 발차기(마르텔로, 벤상 등 다이렉트 킥과 돌려 차는 메이아 루아), 곡예(엎 돌기 뒤, 몸을 낮추는 마카쿠 자세 등)도 지도했다. 이 외에도, 전체를 호다에 참여시켜서 공동체 정신을 함께 함양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공조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에서 확실하게 나타났다. 폐회식에서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두 학교가 함께 참가하여 학생들은 고립되지 않고 큰 학생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중에서도 모두가 원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폐회식

에서 특히 잘 나타났다. 모든 학생이 원 안에서 경기하고, 연주하고, 박수치고, 노래를 불렀다. 2019 카포에이라 열린학교는 모든 측면에서 무형유산 전승과 일맥상통한다. 단연코 말하건대 열린학교가 없었다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카포에이라와 그 음악, 역사, 이론, 수련을 접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무예의 가치를 전승하기 위해

결론적으로, 가나에서 개최된 제3회 열린학교는 대성공이었다. 수료증을 받은 아이들은 평생 단 한 번 가질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명히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것이다. 학생 평가 내용에 따르면 테마로얄스쿨(Tema Royal School)과 니마 스프레드아웃이니셔티브(Spread Out Initiative)는 모두 이번 프로그램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상대적으로 짧은 프로젝트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발전이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카포에이라 열린학교는 학생들이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다. 부족한 예산이지만 다양한 지역의 수많은 아이들에게 성공적인 영향을 미치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

카포에이라의 철학, 기술, 문화적 가치와 정신, 그리고 음악, 역사 등 그 무형유산적 가치를 지도하겠다는 우리의 목표가 달성됐다고 확신한다. 학생들은 모든 학습 영역에서 이해 수준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학생들이 카포에이라를 전체적으로 경험하면서 카포에이라에 관한 관심과 열정도 확실히 높아졌다.

요약하면 2019 열린학교는 분명히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고, 향후 독특하고 소외된 무예 무형유산이 아프리카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보존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 Assunção, M. R. (2004). *Capoeira: The History of an Afro-Brazilian Martial Art*. London: Routledge.
- Desch-Obi, T. J. (2008). *Fighting for Honor: The History of African Martial Art Traditions in the Atlantic World*. Columbia,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Graham, K. (2016). "Evidence of earliest massacre found dates back 10,000 years." [Online] *Digital Journal*, January 21. Available at www.digitaljournal.com/science/evidence-of-earliest-massacre-found-dates-back-10-000-years/article/455457#ixzz67UOA6uJY (accessed December 26, 2019).
- Hamblin, W. J. (2006). *Warfare in the Ancient Near East to 1600 BC: Holy Warriors at the Dawn of History*.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ambon, O. (2018). "Afrikan combat forms hidden in plain sight: Engolo/Capoeira, knocking-and-kicking and Asafo flag dancing." *Africology: Journal of Pan African Studies*, 12(4), 327–363.
- Kent, R. K. (1965). "Palmares: an African state in Brazil." *Journal of African History*, 6, 161–175.
- Lahr, M. M. et al. (2016). "Inter-group violence among early Holocene hunter-gatherers of West Turkana, Kenya." *Nature*, 529, 394–398.
- Neves e Sousa, A. (1965). *Da minha África e do Brasil que eu vi*. Luanda: CITA.
- Pakleppa, R., Assunção, M. R., Peçanha, C., and Dettmann, C. (dirs) (2013). *Jogo de Corpo: Capoeira e Ancestralidade* [Body Games: Capoeira and Ancestry]. [Film] Distributed by University of Essex.
- Parceiro, G. (2020). "Mestre Bimba e Mestre Pastinha." [Online] *Pinterest*. Available at www.pinterest.com/pin/396457573423731666/ (accessed August 12, 2020).
- Powe, E. L. (2002). *Capoeira and Congo*. Madison: Dan Aiki Publications.
- Romano, D. (2007). Sculpted Relief of Boys Wrestling Tomb of Vizier Ptahhotep, Saqqara, 2300 B.C. (5th Dynasty). [Online] [upenn.edu](http://web-facstaff.sas.upenn.edu/~dromano//classes/ancient_athletics/2007/03f.html). Available at http://web-facstaff.sas.upenn.edu/~dromano//classes/ancient_athletics/2007/03f.html (accessed August 10, 2020).
- Talmon-Chvaicer, M. (2008). *The Hidden History of Capoeira*.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02

베트남 전통무예 박호의 도전

응우옌끼남 Nguyen Ky Nam

베트남 하노이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짚반중 Tran Van Dung

베트남 투아티엔후에성 문화체육부

베트남 고유 무예 박호를 만나다

2019년 9월 비 오는 오후, 필자는 흐엉강변의 후에시에 도착하였다. 여
기서 한 달여 동안 ‘후에 복합지구’의 보존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었다. 한
친구가 박호Bach Ho(흰 호랑이라는 뜻) 사범과 함께 동네 술집에서 필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60대 남자로 검정색 무예복을 입고 있었다. 우
리는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최근 후에시에서 벌이는 보존사업과 지역 경
관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고, 그 사범은 박호의 역사와 박호 전
성기(1960~2000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건강을 증진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자신과 조국을 보호하
기 위해 무예를 개발해왔다. 연구원 반중이 강조했듯이 “무예는 이 나
라의 역사에 영광스러운 흔적을 남겼으며, 결연한 정신과 지칠 줄 모르
는 투쟁, 죽음과 고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자 사람들의 창조적인 정신
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무예의 철학은 ‘진선미’로, 무예를 통해 신체를
단련하고 체력을 키우며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
한 정신을 길러 베트남의 문화와 품격을 발전시키고자 한다(Van Dung
외, 2017). 베트남 고유의 무예 양식이 존재하지만, 여러 문명이 교차하
는 자리에 위치한 덕분에 쿵후, 가라테, 유도, 아이키도, 태권도 등 중국,
한국, 일본의 다양한 무예를 흡수했다(Van Dung 외, 2016). 관련 산업의
엄청난 성장과 함께 무예는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교육적 가치와 오락의
기능도 가지면서 스포츠와 신체활동 관련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
다(Ko 외, 2010).

후에시는 베트남의 마지막 봉건사회인 응우옌 왕조(1802~1945)의 본거지로 베트남에서 가장 큰 무예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응우옌 왕조는 근접 지역의 경쟁 세력들과 싸우고 서구의 식민주의, 특히 프랑스의 침략에 대항했다(Odell & Castillo, 2008). 따라서 무예로 신체를 단련하는 일이 권장되었고 전국적인 무예 대회를 조직하여 최고의 인재를 선발했다(Le, 2020). 많은 사찰의 돌기둥에 사범들의 이름을 새겨넣어 그 기술과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후에시 전통무예협회에서 비엠티도 Viet Vo dao, 박호 Bach Ho, 응아미 Nga My, 티엔묵손 Tien Muc Son, 티에우바오 Thieu Bao, 남손 Nam Son, 하우꾸엔다오 Hau Quyen dao, 티에우람반안 Thieu Lam Van An, 킨반안 Kinh Van An 등 무예 15종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베트남 무예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다른 나라의 무예에 기원을 두었지만, 박호는 후에시에서 가장 보편적인 베트남 고유 무예의 한 종류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다른 무예에 비해 박호의 위상이 크게 쇠락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맥락에서 박호의 중요성을 밝히고 전승 과정의 어려움을 탐구하는 것이다. 또한 후대를 위한 무형유산으로서 박호를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투아티엔후에성 전통무예협회의 대표자들, 무예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했다. 특히 박호 사범과 수련생 모두와 관계를 구축했다. 우리는 6개월 동안 다양한 경력의 사범들과 여러 연령대 및 숙련도의 수련생들을 관찰하고, 그들과 교류하고 인터뷰하면서 무예 훈련에 매일 몇 시간씩 참여했다. 또한 후에성 문화체육부, 후에성 전통무예협회, 베트남 전통무예연맹, 무예연구자 등과도 인터뷰를 진행하며 연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일부 특정 식별자는 제외했고, 참가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도적인 학자와 연구자들이 쓴 책, 학술논문, 참고 문헌에서부터 베트남 전통무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출판한 잡지, 웹사이트, 팸플릿 등 비학문 분야의 출판물에



지에우제 수련원에서 박호를 수련하는 모습 ©응우옌끼남, 판반중

이르기까지 무예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연구했다.

박호의 찬란한 과거 vs. 암울한 현재

응우옌후우까인 Nguyen Huu Canh(1650~1700)은 응우옌푹쭈 Nguyen Phuc Chu 군주 아래 있던 장군으로 박호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박호는 19세기 대중들에게 알려져 빠르게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프랑스 식민지 저항운동을 벌인 20세기에 널리 퍼졌다. 투아티엔후에성 전통무예협회 회장인 응우옌반안 Nguyen Van Anh 사범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호의 기원이 왕족에 있음을 확인했다.

응우옌 왕조 시대에 실시된 무예 시험을 떠올리면, 몇몇 시험은 박호와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응우옌 왕조가 궁정을 수호하는 무관을 선발할 때 박호를 많이 활용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박호는 이론과

실기 시험이 가능했기에 왕실 무예로 명명될 수 있었어요.

박호는 처음에는 주로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에게 전수되었다. 프랑스 식민지하에서는 무예 활동에 참여하는 일이 금지되었지만, 지지자들은 비밀리에 이 혁신적인 무예의 명맥을 이어갔다.

프랑스인들이 박호 연습을 금했기 때문에 베트남인들은 새로운 연습 방식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낮 대신 밤에 무예를 연습할 수 있었어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묵독의 방식으로 무예의 다양한 형태와 자세, 동작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박호 사범, 45세)

명장 가문이 20대째로 이어질 무렵, 박호는 대중들에게 전파되어 더 많은 인기를 얻었다. 1960년대와 2000년대 초 사이에 박호는 베트남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대중적인 무예로 손꼽혔으며 수련생이 수천 명에 달했다. 주



짬까오반에서 티엣쏘아(청동으로 특별 제작한 둥근 형태의 도구)를 수련하는 모습 ©응우옌끼남, 짬반중

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박호의 다양성인데, 응옥짬Ngoc Tran, 라오마이 Lao Mai, 티엣쏘아Thiet xoa, 시에우쑹티엔Sieu xung thien, 탄중Than Dong, 씸씨Xam Xi, 송다오Song Dao, 타오파Thao Phap, 하이암타오파Hai Am Thao Phap 등이 그 예이다. 라오마이(올드 애플리콧)는 단단하지만 유연한 식물 올드 애플리콧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라오마이의 무예 동작은 단순하지만 효율적이다. 시에우쑹티엔은 전투에서 장군이 사용하는 커다란 칼 마체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 이런 스타일은 수련생이 마체테



맨손으로 박호를 겨루는 수련생들 ©응우옌끼남, 째반중

사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무기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 이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기본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박호의 원칙은 자신의 강점을 살려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며, 무예 스타일은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박호는 몸집이 작지만 몸동작이 기민한 베트남 사람들에게 적합하기에 진정한 베트남 무예로 평가받는다. 박호는 상대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등 상대 신체의 가장 취약한 곳을 노리는 공격 기술에 집중한다. 이 공격 기술은 손동작을 넓은 범위로 활용하는데, 호랑이의 발짓을 흉내 내는 것이다. 또한 검, 칼, 마체테, 긴 막대기 등의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박호의 두 가지 훈련 유형은 맨손이나 무기를 사용하는 단일 형태(싱글 폼)와 두 명의 선수가 방어하거나 무기로 공격하는 이중 형태(듀얼 폼)이다. 박호의 핵심 가치는 오랫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박호는 수련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무예였다. 이런 가치는 여러 사범, 훈련생들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졌다. 그중 한 사범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호를 수련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태도와 품행을 수련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방어의 형태로 자신을 지키고 긴장을 풀어 학업과 일의 능력을 올리는 것이죠. 셋째는 벗과 스승을 사귀어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호 사범, 35세)



긴 막대기와 검으로 박호를 시연하는 모습 ©응우옌끼남, 째반중



지에우제 수련원에서 검을 사용 중인 박호 수련생들 ©응우옌끼남, 째반중

한 수련생이 박호 무예 덕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건강해졌다고 말한다.

이 무예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저는 매우 왜소하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수련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층 더 건강해진 기분입니다. 게다가 박호를 배우면서 학업과 삶에서 만나는 장애물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샘솟는 것 같아요. 저는 사관학교에 갈 생각인데, 그래서 무예를 배우고 수련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남성 수련생, 16세)

박호의 또 다른 효과는 수련생들이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한 박호 명장이 지적했듯이, 무예를 수련하다보면 부상은 일상이다.

박호나 다른 무예를 수련하는 동안 수련생들이 부상에 시달리는 일이 많아요. ... 저도 박호를 업으로 삼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부상으로 고생했습니다. 골절이나 염좌, 허리 통증 등의 가벼운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침술도 배웠죠. 뼈나 관절 부상의 경우에는 허브, 나무껍질, 식물뿌리 등으로 만든 전통약재로 증상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박호 명장 레반뚜옌)

영광스러운 과거와 달리 현재는 박호의 위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2000년 이후부터 베트남에서 박호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졌다. 오늘날 후에시에는 지에우제 Dieu De, 찰까오반 Tran Cao Van 두 곳의 박호 수련원과 약 200명의 수련생이 있다. 박호의 인기가 절정이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급격한 쇠락이다. 또 다른 부정적인 현상은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수련생이 박호를 잠깐 배우다가 바로 새로운 무예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박호의 전통을 이어가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박호의 도전

박호 명장, 사범, 수련생, 감독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후에시와 다른 베트남 지역에서 박호가 보다 많은 수련생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의 응답을 분석해보면, 일상의 부담, 세계화의 영향, 구식 사고방식의 세 가지가 주된 요인이었다.

일상의 부담

인터뷰에 응한 다섯 명의 박호 사범은 전에는 지에우제 수련원에서 풀타임으로 일했지만 현재는 운전기사, 신발 제작 기술자, 건설노동자 등

으로 일하며 추가 수입을 올려야 한다. 이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박호를 가르치는 일로 버는 돈은 아주 적다고 했다. 그리고 다수가 청소년들에게 무예를 전수하고 싶어도 정부나 문화재단, 지역협회 등의 지원이 없어서 어렵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사범의 상당수는 후대에 무예를 전수하려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한 사범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박호 가르치는 일로는 돈 벌기가 힘들어요. 저는 현재 버스기사로 거의 매일 베트남 북부에서 남부까지 운전하고 있습니다. 일이 몹시 고되고 체력을 많이 요해요. 이렇게 해야 다섯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버스기사 일이 없을 때는 혼자 무예 연습을 해요. 사범 일을 그만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였죠. (수석사범, 52세)

20년 넘게 무예를 가르친 박호 수석사범은 이렇게 말한다.

박호 사범을 그만두는 일은 제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만두면서 상심이 컸죠. 딸아이가 병에 걸려서 치료비를 대고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신발 만드는 일을 시작했는데, 주 고객은 후에성의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그리 오래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박호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남은 시간이 거의 없었고 딸아子和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수석사범, 48세)

세계화의 영향

세계화는 “차별화되어 있지만 통합적인 자회사, 계열사, 제휴사, 협회의 네트워크를 관리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단일한 세계의 전략에 통합하는 관리 프로세스”다(Tallman & Fladmoe-Lindquist, 2002).

세계화의 관점에서는 세계가 다양한 능력과 전략, 자원을 필요로 하는 단일시장이다. 무예의 경우 세계화를 통해 전 세계에서 레크리에이션, 아마추어, 전문가 수준에서 더 많이 장려될 뿐만 아니라 인식의 범위도 넓혔다(Ko, 2003). 또한 전통무예가 경쟁 위주의 스포츠로 전환한 것은 현대무예의 성장과 인기에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 세계화는 비즈니스 환경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무예의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장 분명한 문제 중 하나는 베트남 전통무예, 특히 박호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으로 세계화 덕분에 전통무예가 비전통적 영역과 지역에 새롭게 알려질 기회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 최근 서양에서는 ‘진정한’ 베트남 전통 무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국인 베트남에서는 그런 ‘진정성’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죠. (후에시 전통무예협회 수석사범)

후에시 문화체육부에서 15년여 동안 지역의 무형유산을 위해 일한 담당자가 젊은이들이 현대무예에 갖는 관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1990년대부터 우슈, 가라테, 태권도, 기타 현대무예가 베트남에 소개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무예들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동남아시아 경기 대회의 스포츠 종목으로 인정되기에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이 많아요. 게다가 이런 무예들은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었고 배우려는 사람도 많아요. 결과적으로 많은 청년이 전통무예 대신 현대무예를 택한 것이죠. (헤리티지 감독, 40세)

또 다른 박호 수석사범은 전통무예와 현대무예를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 전통무예와 달리 우슈, 가라테, 태권도 등을 배우는 사람은 분명하고 예측 및 비교 가능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전통무예인 가라테나 태권도를 배우는 학생의 수로 볼 때, 박호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까닭은 그것이 전통무예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보다 가라테나 태권도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논리적인 구조, 성형적 궤적, 표준화 등 현대적 특성을 갖기 때문이죠. 전통무예는 근대성의 특성으로 손꼽히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논리나 합리성이 부족하여 다른 전통무예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수석사범, 48세)

구식 사고방식

많은 명장과 수석사범이 가르치는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다음은 한 수석사범의 말이다.

저는 선조들을 따라 박호의 핵심 가치를 사수하고 수련생을 특정한 방식으로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시류에 맞게 변형하려는 노력이 전통무예를 지키려는 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수 과정은 가치관을 함양하고 인격을 기르는 과정으로 이것 없이는 무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호 수석사범, 52세)

무예를 습득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초보적인 수준에서 고수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흰띠에서 빨간 띠, 노란띠, 녹색띠를 거쳐 마침내 검은띠를 따기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으며, 각 단계에서 수련생은 진급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 사범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호 진급 시험 ©응우옌끼남, 판반중

100명의 학생 중에 무예를 완벽히 습득하는 경우는 서너 명에 불과합니다. 무예를 익히는 일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몇 년의 헌신과 의지, 희생을 요하기도 합니다. 2~3년 정도 배운 사람에게 무예를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것이 전통문화요 베트남 전통무예입니다. (박호 사범, 45세)

박호를 후예시 관광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묻자 한 수석사범이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답했다.

전통무예를 관광상품으로 만들면 전반적으로 수련의 질이 떨어질 거예요. 무대 위에서 공연할 목적으로 배운다면 수련생이 실용적인 기술을 습득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무예의 정신에 위배되는 새로운 요소들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박호 수석사범, 55세)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베트남 전통무예 특히 박호의 경우 전수의 관점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다. 여러 명장, 후에시 전통무예협회 대표, 무형유산 담당자 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가치 있는 무형유산으로서 무예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다. 후에시에서 가장 대중적인 무예 중 하나인 킨반안(Kinh Van An) 무예의 명장이자 후에시 전통무예협회의 임원인 주옹광킴(Truong Quang Kim)은 베트남 무예의 마케팅과 홍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 여행을 갈 때마다 무예 공연을 즐겨보며, 중국 본토에 가까울수록 전통무예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실례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베트남은 아직 이런 일에 착수하지 않았다. 2년마다 타이손(Tay Son) 전통무예를 개최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베트남 전통무예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큰 규모의 행사가 더 필요하다.”

주옹광킴은 또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킨반안 무예를 홍보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이용한 자신의 경험을 밝혔다. 그는 후에시 문화체육부와 협력하여 관광상품을 만들고 선보이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예 공연을 진행하는 것이다. “무예 공연은 보통 20개 활동으로 30~40분 정도 걸리며 미화 75~83달러 정도를 벌어들인다.” “베트남 전통무예를 상품화하려면 우리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 참여해야 한다”라며 세계적인 무예 행사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베트남 전통무예에 대해 알게 되고, 이를 보기 위해 베트남을 찾을 것이다. 또 훈련 장소에 충분한 훈련 도구와 값비싼 자료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호 사범뿐만 아니라 명장도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전통무예연맹의 한 관계자는 “무예의 거장들이 시대에 맞게 변해야 무예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달리의 연구와

일치한다(Daly, 2012). 이를 위해 박호의 핵심 메커니즘과 이론을 새롭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없애서 수련자들의 요구와 바람을 충족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또 다른 전통 무예 보비남Vovinam의 경우가 베트남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베트남 무예를 전수하기 위한 전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 또한 무예 보존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책을 필요로 하는데, 명장과 사범들이 무예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남 전통무예의 관점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요컨대 박호의 이점과 실질적 함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오랫동안 사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안타깝게도 여러 어려움 때문에 박호가 예전처럼 널리 전수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대의 무예와 비교하여 베트남 전통무예가 처한 상황이다. 박호가 하루빨리 변화에 적응하고, 현대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Daly, P. (2012). "Fighting modernity: traditional Chinese martial arts and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P. Daly and T. Winter (eds), *Routledge Handbook of Heritage in Asia*, pp. 361–374. London: Routledge.
- Ko, Y. (2003). "Martial arts marketing: putting the customer first." *Journal of Asian Martial Arts*, 12(2), 9–15.
- Ko, Y. J., Kim, Y. K., and Valacich, J. (2010). "Martial arts participation: consumer moti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Marketing and Sponsorship*, 11(2), 2–20.
- Ko, Y. J. and Yang, J. B. (2008). "The globalization of martial arts the change of rules for new markets." *Journal of Asian Martial Arts*, 17(4), 8–19. Available at https://go.gale.com/ps/i.do?id=GALE%7CA234936349&sid=googleScholar&v=2.1&it=r&linkaccess=fulltext&issn=10578358&p=AONE&sw=w&casa_token=IXAFssuM9aMAAAAA:tKWgwdJRJEAg2t9ZhP7EE1IQm2duBNk9J5DBN3VRC8PlxzXxLNH_-3_VE30h6WwKBYOW8EhvB28 (accessed May 15, 2020).
- Le, Chung (2020). Gặp gia đình võ sư 5 đời giữ lửa cho võ cung đình [Meeting with the master whose family taking care of the royal martial arts for five generations]. [Online] Available at <https://soha.vn/gap-gia-dinh-vo-su-5-doi-giu-lua-cho-vo-cung-dinh-hue-20200130212334683.htm> (accessed April 10, 2020).
- Odell, A. L. and Castillo, M. F. (2008). "Vietnam in a nutshell: an historical, political and commercial overview." *International Law Practicum*, 21(2), 82–91.
- Tallman, S. and Fladmoe-Lindquist, K. (2002), "Internationalization, globalization, and capability-based strategy."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45(1), 116–135.
- Thua Thien Hue Online (2016). Người phụ nữ duy nhất được truyền dạy Bạch hổ sơn quân [The only woman was taught Bach ho martial arts]. [Online] Available at <https://baothuathienhue.vn/nguoi-phu-nu-duy-nhat-duoc-truyen-day-bach-ho-son-quan-a23435.html> (accessed April 10, 2020).
- Van Dung, V., My, P. T., and Vy, B. T. K. (2017). "Core values of Vietnam Vo thuât co truyen." *Europ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3), 27–37.
- Van Dung, V., Vy, B. T. K., and My, P. T. (2016). "The role of Vovinam in the life of Vietnamese people." *Europ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2), 69–82.

03

현대 일본의
지역, 국가, 국제 정체성 사이의
오키나와 가라테

에두아르도 곤잘레스 드 라푸엔테 Eduardo Gonzalez de la Fuente
스페인 바르셀로나자치대학교

안드레아스 니에하우스 Andreas Niehaus
벨기에 겐트대학교

가라테, 오키나와섬에서 시작되다

일반적으로 가라테는 오키나와섬에서 발달한 일본 전통무예로 여겨진다. 오키나와는 1879년까지 독립국가 류큐 왕국(1429~1879)으로, 일본, 중국, 한국 및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외교, 문화, 경제적 관계를 맺고 이들 국가와 중계 무역으로 번성했다. ‘손(ti/te)’ 또는 ‘중국 손(tōdī/tōde)’으로 알려진 가라테는 오키나와의 토착 격투 체계와 중국 및 아시아 여러 지역의 무술, 세계관, 민속 정신이 오키나와 사회에 뿌리를 내리면서 만들어졌다. 현재의 가라테는 무기 없이 주먹과 발차기를 사용하는 무예이다. 오키나와현에서는 가라테의 역사, 사회, 문화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1990년대부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가라테는 2021년에 도쿄올림픽 전시 종목으로도 데뷔할 예정이다. 세계가라테연맹 WKF, World Karate Federation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이 가라테를 수련한다. 가라테는 스포츠 종목으로서 면모를 훌쩍 뛰어넘어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 문화 아이콘으로, 세계 스포츠 문화의 일부가 되어 일본의 문화 수출품으로 자리매김했다.

가라테의 스포츠화와 군사화

1879년, 오키나와는 일본에 병합되어 오키나와현이 되었다. 그리고 쇼토칸 가라테의 창시자인 후나코시 기친(1868~1957)이 20세기 초에 오키



1937년 슈리성에서 슈리시 초등학교 남녀학생들의 가라테 시연
 ©공수도대관(空手道大観), 1938. 나카소네 겐와

나와 가라테를 일본 본토에 소개했다. 후나코시는 1916년 교토 무덕전(武徳殿)에서 가라테를 선보이고 1922년 도쿄에서 열린 최초의 체육 시연회에 초청받아 가라테를 연행했다. 이듬해 후나코시는 일본 본토의 학교와 대학 등에서 가라테를 대중화하는 데 성공한다(Bittmann, 1999). 그러나 일본에 소개된 가라테는 다른 현대화

된 일본 스포츠 무예, 특히 유도과 검도의 영향을 받아 스포츠화 및 군사화 과정을 거친다(Nakatani 외., 2008). 가라테의 무예와 철학이 20세기 초 일본 본토의 정치, 문화, 이념의 틀에 맞추어 변형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일본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일본의 무예, 스포츠, 체육교육은 전국적으로 획일화(Gleichschaltung) 정책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충성스럽고 애국적인 시민을 양성하고, 불굴의 투지를 가진 병역을 준비시키는 도구로 활용되었다(Abe 외., 1992; Bennett, 2013).

패턴 운동인 ‘가타’에 중점을 두었던 가라테는 점점 더 스파링 경기인 ‘구미테’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순위 및 점수 체계와 수련 전 명상 과정이 생겨나고 오키나와에서 일상복을 입고 수련하던 것과는 달리 흰색의 훈련복이 도입되는 등 가라테는 의례화되고 공식화되었다. 수련 전에 도장의 규칙을 읽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개인 수련은 형식 및 명령 체계를 갖춘 단체 수련으로 바뀌었다. 기술이 표준화되고 학교와 대학의 체육 교육에 적합한 스포츠로 만들기 위해 수련생에게 잠재적으로 해가 될지도 모르는 기술은 사라졌다. 마침내 가라테는 1901년에 오키나와의 학교 교과과정에 도입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 후나코시 기친은 가라테의 표기를 ‘중국 손’이라는

의미의 당수(唐手)에서 ‘빈손’이라는 의미의 공수(空手)로 변경하고 ‘도(道)’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수라는 용어는 초모하나 시로가 1905년 자신의 가라테 대련을 언급하며 최초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재창조된 가라테는 현대 일본 무예 ‘전통’에 좀 더 가까워졌다. 변경된 명칭은 가라테의 주요 기술적 특징을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예’로 묘사하고, 불교 철학 및 ‘도’로 정의되는 다른 일본 예술 형식과 가라테 사이에 연결 고리를 확립했다. 그러나 중국(당)이라는 글자를 변경한 것은, 가라테의 대중화를 방해한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 젊은이들의 반중국 정서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으며 정치적, 이념적 시대정신을 고려한 것이었다(『류큐 신보』, 1936; Bittmann, 2017). 일본의 1895년 이후 모든 무술을 단일 조직으로 통합시킨 대일본무덕회(大日本武徳会)에서 1933년에 가라테를 일본 무술로 인정했다(Gainty, 2013). 가라테의 일본화가 본토에서 창시된 스타일(예: 쇼토칸)에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역효과로 오키나와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1936년(제2차 중일전쟁 발발 전년도)에는 가라테도(공수도)라는 용어의 사용이 결정되었다. 가라테의 일본화는 오키나와 문화를 단일 국가 일본의 문화적 틀에 동화시키는 정치적 목적 또한 달성시켰다.

가라테의 세계화

20세기에 가라테가 서양으로 전파되며 가라테의 세계화가 나타났다. 첫 시작은 하와이와 남미로 이주한 일본인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주로 미군이 전파의 주역이었다. 전쟁 이전에는 야부 켄츠(1866~1937), 미야기 초준(1888~1953), 키안 초토쿠(1870~1945) 같은 유명한 오키나와 가라테 사범들이 해외로 나가 가라테를 선보이고 가르쳤다. 그러나 가라테가 세계화를 통해 다른 나라에 자리를 잡은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였다. 한국에서는 1940년대 일본 대학에서 유학한 사람들을 통해 전파되기 시작했다. 많은 학원에서 가라테를 한국식으로 표기하여 당수도(중국/손/길) 또는 공수도(빈/손/길)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1959년에 생겨난 태권도(발/주먹/길)의 전신이 되었다. 한국의 주요 가라테 단체들은 한국형 가라테에 일본식 이름이 아닌 한국식 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한국태권도협회’를 결성했다. 대만에서는 1960년대 중반에 가라테가 상당한 인기를 얻어 1973년에 ‘대만 가라테도연맹’(Orr & Amae, 2016)이 설립되었다. 1960년대에는 호주에서도 가라테가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1950년대 후반에는 아프리카와 중동으로도 퍼져나갔다. 유럽에서는 주로 앙리 뿌리(1923~2014)의 노력과 그의 ‘프랑스가라테클럽’(1955)을 통해 가라테가 확산되었고, 1965년에 ‘유럽가라테연맹’이 설립되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을 중심으로 북미 대륙에서도 1960년대에 가라테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오키나와와 일본에 주둔한 군인을 통해 가라테가 대중화되었다. 일본가라테협회를 공동 창립한 니시야마 히데타카(1928~2008)는 몇 해 동안 미군을 가르치다 1961년 캘리포니아에 정착하여 일본 외 지역에서 가라테를 홍보하는 주요 인물이 되었다(Benesch, 2020). 이처럼 미국의 오키나와 점령 당시 미군과 오키나와 가라테 사범들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며 가라테가 전파되었다.

종전 후 일본에서는 “점령 당국에 의해 무예 수련에 참가하는 일이 대부분 금지되었다(Bennett, 2013).” 무예의 연행과 이념 및 철학이 파시스트 이데올로기 확산과 일본 사회의 군사화에 기여하는 적극적 도구로 보였기 때문이다. 1940년대 후반, 가라테를 포함한 무예 훈련이 재개되었을 때, 무예는 군국주의적 과거를 버리고 스포츠로 재창조되었다. 이러한 재창조는 가라테가 세계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전쟁 후에는 전쟁 이전 가라테의 모습을 수용하고 현대 격투스포츠의 흐름을

따르며 더욱 발전했다.

가라테 같은 문화유산이 세계화될 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은 동질화이다. 지역 또는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적 관습의 정의 및 연행과 관련하여 소유권과 통제를 잃어가고, 국제적 차원에서는 연행, 철학, 등급, 체계에서 국제적 동질성을 만들어낸다. 오늘날에는 세계가라테연맹이나 올림픽위원회IOC 같은 조직이 전 세계적으로 가라테의 지식과 연행이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동질화 과정의 또 다른 효과는 단순화와 배제이다. 2016년 올림픽 집행위원회는 2020 도쿄올림픽 종목에 가라테를 포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때 가라테는 세계가라테연맹 내에서 시행되는 가라테 스타일만을 지칭했다. 세계가라테연맹은 고주류, 시토류, 쇼토칸, 와도류 4가지 스타일의 가타만 인정했다. 오늘날 일본과 오키나와에 등록된 가라테 스타일은 20개가 넘는다.

역설적으로 세계화 과정은 동질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분열과 지역화로 이어진다(Bowman, 2010). 세계화는 소유, 소속,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문화적 변용, 전유 및 세계화된 문화 관습은 종종 국제, 국가, 지방, 지역 차원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얽히게 된다. 가라테가 초기 형태에서 벗어나 국제 스포츠로 발전하며 세계화, 스포츠화, 상품화 되어갔다. 한편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키나와에서는 영적이고 ‘진짜’ 경험에 대한 현대의 갈망과 탐색에 부응하는 가라테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현대의 가라테보다 정통 가라테를 재구성하고, 발견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는 향수와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서의 오키나와가라테

국가와 지방 정부는 무예와 같은 문화 관습이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국민을 단결시키고 국가와 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세계에 전파하는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깨달았다. 오키나와 정부는 가라테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가라테를 무형유산의 독특한 사례로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정책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가라테 공동체에서 시작되어 위로 전달되는 상향식 움직임이기보다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오키나와현의 독특한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하향식 정치 행위이다. 오키나와 가라테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복합 계획은 일본의 경제산업성과 내각 정책에 의해 일본 정부 내에서 행정적으로 조직되었다. 가라테는 일본 지적 재산과 관련한 ‘쿨 재팬 Cool Japan’ 브랜드 전략의 일부이다

가라테의 경제적 잠재력을 깨달은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은 지역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 일본 시민과 외국 가라테 관광객이 오키나와를 매력적인 ‘가라테의 성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2016년 자료에 따르면, 총 1,188명의 외국인(미국인 38.2%, 호주인 21.1%, 프랑스인 17.1%)이 오키나와를 방문해 가라테를 체험했다. 오키나와 가라테 도장 중 31.5%는 일본 외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으며 외국인 회원의 비율은 37.4%이다(오키나와현, 2019). 가라테는 광범위한 관광정책으로 통합되어, 이 오키나와 무형유산이 하와이 같은 아열대 섬의 해변 휴양지의 이미지와 연결되기도 했다(Figal, 2008).

가라테를 무형유산으로 공식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으로 일본은 1997년에 국가유산법에 따라 가라테와 고무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그해, 마쓰바야시류의 나가미네 쇼신(1907~1997), 고주류의 야기 메이토쿠(1912~2003), 우에치류의 이토카즈 세이키(1915~2006), 총 3명의 가라테 사범을 ‘가라테와 고무술 분야 무형문화재’로 최초 지정했다. 2000년에는 가라테 역사와 오키나와 유산으로서의 가라테 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슈리성, 시키나엔 정원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고, 6명의 가라테 사범이 무형문화재로 추가 지정되었다.

그 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가라테를 공식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보존, 홍보, 전파할 목적으로 여러 조직을 설립해 중앙집중형 인프라를 구축했다. 오키나와 출신의 유명한 가라테 사범 6명이 가라테도라는 용어를 채택하겠다고 밝힌 날짜가 1935년 10월 25일인 것에 착안하여 2005년 10월 25일을 ‘가라테의 날’로 지정했다(『류큐 신보』, 1936). ‘가라테의 날’은 가라테 역사와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4년 ‘가라테의 날’에 오키나와 정부는 가라테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등재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목표를 위해 2016년에는 두 개의 기관을 추가로 설치했다. 오키나와현 지정 무형문화재 ‘오키나와 가라테와 고무술’ 보존 학회와 지역 가라테 네트워크 정책을 기획하는 가라테 진흥과가 그것이다. 가라테 진흥과에는 “오키나와 가라테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임무가 주어졌다(『류큐 신보』,

‘가라테의 날을 위한 100개의 가타’, 오키나와 도미구스쿠시 추라산 해변에서 2016년 가라테의 날을 기념하여 열린 개별 연례행사 ©크리스 월슨



2016). 가라테 등재신청을 위한 가장 확실한 상징은 2017년 문을 연 ‘오키나와 가라테회관’으로, 박물관과 오키나와 가라테정보센터OKIC도 통합될 예정이었다. 전 세계 가라테 공동체의 관심을 끌고 ‘순례지’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오키나와 가라테회관’은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오키나와 가라테를 고유한 문화로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동시에 일본 국내외의 사람들에게 오키나와가 가라테의 발상지임을 알린다. 누구나 가라테의 본질을 배울 수 있는 장소이다.” 동시에 이 회관은 “가라테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한다(『류큐 신보』, 2017).

오키나와현의 정책은 지역 가라테 사범과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오키나와 가라테 내에서 여러 학파와 스타일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단일화하려고 노력한다. 현재 오키나와 정부는 가라테의 3가지 주류 전통인 쇼린류, 고주류, 우에치류와 11개의 비주류 전통 및 고무술 스타일을 인정한다. 여기에서 105개의 학파와 분파가 생겨났으며 오키나와에만 총 350에서 400개의 도장이 존재한다(OKIC, 2020). 수많은 가라테 스타일과 학파는 서로 다른 규칙, 기술, 가타를 가지고 있으며, 정당

성과 정통성 측면에서 일본 본토 스타일 및 학파들과 경쟁한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유네스코 등재신청을 하려면 오키나와와 일본 가라테 이해관계자들이 ‘전통’ 가라테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일본 정부의 무형유산 국가목록 등재에 합의해야 한다. 가라테의 지역적 정의와 이해관계 및 규범은 국가 차원의 정의, 이해관계, 규범과는 차이가 있어 상충한다. 가라테는 국가 차원에서 일본 전통의 일부이며, 오키나와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일본 본토와 동일하다. 그러나 오키나와현의 발의안에서는 오키나와와 일본



2016년 10월 23일 나하의 고쿠사이 거리에서 3,973 명이 가라테 가타를 시연하여 기네스 세계기록을 세움. 이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 ©크리스 윌슨



가라테회관 부지에 보존된 오키나와 고유의 카메오-바카(거북이등) 무덤. 가족과 조상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며 오키나와에 널리 퍼져 있는 문화 ©에두아르도 곤잘레스 드 라 푸엔테

본토의 가라테를 분명히 구분한다. 나카하라 노부유키 전 일본가라테협회 회장은 2017년 ‘오키나와 전통 가라테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회의’에서, 오키나와 가라테는 오키나와의 특정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발달했고 일본 전통 가라테는 무사도 전통 내에서 발달했다고 말했다(OKIC, 2017). 일본 가라테를 무사도 이념에 뿌리를 둔 것으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가라테를 연행만이 아닌 이념적 차원에서 확고하게 일본의 무예 전통으로 바라보는 국가 차원의 경향성이 반영되어 있다.

이 회의에서 일본가라테협회의 전 임원이자 1999년에서 2009년까지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지낸 마츠우라 코이치로는 성공적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오키나와 가라테 이해관계자와 일본 정부 및 무형유산 국가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츠우라는 2003년 무형유산협약이 자신의 임기에 조성되고 승인되었음을 상기하며 일본이 무형유산 관련 유네스코 담론에 큰 영향을 미친 증거라고 말했다(Akagawa, 2016). 마츠우라는 가라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 시급하다고 표명했다. 첫째, 전통적인 오키나와 가라테가 스포츠 가라테



오키나와 거리축제에서 공연하는 가라테 어린이 수련생 ©미겔 앙헬 헤갈라도 에스포지토

및 국제 가라테의 시행 방식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오키나와가 가라테의 발상지임을 보여주는 검증 가능한 역사적 증거를 구축해야 한다.

오키나와 가라테와 일본 본토 가라테를 통합하고, 오키나와가 가라테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공격 영역에서 이해시키는 일은 성공적인 유

네스코 무형유산 등재신청에 있어 중요한 일이다. 오키나와현이 제작한 2018년 시각 자료에 따르면, 오키나와 주민의 96%는 ‘오키나와가 가라테의 발상지이다’라고 인식하는 반면, 일본 본토의 경우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민은 전체의 34%에 그쳤다(오키나와현, 2018). 그러나 『재팬타임즈』의 2018년 5월 11일자 기사에 따르면 오키나와현 사람들이 오키나와가 가라테의 발상지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하는 반면, 가라테의 보존과 홍보의 필요성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네스코 협약에서는, 무형유산이 되려면 공동체와 집단이 해당 문화유산을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해야 하고 이들에게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UNESCO, 2018). 따라서 먼저 오키나와인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유네스코에 무예 관련 범주가 따로 없기 때문에 ‘사회적 관습, 의례 및 축제 행사’를 목표로 가라테의 유네스코 등재 계획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특히 그렇다. 이에 따라 2019년 설립된 가라테 전문가 위원회는 ‘의례’를 주요 키워드로 하고, ‘평화의 정신, 오키나와 가라테 의례를 유네스코의 링에 묶다’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류큐 신보』, 2019). 이 ‘가라테 의례’는 오키나와 문화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표현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라테를 오키나와 전통



나하 줄다리기 대축제의 전통 가라테 시연 ©크리스 윌슨

의례와 축제에 있어 불가분의 요소로 구체화한다면 무형유산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줄다리기, 보트 경주, 사자춤 같은 민속 축제와 묘소 및 기념비 등의 영적 공간에서 자주 공연되는 가라테는 특정 하위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키나와의 유물과 무형문화를 활용하는 문화유산이다.

하나의 기원, 두 개의 전통, 하나의 국가유산이 되다

20세기 초에 나타난 가라테의 변형은 일반적으로 일본화 과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현대화의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가라테는 스포츠화, 군사화, 표준화 과정을 거쳤으며, 이로 인해 가라테를 학교, 대학, 군대 등에서 대규모로 가르칠 수 있었다. 역으로 이러한 변형이 오키나와 가라테의 수련 방법과 정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 과정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때가 많다. 가타를 핵심으로 하는 자기방어 체계인 ‘전통’ 가라테는 사라지고 일종의 의례 공연인 현대의 격투(구미테)



무형문화재이자 오키나와 쇼린류 가라테 10단 유단자 세이키치 이하 사범의 '도카치(88세 생일을 기념하는 오키나와의 장수 축하 행사)'를 기념하여 슈리성에서 유학생들의 가라테 시연 ©크리스 윌슨

스포츠가 등장했다.

일본과 오키나와의 이중 문화재라는 측면으로 인해 가라테를 둘러싼 논쟁에는 항상 긴장감이 존재한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으로 공식 인정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가라테의 역사적 뿌리, 파급력, 의미 등과 관련하여 이러한 논쟁이 재소환되고 있다. 공식적인 전략대로 일본을 ‘쿨’한 국가로 브랜드화하려면 일본은 오키나와 가라테 전통을 인정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그 결과, 이러한 복잡한 시각 안에 하나의 기원(오키나와), 두 개의 ‘전통’(오키나와 가라테와 일본 가라테), 하나의 국가 유산(가라테 전체)이 존재하게 되었다.

가라테가 유네스코에 성공적으로 등재되려면, 가라테의 활성화와 오키나와 의례의 재설정, 즉 다른 오키나와 고유의 의례들과 가라테의 관련성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듯하다.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유네스코 등재를 성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합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가라테를 무형유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제도적, 전승적, 담론적 실천이 있었다. 이러한 지역 활동은 오키나와 가라테의 모습을 이미 크게 바꾸어 놓았다. 오키나와 정부의 장기적 비전이 지역 가라테 공동체와 향후 가라테에 대한 이해와 수련 방식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가라테는 그 자체로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고 시간, 지리, 정치의 경계를 초월하는 서사가 담긴 유산이다. 오키나와 가라테는 여전히 과거와 관련한 현대의 주장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오키나와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규범론적 담론과 일치할 수도, 상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 등재가 오키나와에 가져올 상징적 중요성으로 인해 적어도 정부 차원에서는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려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문화 자원이 무형유산으로 지정됨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지원과 이해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광 관련 수익을 늘리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세계화의 맥락에서 무형문화는 사회와 경제 영역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오키나와와 일본의 많은 공적, 사적 관계자들은 가라테의 잠재력이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가라테는 오키나와의 지역 무형유산 활성화 과정의 일부인 동시에 일본 본토의 국가 정책에 의해 진행된다. 이러한 하향식 관리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에 있어 가라테는 역사적 연속성, 정체성, 도덕적 가치, 자기 인식, 다양성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고 전파하는 귀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보존된 이러한 지식과 기술이 무예로서의 가라테를 통해서만 표출되는 것은 아니다. 소수집단 문화의 일부로서 통합적 관점을 보여주고, 무형유산인 무예를 통해 다른 여러 지역과 대화하는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가라테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 Akagawa, N. (2016). "Intangible heritage and embodiment: Japan's influence on global heritage discourse." In W. Logan, M. N. Craith, and U. Kockel (eds), *A Companion to Heritage Studies*, pp. 69–86.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Abe, I., Kiyohara, Y., and Nakajima, K. (1992). "Fascism, sport and society in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9(1), 1–25.
- Bennett, A. (2013). "A reconsideration of the Dai-Nippon Butokukai in the purge of ultra-nationalism and militarism in post-war Japan." *Kokusbikan Daigaku Butoku Kiyō*, 29, 73–82.
- Bittmann, H. (1999). *Karatedō. Der Weg der leeren Hand. Meister der vier großen Schulrichtungen und ihre Lehre*. Ludwigsburg, Kanazawa: Heiko Bittmann Verlag.
- Bittmann, H. (2017). *Geschichte und Lehre des Karatedō*. Ludwigsburg, Kanazawa: Heiko Bittmann Verlag.
- Benesch, O. (2020). "Olympic samurai: Japanese martial arts between sports and self-cultivation." *Sport in History*, 40(3), 1–28.
- Bowman, P. (2010). "The globalization of martial arts." In T. A. Green and J. Svinth (eds), *Martial Arts of the World: An Encyclopedia of History and Innovation*, pp. 435–520. Santa Barbara: ABC-CLIO.
- Daliot-Bul, M. (2009). "Japan brand strategy: the taming of 'Cool Japan' and the challenges of cultural planning in a postmodern age."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12(2), 247–266.
- Figal, G. (2008). "Between war and tropics: heritage tourism in postwar Okinawa." *Public Historian*, 30(2), 83–107.
- Gainty, D. (2013). *Martial Arts and the Body Politic in Meiji Japan*. Oxon, New York: Routledge.
- Johnson, N. C. G. (2012). "The Japanization of karate? Placing an intangible cultural practice." *Journal of Contemporary Anthropology*, 3(1), 61–78.
- Madis, E. (2003). "The evolution of taekwondo from karate." In T. A. Green and J. Svinth (eds), *Martial Arts in the Modern World*, pp. 185–208. Westport: Praeger.
- Moenig, U. and Kim, M. H. (2016). "The invention of taekwondo tradition, 1945–1972: when mythology becomes 'history'." *Acta Koreana*, 19(2), 131–164.
- Nakatani, Y., Miyamoto, T., et al. (2007). "Karatedō no hatten ni okeru chiikiteki 2 jikusei: Okinawato hondo."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ealth and Physical*

Science, 25, 27–65.

- Nakatani, Y., Miyamoto, T., et al. (2008). “Karatedō kindai-ka no tokuchō: jūdō to no hikaku ni okeru kōsatsu.” *Bulletin of the Institute of Health and Physical Science*, 26, 25–44.
- OKIC (Okinawa Karate Information Center) (n.d.). List of dōjō in Okinawa. [Online] Available at <http://okic.okinawa/en/dojo> (accessed June 23, 2020).
- OKIC (2017). Towards the registration of traditional Okinawa karate with the UNESCO. [Online] Available at <http://okic.okinawa/wp-content/uploads/2017/09/16506c5b026a318a8cd3054460ffc150-1.pdf> (accessed June 30, 2020).
- OKIC (2020). Okinawa Karate World Map. [Online] Available at <http://okic.okinawa/wp-content/uploads/2020/06/chizu-e-6.25.pdf> (accessed July 12, 2020).
- Okinawa Karate Kaikan (n.d.). About the facilities. [Online] Available at <http://karatekaikan.jp/en/about/> (accessed June 19, 2020).
- Okinawa-ken (2018). Okinawa Karate Shinkō Bijon (2018 nendo – 2032 nendo). [Online] Available at www.pref.okinawa.jp/site/bunka-sports/karate/documents/vision2.pdf (accessed May 16, 2020).
- Okinawa-ken (2019). Okinawa Karate Shinkō Bijon: Rōdo Mappu. Dai ikki: 2018 nendo – 2022 nendo. [Online] Available at www.pref.okinawa.jp/site/bunka-sports/karate/documents/rm-honpen.pdf (accessed May 16, 2020).
- Okinawan Prefectural Government (2017). 空手発祥の地沖縄 [Okinawa, the Birthplace of Karate]. Naha: Ikemiya Shokai Ltd.
- Orr, M. and Amae, Y. (2016). “Karate in Taiwan and South Korea: a tale of two postcolonial societies.” *Taiwan in Comparative Perspective*, 6, 1–16.
- Ryūkyū Shimpō (1936). “Meishō wo ‘Karate’ ni tōitsu shi—Shinkōkai wo kessei.” October 26.
- Ryūkyū Shimpō (2016). “Okinawa Prefectural Government to form new division to promote karate.” [Online] February 12. Available at <http://english.ryukyushimpo.jp/2016/02/20/24553/> (accessed May 25, 2020).
- Ryūkyū Shimpō (2017). “Dawn of new era of Okinawa Karate, celebrated by 700 people with opening of new facility.” [Online] March 5. Available at <http://english.ryukyushimpo.jp/2017/03/11/26600/> (accessed June 11, 2020).
- Ryūkyū Shimpō (2019). “Committee formed in order to inscribe Okinawa karate on the UNESCO Intangible Cultural Asset List.” [Online] July 11. Available at <http://english.ryukyushimpo.jp/2019/07/20/30757/> (accessed July 4, 2020).
- Tan, K. S. Y. (2004). “Constructing a martial tradition: rethinking a popular history

- of karate-dou.” *Journal of Sport and Social Issues*, 28(2), 169–192.
- UNESCO (2018). *Basic Texts of the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aris: UNESCO.
- Valaskivi, K. (2013). “A brand new future? Cool Japan and the social imaginary of the branded nation.” *Japan Forum*, 25(4), 485–504.
- World Karate Federation (2014). The Book. [Online] Available at www.wkf.net/thebook/ (accessed May 3, 2020).

추가 문헌

- Cang, V. G. (2007). “Defi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stakeholders: the case of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Studies*, 2, 45–56.
- Foster, M. D. (2011). “The UNESCO effect: confidence, defamiliarization, and a new element in the discourse on a Japanese island.”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48(1), 63–107.

04

하코쿠 유검도 연맹으로 본 브라질의 유도

구스타보 굴라르 브라가 마사니로 Gustavo Goulart Braga Maçaneiro

에머슨 프란치니 Emerson Franchini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 체육교육스포츠대학 스포츠학부 무예 및 격투스포츠 연구단

브라질 최초의 유검도 연맹, 하코쿠 유검도 연맹

1908년 산토스 항구에 카사토 마루 선박이 정박한 것을 기점으로 일본인의 브라질 이주가 시작되었다. 일본 문화의 필수라 할 수 있는 무에 또한 최초의 이민자들과 함께 브라질로 유입되었다(Kobayashi, 2010).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본인 이민자가 있는 국가가 되었고, 상파울루에는 일본을 제외하면 가장 큰 일본인 공동체가 존재한다(Sociedade Brasileira de Cultura Japonesa, 1992).

1930년대 초에 브라질의 유도과 검도 연맹인 ‘하코쿠 유검도 연맹’이 상파울루에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브라질에서 유도과 검도를 통합, 조율, 홍보하는 것이었다. 이전 연구에서는 이 연맹의 창립자로 검도 집단과 관련해서는 고바야시 미도리, 무라카미 류스케, 가와이 다케유클 언급했다. 유도 집단의 경우에는 오코치 타츠오, 나이토 카츠토시, 사카타 테루오를 중요 인물로 지목했다. 이 연맹의 창립자와 참여자들은 브라질에 유도를 들여오며 상파울루주 유도 연맹과 강도관 블랙벨트협회를 설립하는 등 선구적인 진척을 이루었다. 이들은 1953년과 1958년 일본 강도관 유도 대표단의 브라질 방문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Virgílio, 2002). 1930년대 후반은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토너먼트 대회가 가장 크게 성장한 시기이다. 8회차 토너먼트 대회는 당시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된 대회 중 하나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인 1942년 1월 29일에 브라질의 정치사회질서국무부^{DEOPS}는 브라질 시민이 적국의 시민들과 만나는 것을 금지하고 연맹의 활동을 중단시켰다

(Kobayashi, 2010).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역사와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은 유도과 검도를 주제로 한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설명했지만, 최초의 정보 출처를 토대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전 연구에 제시된 설명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해당 연맹의 발달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일부 저자는 ‘하코쿠 유검도 연맹’이 1933년에 설립되었다고 말하지만(Virgílio, 2002), 또 다른 저자들은 1932년이라고 말한다(Lourenção, 2009).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창립 연도에 대한 질문은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최초의 문서 기록들을 통해 원 설립자의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 이 연맹의 창립 날짜는 언제이며 행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 연맹에서 주최한 선수권대회는 언제, 어디서 열렸을까? 대회 우승자는 누구였을까? 이 연맹에서 개최한 대회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당시 유도의 상황에 대한 정보는 무엇일까? 다시 말해, 이 연구의 목적은 ‘하코쿠 유검도 연맹’이라는 최초의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이 연맹이 존재했던 1942년까지 연맹의 유도부와 대회의 발전 과정을 탐구하고자 한다. 브라질에서 유도를 조직하려는 시도와 상파울루 유도 연맹의 설립 같은 후속 움직임이 형성되는 데 있어 이 연맹이 어떤 중요성을 지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최초의 출처에서 얻어진 정보를 통해 이전 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서술된 증언과 당시의 문서에 기반한 연구들을 종합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브라질에서 유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에 대한



오노 야수이치, 1936 ©국립도서관재단-BNDigital

역사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역사분석연구이다. 1933년부터 1942년까지 브라질에서 유도를 조직한 주체인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배경과 관련하여 정보 수집을 목표로 하는 기록물 및 참고 문헌 기반의 질적 연구이다. 해당 연맹의 역사에 대한 주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신문, 문서, 기록, 서적, 기사 등을 활용했다. 연맹이 처음 생겨난 이후 1942년에 브라질 정치사회질서국무부에 의해 해산되기까지 개최되었던 연례 대회와 주요 관련 인물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브라질 신문의 디지털 자료는 브라질 국립도서관의 디지털 도서관을 통해 제공되었다. 일본인 공동체에서 발행한 『아사히신문』, 『브라질뉴스』, 『일본 브라질신문』, 『세이슈신보』 등의 신문들도 조사했다.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역사

하코쿠 유검도 연맹 설립(1932/1933년)

조사 결과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설립 관련한 내용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책은 1942년에 발간된 『브라질에서의 일본 발전사Burajiru ni okeru nihonjin hatten-shi kankō iinkai』 하권이다. 이 책에 따르면 당시 일본 이민자 공동체의 주요 스포츠는 야구와 육상이었고 테니스, 스모, 골프, 수영, 유도, 검도 또한 인기 종목이었다. 그러나 이 연맹을 제외하면 운동 단체들은 주로 뜻이 맞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순한 조직이었다. 당시 연맹의 이름은 ‘하코쿠 유검도 연맹 伯國柔劍道聯盟’ 또는 ‘유도 및 검도 브라질 연맹’이었다.

하코쿠 유검도 연맹은 1932년 중반 상파울루의 일본 제국 총영사관에서 일하던 무라카미 류스케의 자택에서 시작되었다. 무라카미 류스케(검도 3단), 사카타 테루오(유도 5단), 요시다 젠사쿠(유도 4단), 고바야시

미도리(유도 3단), 하시모토 순지(검도 2단), 고故 오코우치 타츠오(유도 5단), 나이토 카츠토시(유도 3단), 가와이 타케오(검도)를 중심으로 우미모토 테츠오 부영사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9월 유검도 연맹을 창립했다. 또한, 세이슈학교 도장이 훗날 연맹의 본부가 되었다.

신문에서 찾은 기록과 책에 설명된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창립을 묘사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신문 기록은 “무사도 정신을 통한 국가 사명 달성”이라는 제목의 1932년 9월 22일자 기사이다(Nippak Shimbun, 1932). 해당 기사는 연맹의 초기 계획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이다. 기사에서는 하코쿠 유검도 연맹 설립 계획을 설명하며 회원 모집 소식(회원 가입은 무료였음)을 알렸다. “새로운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설립 계획”이라는 제목의 『브라질뉴스』 기사에는 새로 설립된 연맹의 두 번째 광고가 실려 있다. 이 기사에는 1933년 일본 이민자 25주년 기념의 일환으로 연맹이 계획했던 내용이 최초로 실려 있으며 연맹의 창립자들이 ‘하코쿠 유검도 연맹 안내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상파울루에 있는 제국 총영사관의 무라카미 류스케에게 제출하면 연맹의 회원이 될 수 있었다(Noticias do Brasil, 1932).

하코쿠 유검도 연맹은 1933년 일본 이민자 2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연맹의 창립 축하 행사를 계획했다. 연맹의 회원들은 ‘무도대회’로 알려진, 기념일에 열릴 토너먼트 경기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1933년도에 연맹에 대한 기록은 『일본 브라질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Nippak Shimbun, 1933a). 이 신문에 따르면 토너먼트에 지원한 사람이 50명을 넘었다. 기사에는 세이슈학교를 본부 도장이라고 언급한 내용도 최초로



오노 나오히치, 1938 ©국립도서관재단-BNDigital

포함되어 있어 1942년도 책에 쓰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준다. 브라질 이민 25주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일요일에 열렸으며 일본 영사와 영사의 아내, 브라질 정부 대표, 일본 이민자 공동체의 여러 사람이 참석했다. 브라질과 일본의 국가가 연주된 후, 일본 영사는 상파울루 이민과 일본 이민자들이 거둔 결실에 대해 연설했다. 그날 오후, 노동계급 육상협회 회관에서 유검도 연맹 창립 행사가 열렸으며 토너먼트 형태(Nippak Shimbun, 1933b)로 열린 경기에 대해 『브라질뉴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설립 이후 그토록 고대해오던 제1회 유도검도 연맹 대회와 제1회 총회가 드디어 그 화려한 막을 올렸다. ... 오후 2시를 전후한 총회를 위해 마련된 카르모 25번가 노동관은 2시 정각이 되자 말 그대로 사람들의 무리로 뒤덮였고 관중들은 서 있을 자리조차 찾지 못했다.

경기장은 경기 예정 시간 전부터 붐비기 시작했고 공연장 밖으로 군중이 흘러넘쳤다. 연맹의 유도부에서 추진한 첫 번째 유도 대회는 강도관 유도의 ‘본(가타)’을 시연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먼저, 유도 4단인 요시다 겐사쿠가 토리(기술을 거는 사람)를, 유도 3단인 나이트 카츠토시가 우케(기술을 받아주는 사람)를 맡아 ‘메치기 본’을 시연했다. 그다음에는 ‘호신의 본’ 시연이 이어졌으며 3단 나이트 카츠토시가 토리를, 3단인 토미요 토미카와가 우케를 맡았다.

첫 번째 경기는 단체전 형식이었다(표 1). 경쟁 팀은 갑과 을로 나뉘었다. 이시이(Ishii, 2015)가 설명했듯이 갑 팀은 빨간색, 을 팀은 흰색 즉, 일장기의 색이었다. 단체전 이후에는 개인전이 이어졌다. 그 뒤 결승전은 유단자와 비유단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유단자 그룹의 최초 우승자는 이시하라 사다이였다(Notícias do Brasil, 1933).

표 1_1라운드 (단체전)

| 갑 팀 | | 결과 | 을 팀 |
|------|---|----|-------|
| 후지이 | | ○ | 후쿠야 |
| 아오야기 | ○ | | 아마구치 |
| 안젤로 | ○ | | 이토 |
| 미치모토 | | X | 이와모토 |
| 이와네 | | ○ | 타카바타케 |
| 후지이 | ○ | | 오카가와 |
| 카지타니 | | ○ | 시타니 |
| 이토 | ○ | | 올리베이라 |
| 하야시 | | ○ | 오츠이시 |
| 오노다 | ○ | | 아마구치 |
| 나가사와 | | X | 미야타 |
| 칸노 | | ○ | 타니 |
| 카나야마 | | ○ | 이시오 |

주: ○= 우승, X= 동점. 『브라질 뉴스』(1933)의 기록을 토대로 작성

갑 팀의 주장은 후카야(2단), 부주장은 나이토(3단), 을 팀의 주장은 이시하라(3단), 부주장은 사와다(2단)였다. 을 팀이 우승했다(Notícias do Brasil, 1933).

표 2_개인전 결승

| 비유단자 결승전 | | | |
|----------------|---|---|------|
| 아오야기 | | ○ | 미야타 |
| 유단자 결승전, 리그 형식 | | | |
| 타니 | | ○ | 후카야 |
| 후카야 | | ○ | 이시하라 |
| 이시하라 | X | | 타니 |

주: ○= 우승, X= 동점. 『브라질 뉴스(1933)』의 기록을 토대로 작성

유도부 토너먼트 결과 및 발전 과정(1934~1941년)

1934년 상파울루의 프론탕 두 브라즈 Frontão do Braz에 위치한 콜롬보 극장에서 연맹이 조직한 두 번째 무도대회가 열렸다. 토너먼트 일정에 따라 유도 경기는 오후 1시부터 진행되었다. 다음 날인 9월 15일 오전 8시에 검도 경기가 열렸고, 유도와 검도 결승전은 오후 1시에 열렸다(Semanário de São Paulo, 1934). 대회에서 연맹은 강도관 유도 경기에서 처럼 단체전에 ‘홍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홍백전은 1934년부터 1936년까지 토너먼트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맹은 강도관 유도 대회의 관례처럼 우승팀에게 군기 또는 깃발을 수여했다. 1934년 외무부에서 이 깃발을 브라질의 일본인 거주지에 기증했다(Notícias do Brasil, 1934).

1935년 대회는 최초로 상파울루 체육협회의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체육관은 1933년부터 1941년까지 토너먼트 4개를 개최하여 가장 많은 유검도 대회를 개최한 체육관이 되었다(표 3).

우리 주에 있는 일본인 거주지의 브라질 유검도 연맹이 오늘과 내일 상파울루 체육협회의 체육관에서 스포츠 경기를 개최하고 대표 선수들이 주짓수 및 일본 펜싱을 시연한다(Correio Paulistano, 1935).



후카야, 1998 ©키아이

이 당시 일본 신문에서는 유검도 회원들의 무예를 유도와 검도라는 단어로 설명했지만, 브라질 신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짓수와 일본 펜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A Noite, 1933).

신문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1936년 연맹의 본부는 여전히 세이슈학교 도장이었다. 그해 무도대회에서 연맹은 네 번째 토너먼트로 새롭게 단검 경기 Tankenjutsu를 도입했다(Notícias do Brasil, 1936).

1937년부터 단체전에 변화가 있었다. 연맹이 성장함

표 3_무도대회 경기 정보 및 유도 우승팀(1934~1941)

| 토너먼트 | 날짜 | 도시명 | 장소 | 우승팀 |
|----------|--------------------------|------|------------|----------------------------|
| 제2차 무도대회 | 1934/09/15 1934/09/16 | 상파울루 | 콜롬보 극장 | 하쿠군 |
| 제3차 무도대회 | 1935/08/31 1935/09/01 | 상파울루 | 상파울루 체육협회 | 하쿠군 |
| 제4차 무도대회 | 1936/08/29 1936/08/30 | 상파울루 | 상파울루 체육협회 | 하쿠군 |
| 제5차 무도대회 | 1937/08/28 1937/08/29 | 상파울루 | 리라 클럽 | 마리일라 |
| 제6차 무도대회 | 1938/08/14 1938/08/15 | 상파울루 | 상파울루 체육협회 | 모지 유단자 바스토스 |
| 제7차 무도대회 | 1939/08/13 | 상파울루 | 상파울루 체육협회 | 도라덴세 |
| 제8차 무도대회 | 1940/09/01 | 상파울루 | 파카엠부 체육관 | 상파울루 |
| 제9차 무도대회 | 1941/08/24 | 상파울루 | 상파울루 스포츠클럽 | 소년부 중앙선역 성년부 상파울루 |

출처: 『니혼신문』(1934), 『브라질뉴스』(1935, 1937, 1940), 『상파울루뉴스』(1936, 1939), 『일본 브라질신문』(1938a, 1938b), 『브라질 아사히』(1940), 『남광신보』(1941)

에 따라 단체전은 흥 팀과 백 팀으로 경기하는 대신, 최초로 일본 공동체의 유검도 지부들 사이에 경기가 진행되었다. 상파울루 팀, 마릴리아 팀, 모지 팀이 경쟁했으며 마릴리아 팀이 최종 우승했다(Notícias do Brasil, 1937).

제6회 무도대회는 1938년 8월 14일과 15일에 열렸다. 경기장에 수천 명의 관중이 들어섰고 유도과 검도 토너먼트 신청자는 200명이 넘었다. 이번 회의 유단자 경기는 단체전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는 두 팀으로 나뉘었다. 바스토스 출신의 유단자 선수의 수가 너무 많아 급수가 높은 유단자들도 단체전으로 경기를 진행했으며 바스토스 출신이 한 팀을 이루고 나머지 지역 유단자들이 다른 한 팀을 이루었다. 바스토스 팀이 4승 2무 2패로 우승했다(Nippak Shimbun, 1938a).

1939년에도 무도대회가 있었지만, 그해 연맹의 최대 행사는 일본 강도관 유도 사절단의 브라질 방문이었다. 두 명의 일본 대표인 고타니 스미유키와 사토 추고가 브라질 정부 기관과 클럽에서 유도 시연을 하고 연맹은 연맹의 대표 선수들(히구치 쇼지로, 후카야 세이세츠, 테라자키 도쿠조)을 시연회에 내보냈다(Jornal do Brasil, 1939). 사토와 고타니는 그해 무도대회에도 참가하여 제7차 무도대회(Correio Paulistano, 1939)에서 연맹의 회원들과 함께 무예 시연을 하고 자유 대련(여기에서는 경기 시물레이션)을 선보였다.

브라질 정부에 의해 폐쇄되기 전까지 무도대회 참가자 수는 계속 증가하여 1940년에는 이미 120명이 넘는 선수가 대회에 참가했다(Brasil Asahi, 1940). 일본 공동체 내에 소속된 지부의 수도 증가했다(Brasil Asahi, 1941). 이전에는 유단자 개인전 타이틀이 후카야 세이세츠, 오노 야수이치, 이시하라 사다이 세 사람 중에서 결정되었지만 2년 동안

고타니 스미유키와 사토 추고의 도착, 1939 ©국립도서관재단-BNDigital

Chegou, dos portos da Asia o “Buenos Aires Marú”

DOIS CAMPEÕES DE JUDO QUE VÃO EXIBIR-SE ENTRE
NÓS — REGRESSOU AO BRASIL, APÓS APERFEIÇOAR-SE
DURANTE DOIS ANOS EM TOKIO, O ESTUDANTE BRA-
SILEIRO, SR. MOZART VAREL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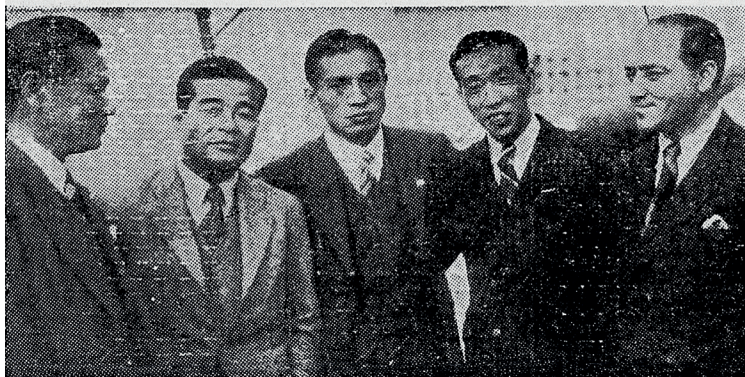


표 4_무도대회 유도부 개인전 챔피언 (1934~1941)

| 토너먼트 | 유년조 | 소년조 | 성년조 비유단자 | 유단자 |
|----------|-----------|----------|------------------------------|------------------------------|
| 제2차 무도대회 | 오타마 | 이시다 | 오카베 | 이시하라 |
| 제3차 무도대회 | 사토 | 세오 | 고젠 사부로 | 오노 야수이치 |
| 제4차 무도대회 | 후지무라 | 사토 | 오노 | 후카야 |
| 제5차 무도대회 | 미야자토 키요하루 | 토미가와 아키오 | 오노 나오히치 | 오노 야수이치 |
| 제6차 무도대회 | 토미가와 에이신 | 토미가와 아키오 | 이노우에 | 정보 없음 |
| 제7차 무도대회 | 정보 없음 | 정보 없음 | 4급 이하 아베 3급 이상 사오토메 | 고단자 그룹 사토 2단 이상 후카야 |
| 제8차 무도대회 | 정보 없음 | 정보 없음 | 정보 없음 | 와사이 |
| 제9차 무도대회 | 정보 없음 | 정보 없음 | 정보 없음 | 엔도 시로 |

*개인전 정보는 나와 있지 않음

출처: 『니혼신문』(1934), 『브라질뉴스』(1935, 1937, 1940), 『상파울루뉴스』(1936, 1939), 『일본 브라질신문』(1938a, 1938b), 『브라질야사하』(1940), 『남광신보』(1941)

1940년에는 와사이, 1941년에는 엔도 시로, 총 두 명의 선수가 새롭게 합류했다(표 4). 1941년은 연맹의 마지막 행사가 열린 해이기도 하다. 10번째 토너먼트가 열리기 전 1942년에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이민자의 사교장에서 무도대회까지, 브라질의 유도를 만나다

사쿠라이 Sakurai(2007)에 따르면 브라질의 일본인 이민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이 1925년에서 1942년 사이에 도착했다. 1924년 미국이 일본인의 입국을 금지했을 당시 브라질이 일본인의 주요 이민지로 떠올랐다. 이민자들은 스포츠, 공동 작업, 여가 활동을 중심으로 단체를 형성했다. 이러한 단체들이 추진한 모임은 사회 활동 기회와 함께 다른 일본인과 어울릴 수 있는 사교의 장을 제공했다.

하코쿠 유검도 연맹은 이러한 배경에서 이민자에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민족정신’ 또는 ‘일본인’임을 장려하고자 했다. 사실, 무사도나 야마토의 혼은 모두 유검도 연맹을 설립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시바타 Shibata(2011)는 일본이 추진한 야마토의 혼을 통해 일본 사회역학의 맥락에서 계층이라는 개념이 구축되고 강화되었다고 말한다. 이 국가 정책은 명예와 효를 지킨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의무’ 규범을 장려했다. 이러한 개념에서는 신성한 인물인 천황, 가족, 정부, 군대, 종교를 중요시한다. 사무라이 윤리 규범인 무사도 또한 이러한 이상을 홍보하기 위한 개념이자 신념의 이론적 기반으로 사용되었다(Shibata, 2011). 연맹 또한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고 또 이런 생각과 이상을 같이 하기 위해 연맹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코쿠 유검도 연맹은 1932년에 설립되었지만, 공식적인 설립 축하행사는 1933년 일본의 브라질 이민 25주년 기념식에서 열렸다. 연맹은 무라카미 류스케의 집에서 시작되었으며 세이슈학교 도장으로 이전되기 전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집이 연맹의 본부였다. 세이슈학교는 연맹 창립자이자 검도부 소속 중 한 명이었던 미도리 고바야시가 1922년에 설립한 학교이다(Fuchigami, 2014). 연맹의 창립과 최초의 본부도



오코치 타츠오, 8단(1892~1965) ©키야미

장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연맹의 유도부의 초대이사이자 창립자 중 한 명인 오코치 타츠오는 연맹이 설립되기 6년 전인 1927년에 ‘세이슈학교 서포터즈 연합’의 일원이었다(Negawa, 2013). 이시이(2015)에 따르면 오코치는 ‘브라질의 지고로 카노(유도 창시자)’라 할 수 있다. 오코치는 일본 이민자 공동체의 훌륭한 선구자였으며 하코쿠 유검도

연맹 유도부의 최초 이사였고 강도관 유도 사절단 고타니와 사토의 브라질 방문을 준비하는 데에도 협력했다. 이시이(2015)에 따르면 오코치가 브라질의 유도 개척자들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하고, 후카야 세이세츠가 주로 유도 홍보 작업을 보조했다.

연맹의 유단자 개인전의 첫 결선 진출자는 후카야 세이세츠, 이시하라 사다이, 타니 소베이 세 사람이었다. 후카야, 이시하라, 오노 야수이치는 1939년까지 연맹 유도 경기의 주요 우승자였다. 오노 야수이치는 연맹이 추진한 두 번째 챔피언십이 열린 해에 브라질에 왔다. 이시하라는 후에 파라나주로 이주하였으며 파라나주에서 유도를 발전시킨 중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오노와 후카야는 상파울루주에서 유도를 발전시켰다. 후카야는 유도를 조직하는 일을 맡아 오코치를 도와 강도관 블랙벨트협회를 창립했으며, 오노는 브라질의 격투기 연맹전에서 유도를 홍보하는 프로격투기 선수가 되었다(Ishii, 2015).

이 연구를 통해 하코쿠 유검도 연맹의 설립 및 발전과 관련한 주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코쿠 유검도 연맹은 브라질 일본인 이민자 공동체에 인적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도 실무자 모임을 촉진하여 브라질에서 유도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연맹은 일본 문화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유도를 활용했다.

참고 문헌

- A Noite* (1933). “Fundada a federação de esgrima japoneza.” June 16, p. 7.
- Brasil Asabi* (1940). “Com a victoria collectiva de São Paulo encerrou-se o 8.o campeonato de jûkendô.” September 4, p. 4.
- Brasil Asabi* (1941a). “武道大会.” May 8, p. 2.
- Brasil Asabi* (1941b). “Candidatos à promoção na secção de ‘judô’ e ‘kendô’.” August 21, p. 7.
- Brasil Asabi* (1941c). “Competição de ‘jukendô’ em Marília.” May 9, p. 7.
- Brasil Asabi* (1941d). “Inaugurada a filial da federação de jukendô em P. Prudente.” April 29, p. 7.
- Burajiru ni okeru nihonjin batten-sbi kankô iinkai* (1942). 1st edn. Tokyo: Ratenamerika Chûôkai.
- Correio Paulistano* (1935). “Competição de jiu-jitsu e esgrima japoneza.” August 31, p. 8.
- Correio Paulistano* (1939). “A diferença entre jiu-jitsu e judô.” August 20, p. 14.
- Fuchigami, R. H. (2014). *Aspectos Culturais e Musicológicos do Shakubachi no Brasil*. Campinas: Universidade Estadual de Campinas.
- Ishii, C. (2015). *Os Pioneiros do Judô no Brasil*. São Paulo: Évora.
- Jornal do Brasil* (1939). “Liga de esportes da marinha.” August 1, p. 14.
- Kobayashi, L. (2010). *Peregrinos do Sol: a arte da espada samurai*. São Paulo: Estação Liberdade.
- Lourenção, G. V. (2009). *Identidades, Práticas e Moralidades Transnacionais: Etnografia da Esgrima Japonesa no Brasil*. São Carlos: Universidade Federal de São Carlos.
- Nambai Shimpō* (1941). “全伯柔剣道大会.” August 27, p. 3.
- Negawa, S. (2013). “Trends in a Japanese–Christian educational institution in Brazil in the pre-World War II period: a case in Seishu Gijuku in the early 1930s.” *Keizai-gaku-Ronso (Doshisha University Economic Review)*, 64(4), 173–198.
- Nippak Shimbun* (1932). “武士道精神に則り民族的使命を達成.” September 22, p. 7.
- Nippak Shimbun* (1933a). “柔剣道大会続々参加申.” June 5, p. 7.
- Nippak Shimbun* (1933b). “O 25° aniversário da imigração japoneza para o Brasil.” June 22, p. 8.
- Nippak Shimbun* (1938a). “選ばれた出場戦士二百餘名有段者併せて七十七段.”

- August 16, p. 3.
- Nippak Shimbun* (1938b). “武道大会.” August 17, p. 3.
- Nippon Shimbun* (1934). “全伯第二回武道大会大成功裏に終る.” September 19, p. 6.
- Notícias de São Paulo* (1936). “第四回全伯武道大会.” September 1, p. 4.
- Notícias de São Paulo* (1939). “第二日柔道の部.” August 16, p. 3.
- Notícias do Brasil* (1932). “伯国柔剣道連盟の設立計画具体化.” September 26, p. 3.
- Notícias do Brasil* (1933). “盛大であった武道大会.” June 22, p. 7.
- Notícias do Brasil* (1934a). “伯国柔剣道連盟第二回總會武道並大会.” September 5, p. 7.
- Notícias do Brasil* (1934b). “聖市に燃える東方尚武国の意気伯国柔剣道連盟第二回武道大.” September 19, p. 7.
- Notícias do Brasil* (1935). “第三回武道大会終わ.” September 7, p. 4.
- Notícias do Brasil* (1936). “伯国柔剣道連盟第四回武道大.” July 27, p. 5.
- Notícias do Brasil* (1937). “第五回全伯武道大会.” August 31, p. 4.
- Notícias do Brasil* (1940). “第八回全伯武道大会終る.” September 3, p. 3.
- Nunes, V. and Rubio, K. (2012). “As Origens do Judô Brasileiro: a árvore genealógica dos medalhistas Olímpicos.” *Revista Brasileira de Educação Física e Esporte*, 26(4), 667–678.
- Sakurai, C. (2007). *Os japoneses*. São Paulo: Editora Contexto.
- Semanário de São Paulo* (1934). “伯国柔剣道連盟第二回武道大会並総.” September 14, p. 3.
- Shibata, N. N. Y. (2011). “Os sentidos do (ser) moderno: o Japão e sua política migratória no caso brasileiro.” *JINMONKEN Os primórdios da imigração japonesa no Brasil: reflexões de bolsistas do Jinmonken*, special edn, September 2011, 70–109.
- Sociedade Brasileira de Cultura Japonesa (1992). *Uma Epopeia Moderna: 80 Anos da Imigração Japonesa no Brasil*. São Paulo: HUCITEC.
- Souza, G. (2010). *Princípios e valorização do judô na vida cotidiana de mestres da região de Mogi das Cruzes*. Master's dissertation, Schoo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University of São Paulo.
- Virgílio, S. (2002). *Personagens e Histórias do Judô Brasileiro*. Campinas: Editora Átomo.

05

중앙아시아 전통 레슬링

안드리 보론토소브 Andrii Vorontsov

게오르기 코로베이니코브 Georgiy Korobeynikov

우크라이나 국립체육스포츠대학교

전투 기술과 신체 단련의 도구, 중앙아시아 레슬링

중앙아시아의 전통무예는 내외적 요인을 두루 고려할 때 그 뿌리가 깊다. 국가마다 고유한 전통 스포츠가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레슬링과 승마, 활쏘기이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격투스포츠가 널리 인기를 얻고 있는 까닭은 몇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사건들로 설명할 수 있다. 일례로, 잘 알려진 몽골-타타르 침략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 사회·문화적 규범의 발전과 변혁과 관련하여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은 현재 국가 스포츠를 보존하여 전통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레슬링 종류도 여기에 포함된다. 과거 전통무예의 조직과 관련된 전통 의식과 특별 의식이 대대로 전해져왔으며, 이렇게 전수된 지식 덕분에 무형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건과 지리적 특성, 기후, 지역 경제 발전 등에 따라 고유의 전통을 갖는다. 중앙아시아는 광활한 초원 지대로 유명하여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 초원 지대를 끊임없이 옮겨 다니는 생활방식 탓에 부족들 간에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자신을 방어하거나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려면 신체 단련과 전투력이 필수였다. 전통 스포츠 및 놀이는 오랫동안 전투와 관련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고, 정신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적 도구로도 이용되었다. 한 국가의 가치관은 국가와 민족의 존엄성, 역사, 생활방식,

미래, 당대, 사회계층, 정신, 계몽과 연관되어 형성된다. 상호 문화 소통의 과정은 정신적 발달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게임 자체의 본질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각 나라마다 고유의 스포츠와 관련 대회 및 경기가 있었다(이하 ‘국가 경기’로 통칭한다). 사회 발전의 현 단계에서 보면, 주지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레슬링, 활쏘기, 승마 세 종류의 스포츠가 널리 퍼져 있다. 이는 유목 생활방식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 ‘세 가지 남성적 게임’은 노동, 군사, 경제 활동에 필요한 다재다능, 힘, 재주의 정신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중앙아시아 전통 레슬링

어떤 스포츠의 경우 한 나라에서도 세부 지역별로 혹은 하위 민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가 스포츠가 하나의 특정 국가나 민족 집단과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파생 스포츠나 스포츠 유형은 형식, 의식, 규칙, 전통 등의 측면에서 특정 집단에 속하며 다른 집단의 것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런 스포츠 중 일부를 살펴보자.

투르크메니스탄 고레시

고레시는 현 투르크메니스탄의 여러 지역에 다양한 파생 형태로 존재하는 국가 레슬링이다. 고레시를 처음 만든 것은 투르크멘인 가운데 원래 살던 고향에서 북쪽으로 이주한 무리라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의 문화와 민족적 특성이 보존되었으며 동시에 새롭게 정착한 지역 인구에 살고 있던 칼미크인들의 문화와 자연스레 섞이기도 했다.

학계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고레시 레슬링 경기는 주로 휴가철이나

부족 의식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열렸다. 이런 행사에서 승마가 그 시작을 알린다면 고레스 경기로 대미를 장식하는 식이었다. 투르크멘식 레슬링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대회 참가자를 연령별로 분류하기도 했다. 더 어린 세대가 참가하는 레슬링은 ‘베코 구레시 트루 bekyo guresh tru’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며 오늘날에도 이를 사용한다. 레슬링은 남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었는데,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었기에 당연하게도 참여율이 상당했다. 다른 유목민족과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기에 고레스 레슬링과 승마는 전투에 대비하는 준비 단계로 여겨졌고 전투에 유용한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졌다. 이런 활동을 통해 남성들이 신체를 단련하고 전투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고레스 경기는 관중들이 여러 부족 대표들 간의 대결을 볼 수 있도록 반원 형태의 실외 공간에서 열렸고, 특정한 규칙에 따라 각 그룹의 좌석을 배치했다. 원형 부분의 남쪽은 귀빈과 성직자, 행사 주최측의 자리였고, 동남쪽과 남서쪽에는 여러 부족의 응원단과 관중들이 앉았다. 대결에 앞서 주최측은 선수와 심판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는데, 전통적으로 메뉴는 구운 양고기와 녹인 지방이었다. 이는 고레스 레슬링 경기에 꼭 포함되는 요소로 평화와 비폭력 행동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이런 의식을 통해 부족들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었고, 따라서 선수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것을 요구했다. 시합 전 레슬링 선수들은 흰색 얇은 종이로 몸을 감쌌고, 경기 중에는 살바를 찼다. 보통 우승자는 상품을 받았는데, 대개 양이나 티 바(압축된 찻잎 뭉치 조각)였다. 하지만 금전적 보상은 드물었다.

타지키스탄 구시팅기리

구시팅기리는 타지키스탄에서 유래된 전통 레슬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투르크멘의 고레스와 마찬가지로 구시팅기리도 여러 파생 형태로 존재

하는데 역시 민족적, 지리적 요건에 따라 구분된다. 일례로 구시티니 부초로이 Gushtini Buchoroi 혹은 부하르 레슬링 Buhar wrestling은 부하라(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포함하여 타지크인들 사이에서 전통 레슬링의 한 종류로 인식된다. 구시티니 부초로이는 시합 중 하체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구시팅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부족별로 각각 경기의 우승 규칙과 조건이 달랐다. 구시팅기리에서 우승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던지기기술을 사용해 상대가 뒤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대 선수를 어깨 너머로 던져 넘기거나, 상대의 등에 걸터앉거나, 상대의 가슴을 무릎으로 밀어 그라운드로 내보내는 등 다른 규칙을 허용하기도 했다. 이런 규칙들이 각 부족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들도 잠재적 적군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 메카니즘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이전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특별 시험을 통과한 숙련된 선수들로 교사를 구성하여, 구시팅기리 전문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보통 최고의 레슬러를 가리기 위한 부족 간의 전통 구시팅기리 대회가 조직되었다. 이 제도 덕분에 각 부락에서는 부락을 대표하는 실력자로 구성된 레슬링 팀이 만들어졌다. 매 경기의 우승자는 점수를 얻고 모든 부락 전체에서 순위를 가렸다. 우승자가 관중 앞에서 원형경기장을 한 발로 뛰는 의식도 있었고(Tropov, 1992), 때로는 우승자를 경기장 한 가운데로 던지기도 했다. 그런 뒤 우승자는 또 다른 부락을 대표하는 선수에게 시합을 청했다.

1938년에 공식 규칙과 분류 체계가 제정되기 전에는 선수들이 시합에서 다양한 기술을 사용했다. 구시팅기리 선수는 잡기 외에도 펀치, 조르기 등의 기술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기술은 주로 전투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었는데(Gylyzhov, 1992) 시간이 흐르면서 사라졌다. 구시팅기리 레슬링 대회는 전통적으로 주요 명절이나 축하 행사, 영적 의식 때 열렸으며 시합 장소는 특별히 지어진 공간이나 임의로 선택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1940년대에는 문화유산이 당대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서

공화국 행사의 조직에 방해가 됐다. 같은 부락이나 같은 지역의 레슬링 선수들은 서로 상대 선수로 대결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전통 레슬링이 원래 다른 부족과 경쟁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국적인 규모의 몇몇 구시팅기리 행사는 개최되지 못했다.

몇몇 연구자들은 오늘날 동양 무예가 중앙아시아의 청년층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지만 동시에 구시팅기리가 원래의 전통을 지킨다면 새로운 격투스포츠를 배우거나 개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타깝게도 구시팅기리 레슬링에 대한 지식이 이전 세대로부터 완벽하게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타지키스탄 지역에서 유서 깊은 이 전통 스포츠의 인기를 되살리려면 어느 정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전통을 지켜가면서 후대에게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 외딴 산간 지방의 부족들을 인터뷰한다면 구시팅기리를 보존하는 일은 여전히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 쿠라시

진화의 역사가 긴 전통 레슬링이 보존된 또 다른 좋은 예가 우즈베크족의 쿠라시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무예와 마찬가지로 이 전통 레슬링은 몇 가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진 파생 형태의 무예로 세분된다. 이런 구분은 주로 시합의 규칙과 의식, 행사 등과 관련이 있다. 벨보글리 Belbogli 쿠라시의 주된 특징은 벨트가 있다는 것이다. 시합이 시작되기 전에 선수들은 서로의 벨트를 잡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들어 올려 등이 땅에 닿게 메쳐야 한다. 벨보글리의 규칙은 다리를 사용한 공격을 허용하는 반면에 벨라슈브 Bellashuv 시합에서는 상체 공격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체 조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우즈베키스탄의 쿠라시는 전통적으로 국가, 지역, 지방, 심지어 가족 단위 등의 다양한 기념행사를 위해 조직되었다. 부유한 사람들은 보통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유명한 레슬링 선수들을 초대하곤 했다. 이런 자

리는 행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주최측의 부를 과시했다. 쿠라시 대회 우승자는 권위 있는 상을 받으면서, 가운이나 스컬캡, 부츠, 허리 스카프 등 여러 가지 전통 물품을 상품으로 받았다(Khakimova & Kholieva, 2018). 우즈베크인들 간의 전통 레슬링은 결혼 축하 행사 때 열리곤 했는데, 저녁이 되면 모든 하객들이 불 주위에 모여 켕 다브라 형태, 즉 원을 이루었다. 한 선수가 원을 돌면서 탈랍-탈랍(‘요청-요청’)이라고 말하며 자신과 맞설 상대를 물색했다. 누군가 도전에 응하면 경쟁자들은 원을 세 바퀴 돌면서 관중들을 맞이했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전통 레슬링과 마찬가지로 쿠라시는 연령과 체급에 따른 구분이 없었지만 심판들은 엇비슷한 상대가 시합하도록 짝을 지었다.

예로부터 쿠라시 시합은 부락의 광장이나 ‘유력 가문의 저택’(원어로 주르혼 또는 피르혼이라고 함)에서 열렸다. 계절에 따라 경기장 지반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모래나 톱밥을 깔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부자들은 전통

우즈베키스탄 쿠라시 경기에서 두 선수가 겨루고 있다. ©Shutterstock



장식이 달린 카펫을 경기장에 깔기도 했다.

전통적인 쿠라시와 관련된 몇몇 요소는 오늘날의 전통 쿠라시 행사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보통 두 명의 성인이 시범경기를 벌여 관중의 흥미를 끌고, 뒤이어 어린이 쿠라시 대회가 열리곤 한다. 마지막으로 유명 선수들이 레슬링 경기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행사나 의식의 최대 볼거리가 시작된다(Gylyzhov, 1992). 다른 전통 레슬링과 달리 쿠라시 레슬링 경기에는 우즈베크 전통음악이 곁들여졌다. 우즈베크인들은 오늘날에도 지역 차원에서 쿠라시 레슬링 경기를 개최함으로써 선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쿠라시 레슬링은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는 신흥 스포츠로 꼽힌다. 쿠라시를 국가 차원에서 보존하고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진흥할 목적으로 1998년에 국제쿠라시협회가 설립되었다(Mandzyak, 2010).

카자흐스탄 쿠레시

카자흐스탄 쿠레시는 유명한 카자흐스탄 전통 레슬링으로 최근 국제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토폴리스 레슬링, 맨발 레슬링, 부츠 착용 레슬링, 주먹 싸움 레슬링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중앙아시아의 끝없는 초원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이 지역 사람들은 신체 활동과 고도화된 전투 기술을 포함한 이웃 부족의 전통과 의식을 받아들이거나 발전시켰다(Matushyak, 1978). 카자흐족의 전통 레슬링에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사실은 동화, 전설, 역사 및 소설, 고고학적 발견 등 풍부한 자료를 통해 증명된다. 마르코 폴로는 중앙아시아 여행기에서 무사의 전투 준비 전략으로 무예에 대해 언급했다(Kuznetsov, 2018). 훈련이나 시합 중에 벨트가 사용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게다가 어린이 레슬링의 경우 소년들도 아무런 차별 없이 소년들과 맞서 싸웠는데, 이는 전투에 필요한 기술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벨트 레슬링과 관련된 또 다른 증거는 15세기 초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 지대를 방문하여 쿠레시



카자흐스탄 쿠레시 선수들의 대결 ©Shutterstock

경기를 목격한 여행자 레이 클라브디초 Rey Klavdicho의 기록에서도 발견된다. 이처럼 쿠레시 등 카자흐스탄 국가 스포츠를 언급한 역사적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지금도 전투 기술에 대한 기억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자부심을 느낀다. 팔루안 paluan(레슬러)에 대한 다양한 글귀가 남아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무예를 중요한 유산으로 여긴다는 의미다.

‘차판’ chapan 혹은 ‘샤판’ shapan이라 부르는 벨트가 달린 특수 재킷은 카자흐스탄 쿠레시 선수들이 사용한 것으로, 현대 레슬링 선수들도 여전히 이 재킷을 착용한다. 현행 카자흐스탄 쿠레시 규정에서는 벨트나 상체 잡기를 모두 허용한다. 화려한 던지기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레그 트랩과 혹에 관련된 다양한 기법을 많이 쓴다. 모든 카자흐스탄 쿠레시 경기는 기립 자세에서 상대를 던져서 등이 바닥에 닿게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며, 그라운드에서는 어떠한 행동도 허용된다. 다수의 연구자에 따르면, 이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신체 능력과 숙련된 기술, 노련함이 모두 필요하다.

예전에는 카자흐스탄 쿠레시에 체급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대회가 “가장 강한 사람이 우승자”라는 슬로건 아래 조직되었다(Kuznetsov, 2018). 1930년대에 이르러 체중과 연령으로 참가자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레슬링의 형태가 변모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쿠레시는 민족 정체성의 보존과 함께 레슬링 기술계의 진보적 경향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전통 레슬링은 고대의 의례와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국제행사 ‘카자크-바리시 Qazaq-Barysy’는 늑대 털가죽 제품, 유목민 전통 텐트 유르트, 전통음악, 기타 의례 등 유명한 풍습과 유물을 선보이면서 일반 관객들에게 전국 격투기 대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카자흐스탄 쿠레시 자체는 악토베에 국제연맹 본부를 두고 쿠레시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발반 쿠로시

현재의 키르기스스탄 지역에서 성행한 또 다른 전통 레슬링은 발반 쿠로시다. 이 레슬링은 고대부터 행해졌으며 지리적 특성에 따라 남과 북의 두 흐름으로 나뉘었다. 벨트 착용이 의무이고, 기립 자세로만 진행된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었으나 북부와 남부의 레슬링 형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북부 레슬링은 트랩과 다리 공격 등 전신을 이용하는 형태였고, 남부 레슬링은 상체 공격과 관련된 기술을 써서 체력 단련이 더 많이 필요했다.

발반 쿠로시 경기는 모든 휴일과 행사일에 열렸다.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비슷하게 키르기스스탄 남성들은 활쏘기, 승마, 레

슬링의 세 가지 주요 스포츠 연습에 참여했다. 투르크메니스탄 고레스나 타지키스탄 구시팅기리와 비교해볼 때 발반 쿠로시는 일반 관중들이 보기에 남성들 간의 진지한 경쟁이라기보다 일종의 오락이었다. 전령관 즉 대중 연설자는 관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부락에서 가장 힘센 사람 중 한 명과 대결할 것을 제의하면서 농담과 일화를 곁들여 사람들을 웃기고 즐겁게 했다. 상대가 나타나면 관중들은 작은 원을 만들어 쿠로시 경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렇듯 예능적 성격이 강했음에도 선수들은 발반 쿠로시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경기력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흥미롭게도 중앙아시아의 여러 민족은 레슬링 선수를 위한 특유의 복장을 만들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타지키스탄 구시팅기리 레슬링 선수들은 가운을 입었고 투르크메니스탄 선수들은 살바만 걸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키르기스스탄 유목민은 레슬링 경기에서 칸다게이라는 가죽 바지를 입었는데 그 폭이 매우 넓어서 150cm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 허리에는 사슴 가죽으로 만든 벨트가 달려 있어 상대를 움켜쥐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와이드 팬츠는 레슬링 선수들이 서로 다른 포지션에서 상대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던지기기술을 실행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다. 가끔 캐주얼한 옷을 입는 선수도 있었는데, 경기력이 좋지 않거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였다.

발반 쿠로시는 사용 기술이 제한적인 편이라 선수들이 대부분 힘과 지구력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간 제한은 없지만 어떤 경우든 상대를 깔끔하게 던져서 상대의 등이 바닥에 닿으면 우승이었다. 그런데 시간 제한이 없을뿐더러 체중이나 연령에 따른 분류도 없어서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발반 쿠로시에 참여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여성이 남성 선수에게 도전하는 것도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다. 여성도 시합 때 남성 것과 비슷한 유니폼을 입었는데, 가죽 바지는 물론이고 남성은 신지 않는

부츠도 포함되어 있었다.

선수는 자신의 개인 교사나 멘토를 따라 등장했다. 교사나 멘토는 선수를 원 안으로 데려가 선수가 입고 있던 가운을 받아서 나갔다. 존중과 평화를 보여주기 위해 시합에 앞서 상대와 악수를 하는 것이 의무였다 (Bymbygydenova, 2014). 또한 각 선수는 경기 전후에 원형경기장을 빙 둘러 걸으며 관중에게 인사를 했다. 발반 쿠로시만의 또 다른 특징은 승자가 패자를 그라운드에서 일으키며 서로 악수를 나누는 것이다. 어떤 사소한 부정적인 행동도 잠재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제스처 때문에 이따금 부족들 간의 갈등이나 집단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키르기스스탄의 전통 레슬링의 경우 예전과 살짝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주요한 전통 요소들은 잘 보존되어 있다. 현재 발반 쿠로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현대 국가 레슬링의 하나인 알리시 Alysh로 대체되었다.

레슬링,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담다

중앙아시아의 전통 레슬링은 전투 기술의 향상과 신체 단련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이 전통 레슬링을 통해 여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 요소들이 보존될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통 레슬링 몇 종류를 면밀히 연구한 결과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중앙아시아의 무형유산이 부분적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보존되어온 전통 레슬링 등의 전통 스포츠 및 놀이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참고 문헌

- Anon (2000). "Folk games of Kazakhs of Southern Altai." *Siberian Ethnographic Bulletin*, 4(3).
- Bymbygydenova, S. (2014). "Ethnosociological aspects of national sports." *Notes of Universities. North Caucasian Region*, 4, 18–20.
- Finsh, O. (1882). *Travel to Western Siberia*. n.p.
- Gylyzhov, B. (1992). *Mutual influence and mutual enrichment of national sports and wrestling*. SPB.
- Khakimova, F. and Kholieva, N. (2018).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national sports in Uzbekistan." *National Journal of Sports Science*, 3, 111–112.
- Kurbanov, A. (1995). Stavropol Turkmen. *Historical-ethnographic feature articles*. Saint Petersburg: SPB.
- Kuznetsov, A. (2018). "'Waist-belt wrestling' as a national and international kind of sport." *Pedagogical-Psychological and Medical-Biological Problems of Physical Culture and Sports*, 13(3), 42–49.
- Mandzyak, A. (2010). *Encyclopedia of traditional types of wrestling*. Minsk: n.p.
- Matushyak, P. (1978). *Carrying Out Kazakhsha-Kures Competitions*. Almaty: n.p.
- Nebolsin, P. (1852). *Essays on the Life of Kalmyks of the Khosbotousovsky Ulus*. n.p.
- Simakov, G. (1984). *The Public Functions of Kyrgyz Folk Entertainment in the Late XIX – Early XX Century*. Moscow: Science.
- Toropov, N. (1992). *National Sports and Games in Tajikistan*. Saint Petersburg: FIS.

06

인도 케랄라주의
전통무예,
칼라리파야트

B. 베누고팔 B. Venugopal 박사

인도 스리상카라차리아 산스크리트대학교 무형유산 연구소 명예 소장

아시아의 가장 오래된 무예, 칼라리파야트

칼라리파야트 Kalaripayat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 중 하나이다. 남인도에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지역에서 수련되었지만, 현재는 인도 케랄라주에서만 볼 수 있다.

문헌에서 칼라리파야트는 ‘칼라리파얏투 Kalarippayattu 또는 Kalaripayattu’, ‘칼라리파야트’ 등 다양한 명칭으로 지칭된다. 이 글에서는 ‘칼라리파야트’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칼라리 kalari의 어원에 관해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수련장’이란 의미의 산스크리트어 ‘칼루리카 khaloorika’에서 유래했다는 주장과 ‘짚 창고’란 의미의 타밀어 ‘칼람 kalam’, 또는 ‘수련장’이란 뜻의 말라얄람어 ‘칼라리 kalari’가 그 어원이라는 설이 있다. 파야트 payatt 또는 payat의 어원에 대해서도 많은 이론이 있다. ‘숙달’이란 뜻의 타밀어 ‘파일 payil’에서 유래했다는 이론과 말라얄람어로 ‘언어 습득’이란 의미의 ‘파일루카 payiluka’, ‘전투 훈련’이란 의미의 ‘파이투카 payttuka’, 또는 ‘칼싸움’이나 ‘속임수’란 뜻의 ‘파야투 payattu’가 어원이라는 설이 있다. 초기에는 ‘파야투칼라리’라고 불리다 20세기 들어서야 ‘칼라리파야트’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주목해야겠다.

기원

칼라리파야트의 기원을 살펴보면 두 가지 이론이 있다. 첫 번째 이론은

신화에서 칼라리파야트의 기원을 찾고, 두 번째 이론은 사료에서 그 기원을 찾는다. 전자에 따르면, 칼라리파야트 복파는 화신 파라슈라만이 창시했고 남파는 성자 아가스티야가 창시했다. 『케랄롤파티 Keralolpathy』(1600년)에 소개된 전설에 따르면, 화신 파라슈라만이 바다에 도끼를 던지자 물이 드러났다. 파라슈라만은 그곳을 케랄라라고 부르고 많은 칼라리(경기장)를 세운 후, 그곳을 케랄라 지배계급인 남부디리 브라흐만에게 맡겼다. 화신은 사람들에게 신의 전쟁에 관한 모든 비밀도 함께 알려주었는데, 이때 연마하던 전술이 후에 칼라리파야트로 발전했다(Vijayakumar, 2000). 타밀 문법의 아버지인 성자 아가스티야는 칼라리파야트 남파 전통 무기술인 실람밤, 전통 치료법인 바르맘(마르마 사스트람)과 싯다-바이디암도 창시했다.

역사학계에는 상감 시대 Sangam Period(기원전 300~서기 300년 추정)의 문헌에 이미 칼라리파야트가 언급된다는 위 의 신화적 설명을 반박한다. 신화에서 아리아인(브라만 계급)이 케랄라에 이주한 시기나 파라슈라만이 칼라리파야트를 창시했다고 전해지는 시기가 상감 시대보다 수세기 이후이기 때문이다.

발달

상감 시대 문헌에 언급된 원시 칼라리파야트가 현대의 모습으로 변화된 과정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원전 300~서기 300년: 원시 칼라리파야트의 등장

상감 시대는 남인도 타밀라캄 지역의 역사시대로 당시 시인을 양성하던 교육 기관인 상감 아카데미의 이름에서 따왔다. 당시 남인도 타밀라캄(타밀어 사용 지역. 오늘날의 케랄라, 카르나타카, 타밀나두 지방)은 체라 왕조와

출라 왕조, 판디아 왕조의 치하에 있었다. 상감 시대의 정확한 시기에 관해서는 서기 원년 언저리일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상감 시대를 기원전 300년에서 서기 300년으로 특정하여 사용한다.

상감 문학에서 전쟁과 무기에 대한 언급과 함께 ‘칼라리’란 단어가 전쟁터와 전투 지역을 설명하며 최초로 등장한다(Pillai, 1970). 일반적으로 상감 시대는 드라비다 사회의 제도를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감 시대의 칼라리파야트가 역사상 최초의 칼라리파야트일 것으로 추정된다. 구전으로 전승되는 칼라리파야트의 전통과 해당 지역 부족의 사냥법(Vijayakumar, 2000; Prasad, 2018) 간에 관찰되는 유사성을 살펴봐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이 시기에 케랄라 지역은 제1차 체라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수도는 카루르/반치였다. 케랄라 사회는 당시 타밀라캄 지역의 다른 사회들과 매우 비슷했다.

서기 300~800년: 브라만의 영향

상감 시대 후기에 브라만이 케랄라로 대거 이주해오며(7세기) 케랄라 사회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살라이 salai’라고 불리는 종교



전통 제의 공연 무디엣 ©B. 베누고팔

수련원이 생겼다(Vedas, Sanskrit 등). ‘차타르 chattar’ 또는 ‘차티라 chathira’라는 브라만 종파가 살라이에서 무예를 가르쳤다. 이로 인해, 칼라리파야트 기술에 정신 수행, 요가, 명상 등 브라만적 요소가 더해져 수련자의 자제력과 심적 평온, 집중력 수양을 돕게 되었다(Zarrilli, 2001). 현인 바라타 무니의 『나티야샤스트라 Nāṭyaśāstra』에 소개된 고대 산스크

리트 공연 예술의 전통을 고수하는 케랄라 지역 공연 예술과 칼라리파야트 간에는 몸의 움직임과 무예 기법에서 유사성이 관찰된다. 이러한 전통 공연에는 쿠티야탐 Kutiyattam, 카타칼리 Kathakali, 무디엣 Mudiyet, 약사가나 Yakshagana 등이 있다.

6세기경 인도의 불교 승려 보디다르마(달마)가 타밀나두주 칸치푸람 지역에서 칼라리파야트를 배운 후 동남아시아에 이를 전파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Vinodan & Meera, 2018). 그는 중국과 그 외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며 여러 업적을 쌓았는데 특히, 중국과 일본의 선종, 중국 소림사 무예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그가 불교와 칼라리파야트를 동시에 수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Gangadharan, 2017).

800~1200년: 칼라리파야트의 확립

서기 800년부터 1200년까지 제2차 체라 왕조가 케랄라 지방을 다스렸다. 왕국의 수도는 마호다야푸람이었다. 이때부터 케랄라 사회는 타밀라캄의 다른 사회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11세기에 체라 왕조와 출라 왕조 간의 전쟁이 백년간 이어졌다. 긴 전쟁을 겪으며 칼라리파야트의 주요 체계도 확립되었다(Pillai, 1970). 전쟁은 체라 왕조의 승리로 끝났는데, 이는 칼라리파야트로 단련된 ‘차베르 Chaver’라고 불리는 특별한 전사들 덕분이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해인 1102년, 이미 지역의 모든 자원은 고갈된 상태였다. 체라 왕국의 마지막 왕 ‘페루말 라마바르마 쿨라세카라’의 퇴위와 함께 체라 왕국은 멸망했다. 케랄라 최초의 중앙집권 왕조가 끝난 것이다.

1200~1700년: 칼라리파야트의 발전

체라 왕조가 저물어가던 시기에 족장이 이끄는 지방 군소 세력이 대거 등장했다. 족장들은 자신의 영토 내에서는 법질서를 유지하고 이웃에는 상징적으로 힘을 과시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고 정규군을 두는 것은



타홀리 마니코트 가문 신당 ©B. 베누고팔

자원의 한계 때문에 불가능했고, 실용적인 방안도 아니었다. 이때, 칼라리파야트가 빛을 발했다. 법 질서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되고, 양감 결투 angams-vets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었다(Vijayakumar, 2000). 남녀 칼라리파야트 전사들이 벌이는 현란한 결투 장면, 특히 푸투람 가문과 마니

코트 가문 간의 결투 장면은 “바다칸 파투칼(Vadakkan Pattukal)”(북부의 노래)에 잘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에 브라만의 영향과 더불어 칼라리파야트의 신화적 기원(북파), 즉, 화신 파라슈라마의 칼라리파야트를 확립했다는 전설이 시작됐다.

1700~1800년: 칼라리파야트의 쇠퇴

톨루나드 지방에서 탈림브 Thalimb란 무예가 칼라리(당시 톨루나드에서는 ‘가라디 garadi’라고 불림)에서 수련됐다. 1700년에서 1800년 사이에 나이칸족의 공격과 마이소르 왕국 술탄(하이데르알리와 티푸)의 침공이 이어지고 마침내 대영제국의 침략을 받는 과정에서 탈림브는 사라지고 만다. 특히, 대영제국은 칼라리를 성전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다 1804년에는 무예 전면 금지령을 내린다. 이는 파자시 라자 Pazhassi Raja(1753~1805)가 이끈 저항 세력을 근절하려는 조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박해도 케랄라의 칼라리파야트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1800~1947년: 칼라리파야트의 존속

칼라리파야트는 영국의 무예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명맥을 유지했다. 이는 지방 족장과 지주, 칼라리 스승들(코타칼 카나란 구루칼, C.V. 나라야난

나이르, 치라칼 T. 스리다란 나이르 등)이 비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덕분이었다. 또한, 켈라판과 같은 정치인이 이끈 독립운동도 칼라리파야트 보존에 큰 역할을 했다. 칼라리파야트 고수 킬레리 쿤지칸난 Keeleri Kunjikananan(1855~1939)은 칼라리파야트를 서커스 공연에 통합시켜 인도 전역에서 칼라리파야트와 서커스가 큰 인기를 끌었다.

1947~2000년: 칼라리파야트의 부흥

인도 독립 이후 케랄라에서 칼라리파야트가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다. 칼라리파야트는 크게 북파와 남파, 중부파로 구분된다.

북파(바다칸 칼라리 Vadakkan Kalari)는 케랄라 북부(당시 영국령 말라바르 지구)에서 흔히 수련되던 방식으로 맨손 기술보다는 무기 사용을 강조한다. 화신 파라슈라만이 창시했다고 알려진다. 북파는 발 기술 위주인지, 손기술 위주인지에 따라 아라푸카이 Arappukai, 필라탕기 Pillathangi, 바텐-티리판 Vatten-thirippan 등 하위 형식으로 나뉜다.

남파(테칸 칼라리 Thekkan Kalari)는 케랄라 남부지방(당시 트라방코르)과 타밀나두(당시 카니아쿠마리 지구)에서 주로 나다르족이 수련했으며, 성자 아가스티야가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타격법 바르마 아티 varma ati와 급소 타격법 마르마 아티 marma ati가 눈에 띄는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중부파(마드얌 칼라리 Madhyam Kalari)는 케랄라 중부지방(당시 코친 지방)에서 수련한 형식인데, 따로 언급할 만한 특징은 없다.

그 외에도 차바칸단, 코지코단, 카다타나단, 발루바나단, 툴루나단, 드로남팔리, 발라바타, 오디무리세리 등 많은 칼라리 형식이 존재한다. 드로남팔리 Dronampalli 형식은 주로 케랄라 남부에서 첼바카세리 왕들이 수련하던 형식으로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툴루나단 Tulunadan 형식은 북파에 흡수되었다.

2000년~현재: 칼라리파야트의 대중화 노력

칼라리파야트를 대중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케랄라 칼라리파야트 협회, 인도 칼라리파야트 연맹 등 다수의 칼라리파야트 단체가 설립됐다. 유관 단체들 모두 인도의 주요 도시에서 칼라리파야트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련

칼라리: 수련 공간

칼라리파야트 훈련은 전통적으로 ‘칼라리’라고 불리는 수련장에서 진



칼라리 내부 ©B. 베누고팔

행된다. 칼라리는 또한 예배 공간이라는 인식도 있다. 칼라리에는 신성한 단(타라 또는 피탐)이 여러 개 설치되어 있다. 단의 한 종류인 푸-타라는 여신 바가바티, 가나파티-타라는 길조의 신 가나파티, 구루-타라는 위대한 스승들이 그곳에 함께 있음을 상징한다 (Gangadharan, 2017). 보통 빠르먼

일곱 살부터 칼라리파야트 수련을 시작하고 기초, 중급, 고급, 상급, 사범급 총 다섯 개의 단계로 훈련이 진행된다.

디나 차르야: 일일훈련

칼라리 전통에서 일일훈련인 디나 차르야(dina-charya)는 매우 중요하다. 수련자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생식기, 복부, 꼬리뼈를 보호하기 위해 ‘카차(kacccha)’라는 면의를 살바 위에 단단히 걸친다. 디나 차르야는 운동

전 경례 ‘반다남 Vandanam’, 오일 마사지와 오일 목욕 ‘아브향가 Abhyanga’, 실제 운동 ‘비야야마 Vyayama’, 스승이 학생에게 압을 가하는 ‘마르다나 Mardana’, 건식 마사지 ‘우드바르타나 Udvartana’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실제 운동인 비야야마는 준비 운동, 다리 운동, 기본 스텝, 누운 자세 운동, 자세/태세, 점프, 공중제비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기본 스텝(추바투갈 Chuvatukal)은 칼라리파야트의 전반적 기본 스텝을 의미하는 반면, 자세/태세(바티부칼 Vativukal)는 각 동작의 기본적 특징을 나타낸다. 바티부칼은 아슈타-바티부 Ashta-vativu라고도 하는데, 이는 여덟 가지 동물과 조류의 이름을 딴 자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코끼리, 사자, 말, 고양이, 멧돼지, 수탉, 뱀, 물고기, 공작 태세가 있다.

바이-타리: 이론 수업

칼라리 수련에는 바이-타리 Vai-thari(구전 명령이라는 뜻)라고 불리는 이론과 실제 훈련 파야트(무르 mur 또는 프라요강가 prayoganga로도 불림)라는 두 가지 요소가 존재한다. 바이-타리에 따르면, 한 수련 분기의 파야트는 아다부, 아라푸, 토질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파야트: 전투 훈련

전투 훈련 파야트는 기초부터 고급 단계까지 주로 네 개의 유형, 즉 마이-타리 mai-thari, 콜-타리 kol-thari, 안카-타리 anka-thari, 카이-타리 kai-thari로 구성된다. 마이-타리(‘마이’는 ‘몸’이란 의미)는 체력, 유연성, 균형, 에너지를 증진하기 위한 신체 운동이다. 후반 단계에서 호신술을 배우기 위한 기초 단계이다. 콜-타리는 목봉(콜)을 사용하는 동작이다. 목봉의 종류에는 체루-바디(작은 봉), 오타(구부러진 봉), 가다(곧은 봉)가 있다. 안카-타리는 금속 무기를 사용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금속 무기는 실제 전투에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상징적으로 시범이나 호신술 훈련에만 사용된다. 금속 무기의 종류에는 카타라(단검), 우다발(검),

쿤탐(창), 마라피디차 쿤탐(창을 피할 때 사용하는 검과 방패), 우루미(얇은 양날 장검), 추리카(양날 단검), 벤마주(도끼), 술람(삼지창), 카두탈라(오타처럼 구부러진 작은 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카이-타리(또는 베룸-카이 프라요감)는 주로 맨손(카이)을 이용하여 신체 여러 부위, 특히 급소를 맨손으로 타격하고 발차기로 공격하는 동작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무기 중 우루미 Urumi는 매우 독특한 무기이다. 길고 얇은 날 덕분에 접어서 숨기거나 허리에 묶을 수 있다. 매우 치명적인 무기로 과거에는 전사들이 대규모 전투에서만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칼라리파야트의 전투 기술(파야트) 중 대부분은 바이-타리(대대로 전해지는 구전 명령)를 기반으로 하고 사료나 책자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우루미에 관한 바이-타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남인도 금속 고고학 연구에 따르면, 서구에서 철강이 사용되기 수세기 전인 상감 시대에 인도 강철로 만든 우루미의 초기 형태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한다(Srinivasan, 2013). 인도 강철은 탄소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남인도에서 최초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말라얄람어에서 ‘우루미’란 단어가 ‘다마스쿠스 검’이란 뜻의 아랍 단어 ‘루미 rumi’에서 유래했고(Prasad, 2018), 인도제 강철 ‘우츠 wootz’를 나타내는 말라얄람어 우루쿠 urukku, 타밀어 우쿠 ukku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Srinivasan, 2013). 모두 칼라리파야트가 기원전에 시작되었다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칼라리-비드야: 칼라리 배움

칼라리와 관련된 비드야(vidya(배움))에는 치료술, 예술, 스포츠, 관광 등이 있다.

바이디암: 치료술

칼라리-바이디암 Kalari-vaidyam은 원래 칼라리 스승들이 전투 부상자를 치료하고 학생들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칼라리-바이디암은 우리 몸의 신경계, 근육계, 급소에 대한 지식과 특화된 민간약을 이용한다. 아유르베다 Ayurveda, 요가, 자연요법, 우나니 Unani, 싯다 Siddha, 동종요법(인도정부는 동종요법을 주관하는 부처인 아유시 AYUSH를 따로 설립하기도 함) 등으로 구성된 인도 의학 중에 아유르베다와 싯다, 요가, 토착 치유법인 판차카르마, 마르마, 점골 치료 등과 연관이 깊다.

‘생활 과학’이란 뜻의 아유르베다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치료법이다. 케랄라의 아유르베다에는 특별한 면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토착 약초로 조제하는 아유르베다의 약에 칼라리 스승들이 이용하는 특효약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타밀어에서 유래한 싯다-바이디암은 카밀 나무와 케랄라 남부 지역에서 널리 이용되고 칼라리파야트 남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에는 외국 관광객을 위해 칼라리와 요가를 합친 칼라리 요가도 등장했다. 칼라리 요가는 칼라리파야트의 신체 수련에 유익한 요소와 요가의 정신 수련에 유익한 요소를 결합시킨 운동이다.

‘판차카르마 Panchakarma(‘판차’는 숫자 5, ‘카르마’는 ‘일/동작’이란 의미)’는 해독, 정화, 제거로 이루어진 클렌징과 회복 치료법이다. 바마남 Vamanam(치료적 구토), 비레차남 Virechanam(정화), 아누바사나 Anuvasana(약용 오일을 이용한 구토), 나시암 Nasyam(비강 치료), 아스타파나 바스티 Astapana Vasti(생약 관장)로 구분된다. 판차카르마는 예비 치료, 본 치료, 후치료 세 단계로 진행된다(Arya Vaidya Sala, 2015).

마르마-바이디암 Marma-vaidyam은 인체의 급소(마르마)를 이용하는 치료법이다. 급소 연구는 칼라리 훈련에서 가장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데, 특히 카이-타리 전투 훈련(땀손 훈련)에서 그러하다. 칼라리 바이디암은 고대 의학서 『수스루타 삼히타 Susruta Samhita』에 소개된 107개 급소 중

64개를 ‘칼라리파야트 훈련 중 공격할 부위’로 규정한다. 그중 32개는 전투 중에 노릴 부위이고, 나머지 32개는 적이 이미 움직이지 못할 때 노리는 부위이다. 칼라리파야트 수련자는 또한 손상된 마르마를 약을 사용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인 아당갈(Adangal) 혹은 마루카이(Marukkai)도 배운다(Shaji, 2011).

예술과 문화

칼라리파야트는 다양한 예술 형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케랄라 민속 공연 차비투나타캄 ©B. 베누고팔

른 무예(오치라 칼리, 벨라 칼리, 쿵간 파다, 오나 탈루 등)와 제의 예술(테이암, 야트라 칼리, 무디엣, 파테니 등), 전통 공연(크리슈나탐, 쿠티야탐 등), 민속 예술(콜 칼리, 파리차무투 칼리, 차비투나타캄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칼라리파야트의 영향은 대부분 몸의 움직임에만

국한되지만, 테이암(Theyyam)과 같은 의례에서는 전설적인 칼라리파야트 고수들이 신격화되기도 한다.

스포츠와 건강

칼라리파야트는 예술, 문화, 치료, 체력 단련, 스포츠 등 여러 분야의 요소를 지니지만, 케랄라주 정부와 인도 정부는 칼라리파야트를 스포츠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칼라리파야트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스포츠 보조금 외에 다른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관광

칼라리 전통은 케랄라의 관광 사업, 특히 해외 관광객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부작용 없는 약과 치료법, 마르마-바이디얌(금소 치료)이나 마사지와 같이 특화된 서비스는 많은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Sujatha, 2013). 특히, 케랄라의 다양한 전통 무기를 기념품으로 만들어 널리 알리는 '신의 나라' 캠페인에서 칼라리파야트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칼라리파야트 무기 모양의 관광 기념품 ©B. 베누고팔

토착 지식과 무형유산

칼라리-비드야는 원래 다른 토착 치료법이나 지식(판차카르마, 비샤-바이디얌, 싯다-바이디얌, 오타몰리-바이디얌, 마르마-바이디얌, 발라-바이디얌, 네트라-바이디얌, 친타마나-바이디얌, 접골 치료 등)와 함께 일반 민간요법 나투바이디얌으로 분류되었다. 이 중 많은 치료법이 인도 전역에서 통용되는 산스크리트 형식 आयुर्वेद(아유르베다)로 통합되었다. 하지만 판차카르마는 케랄리아 आयुर्वेद(아유르베다)로, 마르마-바이디얌은 타밀 싯다-바이디얌으로 흡수되었다. 접골 치료는 칼라리-바이디얌에 통합되었다(Girija, 2016). 위에서 언급한 토착 지식은 최근 생겨난 '무형유산' 개념에 해당된다. 케랄라주 칼라리 소재 스리상카라차리아 산스크리트대학의 무형유산 연구소는 이러한 무형유산 연구를 위해 설립되었다.

인도 정부는 2020년에 칼라리파야트를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에 등재했다. 칼라리파야트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도 등재하여 그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유산'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인도 정부는 토착 지식을 스승이 제자에게

전승하는 전통과 칼라리 스승들의 비종교적 특성, 치료법으로서 중요도 등 많은 긍정적 요소를 고려하여 민간인에게 주는 상 중 네 번째로 높은 영예인 파드마 슈리상을 76세 칼라리 스승 미낙시 암마(Meenakshi Amma)에게 수여했다.

칼라리파야트, 정신 수양과 육체 수련을 함께 돕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 중 하나인 칼라리파야트는 인도의 대표적인 민속 유산이다. 칼라리파야트는 치료법, 예술, 스포츠 및 체력 단련, 요가, 관광 등 여러 분야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인간의 전반적 정신 수양과 신체 수련을 도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 Arya Vaidya Sala (2015). *Keraleeya Cbikitsakalum Panchakarmavum* (Malayalam). Kottakkal: Arya Vaidya Sala.
- Gangadharan, C. (2017). *Kalaripayat Nighantu*. Kannur: Published by the author.
- Girija, K. P. (2016). Sites of Knowledge: Situating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and Modern Education. Unpublished Ph.D. thesis, Manipal University.
- Pillai, E. P. N. K. (1970). *Studies in Kerala History*. Kottayam: National Book Stall.
- Prasad, S. R. D. (2018). *Kalarippayattu Vignanakosham*. Kannur: Kairali Books.
- Shaji, J. (2011). *Kalari-Vidya: The Martial and Healing Art of Kerala*. Kottayam: Published by the author. Available at <https://archive.org/details/Kalarippayattu>.
- Srinivasan, S. (2013). "Indian iron and steel, with special reference to Southern India." In J. Humphris and T. H. Rehren (eds), *World of Iron*. London: Archetype Press.
- Sujatha, M. (2017). Health Tourism with Reference to Kalari. Unpublished Ph.D. thesis, M G University, Kottayam.
- Vijayakumar, K. (2000). *Kalarippayattu: Keralathinte Saktbiyum Soundryavum* (Malayalam). Thiruvananthapuram: Department of Cultural Publications.
- Vinodan, A. and Meera, S. (2018). "Exploring the relevance of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a case study of Kalaripayattu." *Journal of Heritage Management*, 3(1), 71–86.
- Zarrilli, P. B. (2001). *When the Body Becomes All Eyes: Paradigms, Discourses and Practice of Power in Kalarippayattu, a South Indian Martial Art*.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07

레온사람, 레온품성이 레온식 레슬링으로 나타나다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타스콘 José Antonio Robles-Tascón

카를로스 구티에레스-가르시아 Carlos Gutiérrez-García

스페인 레온대학교 체육스포츠교육학부

알루체가 레온식 레슬링으로

알루체 aluche 혹은 루체 luce라고 불리는 레온식 레슬링은 스페인 카스티야 레온 자치구 내 레온주의 전통 레슬링이다. 면적 1만 5,581평방킬로미터, 인구 46만 명인 레온주는 스페인의 북서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으며, 칸타브리아산맥과 갈리시아 산괴, 엘비에르소 저지대, 중앙 고원 메세타 등이 자리 잡고 있어서 변화무쌍한 풍경을 자랑한다. 과거 레온 왕국(910~1230)에 속했고, 1188년에 유럽 최초로 의회 제도를 만든 곳이기도 하다. 레온주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역사적인 길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북에서 남으로 통하는 ‘은의 길 Ruta de la Plata’이고 다른 하나는 동에서 서로 이어지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이다. 순례와 무역이 이루어지던 이 길을 통해서 문화적 관습과 사상, 공예품 등이 전파되었으며 덕분에 레온 지역의 문화가 풍성해졌다.

특히 레온식 레슬링은 이 지역의 북동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칸타브리아산맥의 중앙과 동쪽에 위치한 두 곳의 산지, 몇몇 지역 그리고 주도인 레온시를 포함하는 근방의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곳은 레온주 전체 영토의 약 35%를 차지한다. 그러나 레온식 레슬링과 관련 있는 곳은 레온 북부와 빌바오를 연결하는 철도를 포함하는 몬타나(산지)와 같은 철도의 남부에 위치한 리베라(강기슭), 두 곳뿐이다. 예로부터 이 지역의 가장 유명한 레슬링 선수들 간의 시합이 열리면 관중들이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보냈다(Robles-Tascón & Álvarez-del-Palacio, 2001).

2017년, 카스티야 레온 자치구 지방정부가 다음과 같이 레온식 레슬



바실리카 데 산 이시도로에서 열린 레슬링 경기를 묘사한 기둥머리(13세기), 레온시 ©호세 안토니오 로 블레스 - 타스콘

링을 무형문화재로 공식 승인하면서 소중한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했다.

알루체 혹은 레온식 레슬링은 전통적인 토착 스포츠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수세기를 거쳐 구전으로 전해진 관습이자 전통이다. 오늘날까지 명맥을 이어서 현대 스포츠의 형식과 관습에 적응하며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연방정부의 통제하에 정기적인 경기를 개최한다. 이는 카스티야 레온 자치구의 역사적인 문화유산이다.

이 글에서는 레온식 레슬링이 진화를 거쳐 현재의 형태에 이르게 된 과정을 형식적인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 주제에 대한 추가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주로 스페인어로 작성된 관련 문헌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밝힌다.

기본적인 특징: 원형경기장 코로와 가죽 벨트

레온식 레슬링의 주요 특징은 원형의 경기장 코로(corro)(레슬링 시합을 지칭하기도 함)와 레슬링 선수가 허리에 차는 가죽 벨트이다. 경기 중에는 맨 발의 선수들이 두 손으로 상대의 벨트를 단단히 움켜쥐고 다리, 둔부, 팔을 사용하여 다양한 던지기기술(마냐스mañas)을 구사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경기 시간은 1분 30초에서 3분 정도이다. 상대가 목과 엉덩이를 포함하여 몸의 뒷부분이 바닥에 닿는 자세로 완전히 넘어지면(카이다엔테라caída entera) 최고 점수인 2점이 주어진다. 상대의 벨트를 풀거나 상대의 신체에서 등을 제외한 다리 윗부분 중 어디라도 바닥에 닿게 되면(메디아 카이다media caída) 공격자가 1점을 얻는다. 4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우승한다. 양측 모두 4점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점수가 더 높거나 페널티를 적게 받았거나 연장 시간 30초 안에 어드밴티지를 먼저 받는 선수가 우승한다.

오늘날 레온식 레슬링은 성별, 연령별(7개 범주), 체급별(4개 범주)로 나뉘며 개인 경기와 팀 경기로 구분된다. 코로(대회)는 주로 오랜 전통을 가진 소도시에서 개최하며 특히 7월과 9월 사이에 열리는데 이때는 매 시즌 약 30회의 대회가 진행된다. 단일 토너먼트로는 주립선수권대회, 몬타나 대 리베라전, 왕중왕전이 있으며, 왕중왕전에는 현 시즌 코로에서 한 번 이상 우승한 선수만 참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중은 입장료를 내야 레슬링 토너먼트를 관람할 수 있으며, 선수들은 대개 체급 등에 따라 상금을 받는다.



산타 마리아 데 그라데페스 교회에서 열린 레슬링 경기를 묘사한 코벨(13세기), 레온주 그라데페스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타스콘

전통 알루체: 모두를 상대로 싸우다

예로부터 알루체는 지역의 여름 축제와 순례기에 즐길 수 있는 전형적인 오락거리였으며, 선수들은 자신의 실력과 출신지, 소속 지역, 경력 등 명예를 걸고 경기에 나섰다. 남성들이 선수로 출전했는데 나이, 몸무게 등을 구분하지 않았고, 경기당 시간제한도 없어서 대개 늦은 밤에 끝났다.



레온식 레슬링 기념우표 ©코레오스 에스파냐

같은 맥락에서 각 지역의 불문율과 관습에 따라잡기 방식, 점수 산정 방식, 기술이 다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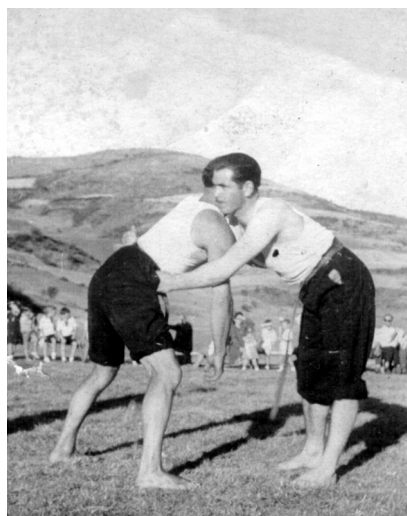
레슬링 선수나 지역 대표가 “누가 레슬링을 할 것입니까? 제가 직접 나서야 합니까?”라고 도전장을 내밀거나 혹은 “캄포레흐모소(레온주의 한 도시)가 모두를 상대로 싸웁니다”라고 경쟁의지를 부추기면

서 알루체가 시작된다. 코로의 형식이 갖춰지면 경기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시합에서 이긴 선수가 코로에 남아 상대측의 다음 선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레슬링 선수는 코로에 단 한 번만 참가할 수 있었다. 대개 카리스마 넘치는 지역민들이 대회에 권위를 세웠고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다.

시스나리오스 시장은 관중들 사이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했다. “시스나리오스는 모두에게 대항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 젊은이들이 패배하면 기혼자가 선수로 나서고 젊은 여성들도 나설 것입니다. 우리 측의 심판은 돈 루이스, 상대측의 심판은 페드레갈레스 출신의 돈 후안이며 결정권자는 안카일스 신부님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깃들게 하소서. 시스나리오스에는 모두를 위한 양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리아노 지자체 경기장, 레온주 ©안드레스 데 라 토레



몬타나 레온식 레슬링 선수들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타스콘, 플렌시오 페르난데스

지름이 크고 밀도 높은 완전한 형태의 원이 형성되었다. 앞줄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바닥에 앉았고, 어른들의 다리 사이로 아이들의 머리가 보이는데 사과를 깨물어 먹거나 캐러멜을 빨아먹고 있었다. 산사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는 어깨가 넓고 키가 작고 말을 아주 재미있게 하는 사람이 만장일치로 코로의 질서 유지 담당자로 뽑혔다. 심판들은 우대석에 앉았고, 마을의 젊은 여성을 대표하는 마릴루즈는 코로 우승자에게 상으로 줄 커다란 라운드 케이크를 손에 들고 있었다. (Mancebo, 1936)

대회가 끝날 때까지 남아 있는 선수는 라운드 케이크, 수탉, 새끼 양 등의 상품을 받거나 상금을 받고 해당 코로의 ‘대장 cock’으로 지정되었다. 상대 선수를 대부분 물리친 선수들에게도 상과 보답이 주어졌다. 이 레슬링 선수들이 자신의 지역을 대표했기 때문에 선수가 이기면 그 지역이 이기고 선수가 지면 그 지역이 지는 것으로 받아들여 경기장은 긴장과 열기로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뜨거웠다.



만사네다 데 토리오 지역 경기장, 레온주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타스콘



리아뇨 지자체 경기장, 레온주 ©안드레스 데 라 토레

내가 참석한 가장 극적인 시합은 다섯 명의 형제가 차례로 출전하여 지역 전체의 최고 실력자들을 물리친 경기였다. 다섯 형제 중 가장 실력이 좋은 남성이 마지막으로 등장했을 때(양 측의 가장 뛰어난 라이벌 선수들은 늘 시합의 마지막까지 남아 경기를 펼치곤 했다), 형제들의 아버지가 새끼를 지키려는 사자처럼 경기장에 등장했다. 초원의 풀들이 열정과 흥분으로 몸을 떨고 있었다. 돌맹이들도 긴장감에 출렁이고 그 광경을 목격한 관중들은 숨을 죽였다.

초원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모두가 경기장 한가운데서 두 마리 사자처럼 싸우는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Gonzalez-Largo, 날짜 미상)



벨트 버클: 레온식 레슬링 경량 체급 챔피언 어워드, 보냐르, 1940년 ©앙헬 알론소 로블레스-타스콘

레슬링이 남성성을 상징하는 전통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어머니, 형제, 여자친구,



프리오로 자치구의 경기장, 레온주 ©앙헬 알론소 로블레스 - 타스콘

흑은 이웃으로서의 관중이었다. 여성들의 지지가 중요한 까닭은 선수가 고향의 자존심을 지킨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알루체에서 여성들, 특히 소녀들의 존재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리고 소년이 아직도 땀을 많이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니에베스(소녀)가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며 “정말 잘 했어!”라고 외쳤다. 자부심으로 빛나는 행복한 소년이 말했다. “와! 이것만으로도 나는 다시 싸울 준비가 됐어.” (Goy, [1940] 2002)



캄포에르모소 지역의 경기장(레온주 라베실라 자치구). 배경은 레온 왕국의 전통 깃발 ©안드레스 데 라 토레

전통 놀이에서 제도화된 스포츠로

20세기 초부터 알루체의 스포츠화 과정이 시작되었다. 1920년 제1차 레슬링 지방위원회가 만들어져 레온식 레슬링의 경기 규정을 표준화하기 시작했다. 1931년, 레온의 수호성인 산프로일란 축제 기간인 10월 초에 주립선수권대회가 최초로 열렸다. 같은 해 11월 22일에는 마드리드의 차마르틴 스타디움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틱 빌바오의 축구 경기에서 수천 명의 관중들이 ‘레온식 레슬링’의 시범경기를 볼 수 있



스페인 내전 중이던 1938년, 레온주에서 온 리보리오 요렌테가 레온식 레슬링을 연습한다. 우에스카주 칸프랑크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타스콘

었다. 이것은 레온식 레슬링을 지역 축제 차원에서 벗어나 스포츠로 홍보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였으나 매우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다(Robles-Tascón, 2000).

그때부터 현재까지 외적 및 내적 요인으로 레온식 레슬링의 발전은 꾸준하지 못했다. 스페인 내전(1936~1939년)과 그에 따른 탄압, 이주, 지방의 쇠락, 전통적 삶의 지양, 레온식 레슬링 지도부 간

의 내분 그리고 핵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지도 리더십과 재정 지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레온식 레슬링은 ‘스포츠화 모델’에 따라 진화하면서도 진정성을 지키려고 노력해왔다. 이런 진화는 손실(주로 다양성의 측면에서 손실을 봄)과 이득(근본적으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의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레온식 레슬링 전통주의자들과 현대화 찬성론자들 사이에서 이를 두고 논란이 있다.

먼저, 중요한 변화는 레슬링을 의미하는 총칭인 알루체를 특별히 레

온 지방을 대표하는 레슬링을 지칭하는 루차 레오네사(레온식 레슬링)로 대체한 것이다. 이는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레온주의 독립을 바라는 20세기 초의 문화적 운동의 맥락에서 일어났다. 실제로 레온주 전체에서 알루체가 행해진 것은 아니며, 레온주 외곽의 인접 지역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온식 레슬링’이 이 레슬링의 공식 명칭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애호가들은 여전히 알루체나 루체라고 부른다.



레온시의 경기장, 배경은 레온 대성당 ©안드레스 데 라 토레

구전과 전통적 권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전통적 경기에서 스포츠 연맹이 규칙 제정과 경기 종목 정립, 경기 일정 조직, 레온식 레슬링 트레이너 및 심판 훈련 등을 담당하며 제도화된 스포츠로 변화해갔다. 종합적으로 현대적인 방식의 스포츠로 귀결되었다. 이런 과정이 지역 전통에 의존하는 알루체의 다양한 명문화되지 않은 규칙에 영향을 미치고 공식적인 경기규칙으로 대체되었다. 레슬링 선수의 장비나 경기장의 규격 등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레온식 레슬링 대회를 위한 특정 시설이 그라데페스, 만시야 데 라스 물라스, 리아노, 비야파네, 레온 등의 일부 지역에 건설되었다.

오늘날 약 400명의 레온식 레슬링 선수들이 연방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레온식 레슬링 관련 학교가 15곳, 클럽이 8곳 정도 있는데 이곳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기본기를 익히고 성인들도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레온식 레슬링 선수 티노 엘 코호(다리걸기 하는 사람), 피라디아 데 라 소바리바, 레온 발데프레스노 자치구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 - 타스콘, 폴헨시오 페르난데스



프리오로 자치구 경기장, 레온주 ©양헬 알론소 로블레스 - 타스콘

레온식 레슬링 경기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가 2007년에 여성부 대회가 만들어지면서 참여도가 증가했으나 자격증을 가진 여성은 아직 30명 정도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레온대학교에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하나로 레온식 레슬링을 정기적으로 하도록 시도하고 있으며, 체육스포츠과학부에서는 체육 활동 및 스포츠 분



벨트 버클: 레온식 레슬링 국립 선수권 대회, 1933년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 - 타스콘

야의 미래 체육교사와 전문 종사자를 키우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정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준 동안 총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레온 레슬링 경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경기마다 500~1,000명 정도의 관중이 든다). 레슬링 경기가 열리는 상당수 소도시의 인구가 200명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다.



레온식 레슬링 장면, 스테인드글라스(1929), 레온시 카소나 데 로스 페레스 ©안토니오 바레나다,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타스콘



전통 방식의 알루체 시범 장면, 두 선수 모두 상대의 바지를 움켜쥐고 있다. ©안토니오 바레나다,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타스콘

레온식 레슬링과 집단 정체성

알루체는 지역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고대 전통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과 고향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의 용기와 능력, 힘을 보여주는 훌륭한 전시장으로 축제와 순례 같은 중요한 기간에 개최되었다. 참가자는 주로 청년인 만큼 과거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공동체(가족, 고향, 지역 등)의 활력과 가치를 구현했다.

알루체가 열리기 한 시간 전인 오후 2시, 리아뇨에 이르는 세 곳의 길은 알루체를 보러 가기 위해 사람들이 타고 온 차들이 세 줄로 끝없이 늘어서 있었다. ... 한 시간 후인 오후 3시 초원으로 가는 행렬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성스러운 예술극의 신성한 분수에서 물을 마시려는 힘센 소년들인 리오솔Riosol의 행렬이었다. 그들은 초원과 젖소로 유명한 넓은 계곡인 발데부론을 향했고 그 다음은 결정수와 약수로 유명한 코르니어로와 산양과 양털이 풍부한 포르티야였다. ...

갑자기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환호성과 박수가 하늘을 가득 메우고 탑종이 힘차고 웅장하게 울렸다. 라 리베라의 선수들이 리아노로 들어가고 있었다. (Goy, [1940] 2002)



벨트 잡기(상대 선수의 등 뒤로) ©양헬 알론소 로블레스-타스콘

전통사회에서 알루체는 지역 사람과 지역 자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경기를 거듭하며 선수들 사이에는 강한 경쟁심이 생겨났다. 이렇듯 높은 수준의 개인적, 집단적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지역민들이 잠시 힘든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짧은 탈출구가 되었다. 축제와 순례 덕분에 사람들은 잠시라도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재미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Robles-Tascón & Álvarez-del-Palacio, 2001).

19세기 말부터 훗날 문화적 레온 자치주의 Cultural Leonesism라고 불리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운동은 레온주의 상징물과 역사, 언어, 예술, 관습, 전통과 같은 레온 지역 고유의 문화재를 복구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레온 지역 사람들의 소속감과 헌신을 강화하고자 했다(Salgado, 2016). 최초의 레슬링 지방위원회가 만들어진 것도 이런 맥락이었다.

정확히 1920년의 어느 날, 우리 수도의 '빅토리아' 카페에서 열린 모임에 서였다. 이 땅의 위대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경제적 지불능력과 아름다운 전통에 대한 열정이 있는 몇몇 레온식 레슬링 애호가들이 케이크 경주, 나인핀스, 알루체 같은 토착 놀이나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기로 결정했다. ...

이들은 최초의 레슬링 지방위원회를 구성했다. 명망 있는 의사이자 뛰어난 레슬링 선수였던 올레가리오 야마사레스 델 올모가 위원장으로 임명

되었다. ... 이 위원회의 구성원은 주류 검사관 겸 화학자로 자신의 고향인 프리오로의 레슬링 경기에 애착이 컸던 플라시도 에레로, 지역 전통을 다루는 지역 신문의 임원이자 신학대학의 교수인 펠레몬 데 라 쿠에스타, 발데프레소 자치구 의사로 소라비라 지역 전



최초의 알루체 지방선수권대회, 1931년. 레온시의 이동식 투우장에서 경기를 했다.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타스콘

역에서 평판이 좋은 엔리케 R. 기사술라였다. 기사술라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심판으로 일하며 관중들 또는 경기가 열리는 지역의 나이든 어른 세 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위원회가 관습적으로 행하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관례를 깨곤 했다. (Rodríguez & Gallego, 1985)

레온식 레슬링은 담당 기관이 설립되자 문화적 레온 자치주의의 물결에 따라 점차적으로 레온 문화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이는 독립의 중요한 요소로서 계속 레온 자치주의의 공식 담론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20세기 초까지 이베리아반도에 남아 있던 유일한 레슬링 형태였기에 그럴 만했다. 레온 지방의회, 레온 시의회 등의 공공기관, 지역 기업과 레온에 위치한 기타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레온 출신의 작가 훌리오 라마자레스 Julio Llamazares와 같은 많은 지역 인사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레온주 페드로사 데 레이 옛 자치구(현재는 없어짐)에서 열린 알루체 경기, 1931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타스콘

하지만 레온식 레슬링이 다른 고대 레슬링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스포츠 이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레온식 레슬링은 그 기원과 탄생이 어쨌든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의 바탕이 되는



텐달 데 라 소바리바에서 열린 경기, 레온주 발데프레스노 자치구 ©호세 안토니오 로블레스-타스콘



레온 대성당 재개관 축하 포스터의 일부, 1901년 ©안드레스 데 라 토레, 앙헬 알론소 로블레스-타스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전설적인 대회로 이 땅의 명장과 신화적인 이름들에 대한 기억을 남겼고 간결한 이미지로 레온 땅의 일부가 되었다. (Llamazares, 2002)

마지막으로 카스티야 레온 자치구에서 레온식 레슬링이 문화적 무형 자산이자 토착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차원에 머무른 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1996년 서유럽의 전통 레슬링 형태(구렐, 벨홀드, 컴벌랜드, 웨스트몰랜드 레슬링, 글리마 등)의 소규모 연맹이 참가하는 국제켈트레슬링연맹 FILC/IFCW에 가입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국제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 국제켈트레슬링연맹의 행사를 주최하고 이에 참가하는 것도 레온식 레슬링의 정체성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의회 의장은 “스페인과 레온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에서 당신이 한 일은 지역을 위한 일”이라며 “자부심”을 강조했다. … “우리는 주의 대표로서 스페인과 레온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에서 한 일에 대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 후안 마르티네스 마조는 다시 한 번 레온식

레슬링에 대해 “레온 지역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하고 진실한 표현이자 진정한 상징”이라고 말하여, 이 스포츠에 대한 지방 기관의 강력한 지지를 재차 강조했다. (레온 지방의회, 2019)

레온식 레슬링을 노래하자

레온식 레슬링은 뿌리 깊은 전통 스포츠다. 지역의 여름 축제와 순례 기간에 열린 고대의 알루체로부터 진화한 것이다. 오늘날의 레온식 레슬링은 성별, 연령별, 체급별 범주로 나뉘며, 스포츠 클럽과 학교 수업에서 이 아름다운 스포츠를 배울 수 있다. 이 스포츠의 사회적 차원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레온 몬타나와 리베라에서 여름에 열리는 대회에 참여하면 된다. 레온식 레슬링 찬가는 진정성, 고향에 대한 사랑, 전통에 대한 존중, 기사도, 용기 등을 노래하면서 레온 사람들과 레온 레슬링의 특징을 보여준다.

... 고대부터 우리의 레슬링은 대중적인 열풍을 불러왔고
오늘날에는 마을마다 도전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레온의 격노와 품성 덕분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의 자부심으로
이 스포츠는 불멸이 되었다.
고귀함 안에서 태어난 용감한 레슬링 선수들이
커다란 열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우리는 언젠가 레온의 전설이 될 위업을 목격하고자
코로를 건설한다.
싸우자, 레온인들이여!

- Arredondo, Á. (1999). Himno a la Lucha Leonesa [CD-Rom]. *Himno oficial y romancero de la Lucha Leonesa* [Music CD]. León: Producciones Caskabel.
- Cagide, C., Querol, M. A., and González, S. (2019). *Análisis de la participación de las mujeres en el patrimonio cultural inmaterial: situación actual, experiencias y perspectivas de futuro*. Madrid: Ministerio de Cultura y Deporte. Instituto del Patrimonio Cultural de España.
- Fernández, F. (2004). *Historia de los Campeonatos Provinciales de Lucha Leonesa*. León: Diputación de León.
- Fernández, F. (2013). *Pioneras y luchadoras: la mujer en la lucha leonesa*. Mansilla de las Mulas (León): Ayuntamiento de Mansilla de las Mulas.
- Gonzalez-Largo, F. (n.d.). *Escenas costumbristas de la montaña leonesa*. Unpublished manuscript.
- Goy, J. M. ([1940] 2002). "Susarón." In J. A. Robles-Tascón (ed.), *El deporte de los aluches en la literatura leonesa. Antología y estudio recopilatorio de textos desconocidos*, pp. 64–80. León: Universidad de León.
- Gutiérrez-García, C., Espartero, J., and Villamón, M. (2001). "Juego tradicional y deporte autóctono. A propósito de un estudio comparativo entre la galhofa y la lucha leonesa." *Revista El Filandar / O Fiadeiro. Publicación Ibérica de Cultura Tradicional*, (13), 25–31.
- Junta de Castilla y León (2017). ACUERDO 33/2017, de 29 de junio, de la Junta de Castilla y León, por el que se declara la Lucha Leonesa, Bien de Interés Cultural de carácter inmaterial. Official government bulletin, no. 165, July 12. Available at <https://www.boe.es/boe/dias/2017/07/12/pdfs/BOE-A-2017-8169.pdf> (accessed June 13, 2020).
- Llamazares, J. (2002). "Más que un deporte." In J. A. Robles-Tascón and F. Fernández-Fernández (eds), *Historia de la lucha leonesa*, pp. 7–8. León: El Mundo-La Crónica de León.
- León Provincial Council. (2019). "Recepción en la Diputación a la selección de lucha leonesa que participó en el campeonato europeo de luchas celtas." [Online] Available at www.dipuleon.es/newsSearchAction/Diputacion/Noticias_de_Diputacion/lu?allSearchField=luchas+celtas&f=search&i=0&p=1 (accessed July 1, 2020).
- López, C. (ed.) (1999). *Iniciación a la lucha leonesa: Manual completo del*

- monitor*. León: Diputación provincial de León y Federación Territorial de Lucha.
- López, C. (ed.) (2000). *El entrenamiento en los deportes de lucha*. León: Diputación provincial de León y Federación Territorial de Lucha.
- Mancebo, J. (1936). *Lazo de almas*. León: Imprenta católica.
- Robles-Tascón, J. A. (2000). *La lucha leonesa o aluches. Origen y desarrollo de un viejo deporte. Aspectos histórico-culturales que configuraron su práctica*. PhD thesis, Universidad de León.
- Robles-Tascón, J. A. (2002). *El deporte de los aluches en la literatura leonesa. Antología y estudio recopilatorio de textos desconocidos*. León: Universidad de León.
- Robles-Tascón, J. A. (2003). *La lucha, los aluches y los juegos populares y aristocráticos en la literatura española*. León: Universidad de León.
- Robles-Tascón, J. A. (2007). *Análisis y enseñanza de los gestos técnicos de la Lucha Leonesa: Las mañas de los Aluches*. León: Celarayn.
- Robles-Tascón, J. A., and Álvarez-del-Palacio, E. (2001). "La lucha leonesa de antaño: Los aluches." *Apunts: Educación física y deportes*, (66), 72–76.
- Robles-Tascón, J. A., and Álvarez-del-Palacio, E. (2002). *Didáctica de la lucha leonesa en la escuela: El acondicionamiento físico a través del juego*. León: Caja España.
- Robles-Tascón, J. A., and Fernández-Fernández, F. (2002). *Historia de la lucha leonesa*. León: El Mundo-La Crónica de León.
- Robles-Tascón, J. A., and García-Robles, H. (2017). "Repertorio bibliográfico anotado de monografías de lucha leonesa (1977–2015)." *Revista de artes marciales asiáticas*, 12(2), 50–58. <https://doi.org/10.18002/rama.v12i2.5159>.
- Rodríguez, O. and Gallego, C. (1985). *¿Hay quién luce?* León: Diputación provincial.
- Salgado, C. J. (2016). *La evolución de la identidad regional en los territorios del antiguo Reino de León (Salamanca, Zamora, León)*. Salamanca: Ediciones Universidad de Salamanca.
- UNESCO (2013). "The Decreta of León of 1188—The oldest documentary manifest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system." [Online] Available at 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memory-of-the-world/register/full-list-of-registered-heritage/registered-heritage-page-8/the-decreta-of-leon-of-1188-the-oldest-documentary-manifestation-of-the-european-parliamentary-system/ (accessed July 13, 2020).

08

고대 상인 문화가 만든
중국 산시성의
심의권과 형의권

로랑 치르코프 - 레예스 Laurent Chircop - Reyes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엑스마르세유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무예와 상인 문화가 만나다

같은 계보에서 갈라진 두 개의 문파, 심의권(心意拳)과 형의권(形意拳)은 18세기 중반에는 중국 북부의 산시성을 중심으로, 19세기 초에는 허베이성에서 크게 발전했다. 오늘날 이들 권법은 모두 중국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수련되고 있으며 전통 형식이나 다양한 스포츠 형태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수련은 입단 의식, 연금술, 치유, 정신물리학 훈련으로 구성되며 고대 중국의 우주론적 사고와 민간신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맨손 및 전통 무기를 이용한 무예 기술은 널리 알려진 호전적인 전통의 구현으로 12세기 허난성의 군대 창술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이 권법이 19세기부터 20세기 초 산시성의 상인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Liu & Qiao, 2014). 청나라 말기 유라시아 무역로를 따라 이동하던 대상 덕분에 이 권법은 표국(標局)이라고 불리는 무역상 조직에서 고유한 현지 지식의 일부로 점차 자리 잡게 되었다. 무예와 상인 문화 사이의 상호영향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계층인 표사(標師) 집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와 상황적 응용에서 비롯된 현지 지식을 구축했다.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과 특수 용어(Chircop-Reyes, 출간 예정), 무역과 수의학, 수공예, 시각과 청각 능력, 후각 민감성, 방어 기술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심의권과 형의권의 근대 계보를 기술함으로써 지역 확산의 통시적인 전승 과정을 조망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장에서는 문화기술 지적 자료(2017~18)를 바탕으로 전승 고리의 연속성을 평가하고, 두 번

째 장에서는 연구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았던 무기와 무기의 확산 현황을 살펴본다. 보다 폭넓게 역사와 인류학을 결합한 다학제간 접근방식으로 무예와 관련한 전통과 무형문화가 남긴 현재 유산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유산의 지정학적 특징과 비물질문화유산을 통칭한 ‘비유(非遺)’ 부문에서 최근 중국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문화유산화(patrimonialization)에 대한 인식이라는 맥락에서 더욱 그러하다(Bodolec, 2012, 2014). 실제로 1990년까지 문화유산으로 혜택을 받은 유적지는 백여 곳에 불과하다(Fresnais, 2001). 그 뒤 지속적으로 늘어나 이제 고대 지방 지식, 의례, 예술, 기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나 이중 일부는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의 중국 문화유산화와 전통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기여할 수 있는 예비 연구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십의권, 형의권의 후계자들

청나라(1644~1911) 시대에 십의권과 형의권은 호위 사부들이 연마하던 주요 무예 중 하나였으며, 이들 호위 사부들은 한편으로는 지식층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인들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상인 문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 십의권/형의권의 무예 지식은 도교 연금술, 도덕률, 수련자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식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형성되었다. 유력한 상인 가문이 대상 이동 중에 지역 호위 사부들의 보호를 받고자 했는데, 중앙정부의 힘이 닿지 않는 중국 북부의 스텝 지대와 고립된 지역에서 산적의 공격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었다. 무예의 방어 능력에 대한 높은 명성뿐만 아니라 조상을 숭배하는 무예 수련자들과 상인들 사이의 공통점이 두 집단의 상호작용과 직업적 협력 관계를



류무중(좌)과 왕젠주(우) ©귀진화

발전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중국의 전통무예 수련법은 기본적으로 구두로 전승되는 체계로 이루어졌다. 문헌이 존재하지만 경우에 따라 불완전하거나 무예 수련의 입문과 의례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비밀리에 전승된다는 점에 미루어 더는 조사가 가능하지 않다. 문헌 자료의 한계에 부딪혔고 따라서 문화기술지적 인터뷰가 필연적인 조사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호위 사부의 현재 후손들은 몇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권법의 지식과 서사를 통해 그들의 과거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심의권/형의권 역사를 기록하는 일에는 산시성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청나라 호위 사부의 현재 계승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다.

이 글에서 제시된 현장조사 자료는 2017년 3월에서 2018년 6월까지 산시성 중부에 위치한 치셴, 타이구, 위츠, 핑야오 그리고 타이위안에서 수집했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예 지식과 관련해 호위 직업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수집할 수 있었다. 해당 권법은 문파에 입단하고 이를 수락하는 배사의식(拜師加式), 전투 기술(맨손, 막대, 검, 군도, 창)의 도제식

전수를 비롯해 도교의 연금술에 해당하는 내단(內丹)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치셴의 샤오한(小韓) 마을을 방문했다. 계단식 경작지와 옥수수 밭이 펼쳐진 한가운데에 자리한 샤오한 마을은 노란 점토와 황토로 색을 낸 벽돌 벽이 격자를 이룬 십여 개의 골목을 채우고 있다. 마을의 서쪽 끝에 다이룽방(戴隆邦(1713~1803))이 살았던 고택이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다.

다이룽방은 명나라(1368~1644)를 섬겼던 반청 문관 집안의 후손이었다. 그는 대상을 이끄는 지도자로 상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전투 실력으로 명성이 높았다(Chircop-Reyes, 2018). 설화는 그를 지역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후손들은 물론 문파의 후계자와 그들의 제자들은 여전히 제례를 지내며 그를 숭배하고 있다. 그의 저택은 네모난 안뜰이 있는 오래된 집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고 방문했을 당시에는 대상 이동에 사용되었던 여러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다. 외발수레와 은괴를 운반하던 궤짝 등 많은 유물을 핑야오의 호위 무사 박물관에서도 볼 수 있었다.

다이 가문은 산시성에서 흔히 다가권(戴家拳)으로 널리 알려진 심의권을 전승했다. 그들은 현지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고, 가문의 지식은 집안의 담장을 넘지 않았으며, 외부로 노출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 이러한 전승 방식은 19세기 후반까지 고수되었다. 다이룽방은 그의 아들 다이얼루(戴二闕(1778~1873))와 그의 뛰어난 조카들에게만 지식을 전수했다고 한다. 구전에 따르면 그의 조카들은 허베이성 출신의 무예가 리뤄닝(李洛能(1808~1890))에게 이례적으로 전수해주었고 그가 다이 가문이 아닌 외부 출신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다. 이처럼 혈연에서 벗어난 다이 가문의 지식 전수는 아주 유사하지만 새로운 권법 형의권의 창시로 이어졌다. 권법의 명칭은 마음을 뜻하는 심(心)이 형태를 뜻하는 형(形)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외하면 기존의 이름과 유사하다. 심의권에서 형의권으로의 명칭 변경에는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가설은 첫 번째 방계 문파가 다이 가문의 전승 방식과 관련한 특수성을 지켜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 뒤 두 번째 문파는 허베이성에서 크게 발전했다. 심의권과 형의권은 중국 무예 분류에서 통상 내가권(內家拳)의 삼대 주류 권법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는다.

다이 가문은 마침내 보수적인 전승 방식을 개선했다. 다이 가문 무예의 두 번째 문파는 4대에 해당하는 다이쿠이(戴奎, 1874~1951)에서 이루어졌다. 실제 다이룽방의 6대손에 해당하는 다이 가문의 후계자 다이촐청(戴传曾)은 선조들의 무예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이 가문은 더는 무예를 수련하지도 전승하지도 않는다. “무예는 과거에는 가문의 전

통이었지만 오늘날 다이 가문은 무예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심의권은 주로 왕씨 가문에 의해 전승되고 있습니다.”(다이촐청, 2017년 3월 인터뷰). 오늘날 왕시청(王喜成)은 다이 가문의 분파로 7대손에 해당한다. 그는 다이쿠이의 제자였던 왕잉하이(王映海, 1926~2012)의 손자로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소개하며 다이 가문의 ‘수립 이념에 충실한’ 전승을 이어가는 한 고리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산시성 중심에 위치한 진중시에서 오늘날 형의권은 리뤄닝의 제자였던 처이자이(车毅斋, 1833~1914) 문파의 후손들이 대표한다. 이는 부쉐관(布学宽, 1876~1971)에게 이어지고 현재 그의 아들인 부빈취안(布秉全)이 현재 타이구에서 이 문파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로 처이자이의 유산을 지켜가고 있다. 타이구에서 두 번째로 큰 문파는 송테링(宋铁麟, 1885~1978)의



오늘날 형의권을 수련하고 있는 왕젠주 ©왕텐이(王天明)



군도와 검으로 수련하는 왕젠민(좌)과 왕젠주(우) ©왕텐이

후손인 송광화 宋光華의 형의권이다. 송씨 문파는 1950년대 이후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으며 후손들은 여전히 타이구의 본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송씨 가문은 호위 직업과의 연계가 상대적으로 짧고 약했으며, 이들은 일찍부터 시계 제조업에 종사했다.

위츠에는 왕젠주 王建築가 리튀닝 문파에서 당대의 형의권을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다. 왕젠주가 중요한 정보 제공자 중 하나였다. 고대 무예 서적의 수집가이자 지역 전통무예의 아마추어 역사가이며, 무엇보다 왕지우 王繼武(1892~1992)의 후손이다. 왕지우는 과거 허베이성 스자좡에서 운영하던 운송회사 런이 仁義에서 호위 사부였다. 마지막으로, 핑야오에서 장위런 張育人과 그의 제자들의 형의권을 살펴보고도 하겠다. 장위런은 호위 사부 차오티위안 曹體元(1888~1977)으로부터 직접 전승을 받은 제자이자 핑야오 출신 왕씨 가문의 직계 후계자(4대)이다. 왕씨 가문은 1대 왕정칭 王正清(1801~77), 2대 왕수마오 樹茂(1852~1937), 3대 왕이 王芸로

이어진다.

산시성의 문파들은 자신들의 시조가 같다고 주장한다. 즉, 동일한 사부 지지커 姬志可(1602~83)로, 만주 침략 당시 저항한 것으로 유명한 장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규칙과 원칙에 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 일례로, 현재 문파 대표들이 전수 시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세 가지 주요한 요소로 문파에 입단하는 배사의식 拜師儀式, 사제 관계에서 유교 원칙의 엄격한 존중, 무예에 적용하는 고대 우주론적 사상의 분파에서 생겨난 생리학적 개념이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정보 제공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알려준 바와 같이 전통에 대한 존중이 ‘무예가

현대에 맞도록 발전하고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따라 적응한다’는 생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권, 형의권은 공동체 집단에 의해 계속 향유되고 전승되는 살아 있는 유산으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중요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실제로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이 권법이 중국 무형유산목록에 798번째 전통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 지방 당국의 관심사였다. 이러한 정보를 2017년 겨울 타이위안에 위치한 산시무형문화유산보호센터 山西非物质文化遗产保护中心에서 접했다.



창술을 수련하는 왕젠주 ©왕텐이

채찍 막대가 대상에게는 방어용 무기로, 무예에서는 검술로 발전하다

연구에서 좀처럼 다루지 않았던 상인 문화와 관련된 무예 전통으로 편간鞭杆 기술이 있는데 이는 타편간駝驢鞭 즉 낙타와 노새를 다룰 때 쓰는 채찍 막대를 말한다. 편간 기술은 산시 지방의 심의권/형의권 기술은 물



삼체세(三體勢)라는 기립 자세의 시범을 보이는 왕젠주 ©왕텐이

론 팔괘장 八卦掌, 태극권 太極拳 등 다른 지역의 무예나 심지어 소림 무예 전통과 관련된 권법으로도 구성된다. 2017년 2월 타이위안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마오밍춘 毛明春이 편간 기술을 전승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다. 그는 산둥성 우청 지구 출신의 천성푸 陳盛甫(1902~1996)의 직계 제자다. 천성푸는 산시성 출신의 장한즈 張含之로부터 편간 기술을 익혔다. 마오밍춘은 또한 산시대학의 스포츠체육 문화연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앞서 살펴보았던 타이구 송씨 가문의 형의권을 잇는 5대손이다. 그는 2대 송후천 宋虎臣(1881~1947), 타이구

마을 출신의 3대 동슈성 董秀升(1882~?), 위츠 출신의 4대 리구이창 李桂昌(1913~2000)으로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편간은 원래 쇠고기 힘줄을 꼬아 만든 약 100센티미터 길이의 채찍으로 밀도가 높지만 유연하다. 오늘날 편간 훈련에서 수련자들은 전통적인 채찍의 절반 길이에 해당하는 나무 막대를 사용한다. 그래서 다통시의 귀구이즈 郭貴志에 의한 전승에서는 방어적 사용을 강조하며, 그 기술적

표 1_현대 산시성 막대 수련법의 발전

| 지역(시, 지구) | 막대를 사용하는 산시 무예의 명칭 |
|-----------------|---|
| 판스(繁峙), 신저우(忻州) | 팔선편(八仙鞭, 여덟 선녀의 막대) 삼십이수당낭편(三十二手螳螂鞭, 사마귀의 32개 손 막대) 매화십자편(梅花十字鞭, 매화의 열 글자 막대) |
| 린추(临邱), 다통 | 삼재편(三才鞭, 하늘과 땅, 인간의 삼위 막대) |
| 다이(代), 신저우 | 십이수편(十二手鞭, 12개 손 막대) |
| 잉(应), 쉬저우 | 십오수편(十五手鞭, 15개 손 막대) |
| 화이런(怀仁), 쉬저우 | 이십사편(二十四鞭, 24개 손 막대) |
| 딩샹(定襄), 신저우 | 척팔편(尺八鞭, 8척 길이의 막대) 삼십육편(三十六鞭, 36개 막대) |
| 타이위안(太原) | 타나편(陀螺鞭, 낙타와 노새를 위한 막대) 십삼편(十三鞭, 13개의 막대) 무화편(舞花鞭, 춤 동작 막대) |
| 위츠(榆次), 진중 | 반용편(盘龙鞭, 용 막대) |
| 서우양(寿阳), 진중 | 육십삼편(六十三鞭, 63개 막대) |
| 핑야오(平遥) | 팔합편(八合鞭, 여덟 조합의 막대) |
| 링스(灵石), 진중 | 란마궈육쟁(乱马撮六趟, 여섯 배로 날뛰는 반향하는 말) |
| 홍둥(洪洞), 린편 | 자모순수편(子母顺手鞭, 어머니-아들 막대) |
| 원청(运城) | 유사편(纽丝鞭, 뒤엉킨 명주실의 막대) |
| 친(沁), 창즈 | 제미편(齐眉鞭, 배우자 사이의 존중을 위한 막대) 구연환편(九连环鞭, 아홉 가지 순서의 막대 권법) 타나편(陀螺鞭, 낙타와 노새를 위한 막대) 칠성편(七星鞭, 일곱 개의 별 막대) |

2017년 겨울 마오밍춘 교수가 실시한 산시성 타이위안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

특성은 의권의 창시자 왕샤자이 王芗斋(1885/86~1963)와 그를 계승한 사부 야오종쑤 姚宗勋(1885~1917)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편간은 과거 대상을 이끄는 대장들이 사용하던 채찍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막대처럼 다룰 수 있을 만큼 두꺼워야 했다. 청나라 초기에 편간은 대상이 무역을 위해 이동하는 동안 낙타와 노새 등 동물을 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구전에 따르면 산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휴대하는 실용적인 무기로 점차 사용되었다고 한다. 호위 무사를 고용

할 수 없었던 상인들은 현실적으로 검이나 창 등 다른 무기를 가지고 다닐 수 없는데 무기는 무겁고 의심과 도발을 유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과 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연마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인들에게는 그런 기술이 없었다. 그러나 편간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고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지역 무예가들에 의해 장비로 포함되자 편간은 성문화된 공격과 방어 동작으로 다듬어지는 표준화 과정을 거쳤고, 수많은 산시성 부락과 마을, 도시의 호위 집단으로 널리 전파되는 물건이 되었다. 대상에서 방어용 무기로 취급하고 사용함에 따라 기술적 진전은 산시 무예의 검술 종목, 산시권계 山西拳械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마오밍춘 교수는 산시성의 편간 전승에 대한 여러 분파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표 1, 또는 Liu & Qiao, 2014).

전통무예의 동시대성을 보여준다

산시성에서 이루어지는 전통무예 기술의 현지 전승이 갖는 동시대성은 살아 있는 유산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좋은 사례가 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 변혁으로 인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유산이 만들어낸 문화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산시성의 사부들은 권법 기술의 적극적인 확산과 미디어 노출을 통해 과거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권법의 형식은 현대적인 맥락에 따라 계속해서 개선되고 적용되고 있다. 이 글의 주된 목적은 심의권/형의권 및 관련 수련법의 지역 확산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기록지적 근원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간략한 연구는 지식 전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관점에서 중국에서 문화유산 인식의 발생으로 인한 효과를 다루는 기회

가 된다. 전통을 전승하는 수련 집단은 물론 그들 개개인이 과거로의 소중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가교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파의 사회 조직과 수련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는 일은 문화유산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새로운 방향을 열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는 것이 그런 측면 중 하나다. 문화유산 프로젝트의 주제이거나 앞으로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유산으로 종교, 공예, 의학, 예술(연극, 노래, 춤, 그림), 경전, 무예 등 다양한 문화 종목이 있다. 특히 중국적 맥락에서 유산을 연구할 때 사부와 고대 관습을 이어가는 새로운 세대인 제자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은 실제로 중국의 현재 사회적 다양성을 (재)정의하고, ‘사도(師徒)’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비밀 전승 규칙의 내재된 속성으로 인해 관찰하기 어려운, 지금도 진행 중인 조용한 변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관문이다. 그러한 고대 지식이 오늘날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해당 관습의 전승이 계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중단되었는지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습으로 생활을 영위하거나 이들을 되살리고자 노력하는 집단에 미치는 사회적 통합과 영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과거에 대한 감각’이 현대적인 유산 개념보다 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Wu, 2010), 과거를 한층 더 깊게 이해하고 ‘과거가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승자와 그들의 역사와의 관계를 반추하는 것도 흥미로운 것이다.

- Bodolec, C. (2012). "The Chinese paper-cut: from local inventories to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n Regina Bentix and Aditya Eggert (eds), *Heritage Regimes and the State*, pp. 249–264. Göttingen: Göttingen University Press.
- Bodolec, C. (2014). "Les enjeux du patrimoine culturel immatériel pour la Chine." *Tsanta*, 19, 19–30.
- Chircop-Reyes, L. (2018). "Merchants, brigands and escorts: an anthropological approach to the Biaoju 鏢局 phenomenon in northern China." *Ming Qing Studies*, (2018), 123–149.
- Chircop-Reyes, L. (forthcoming). "Le 'parler noir'. Le jargon secret des caravaniers et des brigands en Chine impériale tardive." *Études Chinoises*, (2019/20).
- Fresnais, J. (2001). *La Protection du patrimoine en république populaire de Chine 1949–1999*. Paris: CTHS.
- Liu Yinghai 刘映海 and Qiao Zengguang 乔增光 (2014). Biaoxing sihai 鏢行四海. In Liu Jiansheng 刘建生 and Liu Chenghu 刘成虎 (eds), *Jinshang wubainian 晋商五百年* (coll.). Taiyuan: Shanxi Museum.
- Noiriel, G. (2006). *Introduction à la socio-bistoire*. Paris: La découverte.
- Wu, H. (ed.) (2010). *Reinventing the Past: Archaism and Antiquarianism in Chinese Art and Visual Culture*. Chicago: Center for the Art of East Asia, University of Chicago.

09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가는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아흐메트 에르만 아랄 Ahmet Erman Aral 박사

터키 하즈바이람벨리대학교 터키민속학부

레슬링, 인간이 자연과 벌인 육체적인 분투를 표현하다

레슬링은 힘, 지구력, 인내심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벌이는 격렬한 시합이다. 힘과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력과 신체 조절력이 필요하다. 레슬링은 다양한 환경에서 인간이 자연과 벌인 육체적인 분투의 과정을 연상시킨다. 인간과 자연 사이의 상호 보완의 결과처럼 레슬링은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경쟁, 우열 싸움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레슬링은 인류사에서 가장 오래된 스포츠 중의 하나이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레슬링을 바탕으로 풍부한 전통과 의식, 관습이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레슬링은 어떤 면에서 인류의 문화적 축적, 세대간에 전승되는 지식, 관습 및 의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맥락에서 지역, 국가 및 지방에서 형성된 레슬링의 형태가 있다고 상정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과 이 글의 초점에 비추어보면 전통 오일 레슬링은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지닌 살아 있는 유산을 구현하고 있다.

터키와 레슬링

전통 오일 레슬링은 페흘리반^{pehlivan}이라고 부르는 선수들이 들판에서 벌이는 시합이다. 페흘리반은 몸에 올리브기름을 바르고, 수작업으로 만든 무릎길이의 딱 붙는 가죽 바지를 입는데 이 바지를 크스페트^{kıspet}

라고 부른다. 터키인과 레슬링 간의 관계의 뿌리는 아나톨리아와 터키 공화국 훨씬 전인 중앙아시아 지역의 유목민 부족의 삶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러한 내용이 터키의 문화적 정체성의 근간이 된 『데데 코르크트』의 서(Book of Dede Korkut)에 서술되어 있다. 이 책에는 레슬링이 여자들도 즐긴 경기였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성은 레슬링 한판을 벌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남자한테만 결혼을 승낙했다. 레슬링과 터키 문화에서 이 책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책을 터키인들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과 카자흐스탄과 함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한 ‘데데 코르크트Dede Qorqud(아제르바이잔), 코르크트 아타Korkyt Ata(카자흐스탄), 데데 코르크트Dede Korkut(터키)의 유산, 서사 문화, 민담, 음악’을 형성한 영감의 주요 원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나톨리아의 셀주크왕조는 레슬링 선수들을 위한 숙소를 마련하고, 레슬링에 기도 같은 이슬람교적 요소들을 도입하는 등 아나톨리아 지역의 스포츠를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후 오스만제국은 셀주크왕조로부터 그러한 유산을 이어받았다. 오스만제국 시대 정복자 메흐메트 Mehmet the Conqueror, 셀림 1세 Selim I와 같은 통치자는 실력 좋은 레슬링 선수였으며 정복자 메흐메트는 이스탄불에 수백 명의 레슬링 선수들을 위한 훈련용 대형 건물을 지었다. 또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는 왕의 입회 하에 ‘복지 레슬링 경기 Welfare Wrestling Match’가 치러졌다. 오스만제국에서 레슬링이 차지하던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축제의 전설, 40(코르크)명의 병사와 샘(프나르)

오일 레슬링이 가장 인기가 많긴 하지만 전통 터키 레슬링의 유일한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밝힐 필요가 있겠다. 에디르네에서 행해지는



레슬링 선수의 인사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

크르크프나르 Kırkpınar 전통 오일 레슬링의 시초는 14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이 아나톨리아 땅에서 루멜리아 원정길에 오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문서로 기록된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연도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크르크프나르 전통 오일 레슬링의 역사에 관한 몇몇 자료에서는 오스만제국이 에디르네를 점령한 시기와 겹치는 1361년을 통상적인 크르크프나르 전통 오일 레슬링 경기의 시작점이라는 데 동의한다 (Delibalta, 2002). 하지만 연도와 장소를 특정하는 데는 신중한 편이 나을 것이다.

크르크프나르 전통 오일 레슬링 축제의 본고장은 그리스와 국경을 맞댄 터키 북서쪽의 도시 에디르네이다. 자체적인 오일 레슬링 축제가 열리는 터키의 다른 도시도 존재하지만 크르크프나르가 동종 레슬링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의 기원이라고 여겨지는 전설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겠다. 할릴 이날즈크 Halil İnalçık를 비롯한 역사가들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아나이 첼리크 Doğanay Çelik가 편집한 책 『페흘리반 Pehlivan』에 나온 기록에 따르면,



승리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

1357년 오스만제국이 루멜리아를 점령하기 위해 군사 원정 중, 여러 군단이 지금의 그리스 국경 내의 사모나 Samona 지역에 잠시 머물렀다. 군단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 40명의 체력 좋은 선수들을 뽑아 레슬링 경기를 하게 했다. 군사 원정의 성공을 축하하고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목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설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두 선수가 남았는데 어느 쪽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결국 승부를 내지 못한 채 둘 다 탈진해 사망하고 말았다. 두 선수는 사망한 자리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묻혔는데 세월이 흘러 친구들이 찾아가 보니 묘지가 있는 자리에 샘(프나르 pınar)가 생겨 물이 묘지를 넘어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그 이후 두 선수와 그날 함께 시합한 모든 선수를 기념하기 위해 그 장소를 ‘크르크프나르’라 부르기 시작했다(‘크르크Kirk’는 경기에 참가한 레슬링 선수 총 숫자인 ‘40’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전설은 ‘레슬링 선수’를 상징하는 문화적 정체성의 바탕이 되어줌으로써 이들의 전투 정신을 고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전통 오일 레슬링과 봄 축제인 히드렐레즈 Hidrellez의 관계

에 대해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흐드렐레즈는 2017년 터키와 북마케도니아에 의해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된 축제이다. 상기한 전설에서 언급된 레슬링 선수들을 기념하기 위해 오스만제국의 통치자 무라드 1세 Murad I가 1361년 5월 6일에 레슬링 경기를 열도록 했는데 그 날짜가 흐드렐레즈 날과 일치했다. 이는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탄생이나 결혼 등 통과의례 행사나 네브루즈 Nevruz나 흐드렐레즈 같은 계절 축제에서 어린이나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높은 놀이가 레슬링이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흐드렐레즈 행사에서 오일 레슬링 경기가 없어졌지만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된 두 유산이 한때는 매우 밀접한 관계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두 유산이 축제 시기 면에서 점점 멀어졌다는 점은 문화적 관습의 역동적인 성격을 이해하고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일어나는 변화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오일 레슬링 축제가 전쟁(제1차 세계대전, 발칸전쟁 등) 때문에 중단된 적도 있다는 점을 밝혀둘 필요도 있겠다. 또한 전쟁과 국경 변경 같은 정치적 변화들로 경기 장소가 변경되기도 했다. 그러나 1923년 터키공화국 수립 이래로는 에디르네의 사라이치가 축제 장소로 자리 잡았다.

크르크프나르를 풍부하게 하는 의식, 물품, 장인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에는 가치와 의미 면에서 축제를 풍부하게 하는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다. 페쉬레브 Peshrev(경기 시작 전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관중들의 흥을 돋우기 위한 일종의 준비 운동),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선수들의 몸에 기름칠하기, 살라바트 salavat(카즈그르 cazgır라 불리는 전통적인 진행자가 낭송하는 운문과 기도문), 의식 행진, 크르크프나르 찬가 합창, 레슬링 선수들의 묘지 방문 등을 포함한 모든 의식은 구전 연행과 신체적 표현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비단 의식만은 아니다. 의식에 사용되는 물품들도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황금 벨트(크르크프나르 경기에서 3회 연속 우승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 바닥이 붉은 초(축제에 초대한다는 상징) 등이 있다. 더불어 선수들이 입는 기본 복장인 가죽 바지 크스페트도 전통 오일 레슬링에서 보여지는 무형유산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이다. 크스페트는 선수 개인의 체구에 맞게 특별히 제작되는데 크스페트의 밀착성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크스페트 제작 장인인 이르판 샤희 İrfan Şahin은 2012년 터키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관련된 모든 요소를 포함하여 전통을 수호하려는 터키의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언급할 물품은 크스페트를 비롯한 물품들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손잡이 달린 바구니인 켄빌 zembil이다. 켄빌은 갈대, 끈, 가느다란 나뭇가지 등으로 만드는데 이처럼 자연 친화적 재료로 만든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이라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2번 항목과도 맥을 같이 한다.

레슬링 축제의 주체들: 페홀리반, 아아, 카즈그르, 야즈 ...

물론 레슬링 선수가 주축이 되는 축제의 행위 주체들에 대한 언급도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레슬링 선수를 일컫는 페홀리반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성숙이 바탕이 되어야 했다. 원래 페홀리반이 되는 과정은 구전으로 진행되는 교육, 전통과 관습, 관찰 등에 기반을 둔 도제식 훈련 체계로 이행되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양한 신체적 능력과 배경을 지닌 모든 연령대의 레슬링 선수들을 통상적으로 페홀리반으로 부른다. 이런 점을 전통의 변화상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페홀리반이라는 단어가 용맹하고 체격이 좋으며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페홀리반은 그러한 의미 확장의 예로 해석할 수 있겠다. 크르크프나르 아아 ağa(축제의 주요 후원자이자 상징적인 리더), 진행자인 카즈그르, 퉁소처럼 생긴 관악기인 쉼 şawm과 북 연주자, 야즈 yağcı(레슬링 선수들의

몸에 기름을 발라주는 사람) 등도 전통 오일 레슬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피세 Köse의 논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오일은 레슬링 선수들이 신체적·정신적 힘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을 증시하게 하고 경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주므로 오일 레슬링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전통적 진행자인 카즈그르(즉흥적인 운문과 기도문 낭송)와 크스페트 제작 장인은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좋은 예가 된다. 이러한 특징적 요소들이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을 여타의 레슬링 축제와 차별화해 준다.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 유네스코에 등재되다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는 터키 문화관광부,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 NGO, 트라키아대학교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

숨과 북 연주자들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





두 레슬링 선수가 상대의 힘을 가늠해보고 있다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

의 협력으로 2010년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대표목록 등재 이후 10년이 흐른 지금 그동안 어떤 보호 노력이 있었는지 언급하고 분석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무엇보다 지역 단위의 여러 주체 간의 협력 관계 형성과 이러한 협력의 효율성이 오일 레슬링 보호 정책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된다.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운영지침 제15조와 제109조에 근거해,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가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의 구성과 시행에 대한 책임 기구가 되었다. 이는 지역 발전을 위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 체제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비정부기구, 크르크프나르 아아, 트라키아대학교, 다수의 장인, 전직 레슬링 주요 선수들, 터키 내 다른 지역의 스포츠회 같은 지역 주체들의 참여가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과 관련된 전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결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



야즈가 레슬링 선수에게 기름을 바르고 있다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

이런 점에서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은 ‘크르크프나르’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지역 주체들을 공통의 관심사 아래 만날 수 있게 하는 지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런 점은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이 갖는 결속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결속력을 통해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관계 없이 문화적 정체성, 지역성, 정신 및 관련 인물들의 전설과 융합된 역사적 배경 등을 공유할 수 있다.

방송과 영화로, 교육으로, 디지털화로

특히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에 대한 보호 노력은 주로 인식 제고, 교육, 디지털화의 관점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다른 방안도 있겠지만 주제의 범위와 명확성을 위해 위의 세 카테고리를 대표적인 주제로 들 수 있다. 인지도가 매우 높은 행사인 만큼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에는 수천 명의 선수와 관중들이 몰린다. 그뿐만 아니라 터키 공영·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해당 축제의

개막식과 결승전을 생방송으로 중계하기도 한다. 청소년체육부와 터키 레슬링연맹은 정기적인 경기와 훈련 과정을 조직함으로써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서의 크르크프나르 전통 오일 레슬링과 더 넓게는 오일 레슬링의 가시성을 직간접적으로 향상한다. 또한 터키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국협회와 문화관광부가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촬영하거나 지원하며 레슬링 선수들의 성공담에 중점을 둔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다. 트라키아대학교 체육교육학부가 지원한 심포지엄의 주요 의제 중 하나도 전통 오일 레슬링이었다. 이 학부는 터키올림픽위원회와 협력하여 스포츠 과학에 관한 발칸국제심포지엄 등을 조직했으며 특히 2013년 심포지엄을 비롯해 여러 행사에서 오일 레슬링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이런 심포지엄들이 오일 레슬링 전통의 응용과 학문적 연구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에디르네 지방 자치단체는 1999년과 2011년, 2회의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해 오일 레슬링의 전통과 축제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요컨대 오일 레슬링 전통에 관한 인식 제고 목적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미디어의 역할이 돋보였다.

전통 오일 레슬링의 경우, 교육은 보호 작업에서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을 담당한다. 트라키아대학 내의 크르크프나르 가치연구응용센터는 관련 학술지 출간과 응용 연구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관련 주제에 대해 석사 학위 논문 6편과 박사 학위 논문 2편이 준비되었다. 그 가운데 두 편은 오일 레슬링의 문화적 측면에 대해 다룬다. 이러한 연구 논문은 터키의 전통에 관한 새로운 연구를 장려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터키레슬링연맹의 지휘하에 운영되는 선수 훈련 센터는 전국에 총 27개 장소에서 매년 약 400명의 학생들을 맞이하여 전통의 전승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레슬링 선수들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스포츠회 역시 차세대 레슬링 선수들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한다. 이곳에서 훈련을 받은 오일 레슬링 선수들이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축제 참여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주요 레슬링 선수들의 상당수가 스포츠회 출신들이다. 이러한 스포츠회 중 일부는 현재 재정 문제를 겪고 있지만 지역 차원의 정책이 오일 레슬링 전통의 전승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오늘날 오일 레슬링 전통의 전승은 개별적이고 비제도적인 스승과 도제 간 교육이 아니라 대체로 스포츠 클럽에 의존한다. 과거에는 레슬링 축제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었지만 오늘날은 레슬링 축제가 안고 있는 경제적 문제와 세대 간 전승 사례의 부족이 축제와 전통의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 오일 레슬링에서 디지털화는 보호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다. 에디르네 지방자치단체는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 정보기록센터를 설립하고 도서관, 자료실, 지역 신문 등에 있는 모든 문서, 구술 및 시청각 자료들을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했다. 4만 3,000개의 전자 자료와 450명의 장인, 레슬링 선수들, 상징적 리더(아아)와의 인터뷰가 공개 자료 형태로 총 6개 언어로 준비되었다. 이런 자료는 최근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보호 노력의 핵심이 되는 공동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크스페트 유산의 전승

결론을 언급하기에 앞서 오일 레슬링 전통을 크스페트 제작 장인인 이르판 샤흐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터키 오일 레슬링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인물 중 하나인 샤흐는 2012년 터키 문화관광부로부터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었다. 65년의 경력을 지닌 그는 다수의 주요 레슬링 선수들과 그들의 손자 세대까지 3세대에 이르는 레슬링 선수들을 위해 크스페트를 제작했다. 따라서 그 시간 동안의 경험과 고찰은 우리

에게 전통의 변화상을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샤힌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가죽을 손바느질해 크스페트를 만들었지만 제작 과정의 기계화에 따라 제작 방식을 바꿔야 했다고 한다. 기계를 사용하면 크스페트 제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장인의 창의성이 위축되고 수공으로 만들 때 나타나는 차별적인 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과거에 비해 더 복잡해진 레슬링 기술과 경기규칙 등이 크스페트 제작에 미치는 영향도 전통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샤힌은 1960년대 말에 생긴 오일 레슬링의 새로운 요건에 맞추어 작업을 변화시켜야 했다. 시합 규칙 수의 증가와 시합 시간의 단축, 레슬링 기술의 정교화 등의 변화에 따라 크스페트의 무게를 12kg에서 2kg로 줄였다. 또한 1970년대에 350명이었던 오일 레슬링 축제 참가자 수가 오늘날 2,300명으로 증가한 수적인 변화도 크스페트 제작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했던 또 다른 요인이라고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의 새로운 규칙과 정교한 기술 같은 요소들이 크스페트 장인을 포함한 전통의 주체와 작품을 새로운 추세에 맞게 변화하도록 만든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전통 보유자의 능력과 동력을 보여주는 좋은 예로 간주할 수 있다.

전승의 측면에서 새로운 도제의 훈련에 대한 샤힌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그는 주목할 만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크스페트 장인(총 4~5명만 현존)은 도제에게 합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년간 오일 레슬링 축제가 열리지 않고 더 많은 혹은 새로운 도제에 대한 수요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샤힌은 “현재 크스페트 장인의 수만으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하고 새로운 도제를 양성한다고 해도 돈을 전혀 벌지 못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특정한 조건에서는 어떤 기술의 전승이 항상 이익이 되거나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지방정부, 공동체, 대학이 하나 되어 전통을 강화하다

결론적으로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공동체 및 대학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핵심인 것은 분명하며 특히 2010년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된 이후에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은 보호 활동의 주요 주체(지방자치단체, 공동체 및 대학)가 무형유산 관리의 상향식 접근 방식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오일 레슬링 종목의 중요한 측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 강조할 점은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이 다양한 공동체를 공유된 맥락 아래 모이게끔 하는, 터키 전역의 많은 지역 주체들의 공통된 문화적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적인 보호 활동과 국가적 정책의 조화는 오일 레슬링의 정신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강화하는 또 하나의 양상이다. 이러한 조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크르크프나르 오일 레슬링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융합시키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왔으며 이들에게 의식, 실연, 장소, 물품 및 구술 전통으로 빚어진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증거이다.

참고 문헌

- Çevik, D. (ed.) (2011). *Peblivan*. Ankara: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Publications.
- Delibalta, A. M. (2002). *Batı Trakya Fetih Tarihi* (1261–1361). Munich: BTAM Publication.
- Dervişoğlu, M. (2012). Kırkpınar Güreşleri'nin Halkbilimsel Açıdan İncelenmesi. Master's thesis. Edirne: Trakya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 Kahraman, A. (1995). *Osmanlı Devleti'nde Spor*. Ankara: Kültür Bakanlığı.
- Kalaycı, E. (2018). *Kültürel Süreklilik Bağlamında Kırkpınar'ın Yansıttığı Dünya Görüşü Üzerine*. Ph.D. thesis. Ankara: Hacettepe University: Institute of Social Sciences.
- Özcan, A. (1996). Güreş. *İslâm Ansiklopedisi*. Vol. 14, 317–320. Istanbul: Türkiye Diyanet Vakfı.

전자 자료

- Municipality of Edirne (2015). Kırkpınar Yağlı Güreşleri Festivali Genel Bilgiler [Online]. Available at: www.edirnekirkpinar.com/tr/yazi/6-genel-bilgiler/36-tarihi (accessed May 29, 2020).
- Trakya University and State University of Tetova (2013). International Balkan Symposium in Sport Sciences – Book of Abstracts [Online]. Available at: www.edirnekirkpinar.com/yayin/images--27---1-.pdf (accessed May 25, 2020).
- UNESCO (2010). Nomination File No. 00386 [Online]. Available at: <https://ich.unesco.org/doc/src/07485-EN.pdf> (accessed May 25, 2020).

10

무예,
만남과 화해의
근본적 가치

소라이아 청사우라 Soraia Chung Saura
크리스티아누 바레이라 Cristiano Barreira
아나 크리스티나 짐머만 Ana Cristina Zimmermann

브라질 상파울루대학교 체육교육스포츠대학

노예들의 춤과 경기로 위장한 카포에이라

카포에이라^{capoeira} 호다^{roda}는 브라질의 무예로 세대 간에 전승된 근본적 가치와 특징을 인정받아 201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호다는 카포에이리스타, 뮤지션, 관객이 만드는 원형으로 그 중앙에서 카포에이라 경기가 벌어진다.

이처럼 카포에이라가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한때 브라질 지배계층이 100년 넘게 법으로 금지했던 무예이기 때문이다. 카포에이라는 1930년까지 수련이 금지되었는데, 이때까지는 식민지 노예 시절부터 이어져온 관습과 연관되어 과격하고 체제 전복적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브라질의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카포에이라가 출현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카포에이라는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시기에 출현했는데 당시 포르투갈은 30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500만여 명의 노예를 데려왔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브라질만큼 아프리카 노예가 많이 유입된 국가가 없었기에, 현재 브라질은 세계에서 흑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이다. 이에 비해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40만 명의 노예를 데려왔다(Toplin, 1981). 노예 노동력은 300년 동안 브라질 전역에서 사탕수수과 커피 농장, 건설 현장, 금과 다이아몬드 광산 등 온갖 채굴 작업에 활용되었으며, 여기서 발생한 부는 포르투갈과 관련 국가로 직접 유입되었다. 당시 브라질에서는 노예가 현지 인구의 75%까지 차지하는 지역도 있었다(Marquese, 2006). 노예제도는 사실 극단적인 폭력의 과정이었고,



카포에이라 호다 ©은정가

노예 주인은 모든 무예의 수련이나 훈련을 금지했다.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의 건강 유지를 위해 노예들의 아프리카 문화에서 유래한 춤과 일부 표현만을 허용했다. 19세기 이전에 카포에이라가 존재했다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는데, 당시 카포에이라가 인정을 받지 못했기에 이는 당연하다. 그러나 역사적 상황에 상당히 부합하는 카포에이라 기원에 관한 이야기가 구전 전통으로 내려온다.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은 춤의 리듬과 동작을 일종의 투쟁으로 각색해서 사용했다. 그 결과 춤이나 경기로 위장한 무예, 카포에이라가 탄생했다. 카포에이라는 시대를 불문하고 문화적, 신체적 저항의 중요 도구이다. 노예제도에 대한 공격적, 명시적 형태의 반대와 달리 카포에이라는 문화적 표현으로 구성된 조심스러운 저항의 관습으로 발달했다. 카포에이라에는 악기, 노래, 춤, 기쁨이 담겨 있다. 하지만 실제로 노예들이 참여한 것은 자유를



카포에이라 수련 ©은정가

향한 투쟁을 위한 강도 높은 신체적, 전술적 훈련이었다. 어렵게 농장을 탈출한 노예들은 숲에서 킬롬보 quilombo라는 공동체를 세웠는데, 킬롬보는 지금도 노예의 문화와 전통을 파악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다.

따라서 카포에이라는 단순히 재미있는 경기나 춤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격투 기술이다. 이 주요한 특징 때문에 카포에이라를 무예로 본다(Martinková & Parry, 2016). 카포에이라는 자기방어, 결투, 육체적 싸움, 놀이 싸움 등 의도적이고 생생한 삶의 경험이 공존하는 뛰어난 유연성 때문에 독특한 무예이다(Barreira, 2017).

카포에이라는 과거의 소외된 위치와 특수한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현재 가장 강력한 브라질 흑인 문화 표현 방법의 하나로 브라질에 약 600만여 명의 카포에이라 수련가가 있고(Rocha 외, 2015) 카포에이라가 전파된 국가만 해도 70개국을 넘는다. 이렇게 특

수한 상황에서 태어난 카포에이라가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적 현상이 될 수 있었을까? 카포에이라는 어떻게 무형유산으로서 상호 이해 및 평화·화해의 문화를 조성하여 사람들을 단결시킬까?

이 장의 목적은 무형유산과 매우 심도있게 교감하는 카포에이라를 상세히 탐구하는 것이다. 카포에이라는 전통적인 표현 방식의 스포츠이자 경기이다(Saura & Zimmermann, 2015). 이러한 의미에서 카포에이라는 근본적으로 전통무예와 교감을 한다. 카포에이라는 놀이, 전투, 경기, 스포츠, 무예, 춤, 의례, 음악 공연, 연극, 드라마, 철학, 삶이다. 사실 이 모두가 합쳐진 게 카포에이라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지 않기도 하다(Merrell, 2003).

무형유산 카포에이라 호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무형유산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된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가리킨다. 무형유산의 관점에서 문화적 다양성은 전통적, 동시대적이고 살아 있는 표현을 드러낸다. 이 표현은 포용적이고 대표적이며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양한 공동체의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는 문화 간 대화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상호 존중을 장려한다”(UNESCO, 2020). 따라서 무형유산은 우리가 공동체 생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이 장에서는 체육교육과 스포츠에 관한 현상학적 관점을 통해 카포에이라 수련의 필수 요소를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 논의는 무형유산이 상호 이해 및 평화·화해의 문화를 조성하여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방법에 관한 연구를 뒷받침한다. 현지 조사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소재한 두 곳의 카포에이라 집단에서 제공했다. 은징가 카포에이라 앙골라 그룹 Nzinga Capoeira Angola Group과 앙골레이루 싱 시뉴 센터 Angoleiro Sim Sinhó

Center이다. 현상학적 접근에서 카포에이라 호다 동작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이를 통해 전통, 돌봄, 지속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자유를 향한 투쟁

일주일에 최대 3회 훈련과 모임을 하는 카포에이라 수련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은 호다라고 할 수 있다. 보통 호다는 개방되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열린다. 악기를 든 연주가들이 원형을 만든다. 카포에이라 사범은 경기와 연주단을 지휘하고 의례를 주관한다. 카포에이라는 엄숙한 침묵 속에서 시작한다. 1.5미터 정도 길이의 활대에 한 개의 현이 달린 타악기 베림바우는 애처롭고 나른한 멜로디를 느릿느릿 들려준다. 선수 두 명은 연주자들 앞에 엎드려 있다. 시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신의 가호를

카포에이라 연주단 ©은정가





베림바우 연주자들 ©은징가

받는 중이다.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시합은 느린 리듬 속에서 시작한다. 서로를 만지지 않고 지속적인 동작을 통해 서로를 제압하려는 방식은 아름답다. 선수들의 움직임은 우아해서 마치 싸우는 흥내를 내는 것 같다. 곧 베림바우의 소리가 달라지고 박자가 빨라진다. 선수는 매혹적인 곡에 동작과 함께 움직임이 빨라진다. 경기는 공격적이고 조마조마하다. 장난스럽게 격투가 되었다가 다시 경기가 되기를 반복한다. 카포에이라를 잘 모르는 사람은 시합 중간에 상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선수들은 거의 서로 만지지 않는다. 동시에 발차기와 그 효과는 음악의 리듬 속에서 단연코 눈에 띄는 동작이다.

카포에이라는 실제로 폭력을 기피하는 무예 중 하나이다(Channon & Matthews, 2018). 허상과 동작이 뒤엉킨 폭력을 의미하는 공동체적 관습으로서 카포에이라는 그러한 폭력에 반대하며 성장했다. 호다는 신체의 대화를 위한 공간으로 경기의 참가자는 착지했을 때 상대방이 다칠 수 있는 동작을 피한다. 또한 경기에 따라 상대방을 놀라게 하는 기술을 시연하는 공간이다. 힘이 넘치는 멋진 동작은 투쟁의 미학에 경의를



카포에이라 기술을 수련 중인 수련생들 ©은정가

표하는 몸짓이다. 폭력의 한계는 모든 무예의 실존주의적 긴장을 암시한다(Barreira, 2017). 하지만 경쟁과 자만이 때때로 이 거친 경기에 출현해서 카포에이라의 파괴적 행위를 촉발하더라도(Melo & Barreira, 2015), 폭력이나 실제 투쟁은 되도록 피하며, 노예제도나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카포에이라에서 바닥은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기준점이다. 바닥을 두 손으로 단단히 짚고 두 발은 공중을 향한다. 즉, 선수는 발을 손처럼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카포에이라의 신체적 움직임에서는 세계가 역전된다. 일반적으로 형성된 관점과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 세계가 뒤집히는 것이다(Reis, 2000). 두 팔이 마치 다리인 것처럼 몸 전체를 들어 올린다. 다리는 공중에서 돌고, 발은 손처럼 서로를 향해 전진한다. 선수는 공중제비를 돈다. 눈속임이며 재미있고 즐겁다. 다음 동작에서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가고 눈은 반대쪽으로 슬금슬금 움직인다. 동료애를 보여주는 신체 동작도 있다. 대칭적이고 정확하다. 경기의 미학을 위해서 동료애가 필요하다. 카포에이라의 호다에는

언제나 의례화된 휴식, 호흡, 복귀가 있다. 선수의 상태는 안 좋아지고, 더 영리하고, 더 빨라지기에 복귀는 점점 힘들어진다. 선수는 땅에서 날아올라, 돌고, 점프하고, 위협한다. 바람이 분다. 자유가 생겨난다.

카포에이라의 호다는 단순하고 기초적인 구성 요소가 질서 정연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어 누구나 좋아한다. 역사상 노예가 카포에이라를 사용하여 불평등에 저항하는 전투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둔다면, 그 승리는 노예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의식과 자부심으로 실존적, 사회적으로 확장된다. 존엄은 바로 이 문화가 “무예에 새겨진 정의감이 투쟁할 만한 가치”임을 기억하며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에서 형성된다(Barreira, 2018). 투쟁은 예술적·공동체적 경험에서 신체를 통해, 우리 모두를 관통하는 기본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가르친다. 차이는 함께 해결되고, 편견, 억압, 잔인성, 악뿐만 아니라, 우아함, 용기, 명예까지 최근 과거의 기억은 해소된다. 카포에이라가 왜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문화와 교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여기에서 찾게 될지도 모른다. 신체를 통한 깨달음. 이 대화는 말이 없어도 통한다.

자유, 존엄, 자율성은 모두에게 소중하기에 카포에이라 호다에서 과거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받고, 인류는 새로워진다.

돌봄이 살아 있는 곳

전통 카포에이라 뿌리에서 앙골라와 헤지오나우, 이 두 가지 현대 방식의 카포에이라가 발달했다. 그 계기는 역사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순간이었다. 격투가 인간의 발달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다른 현대 무예와 마찬가지로 카포에이라도 제도화되면서 카포에이라가 수단이나 도구보다는, 그 자체가 목표로서 구성적 경험에 가까워졌다. 두 방식의 특징은 모두 오래된 것으로, 이는 브라질 흑인 문화에 깊은 뿌리를 두고



카포에이라 호다의 어린이 ©은정가

있음을 의미한다. 앙골라 카포에이라의 동작은 바닥을 많이 이용하고 바닥에 더 붙어서 하며, 헤시오나우 카포에이라는 공중 동작과 곡예적 요소가 많다.

전통 개념이 반복적으로 ‘보존’과 ‘과거’와 관련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카포에이라의 회전 동작은 이 유산이 고정되거나 화석화 되어 ‘보존’되는 게 아니란 점을 보여준다. 카포에이라는 부동의 개념과 상반되며, 주요 구조를 유지한 채, 재창조, 재상징, 변형으로 역동성이 넘치는 활동적인 세계이다. 아마도 이렇게 카포에이라가 ‘구원’되었을 것이다. 카포에이라는 신체를 통해 우리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며 현재까지 존속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카포에이라 역시 우리를 구원한다(Saura & Zimmermann, 2015). 이는 무예 본연에 대한 경험, 문화, 은유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울림이 있다.



함께하기 ©은징가



돌봄 행위 함께 정의하기 ©은징가

카포에이라가 연행되면 성별, 연령, 사회적 장벽은 사라진다. 카포에이라의 가장 기본 동작인 징가는 신체의 특정 동작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동작으로 실질적인 반발 행위이다(Araújo, 2004). 또한 카포에이라는 대중의 공간을 공연 장소로 선택한다. 카포에이라는 거리와 광장에서 호다로 존재감을 드러낸다. 이러한 저항적 성격 때문에 카포에이라는 소박함과 애정을 기반으로 발달한다. 다른 무예와 마찬가지로 카포에이라 집단도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이다.

그 예로 노인을 향한 근본적인 존경을 들 수 있다. 무예는 보통 의례, 몸짓, 노래, 음악을 통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며 구전 전통 속 가치를 고양한다. 노인, 주로 카포에이라 사범에 대한 한없는 존경에서 노인은 세대에 걸쳐 축적한 지식의 진정한 수호자이자, 추억의 보고로 간주되며, 과거에 대한 학습을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연계시킨다. 이 경우 청년은 연배가 높은 상대방에 대해서 좀처럼 우선권을 가지지 않는다. 돌봄의 개념(Held, 2006)과 공익은 널리 발달했다. 돌봄과 관련된 또 다른 전통 행위는 카포에이라 집단에 어린이가 포함되는 방식이다. 아이들은 성인과 떨어져 수련하지 않는다. 어린이는 어느 상황에서도 존재하고

보유한 능력에 따라 수련하고 참가할 수 있다. 실제로 모든 카포에이라 공동체에 어린이가 있으며 공동체 전체의 보살핌을 받는다.

카포에이라는 말보다 행동으로, 신체와 감각을 통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학습 과정을 보여준다. 전통 지식을 보유한 사범에게 교육 방법을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가르치지 않아요, 함께합니다”(Saura, 2008). 이 실존주의적 ‘함께하기’는 말이 필요 없는, 지각에 의한 전통 지식과 교감한다. 지식 생산에 있어 최상의 감각을 강조하는 것이다 (Santos, 2019). 또한 ‘함께하기’는 건축, 교육, 공동체 필요사항 충족 등 집단이 수행하는 여러 임무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카포에이라 집단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구성원을 위한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노인에게 특별히 신경을 쓰며, 집단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구성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량의 구매와 보급을 위해 자원을 동원한다. 또한 이러한 돌봄 지원은 카포에이라 집단과 교류를 하는 취약 공동체에도 제공된다. 이 모든 노력은 원격 훈련, 온라인 수업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전체 구성원의 신체와 정신을 돌보려는 제도의 일부이다.

학술 부문에서 돌봄 윤리에 대한 개념은 페미니즘 연구에서 가장 눈에 띈다. 페미니즘 연구는 평등과 개인성의 원칙뿐 아니라 사람 간 상호 의존적 관계까지 고려한다(DesAutels & Waugh, 2001). 그러나 돌봄 윤리는 여러 전통적인 표현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이번 연구에 토대를 제공한 은징가 카포에이라 앙골라 그룹은 바히아연방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잔자^{Janja} 사범이 이끌고 있다. 잔자의 카포에이라 연구와 기고문 중에는 공동체와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성향을 드러내는 인종차별, 성차별, 아동 권리 등의 주제를 다루는 내용도 있다. 잔자 등 많은 사범의 헌신은 카포에이라, 무예 등 고대 신체적 표현, 무형유산에서 돌봄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준다.



카포에이라 수련장의 어린이 ©은정가

함께하기, 자연 친화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

카포에이라와 같은 전통적 문화 표현은 윤리적, 미학적 영역에서 그 탁월함을 보여준다. 현재 여러 복잡한 방식으로 높이 평가받고 장려되는 개인주의와 능력주의와 달리 무형유산은 집단성의 원칙에 따르며 전 세대를 단결시킨다. 무형유산은 다양성, 통합, 환경에 대한 존중을 함양한다.

‘함께하기’는 공유의 구현을 보여준다(Merleau-Ponty, 1982). 이 실제적 관점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가능성 속에서 나타나, 우리 일상적 관습의 새로운 의미가 발달하게 한다(Irobi, 2012). 항상 새로운 것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다. 치앙 카르발류 Tião Carvalho 사범은 이렇게 말한다. “이는 새로운 가치이지만 사실 예전부터 있었다. 일부에게만 새로운 것이다”(Saura, 2008).

전통 표현에서 유래한 고대의 가치는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 따라서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인간 존재 가능성의 기준에 해당



카포에이라 동작 ©은정가

하지 않는다(Lévi-Strauss, 2013). 전통 공동체 개념은 토착민, 아프리카 후손 공동체(킬롬보), 그리고 그 밖에 환경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집단을 가리킨다. 브라질의 경우 약 700여 곳의 킬롬보가 집단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표현 수단으로 카포에이라를 정기적으로 수련한다. 거주지와 완전한 상호 의존성, 자제한 관찰, 비포식적 관계, 외부 요인의 개입을 막는 방식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거주지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고를 언급할 가치가 있다(Brasil, 2000). 상호 의존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돌봄의 윤리에서 장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전통 공동체적 삶의 방식에 비추어 인간중심적 태도에서 자기중심적 전제로 논의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Breivik, 2019). 이는 카포에이라가 보여주는 것처럼 몸짓과 동작에 담긴 지혜를 드러낸다.

자연 친화는 무형유산 관습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이미지 및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Bachelard, 2008). 따라서 무예라는 전통 관습은 완전한

세계의 지식, 기술, 가치를 보유한 비슷한 대상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카포에이라 및 다른 무형유산 표현이 어떻게 우주, 자연, 역사, 그리고 인정과 존엄을 위한 정치적 투쟁과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단순한 구성 요소와 인간의 복잡한 기술로 이루어진 이 관습들은 우리에게 상호 문화적 대화로 이르는 길을 제시하며, 이 대화는 돌봄, 전통, 지속가능성으로 이루어진 구조의 단순성을 참작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무형유산은 인간의 만남 그 이상을 추구한다

카포에이라의 특별한 경험부터 폭넓은 범주의 무예에 이르기까지 이 연구는 무형유산의 전통, 돌봄, 지속가능성의 근본 가치가 특별하게 공유되는 방식을 조명하려고 했다. 사실, 상호 발생적이고 포용적인 특성 때문에 만남, 대화, 화해를 장려하는 공통적인 방식의 기능이 존재한다.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전통의 뿌리를 찾아보려 했다. 카포에이라는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함께하기’ 방법과 돌봄의 윤리를 통해 무형유산 관습은 실제로 전승될 뿐 아니라, 지지하는 관계로 구현된다. 지식 생산에서 최상의 감각은 실체가 있는 상징적 과정에서 일부로 우리 모두를 단결하고 담론적 합리성 이상의 접근법을 추구한다.

카포에이라는 역동적인 내면 움직임의 전통이다. 변화하는 사회·문화·환경적 도전에 신체를 통해 대응하는 개방적 유연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무형유산은 인간의 만남 그 이상을 추구한다. 문화와 환경의 화해를 증진하며, 전통 특징에 의해 지속 가능하다.

- Araujo, R. C. (2004). *Iê, viva meu mestre*. Ph.D. thesis, Faculty of Education, University of São Paulo.
- Bachelard, G. (2008). *A Poética do Espaço*. São Paulo: Martins Fontes.
- Barreira, C. R. A. (2017). "The essences of martial arts and corporal fighting: A classical phenomenological analysis." *Archives of Budo*, 13, 351–376.
- Barreira, C. R. A. (2018). "Martial arts and corporal fighting as ethical practices." In *The 4th WMC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Illuminating Ethical Values of Martial Arts*, p. 41–49. Gyeongju: Gaesin Cultural Cente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Brasil, Ministério do Meio Ambiente (2000). *A Convenção sobre Diversidade Biológica*. Brasília: Secretaria de Biodiversidade e Florestas (Série Biodiversidade n 1.).
- Breivik, G. (2019). "What would a deep ecological sport look like? The example of Arne Naess."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46(1), 63–81.
- Channon, A. and Matthews, C. R. (2018). "Love fighting hate violence: an anti-violence programme for martial arts and combat sports." In T. F. Carter, D. Burdsey and M. Doidge (eds), *Transforming Sport: Knowledges, Practices, Structures*. Routledge: London.
- DesAutels, P. and Waugh, J. (eds) (2001). *Feminists Doing Ethics*.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 Held, V. (2006). "The ethics of care." In C. Copp (ed.), *The Oxford Handbook of Ethical Theory*, pp. 537–567.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IBGE (2020). "Território Brasileiro e Povoamento. População Negra no Brasil." [Online] Brasília: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Available at <https://brasil500anos.ibge.gov.br/territorio-brasileiro-e-povoamento/negros/populacao-negra-no-brasil.html> (accessed June 20, 2020).
- IPHAN (2006). *Coletânea de leis sobre preservação do patrimônio*. Rio de Janeiro: IPHAN.
- Irobi, E. (2012). "O que eles trouxeram consigo: carnaval e persistência da performance estética africana na diáspora." *Projeto História*, 44, 273–293. Available at <https://revistas.pucsp.br/revph/article/view/9857/9824> (accessed April 8, 2020).
- Lévi-Strauss, C. (2013). *Anthropology Confronts the Problems of the Modern*

- World. J. M. Todd (tran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quese, R. B. (2006). "A dinâmica da escravidão no Brasil: resistência, tráfico negro e alforrias, séculos XVII a XIX." *Novos estudos CEBRAP*, 74, 107–123.
- Martinková, I. and Parry, J. (2016). "Martial categories: clarification and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43(1), 143–162.
- Melo, F. and Barreira, C. R. A. (2015). "Psychological barriers between violence, fight and game: phenomenological transitions in the practice of capoeira." *Movimento*, 21(1), 125–138.
- Merleau-Ponty, M. (198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ondon: Routledge.
- Merrell, F. (2003). "Capoeira culture: an impertinent non-Western art form." In S. Hart and R. Young (eds), *Contemporary Latin American Cultural Studies*. London: Routledge.
- Reis, L. V. S. (2000). *O mundo de pernas para o ar: a capoeira no Brasil*. São Paulo: Publisher Brasil.
- Rocha et al. (2015). "Diasporic and Transnational Internationalization: The Case of Brazilian Martial Arts." *Brazilian Administration Review*, 12(4), 403–420.
- Santos, B. de S. (2019). *O fim do império cognitivo, a afirmação das epistemologias do Sul*. Belo Horizonte: Autêntica.
- Saura, S. C. (2008). *Planeta de boieiros: culturas populares e educação de sensibilidade no imaginário do bumba-meu-boi*. Ph.D. thesis, Faculty of Education, University of São Paulo.
- Saura, S. C. (2019). "Capoeira, a poetry in motion martial arts." In *The 5th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Martial Art Itself*. World Martial Arts Masterships Committee.
- Saura, S. C. and Zimmermann, A. C. (2015). *Traditional Games*. São Paulo: Laços.
- Toplin, R. B. (1981). *Freedom and Prejudice: The Legacy of Slavery in the United States and Brazil*. Westport: Greenwood Press.
- UNESCO (2020). "Capoeira circle." Available at <https://ich.unesco.org/en/RL/capoeira-circle-00892> (accessed June 20, 2020).
- Valério, P. H. M. and Barreira, C. R. A. (2016). "A roda de capoeira: uma vivência comunitária." *Memorandum*, 30, 177–198.
- Vianna, L. C. R. (2016). "Patrimônio imaterial." In B. Grieco, L. Teixeira, and A. Thompson (orgs), *Dicionário IPHAN de Patrimônio Cultural*, 2nd edn. Rio de Janeiro: IPHAN/DAF/Copedoc.

11

선先스페인 시대
문화유산으로 통하는 관문,
멕시코 무예 실람

조지 제닝스 George Jennings

영국 웨일스 카디프메트로폴리탄대학교 체육보건대학

멕시코의 신흥 무예 활동

스페인어권인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나 필리핀 등 과거 스페인 식민지였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멕시코 지역에도 오래된 토착



실람 수업의 개막 의례(2009) ©마리셀라 우갈데

무예와 비교적 최근에 생긴 전투 무예 및 격투스포츠가 공존한다. 1990년대 초 이래 멕시코의 중부, 멕시코만, 북부 지역에서는 주로 격투스포츠 및 멕시코 아시아 무예 전문가들에 의해 여러 신흥 무예가 탄생하고 꾸준히 전파되어 왔다. 신흥 무예는 다양한 사회적 위기 속에서 경험 많은 무예가들이 개인적인 문제를 겪어나가는 과정에서

탄생하는 경우가 많다(Jennings, 2019). 멕시코의 이 개척자들의 격투 경험은 각종 토착 형태의 무예 및 비전에 대한 연구에 힘입어, 자기방어, 국가적 자긍심 고양, 문화유산 복원 등 인간 개개인과 국가의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독특한 무예로 탄생한다.

탈식민 및 혁명 이후 국가적 정체성 및 멕시코니다드 Mexicanidad라는 높아진 이상을 갖춘 멕시코에서, 포괄적으로 ‘무예 활동’으로 인식되는 이 같은 전투 무예(Martinková & Parry, 2016)는 전면적인 직접 타격 격투 스포츠에서부터 미학적인 무예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참고로, 멕시코니다드는 멕시코다움의 본질적 측면(Jennings, 2017)을 통칭하는 말

이다. 이들 전투 무예는 토착 언어, 철학 사상, 예식 그리고 기술적 변화의 측면에서 토착 문화유산을 탐구할 의향이 있고 신체적 능력도 있는, 젊은 신세대 멕시코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상된 것이다. 이런 무예 활동에 대한 멕시코니다드라는 고유한 이상은 멕시코시티 콘체로스concheros의 경우 같은 의식적, 상징적 형태의 '선스페인 시대'의 춤을 동일선상에 놓게 된다(Rostas, 2002, 2009). 전 세계 수많은 무예들이 그렇듯, 이들 무예 활동 역시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숙련되고 성품이 고결한 전사라는 숭고한 전형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원형은 (멕시코족) 아즈텍 제국의 독수리 및 재규어 기사단이다. 다양한 형태의 유무형유산의 전승에 전통 무예 실람Xilam 외에도 팍앳톡Pak-at-Tok, 수셈SUCEM, 리마라마Lima Lama와 같은 신흥 멕시코 무예도 많은 기여를 했다.

이 장에서는 5년에 걸친 질적 사례 연구를 토대로 실람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연구에는 민족지적 현장 연구, 창시자의 생애사, 사범들 인터뷰, 그리고 해당 무예에 대한 공식·비공식적 언론 보도에 관한 네트노그래피적 연구가 포함된다(Jennings, 2015~2018). 유형 및 무형 유산 간 연관성에 대한 최신 논쟁들을 바탕으로(Lo Iacono & Brown, 2016), 번잡한 대도시인 멕시코시티 및 인근 지역에 사는 멕시코의 신세대들에게 실람이 선스페인 시대 문화로 통하는 관문으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를 활성화하는 실람 교수법의 구체적이고도 상호 연관된 요소들을 분석하여 밝히고 간략히 서술하며, 관련 내용은 이후 자세히 언급하도록 한다.

실람을 연구하고 이론화하다

실람이라는 이름은 '피부를 벗긴다'는 뜻의 마야어 '질람Dzilam'에서 유래했다. 이는 문자 그대로의 폭력적 의미라기보다는 수련자의 내적 자아를



오메테오틴(이중 에너지) 및 네 방향의 이미지를 활용한 실람 로고 ©마리셀라 우갈데

발전시켜 이를 겉으로 드러낸다는 은유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실람은 철학적 개념이 포함된 전투 무예이자 인간 개발 체계의 대표적 사례다(Jennings, 2016). 실람은 무예의 역사에서 드물게 1992년 여성에 의해 공식 개발되었다. 이 여성은 바로 무예 분야의 개척자 마리셀라 우갈데 벨라스케스 데 레온 Marisela Ugalde Velázquez de León으로, 수십 년간 아시아의 다양한 무예를 수련한 뒤 수파 포라소 Xhupa Porrazo의 사포텍 레슬링 스타일을 역구했다(Jennings, 2015). 현재 60

대 후반에 접어든 우갈데는 실람을 가르치며 토착무예의 전통 및 관련 연구 내용을 “체계화하고 수호하고 보급”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www.xilam.org). 평생에 걸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갈데와 그 제자들은 선사시대 멕시코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구체화된 철학적 실천을 통해 멕시코인들이 잃어버린 전사로서의 정체성을 복원하고자 한다. 실람의 주된 영감의 원천은 아즈텍(멕시카), 마야, 메소아메리카 사포텍 민족의 각종 무예 문화 및 전사 집단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고대 중부 메소아메리카의 전체론적, 반이원론적인 나우아족의 철학이다(León Portilla, 1990). 나우아족의 철학은 나우아틀어 Nahuatl권 공동체 전반에 오늘날까지 확연히 살아 있는 멕시코 문화유산의 또 다른 측면을 형성한다(Maffie, 2014).

실람에 대한 연구는 통상적인 민족지 연구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의 대상(실람의 예술, 철학, 구성)과 주제(나, 내 정체성, 내 역량)가 변화함에 따라 점차 “뒤죽박죽” 됐다(Jennings, 2018b). 2011년에 멕시코시티의 어느 지역 공동체 센터에서 필자가 우연히 실람을 접하게 된 계기는 바로 나우아틀어였다. 필자는 실람이라는 무예에 한 명의 견습생으로서 접근했고, 집 근처의 분교가 문을 닫을 때까지 기초부터 중하급 수준까지 배울 수 있었다. 그 뒤 실람 공식 웹사이트,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의 글 및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학습을 이어갔다(Jennings, 2016). 결국 네트노그래피 netnography 전략으로 실람 창시자의 생애사에 대해서도 접하게 되어 해당 무예를 가르치는 수많은 사범들과 유단자들을 인터뷰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멕시코 대중이 실람을 수용하는 방식에 대해 연구하고 전 세계인들에게 널리 소개되고 계속 전파되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 실람에 관한 비디오 영상 자료 및 소셜 미디어 논평을 검토해왔다. 이들 최근 데이터 가운데 일부는 이번 글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런 복합 연구는 멕시코의 신흥 무예 그리고 유산의 전승자이자 관문으로서의 실람의 잠재력에 관한 학제 간 이론화의 수많은 길을 열었다. 보우먼(2019)의 주장대로, 실람은 식민지 독립 이후 그리고 어쩌면 포스트모던 무예로서 메소아메리카 그리고 오늘날 멕시코의 과거, 현재, 미래와의 연계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현재의 여러 이론 및 개념은 실람이라는 무예의 정신과 연행을 지역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Jennings & Cynarski, 2019). 실람을 연구한다는 것은 라티넥스 Latinx 연구 같은 신흥 분야(Mize, 2019)와 밀접히 연관된 무예 연구라는 새로운 영역에 대해 학제 간 접근(Bowman, 2015)을 한다는 의미다. 나는 멕시코의 국가적 정체성, 멕시코니다드, 메소아메리카 문명에 관한 지역 이론들을 통해 실람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

본필 바탈라 Bonfil Batalla가 수십 년에 걸친 인류학 공동 연구 이후 주장했듯이, 고대 선사페인 시대의 메소아메리카 문화는 멕시코 문화의 전반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워크바이매거진 Work by Magazine』(2009)은 오늘날 ‘메스티조 Mestizo(문화적, 민족적으로 지역 토착 및 스페인 간의 혼합)’로 추정되는 멕시코의 농촌 공동체 내에서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명맥을 유지해왔다고 주장한다. 도시 거주민들에게는 멕시코식 식단의 토대에서 그 영향이 좀 더 뚜렷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다. 메소아메리카의 유산은 유명한 피라미드 등 수많은 고고학적 유적지 방문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시티 및 전 세계 각국 수도의 박물관에 있는 거대한 달력이나 정교한 머리 장식 등에 대해 찬탄하는 방식으로도 감상할 수 있다. 아즈텍 달력에서 가져온 방향, 계절, 시대, 신의 개념 등에 대한 생 각은 실람의 기본적인 순서나 포르마(형식)의 토대가 되며, 이는 시계 및 반시계 방향으로 동서남북 4개의 방위 기점을 따르고, 나우아틀어 같 은 토착어로 만트라를 외우거나 수를 세는 등 다양한 방법도 동반된다 (Jennings, 2018a). 돌로 된 거대한 달력 같은 매우 구체적인 유형유산 요 소의 핵심 원칙들은 실제 실람에서 본 의례적 형식 기반의 교수법을 통 해 구체화된다. 부도 Budo(일본 무예) 및 중국의 여러 무예의 경우와 마찬 가지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문화유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으니, 바로 유형 유산(각종 기념비, 건축물, 유적지 등)과 무형유산(각종 사물, 공예품, 문화공 간, 관습 등)이다. 로 이아코노와 브라운 Lo iacono & Brown(2016)은 유형과 무 형 둘로 나누어 대비시키는 것은 잘못된 이분법이라 본다. 이 같은 이분 법은 “춤 같은 활동의 경우처럼 유무형의 요소들이 따로 뗄 수 없이 서 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적이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감안할 때 문제의 소 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진은 대신 포괄적이고 좀 더 유동적인 모 델의 대안적 시각으로서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살아 있는 문화유산’은 각 개인이 만들고 사용하는 공예품 그리고 그들 이 상호작용하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개인들에 의해 구현되며, 다양 한 관습, 활동, 공연 등을 통해 표현된다. 살아 있는 문화유산은 사회·문 화적 영향을 받는 전통 및 관례뿐 아니라 사람들의 여러 감정과 정서 그 리고 기호 및 인식 등 유산을 대하는 방식에 의해서도 구성된다. 유산과 인간 개개인은 떼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유동적이고 자유롭게 열린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서로를 빚어가는 관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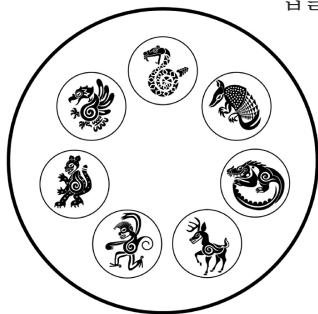
구조적이면서도 유동적인 이 체계가 상정하는 바는 춤에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의 몇 가지 주요 특색들, 즉 문화적, 구체적, 실용적, 공간적, 시간적, 공예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다. 춤과 비슷한 구체화된 특성 덕분에 이 같은 체계는 실람처럼 문화적으로 풍부한 예술을 탐구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무예 역시 춤과 마찬가지로 각종 사물과 무기 등 굉장히 유형적인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속된 여러 관습과 기법을 포함한다.

실람을 통해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전승하다

실람에는 멕시코 토착 및 스페인 시대 메소아메리카 문화유산의 수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매주 수업에서 공식적인 순서를 헤아리거나 호명할 때 사용되는 토착어에서부터 각종 예식 및 공개 시연 행사에서 사용되는 머리 장식이나 콘차(조개껍데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춤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실람에는 분명 특유의 요소들이 있어서, 덕분에 나는 이 무예의 5가지 구체적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특징들은 멕시코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현대성 그리고 서구화 프로젝트에 가려진 문화의 필수적인 요소들과 연관되어 있다. 실람의 철학, 교수법, 하위문화의 이 5가지 측면은 다음과 같다. ① 메소아메리카 지역 동물들을 토대로 한 동작과 형태 ② 반이원론적 아즈텍 우주론에 기초한 4부작 철학 ③ 이 철학을 표현하는 구전 만트라와 토착 용어들 ④ 해당 동작들에 맞추어 사용되는 기구들(방패나 흑요점 등) ⑤ 동작, 기구, 기본 철학 간의 연결에 관한 ‘전사 협의회’ 내 수련생들 간의 대화.

살아 있는 유산의 한 차원은 생태학, 즉 메소아메리카 지역의 토착 동물들과 관련이 있다. 수많은 중국 무예가 그렇듯, 실람 역시 구체적인 기

법들을 통해 “동물이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Farrer, 2013).



실람의 일곱 동물들 ©마리셀라 우갈데

오늘날 멕시코인의 생태유산은 실람의 구조적 체계를 통해 전면에 부각된다. 실람은 해당 지역의 7가지 토착 동물인 뱀, 독수리, 오실롯, 사슴, 원숭이, 이구아나, 아르마딜로로부터 착안한 7가지 단계별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 단계는 자기방어 학습과 더불어, 맨손으로 하는 3가지 기본 순서를 통해 진행된다. 동작들마다 스페인 시대 및 토착의 전통 철학에서도 중시되는 이 7가지 동물로부터 착안한 특질을 결합하고 있다. 수련자들의 체계적이고 점진적인 발달에 대해서는 마리셀라 우갈데가 공개 시연 석상에서 했던 다음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쉽다.



스페인 시대 조각들에서 착안하여 분석한 원숭이 단계 수준의 동작들 ©마리셀라 우갈데

스페인 시대의 뱀은 에너지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독수리가 있는데, 이는 각 개인의 정신을 의미 하죠.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범위와 동기가 다르고, 각자 동원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나 정신도 다릅니다. 다음으로는 재규어가 있는데, 이는 힘, 자신감입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힘과 감정적인 힘, 영적인 힘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원숭이 예요. 수련생으로서 여러분은 수월하게 이리저리 움직일 줄 아는 재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사슴입니다. 바로 각자의 중심, 심장을 뜻합니다. 이 심장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요. 이구아나는 여러분의 조상들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혈통을 찾는 거지요. 마지막 단계는 아르마딜로입니다. 콘체로스

Concheros는 가톨릭의 상징체계를 이용했어요. 여러분의 자아를 창조하고 또 재창조하는 겁니다.

선스페인 시대는 이제 수세기가 지났지만, 실람은 멕시코족의 우주론적 이상을 정복, 폭력, 전쟁 대신 교육, 문화적 표현, 인간 개발을 목표로 삼는 현대적 무예 속에 통합하고, 오늘날 권력의 식민성, 폭력 범죄, 원주민에 대한 차별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멕시코에서 현대적 전사를 양성하고자 애쓰고 있다. 동물에게서 영감을 얻은 동작은 현지의 다른 토착 개념과 더불어 멕시코족의 나우아 철학에 비추어 이해 및 이론화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구아나는 멕시코 남부 테완테펙 Tehuantepec의 사포텍 민족에게 중요한 동물이다.

기본 개념은 오메테오틀 ometeotl(이중 에너지)에서 나온 것으로, 오메테오틀은 도교 우주론의 음양이라는 이중성과 매우 흡사한 이중적 개념이다. 이 개념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망자의 날’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생과 사가 다채로운 꽃무늬가 그려진 칼라베라 Calaveras(두개골)를 통해 상징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표현된다. 실람은 오메테오틀의 4가지 표상인 위실로포크틀리 Huitzilopochtli, 퀘찰코아틀 Quetzalcoatl, 테스카틀리포카 Tezcatlipoca, 시페토테 Xipetote에 따라 주창자를 개발했다. 통상적으로 현대 인류학이나 멕시코 역사에서는 이 표상들을 신으로 간주하지만, 실람에서는 그런 주장을 반박하며, 이는 수련을 통해 연마하고자 애쓰는 몸과 마음의 4가지 측면인 의지, 감정, 인식, 지성을 반영한 개념이라 주장한다.

수많은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놀랍겠지만, 멕시코는 사실 공식적인 국교나 공용어가 없다. 선스페인 시대의 각종 상징과 의례가 여러 전통에 스며들어 있기는 하지만 멕시코는 사실상 로마 가톨릭 국가다. 한편, 스페인어가 가장 흔히 통용되는 언어에 해당하는 하나, 이 광대한 국가 전역에는 64개 이상의 언어권이 있다. 실람 수업에서는 스페인어 이외에도,



멕시코 선조들의 문화를 계승하는 전통 의례 ©마리셀라 우갈데

7가지 동물과 철학적 개념 그리고 형식을 설명할 때 (실람의 탄생에 영감이 된 3가지 전사 문화권의) 토착어인 나우아틀어, 마야어, 사포텍어도 함께 사용된다. 1부터 20까지 세는 것 역시 스페인어와 나우아틀어 두 언어로 이뤄지며, 수련생들에게는 1부터 10까지의 마야어 숫자 등 기본 숫자 및 어휘를 익히기 위한 인쇄물을 숙제로 나눠주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조상의 문화에 대해 좀 더 알기 원하는 멕시코 시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

따라서 실람은 다른 형태의 학습에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람협회는 선사시대 콘체로 군무단 등 특정 '신체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Eichberg, 1998). 그리고 어깨와 엉덩이를 이용한 동작들과 관련해서는 오늘날 멕시코에서 폭-타-폭 pok-ta-pok 또는 후에고 데 펠로타 메소아메리카노 juego de pelota mesoamericano로 흔히 알려진 고대 메소아메리카의 구기에서 일부분 영감을 받았다. 앞서 언급했던 멕시코 무예 팍엣톡 역시 메소아메리카의 구기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이름이 약간 다른 것은 마야어에서 유래한 탓이다. 멕시코 및 메소아메리카의 기구 측면에서 보면, 실람 역시 멕시코족 전사들이 사용했을

법한 무기를 모형으로 만들어 훈련에 이용한다. 그러나 모형 무기는 독수리 및 재규어 기사단이 썼던 아주 날카로운 흑요점 같은 것이 아니라 좀 더 협력적으로 파트너와의 대련 및 춤에 활용되는 안전한 도구이다.

실람의 시연은 종종 여러 세대가 함께하는 페스티보 데 로스 아부엘로스(Festivo de los Abuelos(조부모들의 축제) 같은 멕시코 토착 전통을 기리는 문화 및 공동체 행사에 포함되기도 한다. 행사 중에 실람 수련생들은 구전 만트라를 외우게 되는데, 이에 대해 마리셀라 우갈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리에게는 “지구를 존중하고, 어떤 민족이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환경의 법칙을 존중하며, 언제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만트라가 있습니다. 이 만트라를 따른다면, 당신은 어디서든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새로운 인간은 존중과 조화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실람 수련에 사용되는 메소아메리카의 무기들 ©마리셀라 우갈데

살아 있는 유산의 위와 같은 모든 측면들은 메소아메리카 문명이 멸종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문화적 멕시코 안에 살아 숨쉬며 번영하고 있으며, 실람의 의례적 형식, 훈련, 시연 속에 구현된 동작들을 통해 표현된다는 것을 뜻한다.



실람 수업 끝날 무렵의 전사 협의회 ©마리셀라 우갈데



앙드레스 세구라 그라나도스, 마리셀라 우갈데의 영적 스승이자 무용수 겸 무속인 ©마리셀라 우갈데

실람의 수련자들은 매 수업 말미에 각자 배운 것에 관한 생각, 경험, 느낌, 성찰을 서로 교환하고, 무예 관련 용어들에 관한 지식, 철학적 개념, 가치에 관해 구술 시험을 치른다. 이 ‘전사 협의회’ 덕분에 이들은 수련실을 떠나면서 각자의 타고난 뿌리에 대해 좀 더 알게 되고 조상들과 공유하는 어떤 감각으로 연결된 채 도시화된 현대의 일상적인 멕시코 사회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원형으로 둘러앉아 진행되는 이 협의회는 구전을 통해 공유된 지식에 접근하는, 여전히 남아 있는 일부 고유한 방식을 반영한다. 구전은 우갈데가 영적 스승인 고 앙드레스 세구라 그라나도스 Andrés Segura

Granados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핵심적인 방식으로, 그는 제자였던 우갈데에게 “멕시카니다드라 불리는 철학, 이론, 의례”(www.xilam.org)를 전수한 “선생이자 안내자이자 후견인”이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개발된 실람의 각종 기법, 형식, 연행에 기풍과 전통을 더하고, 문화유산의 유형적, 무형적 측면들 모두를 유연한 대화 속에 통합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실람은 로 이아코노 및 브라운(2016)이 말했던, 살아 있는 문화유산, 가교가 되는 공예품, 신체, 공연, 그리고 감정, 동작, 기법이 담긴 공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실람의 철학은 육체에, 구두로 촉각으로 전승되다

멕시코는 문화유산이 풍부한 국가로, 유네스코가 인정한 수많은 고고학적 유적지가 있다. 그 가운데는 이 문화유산의 유형적 요소로 간주되는, 잃어버린 유명한 도시들과 피라미드들도 포함된다. 더하여 이 땅의 원주민들의 토착 전통을 대표하고 살아 있는 유산을 움직이게 만드는 신체적인 문화들이 있다. 몇몇 멕시코 무예는 아즈텍(멕시카) 전사들 및 마야나 사포텍 같은 여타 문화권에서 영감을 받아왔다. 물론, 이 특정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새롭게 탄생한 무예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예가 바로 실람이다. 실람은 스페인 정복 이후 유럽인들의 식민 지배 및 정착과 다른 문화권의 그들에 가려졌던 전스페인 시대의 문화유산에 대해 멕시코인들에게 다시 교육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실람의 목표는 선조의 뿌리에 대한 멕시코 수련생들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의 녹록치 않은 사회에 대처해나갈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주는 데 있다. 유단자이자 사범인 안드레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자연과 연관돼 있습니다. 실람의 각 단계는 동물과 관련이 있죠.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의 조상들에 대해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람은 마야, 아즈텍, 사포텍의 것이며, 그들 이전에 여러분의 조부모와 조상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존중이기도 하지요. 거기서부터 존중하고 배려하고 배우는 겁니다. 모든 것이예요. 대기를 좀 더 친절하게 대하는 일이죠.

이 장에서는 실람의 철학, 교수법, 하위문화의 5가지 주요 측면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봤다. 실람은 고유한 무예일 뿐 아니라 멕시코 및 메소

아메리카의 문화유산으로 살아 있는 관문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고대 철학 및 토착 지혜 같은 무형유산은 신체 동작이나 각종 기구 같은 좀 더 유형적인 측면과 서로 연결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수년간 국가적으로 시행된 서구화 프로젝트 아래 묻혀 있었다. 이번 장에서는 실람이 관여하고 촉진하고 환기시키는 멕시코 유산의 유무형적 측면들에 대해 분석했다. 여기서 주장하려는 핵심은 현존하는 멕시코 토착 문화의 토대를 이루는 선사페인 시대 메소아메리카 문화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이는 조상들을 떠나 도시에 살고 있는 신세대 멕시코인들에게도 실람을 통해 통합되고 전승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 유산은 동작 속에, 말을 통해, 그리고 실람 연행자들이 테스카틀리포카, 퀘찰코아틀, 시페토테, 위실로포크틀리의 4가지 에너지를 구현하는 동작을 시연하는 동안 던져진 콘차 껍데기 같은 공예품들의 도움으로도 존재한다. 실람의 철학은 거의 문자 그대로 육체에 있으며, 구두 및 촉각으로 구성된 교수법을 통해 전수된다. 스페츠(2015)가 소논문에서 제기했던 ‘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지점이다. 몸은 육체적 기술들, ‘아즈텍’ 철학, 모형 기구들, 혼합 언어들을 통해 실람을 실연하는 동료들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똑같이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전달할 수 있다.

오늘날 멕시코의 수많은 무예 활동은 비교적 잘 알려진 복싱과 루차 리브레 Lucha Libre의 유산을 한층 더 풍부하게 한다. 실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졌던 멕시코 문화유산 중에 소실된 듯 보이는 측면을 초기 학교 교육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신흥 무예의 전형적인 예다. 신속한 재발명의 시대에(Elliot, 2013), 실람은 그 수련자들이 선조들의, 민족의, 국가의 유산에 연관된 새로운 정체성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그리고 총체적으로 스스로 재발명한 무예의 전통이다.

나는 이 글이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전통적인(그리고 전통주의적인) 무예 및 문화유산을 다루는 본 도서에 유용한 정보를 더했다고 믿는다. 무예

분야의 학자들, 정통 후계자들, 지도자들, 후견인들은 살아 있는 문화유산의 개념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자 자신의 프로젝트에 유용한 반이론적인 이론적 접근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보편적인 그리고 문화적으로 특수한 인류 유산, 즉 스페인어로 엘 파트리모니오 우마노 *el patrimonio humano*라 일컫는 것의 유형적, 무형적 측면들을 초월하는 구체적인 철학, 교수법, 하위문화에 대한 넉넉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 Allen, S. D. (2017). *A History of Boxing in Mexico: Masculinity, Modernity and Nationalism*. Albuquerque: University of New Mexico Press.
- Asociación Mexicana de Arte Marcial Mexicano Prehispánico Xilam (n.d.). Official website. Available at: www.xilam.org (accessed April 26, 2020).
- Bonfil Batalla, G. (1994). *México Profundo: Una Civilización Negada*. Mexico City: Debolsillo.
- Bonfil Batalla, G. (1996). *Mexico Profundo: Reclaiming a Civilisation* (trans. Phillip A. Deni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Bowman, P. (2015). *Martial Arts Studies: Disrupting Disciplinary Boundaries*. London: Rowman & Littlefield.
- Bowman, P. (2019). "Game of text: Bruce Lee's media legacies." *Global Media and China*, 4(3), 325–338.
- Dodd, S. A. and Brown, D. H. K. (2016). "Kata—the true essence of Budo martial arts?", 11(1), 32–47.
- Eichberg, H. (1998). *Body Cultures: Essays on Sport, Space and Identity*. London: Routledge.
- Elliot, A. (2013). *Reinvention*. London: Routledge.
- Farrer, D. S. (2013). "Becoming animal in Chinese martial arts." In P. Dransart (ed.), *Living Beings: Perspectives on Interspecies Engagement*, pp. 145–166. London: Bloomsbury.
- Gonzales, R. C. T. (2015). Filipino Martial Arts and the Construction of Filipino National Identity. Ph.D. thesis, University of Manchester.
- Jennings, G. (2015). "Mexican female warriors: the case of maestra Marisela Ugalde, founder of Xilam." In A. Channon and C. Matthews (eds), *Women Warrior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Women in Combat Sports*, pp. 119–134.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Jennings, G. (2016). "Ancient wisdom, modern warriors: the (re)invention of a warrior tradition in Xilam." *Martial Arts Studies*, 2, 59–70.
- Jennings, G. (2017). "Seeking identity through the martial arts: the case of Mexicanidad." Kung Fu Tea [website], August 14. Available at <https://chinesemartialstudies.com/2017/08/14/seeking-identity-through-the-martial-arts-the-case-of-mexicanidad/> (accessed April, 27 2020).
- Jennings, G. (2018a). "From the calendar to the flesh: movement, space and

- identity in a Mexican body culture.” *Societies*, 8(3), 66.
- Jennings, G. (2018b). “Messy research positioning and changing forms of ethnography: reflections from a study of a Mexican martial art.” In A. Plows (ed.), *Messy Ethnographies in Action*, pp. 41–50. Wilmington: Vernon Press.
- Jennings, G. (2019). “Bruce Lee and the invention of Jeet Kune Do: The Theory of Martial Creation.” *Martial Arts Studies*, 8, 60–72. <https://doi.org/10.18573/mas.84>.
- Jennings, G. and Cynarski, W. (2019). “Martial arts in postcolonial times: local theories for local contexts.” *Ido Movement for Culture. Journal of Martial Arts Anthropology*, 19(3), 11–23.
- Jennings, G., Dodd, S., and Brown, D. (forthcoming). “Cultivation through form-based Asian martial arts pedagogy.” In D. Lewin and K. Kenkies (eds), *East Asian Pedagogies: Education as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New York: Springer.
- Leon Portilla, M. (1990). *Aztec Thought and Culture*.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Levi, H. (2008). *The World of Lucha Libre: Secrets, Revelations and Mexican National Identity*.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Lo Iacono, V. and Brown D. H. K. (2016). “Heritage as a duality of tangible and intangible: towards a model of living cultural heritage.” *Dance Research Journal*, 34(1), 84–105.
- Maffie, J. (2014). *Aztec Philosophy: Understanding a World in Motion*. Boulder: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 Magazine, R. (2009). “Algunos problemas con la categorización de mestizo.” *RURIS*, 3(2). Available online: www.ifch.unicamp.br/ojs/index.php/ruris/article/view/696 (accessed July 8, 2020).
- Martinková, I. and Parry, J. (2016). “Martial categories: clarification and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Philosophy of Sport*, 43(1), 143–162.
- Mauss, M. (1973). “Techniques of the body.” *Economy and Society*, 2(1), 70–83.
- Mize, R. L. (2019). *Latina/o Studies*. Cambridge: Polity Press.
- Rostas, S. (2009). *Carrying the Word: The Concheros Dance in Mexico City*. Boulder: University Press of Colorado.
- Rostas, S. (2002). “‘Mexicanidad’: the resurgence of the Indian in popular Mexican nationalism.” *Cambridge Journal of Anthropology*, 23(1): 20–38.
- Ryan, M. J. (2011). “I did not return a master, but well cudgeled was I: the role of ‘body techniques’ in the transmission of Venezuelan stick and machete

- fighting.” *Journal of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Anthropology*, 16(1): 1–23.
- Spatz, B. (2015). *What a Body Can Do: Technique as Knowledge, Practice as Research*. London: Routledge.
- UNESCO (2020a). “What i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nline]. Available at: <https://ich.unesco.org/en/what-is-intangible-heritage-00003> (accessed April 27, 2020).
- UNESCO (2020b). “Mexico.” [Online]. Available at: <https://whc.unesco.org/en/statesparties/mx> (accessed April 27, 2020).

12

미얀마 타잉

투 투 아웅 Thu Thu Aung

미얀마 산주립박물관고고박물학연구원

남녀 모두를 위한 미얀마 전통무예, 타잉

대부분의 국가와 민족 집단은 스타일과 기술이 뚜렷이 구분되는 전통 무예를 가지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전통무예를 타잉^{Thaing}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대 미얀마의 토착무예체계를 분류하기 위해서이다. 미얀마 전통무예는 수 세기 동안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세대를 거치며 전승되었다. 타잉을 번역하면 ‘원을 그리며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하며 종합 격



미얀마 타잉 ©우바 미야 싸인, 타잉 명장

투를 지칭하기도 한다. 타잉은 미얀마의 무형유산일 뿐만 아니라 자기방어, 격투, 전통 스포츠 기술이기도 하다. 강한 민족주의 정신, 용감함, 종합적인 체력을 보여주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미얀마 고유의 전통 지식체계로서의 타잉은 타잉 사범들에 의해 지켜지고 보호된다.

타잉은 고대 미얀마에서 호국의 목적으로 수련되었으며 당시 전사들은 칼, 창, 활을 사용했다. 타잉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무예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전국의 모든 성인이 타잉 기술을 배웠다. 타잉은 억압, 침략, 신체 공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칙과 규정을 따르면서 자기를 방어하고 국가와 종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타잉에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예인 ‘반도Bando’와 무기를 사용하는 ‘반쉐이Banshay’가 있다.

미얀마의 다양한 민족 집단에는 저마다 고유의 전통무예가 있다. 미얀마의 다양한 전통무예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생겨났다.

- 인 타잉 Inn Thaing, 꾀바웅 왕조의 잉와 왕국(1752~1885)에서 파생
- 칸바우자 타잉 Kanbawza Thaing, 산주에서 시작
- 라마냐 타잉 Ramanya Thaing, 몬주에서 시작

세 가지 다른 경로로 생겨난 타잉 지식은 후에 통합되었다(Min Yekha, 1985).

다양한 종류의 타잉이 각기 다른 민족 집단에 의해 수련되지만, 전문가들은 꾀바웅 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타잉을 가장 우수한 형태로 생각한다. ‘단야와디 Danyawaddy’로 알려진 또 다른 변형의 타잉은 라킨주에서 독립적으로 개발되었고, 단순하지만 불규칙한 형태의 타잉은 ‘타잉 바웅 비안Thaing Byaung Byan’ 또는 ‘리버스 타잉 Reverse Thaing’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스타일에서 진화한 것이다.

배경

연구에 따르면, 가장 초기 형태의 타잉은 테라바다 불교가 출현하기 이전 12세기 바간 왕조 때 시작되었으며, ‘아이 기Ayeey Gyi(승려)’로 알려진 금욕 불교의 사범들이 훈련 학교를 운영했다. 이 무예 기법은 ‘아이 기’에 의해 대대로 이어져 오늘날까지 전해졌고 반도와 미얀마 무예의 근본을 이루게 되었다. 바간 왕조 이후 타잉 전통은 왕실과 군인들에게 전파되어 16세기까지 계속되었다(Ba Mya Thein, 1992).

식민지 시대에 영국은 미얀마에서 검과 창을 사용한 훈련을 금지했다. 타잉의 젊은 수련생과 지도자들이 격투 기술을 반란에 사용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식민 정부는 모든 형태의 격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 타잉 수련생이나 사범으로 밝혀진 사람은 모두 반란군으로 분류되었고 가차없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식민지 시대에 타잉의 수련과 시연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1933년 영국군 소총연대가 만든 ‘군사 체육클럽’에서 미얀마의 전통 맨손 격투기를 되살리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클럽에는 친 Chin, 미얀마, 카친 Kachin, 카렌 Karen 군 장교들이 참여하고 있어 전통무예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1946년에는 ‘청소년 타잉그룹’이 ‘미얀마 청소년리그Burma Youth League’의 산하에 설립되었다. 독립 후에는 미얀마 정부와 애국심 넘치는 타잉 사범들이 타잉을 부활시켰다. 1948년에 첫 번째 전국 타잉대회가 열렸고 1951년에 두 번째 대회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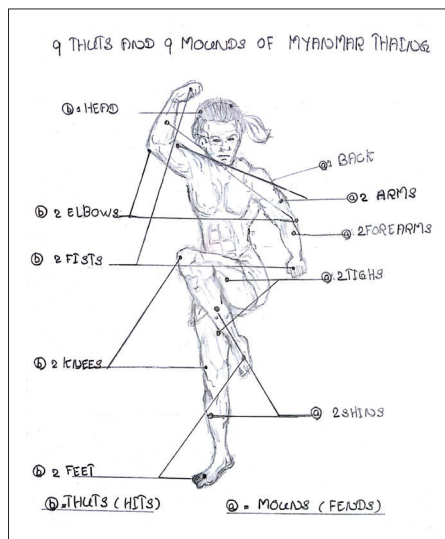
1964년 11월에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무예 훈련과 다양한 계파의 기술과 특성을 문서화하기 위해 여러 타잉 단체 지도자들이 양곤에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뒤 1966년에 ‘모든 미얀마 사람은 미얀마 타잉을 알아야 한다’는 모토로 ‘미얀마 타잉연맹 MTF’이 결성되었다. 오늘날에도 타잉연맹은 여전히 이 모토를 사용한다. 물론 미얀마 타잉은 연맹이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전통적인 방어 무예로 존재했다. 그러나 타잉연맹은 하나의 상부 체계 아래 미얀마의 모든 무예 형식을 통합하고 조직했다. 연맹의 코치들은 1988년까지 수련생을 훈련했지만, 그 뒤 군사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러나 미얀마 타잉은 1990년에도 격투 훈련의 한 형태로 미얀마 군대의 사병과 경찰에게 교육되었다.

미얀마 타잉의 격투 기술과 범주

타잉에서는 인체의 단단한 9가지 부위와 부드러운 9가지 부위를 자기방어를 위한 예방, 차단, 방어, 공격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주요 무기로 인식한다. 미얀마 타잉에서는 신체의 단단한 부분을 '9개의 살인자 Thut Koe Thut'라고 부르며 오른쪽 주먹, 왼쪽 주먹, 오른쪽 팔꿈치, 왼쪽 팔꿈치,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오른쪽 발, 왼쪽 발, 머리의 아홉 부분을 공격 목적으로 사용한다. 신체의 부드러운 부분은 '9개의 방어자 Moun Koe Moun'라고 부르며 피하기와 자기방어를 통해 승리를 얻는 데 사용한다. 오른쪽과 왼쪽의 전완부, 오른쪽 팔과 왼쪽 팔,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허벅지, 오른쪽과 왼쪽의 종아리 등의 아홉 가지 신체 부위는 무예에서 몸을 앞뒤로 움직이고, 구부리고, 피하고, 차고, 조이고, 수축하고, 비틀고, 뛰는 데 사용된다(Sai Kyaw Htay, 인터뷰). 앞뒤로 움직이기, 피하기, 저항하기를 포함하는 6가지 방어 방식이 최고 수준의 무예로 여겨진다. 공격적인 행동 두 가지는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잉 사범들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미얀마 전통무예의 다양한 격투 방식은 유형별로 반도, 반쇄이, 레훤, 나반, 레프웨이로 나뉘며 각각의 무예에는 하위 범주가 있다. 타잉 전통무예는 미학적 형태와 격투 및 전투 기술 형태 두 가지 방식으로 수련된다.

미얀마 무예는 매우 공격적인 경향이 있다. 링 위의 스포츠에 적용될 수 있는 무예지만 생사를 다투는 투쟁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에는 은밀히 쫓다가 뒤에서 공격하는 기술이나 물기 등 다른



9개의 공격자와 9개의 방어자 ©문 문 사이 사이

스포츠 경기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 포함된다. 그러나 격투스포츠는 기술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고, 격투 상황에 익숙해지고, 스트레스와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MTF, n.d.).

반도 Bando

반도는 미얀마 전통 격투 스타일의 기본이며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무예이다. 반도는 무기 없이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반도에는 하드와 소프트의 두 종류가 있다. 하드 반도 또는 레훤(복싱)을 ‘외부 중심의 반도’라고 말한다. 한편, 소프트 반도는 공격을 피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지칭한다(Roebuck & Manandhar, 2016). 반도는 개별, 2인, 그룹 형태로 훈련된다. 미얀마 반도에는 격투를 시작할 때 취할 수 있는 9가지 방식 또는 위치가 있고, 겨루기와 피하기 모두를 위한 8개의 나침반 지점과 상위 방향으로 구성된 9개의 균형점 및 이동 영역이 있다. 반도의 기본 기술은 63가지이며 훈련 준비 단계에만 수개월이 걸린다. 타잉의 법칙에 따르면 방어가 우선이고 다음이 힘의 사용, 마지막으로 공격이다. 방어적 접근법은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며 수련생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기술을 적용하도록 배운다. 공격을 위한 동작은 마지막 단계에서 훈련한다(MTF, n.d.).

반도의 기본 기술은 춤을 통해 익히며 대부분의 타잉 사범들이 춤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보여준다. 춤을 통해 기술을 익힐 때에는 먼저 혼자 연습한 다음, 두 명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연습한다. 그 뒤 공개 격투와 같은 대회에서 기술을 적용한다.

반도의 격투 스타일은 동물의 모습을 활용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인도와 중국 무예의 동물 형식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동물 움직임에 기반한 기술을 사용한다. 반도에서는 손짓뿐만 아니라 상대의 위협, 공격 및 억제 기술, 모든 종류의 공격 기동 및 전략에 이르는 방어 해결



반도의 2인 격투 ©사이 룬

책을 포함한 전략적 행동에 동물의 행동을 활용한다. 각각의 패턴에 따른 다음의 움직임은 모방하는 동물의 특징을 따라한 것이다.

- 멧돼지 스타일의 돌진 공격, 특히 팔꿈치와 무릎을 이용
- 황소 형태의 돌진 타격 및 태클
- 코브라에서 영감을 얻은 상체 중요 지점 공격
- 사슴처럼 공격자에게서 벗어나는 짧은 도약
- 독수리의 특징적인 스타일 양손으로 치고 막기
- 원숭이와 같은 민첩한 움직임
- 왜가리 형태의 빠른 팔 움직임과 짧은 점프
- 주위를 돌다 도약하여 상대를 찌는 표범을 모방한 기술

- 조르기와 가두기는 비단뱀을 모방한 기술
- 중추신경을 물고 붙잡는 것은 전갈을 모방한 기술
- 할퀴는 공격은 호랑이의 특징적인 움직임
- 독사처럼 하체 중요 지점 공격

일부 사범은 모든 동물의 형태를 조합하여 ‘흑표범’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친다. 여러 동물의 다채롭고 구체적인 동작으로 격투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과 서로 다른 스타일이 생겨난다.

반쉐이 Banshay

반쉐이는 반도와 비슷한 무예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검, 창, 나무(대나무)봉 등의 무기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반쉐이에서는 검(다^{dha})을 쌍으로 사용한다. 검 훈련은 처음에는 나무 또는 대나무로 시작하여 수련생이 중급 수준이 되면 검으로 연습한다. 사범이 제자에게 검을 줄 때 칼집이 고정된 상태로 주기 때문에 칼을 받는 제자는 적을 죽이는 일을 삼가게 된다. 수련생이 인내심과 의지력을 갖추게 되면 칼날이 있는 검인 ‘다’



창을 사용한 반쉐이 ©우바 미야 씨인, 타이 명장

를 포함한 전통 무기와 막대기, 지팡이, 창, 방패, 발사 무기, 휘어지는 무기 등의 다양한 무기를 익힌다.

반쉐이에는 새, 우산, 목걸이, 띠의 네 가지로 범주화되는 37개의 검 형태가 있다. 이 네 가지 범주는 다시 남성과 여성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총 8개 범주의 검 형태가 있다. 남성의 검 스타일에서 검을 내리칠 때는 칼날

이 아래를 향한다. 여성 스타일에서 칼날 방향은 남성 스타일과 반대이다. ‘다’는 물론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적의 공격을 막는 데 더 많이



반쇄이 기술 ©사이룡



검을 사용한 반쇄이 ©사이룡

사용한다(Chit Than, n.d.).

반쇄이 스타일은 위험을 증가시키고 갈등 상황에서 실수해도 되는 여지가 줄어든다. 무기 없이 무예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이나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지나치게 쉬워질 수 있다. 수련생이 무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격투 기술을 배워야 한다. 반쇄이 교육 후에 수련생들은 거의 모든 물체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레반 Leppan

레반은 상대에게 붙잡힌 상태에서 자신을 빼내는 전통무예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방어를 위한 것이다. 레반은 민속 놀이에서 연행된다.

레프웨이 Lepwei

레프웨이는 유술계 무예이다. 레프웨이 또한 방어를 위한 무예이며 상대를 바닥에 눕혀 제압함으로써 승리를 달성한다. 레프웨이는 주짓수와 유사한 면이 있다.



라킨 찐 ©테인 흐툐 아웅



라킨 찐 ©테인 흐툐 아웅

나반 Nab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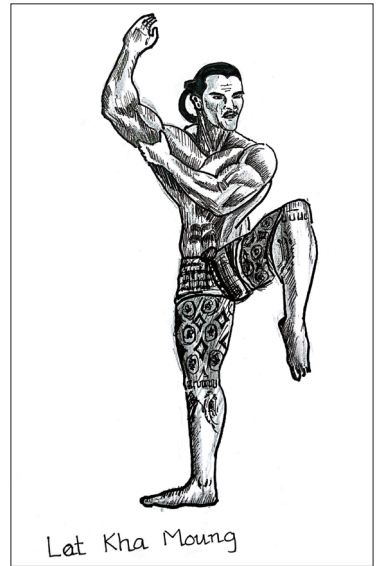
나반은 손바닥과 발 공격 및 유술계 기술(관절 제어, 압박 및 조르기를 포함)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어하고 강제로 복종시키는 무예이다. 전문가들은 나반이 협조와 궁극적으로는 복종을 강조하기 때문에 방법과 전략 면에서 실용적인 무예라고 말한다. 신체의 어느 부분이든 공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신체 표적은 없다. 이 무예는 친, 라킨, 카친 및 미얀마의 서로 다른 민족 집단에서 자체적인 형태로 연행된다. 라킨주에서는 유명한 스포츠이며 찐 Kyin으로 알려져 있다.

레웨 Lethwei

레웨는 반도 기술을 기반으로 한 권투 체계이다. 레웨는 수 세기에 걸쳐 연행되었으며 여전히 미얀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 게임이다. 이 무예는 팔꿈치·발·다리의 사용, 무릎 가격 및 박치기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비무장 기술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레웨는 '아홉 팔다리의 예술'로 알려져 있다. 레웨 선수는 권투 장갑을 끼는 대신 봉대와 테이프를

손을 감고 싸우며 주먹, 팔꿈치, 무릎, 발 심지어 머리를 사용한 공격도 허용된다. 미얀마 레웨에서 기본적인 표적은 상대의 머리카락이나 몸의 일부이다. 그러나 불쾌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선수들을 보호하는 규칙이 있다. 굽기, 물기, 머리카락 당기기, 상대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My Win, 1980).

미얀마 전통 레웨 대회는 종종 축제와 연계되며 일반적으로 전통음악이 동반된다. 전통적인 민속 축제에서 레웨 경기가 시작되기 전, 선수들은 수탉이 싸울 때의 날개를 모방하여 마치 수탉의 영혼을 불러내려는 것처럼 손바닥을 펼쳐 팔꿈치를 두드린다. 민속 놀이에서 시작된



랏 카 몽 ©사이롱 그림

‘랏 카 몽 Lat Kha Moung’으로 알려진 의례이다. 용기와 존경심을 가지고 상대에 도전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레웨 선수들은 랏 카 몽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랏 카 몽은 ‘레웨 예(격투 댄스)’의 시작 부분에 연행된다. 레웨 예는 선수의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 경기 전에 연행되며 경기 후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춤을 추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레웨 복싱 경기는 한 명의 선수가 서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최근 미얀마 레웨 단체들은 국제적인 격투스포츠에 적합하도록 전통 방식 중 일부를 변경하기도 했다. 현재 레웨는 격투 스타일이 흥미진진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미얀마 전통 복싱 연맹은 최초로 현대적 규칙의 ‘골든벨트 레웨 챔피언십 Golden Belt Lethwei Championship’을 조직했다(My Win, 1980).

레웨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격투기 선수로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가장 친절한 사람들이다. 오늘날 레웨는 미얀마 사람뿐만 아니라 레웨를 흥미롭게 생각하는 전 세계 사람이 수련하고 있다. 주요 레웨 단체

들의 홍보에 따르면 미얀마 레웨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타잉 바웅 비안Thaing Byaung Byan

타잉 바웅 비안은 산주에서 시작되었으며 산 언어로 ‘라인 쿠 카 찬 트Line-Khu-Kha-Chant’라고도 한다. 타잉 바웅 비안은 반도와 반쉐이 기술을 모두 포함하지만 동작과 훈련 패턴, 기술적 측면에서 타잉의 다른 무예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그래서 ‘뒤집힌 형태의 타잉(반 무예)’으로 번역되기도 한다(Aung Thein, 1981).

미얀마 타잉과 정신



훈련장에서의 경례 ©사이 룡

미얀마 타잉은 민족, 관습, 국가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었다. 미얀마 관습과 종교에 따르면 타잉 수련생은 절제하고, 적대적이거나 대립적이지 않아야 한다. 미얀마는 다종교 국가이지만 소승불교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전통 관례와 관습은 소승불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처럼 미얀마 타잉은 고대부터 불교의 관습과 함께 전승되었다. 수련생이 수련장에 도착하면 불교의 오계를 지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부처, 법어, 승가, 부모, 스승의 다섯 가지 무한한 숭배 대상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

타잉을 수련하기 전 모든 수련생은 다음을 암송해야 한다.

- 우리는 타잉의 지식과 전통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
- 우리는 국가 안보를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

- 타잉을 배우고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자신을 종교와 나라의 수호자로 생각한다.
- 스승을 마주했을 때는 언제 어디서나 경의를 표한다.

또한, 타잉 수련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규칙을 따라야 한다.

- 부처, 법어, 승가, 부모, 스승의 다섯 가지 무한한 숭배 대상에 무례하지 말 것
- 자신을 비탄에 빠트리지 않은 자를 타잉으로 공격하지 말 것
- 불교의 오계(MTF, n.d.) 중 2계를 지킬 것

고대에 수련생들은 훈련비로 바나나와 코코넛, 양초, 쌀, 흰색 면직물, 붉은 면직물, 물 한 컵과 동전 한 닢을 타잉 스승에게 공양하며 경의를 표했다(Ba Mya Thein, 인터뷰).

오늘날 타잉 훈련은 스포츠로 여겨지며 수련생은 위에서 언급한 의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물 축제나 빛 축제 같은 전통적으로 종교적 의미가 있는 날에는 대부분의 수련생이 기부금으로 스승에게 경의를 표한다.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타잉을 수련할 때는 이러한 전통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무형유산가치에 대한 믿음

미얀마 타잉은 세대를 거쳐 전승된 미얀마의 무형유산이다. 미얀마 사람들은 호국의 수단이자 전통 스포츠인 타잉을 선조에게 물려받았다. 타잉 수련생은 전통무예인 타잉을 수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겸손, 인내,

관용, 정직, 충실함, 용기, 지식, 육체 및 영적 힘, 가족과 국가에 대한 사랑 같은 윤리적 원칙을 지키도록 훈련받고 민족주의 보호를 위해 타잉을 사용했다.

미얀마가 군주제이던 시절 타잉은 왕가에서 전해진 18가지 기술로 구성되었고 왕의 병사들은 반도와 반쉐이를 할 줄 알아야 했다. 고대부터 타잉은 남녀 모두에 의해 수련되었다. 타잉은 식민지 시대에는 금지되었지만 타잉 사범에 의해 보호되고 전승되었다. 독립 후 타잉과 레웨는 미얀마의 문화로 살아남았다.

최근 타잉 사범과 강사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입을 얻지 못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보호와 타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돈이 아닌 전승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미얀마 타잉은 역사적 기록과 문서와 함께 선조로부터 전승되었으며, 현대의 타잉 사범들은 이 살아 있는 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타잉을 보호하고 전승하다

미얀마 타잉의 관습과 전통은 타잉 사범들에 의해 무형유산으로 보호되고 있다. 고대에는 타잉이 전통적 호국 수단으로써 밀착 훈련을 통해 스승에서 제자로 전달되었다. 오늘날 타잉은 보건체육부의 후원하에 스포츠의 한 형태로 수련된다. 그러나 타잉 사범들은 여전히 개인 수업이나 조직된 협회를 통해 전통적인 형태로 지식을 전승한다. 현대 전통무예 교육의 모범 사례는 다문화 프로그램과 청소년 교육을 통한 것이다. 타잉 강사는 표준화된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무예를 가르치고 청소년 활동에 타잉 훈련을 포함시킨다.

미얀마 타잉연맹은 전통 타잉을 보호하기 위해 1966년에 설립되었다.



신세대 타잉 수련생들 ©사이 룡

연맹의 목표는 살아 있는 전통 유산인 미얀마 타잉의 방법, 기술, 특성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다. 연맹은 자신과 국가의 보호를 위한 훈련을 젊은 세대에 제공하고 모든 개인의 자신감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얀마 타잉연맹은 미얀마 경찰, 군대,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훈련에 참여한다. 또한, 국가와 지역 수준의 보건체육부 체계 내에서 타잉 대회를 조직한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미얀마 타잉연맹의 정책은 ‘미얀마의 모든 사람은 미얀마 타잉을 알아야 한다’(MTF, n.d.)이다.

전국적으로 미얀마 타잉 대회가 개최되기는 하지만 아직 동남아시아 경기대회 Southeast Asian Games에 타잉이 스포츠로 도입된 적은 없다. 미얀마 타잉 선수는 동남아시아 대회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펜싱실랑과 보비남 무예 시연 부문에서만 경기할 수 있다. 따라서 타잉 선수는 해당 무예를 추가로 훈련해야만 한다. 미얀마 타잉연맹은 동남아시아 대회 경험을 통해 미얀마 타잉 선수들이 동남아시아의 다른 무예를 경험



어린 세대와 함께하는 타잉 훈련 ©사이 룡

하고 해당 지역의 다른 무예 단체와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또한, 미얀마 타잉 종목을 동남아시아 대회에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타잉이 아직 동남아시아 대회에는 도입되지 않았지만 국제 레쥬 토너먼트는 이미 개최되었다.

타잉 반도는 개별적으로 미국반도협회 <https://americanbandoassociation.com/>(미얀마의 타잉 그랜드마스터 마웅기 박사에게 의해 결성)와 국제타잉반도

협회(2009년 설립)를 통해 국제사회에 전파되었다. 해당 단체는 각각 미국과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얀마 타잉은 호국의 수단으로 미얀마에서 역사적으로 수련되어 온 무형유산의 한 예이다. 타잉 무예는 역사적 사건, 관습 및 전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발전해왔다. 타잉 공동체는 다양한 보호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유산을 계속해서 전승하고 있다. 오늘날 반도 격투는 자기방어의 목적으로만 수련되지 않고 격투스포츠 및 문화 표현으로 변형되었다. 미얀마 전통문화 외에도 타잉은 철학, 윤리, 건강 과학, 군사법, 미학 같은 여러 문화적 아이디어와 개념을 지속적으로 흡수했다. 이러한 살아있는 유산의 지속을 위해 다양한 타잉협회와 사범들은 타잉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만들어 젊은 세대에 전승해야 한다.

- Aung Thein, U. (1975). *Bamar Thaing Techniques*. Yangon: Kantawkalay Press.
[အောင်သိန်းဦး၊ ဆရာကြီးကြိုယ်တွဲငွေဗမာသိုင်းပညာများ၊ ၁၉၇၅၊ ကန်တင်ကလေး ပုံနှိပ်တိုက်၊ ရန်ကုန်]
- Aung Thein, Than Lhan (1981). *Kambawza Palace Kbu Kbar Chant Thaing Baungbayan Let Thaing*. Yangon: Sar Lut Ngan Press, Yaykyaw. [အောင်သိန်း၊ သန်လျင်၊ သိုင်းပခြင်းပန်၊ ကမ္ဘာဗေဒနူးခါချန် သိုင်းပခြင်းပန်လက်သိုင်း၊ ၁၉၈၁၊ စာလုပ်ငန်းပုံနှိပ်တိုက်၊ ရန်ကုန်]
- Ba Mya Thein, U. (1992). “Notes on the history of Myanmar Thaing,” Myanmar Thaing Federation. [ဘမမြိန်းဦး၊ ဥသျှောင်ဆရာကြီး ပညာစဉ်ဦးဆောင်အဖွဲ့၊ မြန်မာသိုင်းအဖွဲ့ချုပ်၊ မြန်မာသိုင်းသမိုင်း]
- Chit Than, U. (n.d.). “Secret Bando and Banshay.” Yangon: Thaing Bando and Banshay transmitting department. [ချစ်သန်းဦး၊ လျှို့ဝှက်သေဗန်တိုဗန်ရှည်၊ သိုင်းဗန်တိုဗန်ရှည်ပန်ဟူးရေးဌာန၊ ရန်ကုန်]
- Min Yekha (1985). *Myanmar Dbar*. Yangon: Sarpay Baitman Press.
[မင်းယကုခ၊ မြန်မာစား၊ ၁၉၈၅၊ စာပေဗိမာန်ပုံနှိပ်တိုက်၊ ရန်ကုန်]
- Myanmar Encyclopedia, vol. 5 (1964). “Naban playing,” pp. 415–417. Yangon: Sarpay Baitman Press.
[မြန်မာ့စွယ်စုံကျမ်း၊ အတွဲ (၅)၊ ၁၉၆၄၊ နန်းကစားခြင်း၊ စာပေဗိမာန်ပုံနှိပ်တိုက်၊ ရန်ကုန်]
- Myanmar Encyclopedia, vol. 8 (1964). “Bando, Banshay playing,” pp. 185–188. Yangon: Sarpay Baitman Press.
[မြန်မာ့စွယ်စုံကျမ်း၊ အတွဲ (၈)၊ ၁၉၆၄၊ ဗန်တိုဗန်ရှည်ကစားခြင်း၊ စာပေဗိမာန်ပုံနှိပ်တိုက်၊ ရန်ကုန်]
- Myanmar Encyclopedia, vol. 12 (1972). “Myanmar Lethwei,” pp. 175–179. Yangon: Sarpay Baitman Press.
[မြန်မာ့စွယ်စုံကျမ်း၊ အတွဲ (၁၂)၊ ၁၉၇၂၊ မြန်မာလက်ဝှေ့၊ စာပေဗိမာန်ပုံနှိပ်တိုက်၊ ရန်ကုန်]
- Myanmar Encyclopedia, vol. 13 (1973), “Thaing,” pp. 253–255. Yangon: Sarpay Baitman Press. [မြန်မာ့စွယ်စုံကျမ်း၊ အတွဲ (၁၃)၊ ၁၉၇၃၊ သိုင်း၊ စာပေဗိမာန်ပုံနှိပ်တိုက်၊ ရန်ကုန်]
- “Myanmar Lethwei vs. Muay Thai: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log] *Myanmar Traditional Boxing—Lethwei Videos*, April 4. Available at <http://lethwei.blogspot.com/2018/04/myanmar-lethwei-vs-muay-thai.html> (accessed April 19, 2020).
- Myanmar Thaing Federation (MTF) (n.d.). “Myanmar self-defense techniques.”
[မြန်မာနိုင်ငံသိုင်း အဖွဲ့ချုပ်၊ မြန်မာ့ကိုယ်ခံပညာနိသျှည်းများ]
- Myanmar Thaing Federation (MTF) (2005). “Thaing Constitution and Rules and

- Regulations for Thaing Associations.” [မန်ဗာနိုင်ငံသိုင်းအဖွဲ့ချုပ်၊ ဖွဲ့စည်းပုံစည်းမျဉ်းများနှင့်သိုင်းအဖွဲ့များဆိုင်ရာ စည်းမျဉ်းစည်းကမ်းများ၊ ၂၀၀၅၊ ရန်ကုန်]
- Myanmar Thaing Marital Arts Notes (2018). မန်ဗာသိုင်းမှတ်စုများ (“What is Thaing?”). [Online] Facebook, February 14. Available at www.facebook.com/myanmarthaingnotes/photos/a.1227050400758455/1227050347425127/?type=3&__tn__=R (accessed May 21, 2020).
- Mya Win, U. (1980). *Myanmar Traditional Lethwei*. Yangon: Thadin Jarnal Publishing. [မင်းမြတ်စိုးရာလက်ဝှေ့၊ ၁၉၈၀၊ သတင်းဂျာနယ် ပုံနှိပ်တိုက်၊ ရန်ကုန်]
- Olavarria, P. (2014). “Bando: the styles of Burmese martial arts.” [Blog] *Fightland*, December 2. Available at <http://fightland.vice.com/blog/the-styles-of-burmese-martial-arts> (accessed April 6, 2020).
- ONE Championship (2017). “6 fascinating facts every martial arts fan needs to know about Myanmar Lethwei.” [Online] June 14. Available at www.onefc.com/features/6-fascinating-facts-every-martial-arts-fan-needs-to-know-about-myanmar-lethwei/ (accessed July 2, 2020).
- Pyi Thein, U. (n.d.). “Two swords martial arts.” Yangon: Thaing Bando and Banshay Transmitting Department. [ပုဂံသိမ်းဦး၊ ဓါးနှစ်လက်သိုင်း]
- Roebuck, M. and Manandhar, A. (2016). “It’s a Myanmar thaing.” [Online] *Myanmar Times*, March 17. Available at www.mmtimes.com/sports/martial-arts/19513-it-s-a-myanmar-thaing.html (accessed July 1, 2020).
- Thar, H. (2019). “‘Playing for beauty and playing to fight’: Myanmar’s martial arts.” [Online] *Frontier*, October 12. Available at www.frontiermyanmar.net/en/playing-for-beauty-and-playing-to-fight-myanmars-martial-arts/ (accessed April 6, 2020).
- Wikipedia (2020). “Bando.” [Online] Last updated April 25. Available at <https://en.wikipedia.org/wiki/Bando> (accessed May 20, 2020).
- Wikipedia (2020). “Banshay.” [Online] Last updated February 12. Available at <https://en.wikipedia.org/wiki/Banshay> (accessed May 20, 2020).

인터뷰

Mr. Sai Kyaw Htay, Thaing Master, Maw Razar Pin Ma Training Class, AyeTharYar, Southern Shan State.

Mr. Myo Min Thant, Thaing Instructor.

Mr. Ba Mya Thein, Grand Master, Doe Nyi Naung Pin Ma Thaing Training Class, Myanmar Thaing Federation, Mandalay.

Mr. Khant Si Thu, Assistant Instructor, Myanmar Thaing subcommittee, Taunggyi, Southern Shan State.

Ms. Khin Myat Thu, Assistant Instructor, Myanmar Thaing subcommittee, Taunggyi, Southern Shan State.

Mr. Shwe Win, Master, Kam Baw Za Moe Kyo Pin Ma Thaing Training Class, Myanmar Thaing subcommittee, Taunggyi, Southern Shan State.

Mr. Khin Zaw, Assistant Master, Moe Kyo Pin Ma Thaing Training Class, Taunggyi, Southern Shan State.

13

닐라이칼라키 실람밤

무니스와란 크리슈나 쿠마르 Munieswaran Krishna Kumar

닐라이칼라키 실람밤 수석사범, 닐라이칼라키 실람밤협회 간사

스포츠 실람밤과 전통 무예 실람밤

실람밤 Silambam은 주로 봉을 사용하는 무예로 남인도 타밀나두에서 유래하여 고대 인도, 중세 인도를 거쳐 영국 식민지 시대와 근대 인도 시기를 거치온 많은 인도 전통 예술 중 하나이다. 실람밤은 스리랑카,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에서도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실람밤은 고대 타밀 문화권에서 탄생한 무예로 스승에서 제자로 전승되는 과정과 훈련 방식에 타밀족의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다.

고대 실람밤에 내재된 무형의 지식과 유산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승되며 수천 년 동안 존속했지만, 현재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현대 실람밤 수련자들이 실람밤 본연의 가치를 외면한 채 타 무예의 원리와 띠 등급제 등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고 경쟁도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 원리가 적용된 무예는 스포츠 실람밤으로 분류된다. 다수의 실람밤 단체가 새롭게 문을 열었고, 전통 실람밤을 지도하던 사범조차 제자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였다. 한편 경기 주최자들은 어린 수련생들에게 스포츠 실람밤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승자에게 후한 보상을 해준다. 스포츠 실람밤 지도자들이 경기에 대비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에 집중하면서 전통 실람밤 무예 본래의 독창적인 격투 기술과 문화유산적 가치는 보존하지 못했다. 스포츠 실람밤의 위상은 높아지고 널리 알려진 반면, 원조 실람밤 지도자와 수련자는 이 특별한 고대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난항을 겪었다. 또 다른 문제는 급격한 세계화 시대에 실람밤

지식을 다음 세대로 전승할 적합한 제자를 찾는 일이었다.

인도에서 연행되던 고대 원조 실람밤에는 일곱 계파가 있다. 카루나다감 Karunadagam, 파나이예리말란 Panaiyerimallan, 칼라팻투 Kallapatthu, 풀리갈 아디 Pooligal Adi, 쿠라반지 Kuravanji, 툴루쿠 Thulukku, 닐라이칼라키 Nillaikalakki이다. 일부 계파의 무예, 기술과 문화는 소수민족 공동체에 서 지금도 연행되고 있지만, 나머지 계파는 타밀나두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다른 국가에서 명맥을 이어 가고 있다. 이처럼 고대 실람밤의 존립은 위협을 받고 있다. 실람밤 무형유산을 양성하지 않으면 고대 전통적 관습이 완전히 사라지는 커다란 위기에 놓인 것이다.

고대 실람밤 7대 계파 중 하나인 닐라이칼라키는 인도를 떠나 다른 국가에서 생존하여 잘 보존되고 있으며, 고대 실람밤의 진정한 모습을 아직도 잘 유지하고 있다. 닐라이칼라키 실람밤은 봉을 휘두르는 방법, 발놀림, 살아 있는 동물의 움직임과 다양한 고난도 공격 전술에 집중한다. 수천 년 전 인도의 쿠린지 산악지대에서 유래한 이 무예는 인도에서는 사라졌지만, 1936년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닐라이칼라키 14대 후계자가 타밀나두 마두라이에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주하면서 조지타운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닐라이칼라키 실람밤

닐라이칼라키는 봉을 사용하는 고대 무예다. 나리쿠라바르 Narikuravar라는 남인도 쿠린지 산악지대 원주민의 수련법으로 도제식으로 운영된다. 원주민들은 구릉지에서 찾은 대나무로 무기를 제작해서 야생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종교 축제 때 실력을 자랑했다. 나리쿠라바르족은 무형유산적 성격이 있는 카루나다감, 파나이예리말란, 칼라팻투, 풀리갈 아디, 쿠라반지, 툴루쿠 등 다른 고대 실람밤 기술의 특징을 차용해서



닐라이칼라키 연행에 앞서 톨라세다스 사범이 대지에 갖추는 예법인 부미 바나캄을 올리고 아무탄 사범과 수쿠마란 사범은 뒤에 서 있다. ©닐라이칼라키

닐라이칼라키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명상을 위해 쿠린지 산악지대를 오르던 타밀족 학자와 요가 수행자들은 고도로 숙련된 닐라이칼라키 봉술에 매료되었다. 나리쿠라바르족은 이 학자들에게 주요 기술을 지도했는데, 이는 곧 학자들의 수련 내용에 포함되었다. 요가 수행자와 약초 치료사도 수련에 참여하면서 닐라이칼라키 훈련과 수업이 타밀족 지도자 감독하에 아슈람의 공동체 안에서 열리게 되었다.

닐라이칼라키 교파의 교육과정은 매우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쉬지 않고 7년 이상을 수련해야 마칠 수 있다. 다른 고대 실람밤 교파와 달리 닐라이칼라키는 적을 공격하는 주요 기술로 다리 훈련과 동작 기술을 중요시한다. 닐라이칼라키의 다리 기술은 대련에서 상대방을 교란하여 속일 수 있다. 닐라이는 ‘자세’를, 칼라키는 ‘방해’나 ‘교란’을 뜻하므로 ‘닐라이칼라키’는 상대방 자세를 방해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닐라이칼라키는 획기적인 봉술과 다리 기술을 사용해서 적이나 무리를 상대로

승리하는 전술이다.

닐라이칼라키 계보

닐라이칼라키 14대 후계자 마리아파키암

1906년 타밀나두 파라마쿠디에서 태어난 대사범 마리아파키암은 다섯 살 때 실람밤을 시작했다. 그의 첫 실람밤 스승 비라파티란 파다야치는 카루나다감 실람밤 기술을 지도했다.

1928년 마리아파키암은 닐라이칼라키 13대 후계자인 요가 지도자 크룬지 나두 산야시와 조우했다. 실람밤 무예의 다양한 지식과 기술에 정통했던 젊은 마리아파키암은 크룬지와 언쟁을 벌였고 실람밤 대련을 하자며 크룬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마리아파키암은 처음에 상대가 나이가 많아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했지만 심한 부상을 입고 패배했다. 상대는 연로했지만 그의 민첩함과 빠른 발놀림을 당해낼 수 없었다. 마리아파키암이 크룬지의 실람밤 기술을 평생 처음 본다고 털어놓자 크룬지는 이 무예가 닐라이칼라키라고 말했다.

그 뒤 1928년부터 1931년까지 3년 동안 마리아파키암은 연로한 크룬지로부터 닐라이칼라키 수트람(비법) 기술을 배워 습득한다. 크룬지는 닐라이칼라키의 기술·문화적 지식 일체를 전수했고, 마리아파키암 대사범은 닐라이칼라키 14대 후계자로 결정되었다. 마리아파키암 대사범은 자격을 갖춘 제자들에게 닐라이칼라키 지식을 계속 전수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닐라이칼라키 15대 후계자 아산 안바난탄

1936년 영국 식민지 시대 때 마리아파키암 대사범은 인도에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노동자로 건너왔다. 1962년 아산 안바난탄은 마리아파키암

대사범의 문하생으로 합류했고 닐라이칼라키 15대 후계자로 결정됐다. 1986년 8월 12일 마리아파키암 대사범이 사망하자 안바난탄이 말레이시아에서 최고 실람밤 권위자로 올라섰다. 안바난탄은 닐라이칼라키 계보 유지에 중대한 역할을 했고, 말레이시아에서 실람밤 전통과 고대 유산을 지도하는 몇 안 되는 생존 장인 중 한 명이다.

안바난탄 대사범은 ‘닐라이칼라키 실람밤협회’를 설립했고 회장으로 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75년 2월 25일 말레이시아 기관에 등록된 ‘닐라이칼라키 실람밤협회’는 말레이시아에서 최초 등록된 실람밤 관련 협회였고, 이제는 닐라이칼라키 무예를 보존하고 고대 실람밤 훈련 체계를 증진하는 세계적 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안바난탄 대사범과 제자들은 ‘닐라이칼라키 실람밤협회’를 통해 고대 닐라이칼라키 무형유산을 보존, 보호한다. 구두 기록, 출판, 닐라이칼라키 의례 기록뿐 아니라,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무예 학교를 열어 유망한 미래 세대에게 닐라이칼라키 지식을 전수한다.



1983년 페낭 조지타운에서 열린 기도에 참석한 안바난탄 대사범과 마리아파키암 대사범 ©닐라이칼라키

닐라이칼라키 무형유산

타밀 전통 관습의 지식과 가치는 여러 문화 의례에서 사라졌지만, 닐라이칼라키 실람밤 무예에는 그 모습이 남아 있다. 닐라이칼라키 실람밤 무형유산은 현존하는 고대 실람밤의 투영물인 셈이다. ‘닐라이칼라키 실람밤협회’는 훈련 교육과정, 시합, 의례 등 세 가지 주요 유산을 보존하고 있다.



‘2019 지속 가능한 도시의 문화유산과 창의성(Intangible Heritage and Creativity for Sustainable Citie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의 현지 조력자 30인에 선정된 닐라이칼라키 장인 무니스와란에게 페낭주 관광예술문화유산위원회 집행위원장 YB 여순힌이 상패를 수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수잔 오게(스튜디오밀루 싱가포르 유산 프로젝트), 모에 치바(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 문화국), 샤르밀라(‘닐라이칼라키 실람밥협회’), 앙밍치(조지타운세계유산협회) ©닐라이칼라키

닐라이칼라키 실람밤의 문화유산 가치 보존을 위해 ‘닐라이칼라키 실람밥협회’는 조지타운세계유산협회 GTWHI, <http://gtwhi.com.my> 같은 정부 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 협업은 이해당사자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 2019년 ‘닐라이칼라키 실람밥협회’는 타 공동체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지타운에서 ‘공동체 기반 무형유산 목록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조지타운세계유산협회와 유네스코도 함께 참여했다(Ang & Ng, 2019).

닐라이칼라키 훈련 교육과정

고대 닐라이칼라키 교육과정은 열 가지 세부 단계로 이루어지며, 마치는 데 꼬박 7년이 걸린다. 훈련 과정은 봉술로 시작하여, 다양한 동물 공격

전술 등 고급 단계로 종료된다. 닐라이칼라키 장인이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수련하는 10단계 훈련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오타이 빗치 Otthai Vitchi

오타이 빗치는 닐라이칼라키 교육과정의 첫 단계로 붕을 돌리는 기본 기술을 배운다. 이 교육의 목적은 근육과 신경의 이완 및 강화이다. 오타이 빗치는 킬 Kil 오타이 빗치와 멜 Mhel 오타이 빗치로 구성되며, 그 아래 각각 6개의 세부 훈련이 있다.

이렛타이 빗치 Yiretthai Vitchi

두 번째 단계는 몸을 전후로 돌리며 양 측면에서 붕을 돌리는 기술로, 양팔을 사용하는 회전 동작도 사용한다. 이 수업은 수련생의 조정 능력을 기르면서 동시에 호흡 조절 능력도 발달시킨다. 이 훈련으로 붕술뿐 아니라 신체의 균형 감각도 키운다. 수련생이 고급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특별 훈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96 실랏구 바루사이 Silatgu Varusai

실랏구 바루사이는 수련생이 96개 각도로 붕을 돌리기 위한 올바른 호흡법을 배우는 힘든 훈련이다. 이 붕술에서는 다양한 회전 패턴이 사용되어 마치는 데 약 90분이 소요된다. 이 붕술에는 오타이 빗치와 이렛타이 빗치에서 습득한 방법 전체가 포함되며, 2년간 지속적인 훈련을 거쳐 습득할 수 있다.

산다이 마루탐 Sandai Marutham

산다이 마루탐은 4, 8, 16, 32, 64, 96세트의 공격 옵션에 기초하여 다양한 패턴의 타격 동작을 사용한다. 앞서 실랏구 바루사이에서 배운 붕술을 타격 동작에 적용하는 것으로 특히 집단 공격을 위해 고안했다.

오투칼 무라이 Othukkal Murai

수련생이 봉 돌리기 패턴과 공격 방법을 접한 후에는, 봉 돌리는 동작에서 공격을 피하는 방어술이 소개된다. 다른 실람밤 무예에서는 정적인 봉 방어술을 사용하는 데 비해 닐라이칼라키는 봉을 끊임없이 돌리고 회전하며 자기 보호를 보호하면서 적을 타격했다.

36 피루부 아디 캄부갈 Piruvu Adi Kambugal

다음 단계인 피루부 아디 캄부갈에서는 타격 동작 36세트를 배운다. 각 세트는 공격 동작 12개로 이루어지며, 특수한 연속 발동작과 함께 움직인다. 20세트가 ‘톨루쿠’, 10세트가 ‘칸탄’, 6세트가 ‘나리쿠루’ 방식이다.

쿠리바이투 아디페투 Kurivaithu Adipethu

닐라이칼라키 교육과정의 일곱 번째 단계는 적의 주요 부위를 타격하는 훈련으로 쿠리바이투 아디페투(목표 타격)라 한다. 무책임한 개인이 이 기술을 오용하면 타인이 위협할 수 있어 오직 경험이 많은 수련생 중 선발된 장인만이 이 단계에 도달하여 훈련한다.

칸탄 Kanthan

다음 단계는 무루가 Muruga 신의 이름을 딴 칸탄이다. 적을 앞서기 위해 봉과 발을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전략적인 고난도 기술과 이를 능숙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나리쿠루 Narikuru

‘벨 캄부 Vel Kambu’ 기술로 알려진 나리쿠루는 봉 끝에 창을 고정해 수련한다. 이 단계에서는 살아 있는 동물의 움직임과 다양한 고난도 공격 기술을 배운다. 이 동작들은 닐라이칼라키 무예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다. 그중에서도 여우 동작이 독특한데, 수년간의 훈련

없이 성공하기 어려운 동작이다.

웃체카타 닐라이 Ucheekattha Nilai

아홉 번째 단계를 정복한 수련생은 마지막 열 번째 단계인 웃체카타 닐라이를 준비한다. 이제 수련생은 대사범 앞에서 지금까지 배운 모든 기술에 대한 시험을 치른다. 이 최종 단계는 매우 격렬하게 진행된다. 사제 간 시험에 모든 요령, 인내, 지혜를 쏟아부어 이 피 말리는 도전에서 성공해야 한다.

닐라이칼라키 경기

실랏구 바루사이 Silatgu Varusai

개인전인 실랏구 바루사이에서는 앞서 말한 96개 각도로 대나무 봉을 쉴 새 없이 양손으로 돌리는 기술을 사용한다. 다리 자세에 맞춰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민첩하고 올동감 있게 봉을 돌리는 기술이 중요하다. 수련생은 호흡을 조절하며 봉을 돌리는 기술로 본인의 신체적 역량을 보여준다.

산다이 마루탐 Sandai Marutham

산다이 마루탐 경기는 대나무 봉을 무기로 사용하며 공격, 피하기, 막기 등 일련의 동작을 상세한 패턴으로 구성한 개인전이다. 산다이 마루탐은 다양한 집단 공격 시나리오를 예상하여 동작과 자세의 변환과 흐름을 보여준다. 산다이 마루탐은 흔히 가상의 적을 설정한 집단 싸움에서 봉의 연속 동작으로 묘사된다. 봉의 연속 동작은 칸탄과 나리쿠루 기술 등 다양한 발동작과 고난도 기술로 한층 더 강화된다.

토두 무라이 Thodu Murai

토두 무라이는 두 명이 참여하는 격투 시합으로, 득점을 위해 반드시 상대방 신체의 지정된 목표 부위를 터치해야 하고 그 외의 부위를 건드리면 반칙이다. 선수들은 울동감이 느껴지는 다양한 동물적인 발동작과 함께 화려한 봉술로 시작하고 점수를 얻는다. 경기 참가자는 다양한 닐라이칼라키 봉술과 발동작을 선보이며 적의 공격을 피하고, 적합한 공격 전술을 적용해서 상대방을 타격해야 한다.

코르바이 Korvai

코르바이는 스스로 기량을 발휘하는 자유형 대련으로 두 명이 참가한다. 선수로 선발된 수련자들은 실랏구 바루사이, 산다이 마루탐과 토두 무라이 경기에 참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자유형 경기라서 수련자가 상대방 선수에 맞설 능력이 부족하다면 격투는 실제로 치명적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경기의 각 라운드는 매일 약 2시간 동안 지속된다.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 한 달 이상 시합이 지속되며, 확실한 승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두 참가자 모두를 승자로 간주한다. 승자는 실람바디란, 실람바 차트리안, 마라바르 쿨람 등으로 불리며, 왕실위원회에서 이들을 왕실 수비대로 선발한다.

닐라이칼라키 의례 유산

닐라이칼라키의 의례와 고대 훈련 교육과정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다. 다수의 실람밤 교파가 스포츠 실람밤으로 전향하면서 의례 문화가 사라진 교파가 많지만, 닐라이칼라키의 의례 문화는 잘 보존되었다. 수천 년 동안 닐라이칼라키 수호자들이 연행을 통해 지켜온 의례 문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닐라이칼라키 쿠담 아랑게트람 Nillaikalakki Koodam Aranggetram

쿠담 아랑게트람은 정식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새롭게 문을 연 실람밤 훈련센터를 정화하는 의식이다. 이 의례는 정령 등 보이지 않는 기운에게 장소를 사용하는 허락을 구하는 방법의 하나다. 특정 장소를 정화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적 활동을 방해하는 불길한 기운을 불러일으킨다는 나쁜 정령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닐라이칼라키 실람밤은 대지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무예이기에 정화 의례는 자연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중요한 의식이다. 훈련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대지로부터 허락을 구하는 행위는 자연을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 특히 땅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 또한 정화 의례는 그 장소에서 보이지 않거나 불길한 요소로부터 허락을 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닐라이칼라키 쿠담 아랑게트람 의례를 집도하는 안바 장인
©닐라이칼라키

닐라이칼라키 수련생 입회식

닐라이칼라키 연행자로 입문하려는 수련생을 위해 시행하는 의례이다. 초창기부터 닐라이칼라키 후예들이 따르는 기본 전통 중 하나다. 이 의례에서는 수련생이 7년 동안 닐라이칼라키 실람밤 훈련을 완수하겠다는 서약문을 안치한다. 이는 또한 스승이 제공하거나 언급하는 모든 사항에 따르겠다는 맹세를 의미한다.

훈련 예법

닐라이칼라키에서는 무달 닐라이(기초), 이다이 닐라이(중급), 카다이 닐라이(고급) 등 세 가지 단계에 따라 예법이 다르다. 예禮는 자연과 대사범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다.

닐라이칼라키는 대지와 연장자, 특히 대사범을 향한 존경을 가르치는 무예이다. 기초 훈련 동안 수련생은 대지에 올리는 간단한 예법을 배우고, 중급에서는 자연 요소의 조화를 상징하는 4대 고대 원소 지수화 풍地水火風에 대한 예법을 배운다.

닐라이칼라키 아랑게트람 Nillaikalakki Aranggetram

이 의례에서 수련생은 대사범에게 배운 모든 기술을 시연한다. 수련생은 대사범과 수석사범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수업에서 배우지 않은 기술도 시도한다.

훈련 과정을 완수한 수련생은 닐라이칼라키 무예의 수호자를 상징하는 적색과 황색 띠를 받는다. 또한 이 의례는 수련생에게 닐라이칼라키의 영적 탐험을 요청하거나 환기시킨다. 닐라이칼라키 훈련 과정의 10가지 요소가 기술적 영역이므로 아랑게트람 의례는 기술적 탐험의 종료 및 영적 탐험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의례는 정말 중요하다. 아랑게트람으로 수련이 멈추지 않으며, 수련생이 닐라이칼라키를 통한 자각적인 영적 탐험으로 더욱 심화한 경지로 이르고자 하면 배움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과거, 현재와 미래를 잇다

기술과 세계화로 대변되는 현대 세계에서 닐라이칼라키의 생존과 보존을 위한 고군분투에는 문화유산과 가치의 영원한 고사를 막기 위해 온갖



페낭 조지타운에서 열린 무예 공연 후 사진 촬영을 하는 닐라이칼라키 수련생들 ©닐라이칼라키

노력을 쏟아붓고 있는 수많은 전통 예술의 모습이 담겨 있다. 1936년 닐라이칼라키가 페낭 조지타운에 들어온 후 생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인 안바와 그의 제자들처럼 헌신적인 수련생들이 닐라이칼라키 무예 보호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고, 지역 공동체 지도자와 조지타운세 계유산협회 같은 주정부 기관에서 아낌없이 지원했기 때문이다.

주정부나 중앙정부의 기관과 부처에서 스포츠 무예와 순수 전통무예를 구분하고 차별화하여 그에 합당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 활동과 경기가 경제와 국가 인지도에 중요한 것처럼 문화유산에 기초한 전통무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공동체와 국가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형유산의 중요성은 한 세대에서 다음으로 전승되는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무형유산 보호는 경제적 측면에서 소중한 수입원이다.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공연예술, 수공예, 의례, 요리를 직접 경험하려는 여행자가 많으므로 전 세계의 풍부한 전통문화를 경험하는 기회는 중요한 여행 동기가 된다(Tudorache, 2016). 페낭의 전통무예이자 문화가 된 닐라이칼라키는 페낭주의 유산에서 성장하고 확장하여, 이제 전 세계 무예인이 수련하는 무예가 되었다.

요약하면, 닐라이칼라키 실람밤 무형유산은 닐라이칼라키 무예를 수련하는 공동체에서 과거,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스승과 사제 간의 전승과 지식 전수는 무형유산 보존의 핵심이며, 따라서 미래 공동체를 위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전승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 Anbananthan, R. and Wilkey, D. (2008). *Silambam: The Martial Art of Dravidian India: Book One*. Phoenix: Classical Dimension Press.
- Ang, M. C. and Ng, X. Y. (eds) (2019). *Community-Bas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ventorying in George Town (Malaysia): Project Report and Featured Inventory Entries*. Penang: George Town World Heritage Incorporated (GTWHI).
- Nillaikalakki Silambam (n.d.). [Online] Available at <https://silambam.co/index.html> (accessed May 8, 2020).
- Tudorache, P. (2016). "The importance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economy."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39, 731–736. [https://doi.org/10.1016/S2212-5671\(16\)30271-4](https://doi.org/10.1016/S2212-5671(16)30271-4).
- UNESCO (2019). "George Town's urban communities inventorying their living heritage with the support of UNESCO." [Online] Available at <https://ich.unesco.org/en/news/george-towns-urban-communities-inventorying-their-living-heritage-with-the-support-of-unesco-13223> (accessed May 23, 2020).

14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

즈비그니에프 사비츠키 Zbigniew Sawicki 박사

폴란드 무예협회연합 시그눔 폴로니츨

사브르 펜싱은 폴란드 전통무예인가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 Old Polish sabre fencing은 넓은 범주의 폴란드 무예에 속하는데, 이 범주에는 사브르 펜싱 외에 군마 위에서 긴 창이나 곡괭이, 큰 낫, 폴란드식 창을 들고 싸우는 것도 포함된다. 폴란드 고유의 사브르 펜싱 스타일이 존재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후사르 사브르 hussar sabre라고 불리는 독창적인 사브르 형태를 개발했다는 것(Kwaśniewicz, 1988)과 펠커티 palcaty(짧은 막대)를 사용하는 올드 폴란드 펜싱이 존재(Kwaśniewicz, 2017)했다는 사실이다. 펠커티는 ‘크로스 아트 cross art’로 알려진 무기와 함께 귀족과 궁정의 펜싱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Jeziński, 1791), 짧은 막대의 경우 ‘막대(펠커티) 치기’라고도 불렸다(Kitowicz, 1985). 그 기원은 16세기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전통은 1939년까지 이어졌다. 1986년, 시그눔 폴로니쿰 Signum Polonicum이라는 이름으로 폴란드 전통무예로 부활하여 폴란드 국가 유산이 되었다.

폴란드 사브르 펜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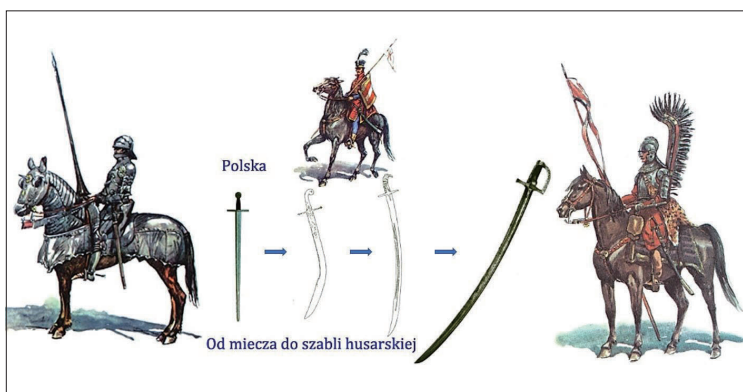
폴란드군은 폴란드가 하나의 국가로 자리 잡기 시작할 때부터 독자적인 특색을 드러냈는데, 야기엘로니안대학교의 에우제니우스 피아세츠키 Eugeniusz Piasecki 교수(1925)가 이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고 문명국가로 들어서면서 폴란드도 서구식 국가로

자리 잡고 많은 부분에서 기사도의 관습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서구 전역에 퍼진 프랑스식 기사도 의식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부분적으로 고유의 전통을 유지했다.”

피아세츠키뿐만 아니라 다른 폴란드 역사학자들도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이 생겨난 올드 폴란드 시대 이전에 이미 폴란드 고유의 무예가 존재했다고 지적한다. 스테판 쿠친스키 Stefan Kuczyński 교수(1965)에 따르면 “15세기 말까지 폴란드 전쟁 기술에 대한 글을 쓴 초기 학자들은 토착적 요소를 찾기보다 오히려 서양이나 동양으로부터 받은 영향을 탐구했다. 폴란드 전통무예의 존재는 16세기 초에야 주목받기 시작했다. ... 후대에 비해 출처가 되는 증언의 수는 적지만, 중세 시대에 (외세의 영향을 받아 차용한 것이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폴란드 고유의 무예가 있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올드 폴란드 시대가 도래하고 여러 변화가 생겼을 무렵, 폴란드인들은 이미 이런 무예에서 지식과 경험을 끌어낼 수 있는 ‘고유의 펜싱 스타일과 경험’을 갖고 있었다.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이 만들어진 시기는 16세기 초에서 17세기 말 사이로 추정된다.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이 넓은 개념의 무예에 속하므로 그 형성 시기를 논할 때 다음과 같은 오토 라스코프스키 Otto Laskowski(1935)의 정의를 참조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올드 폴란드 무예라는 용어를 통해 폴란드 군대가 비격식적 방어의 형태로 확고한 발전 기반을 얻으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고 가장 독창적인 특징을 드러낸 시기, 그러니까 16세기 초부터 17세기 말까지의 폴란드 무예라고 해석한다.”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이 생겨난 과정의 핵심 요소는 귀족들이 중세 시대 검 대신 선택한 사브르였다. 귀족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 사이에 기사들이 검을 거부하고 곡면 날의 무기, 즉 사브르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사브르를 사용하는 펜싱의 명분이 확실해졌으며, 결과적으로 이전과 다른 펜싱 스타일이 요구되었다. 서유럽에서는 검의 몰락 이후 레이피어가 선택되었는데 구조적으로



검에서 후사르 사브르로 변화하는 과정(사비츠키, 2010)

검과 비슷해서 레이피어를 사용하는 펜싱 스타일은 검을 사용하는 펜싱의 특징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공통점이 많았다.

게다가 폴란드인들이 말을 타고 싸웠기 때문에 사브르 펜싱은 주로 그런 목적에 부합해야 했다. 하지만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면을 고려하여 땅 위에 서서 대결하는 펜싱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말 위에서 하는 것보다 걸어 다니는 상태에서 기본자세를 배우는 게 더 쉬웠던 것이다. 귀족들은 전투 중에 말을 잃어버리더라도 땅 위에서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싸울 의무는 사회적 지위에서 비롯되었다. 기사도가 바탕이 되는 봉건국가 출신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임무를 맡은 폴란드 귀족들은 끊임없이 전쟁의 기술을 갈고 닦아야 했다. 사브르 펜싱을 포함한 다양한 기사도 훈련이 이런 교육의 일부를 차지했다. 당대의 문호였던 우카시 구르니츠키 Łukasz Górnicki(1639)는 궁정 귀족의 이런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제 나는 그가 군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 뛰어나게 해내야 할 모든 것, 걸어서든 말 위에서든 모든 무기를 잘 다루기 위해 할 줄 알아야 하는 모든

것에 대해 잘 훈련받고 관련된 모든 요령, 특히 궁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무기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했으면 한다. ... 기술과 각종 무기는 그에게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기 종목으로도 적합할 것이다. 지상 시합과馬上 시합이 있고 때로는 주군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펜싱과馬上 경주가 열리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궁정의 신하는 훌륭한 기수로서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말에 대해 잘 알고 말 위에 아름답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말을 리드해야 한다.

구르니츠키는 귀족이 알아야 할 기사도의 한 형태로 펜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다. 이에 더해 그는 폴란드식 훈련 방식이 다른 나라들의 방식보다 훌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인들은 정확한 방식과 시간에 맞춰서 말을 조련하는 데 숙련된 승마인들이며馬上 시합에서는 가장 솜씨가 좋은 선수들로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가馬上 시합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전에 우리 폴란드인이 그들보다 앞서야 한다. 독일인들은 사슬 갑옷을 입고서도 작은 안장 위에서 최고의 솜씨를 보이며 성채 안에서 열리는 시합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 우리 폴란드인은 독일인들에게 패할 수 없다. 그리고 헝가리인들은 방패를 들고 말 위에 앉아 상대를 용감하게 쫓는 것이 특기이다. 우리 폴란드인들도 헝가리인에 맞서서 과감하고 용감하게 싸워야 한다.

사브르 대결에서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안 3세 소비에스키Jan III Sobieski의 신하 프랑수아즈 폴랭 달레락에 의해 확인되었다. “지금 폴란드인들이 가진 유일한 것은 사브르인데 터키식보다 약간 더 길고 무겁지만 훨씬 더 잘 든다. 좋은 쇠를 써서 그런 것일까? 손도 더 잘 베인다. 폴란드인은 철제 헤드를 장착해서 무게에 익숙하다. 그들은 매일 손이 사브르에

익숙해지도록 훈련한다. 또 결투를 잘하기 위해 청년들은 막대기로 자주 연습하는데 끊임없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한다(Sikora, 2012).”

시몬 스타로볼스키 Syzmon Starowolski(1634)에 따르면 이런 식의 훈련은 (폴란드에 없는) 기사 학교나 아카데미가 아닌 집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폴란드 왕은 항상 신의 은총에 의해… 그리고 인자한 우리의 왕께서는 군을 이웃으로부터 빌리지 않고 오히려 폴란드의 군인들을 이웃나라에게 빌려주었다. 왕의 은총으로 군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훈련함으로써 왕은 훈련된 군인을 취하며… 모스크바와 터키를 상대로 그들의 군사력을 여러 번 보여주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폴란드인들은 성곽 안에서 걸어다니며 싸우지 않고 말을 타고 싸웠다. 유명한 격언처럼 “말에 올라 탄 자, 폴란드인들은 태생적으로 성벽이 아닌 들판에서 싸우는 사람들”(Czarnecki, 2016)이며, 이런 유형의 전투에 가장 적합한 무기는 사브르처럼 곡면 날을 가진 검이다. 저명한 폴란드 학자 타데우시 차츠키 Tadeusz Czacki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말을 탄 상태에서는… 사브르 같은 칼이 절삭력은 차치하더라도 일자 사브르나 검보다 공격 범위가 넓어진다.” 스테판 바토리 왕가 트란실바니아 공국의 재상인 코바치오비우스는 1578년에 베기로부터 사브르에 대한 찬사가 담긴 편지를 받는다(Czacki, 1800). 지그문트 글로게르 Zygmunt Gloger도 다음과 같이 사브르의 유용성을 설파한다. “곡면 날의 사브르는 직선 날의 에페나 검보다 절삭력이 더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공격을 쳐내기에도 유리하다”(Gloger, 1978). 폴란드인들은 검이나 무거운 레이피어로 무장한 서양의 기사들, 곡면 날의 사브르로 무장한 동양의 적들을 모두 상대했다. 폴란드의 귀족 기수가 말을 타고 싸울 때 가장 유용한 것은 이 곡면 날의 사브르였다. 반면에 서구에서는 보병의 힘을 키우기 위해 기병을 포기하고, 베기(사브르)보다 찌르기(레이피어)에 더 적합한 직선 날의 무기를 사용했다.

19세기의 저명한 펜싱 강사 카롤 베르놀라크 Karol Bernolak(1898)가 사

브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사브르 없이는 집박을 나서지도 않았다. 사브르가 자신의 기사 작위를 상징한 것이다. 그는 또한 모든 기념일, 결혼식, 장례식, 성명일, 배치 전환일, 왕실 방문, 첫 방문 등에도 사브르와 함께 등장했다. 호스트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요청을 받을 때까지 그는 나서지 않았다. 국가 의상과 사브르는 떼려야 뗄 수 없었다. 둘 중 하나가 없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캐러벨 없는 곳은 이불 속뿐이다”라는 속담이 있었고 가난한 귀족들은 “맨발이라도 밧줄을 잡고 걸어라”는 말을 들었다. “밧줄을 잡고”라는 말은 기사의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했다. 사브르는 가문의 가장 값비싼 유산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아들로부터 손자에게로 대대손손 전해지며 각 귀족의 침대마다 걸려 있었으며 모든 개인적 추억이나 역사적 사건에 연관되었다. 그들은 사브르 위에서 세례를 받고, 성도로서 사브르를 받았으며, 청년기에는 사브르 사용법을 배웠다.

지그문트 글로게르에 따르면, “사브르는 혼전에 사용되는 절삭력이 좋은 무기다. 폴란드인들은 사브르로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사브르는 온 폴란드가 애호하는 무기가 되었으며 폴란드인 기사들은 전투 중에 사브르를 잃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 폴란드인과 사브르의 특별한 관계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사브르는 위엄과 명예의 표시였는데, 폴란드 사브르 칼날에 새겨진 비문 “명분 없이 나를 불러내지 말라, 이유 없이 나를 꺼내 들지 말라”가 그 증거다(Łepkowski, 1857). 사브르는 귀족의 사회적 지위, 세력, 정신적 힘의 상징이었으며, 주인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았고 결코 배신당하지도 않았다. 귀족들은 자신의 신변과 국가의 안보를 사브르에 의지했으며, 17세기 폴란드를 대표하는 국가 공식 모델 ‘후사르 사브르’가 만들어질 정도였다.

후사르 사브르의 발전

폴란드인들은 1576년경부터 1630년까지 일련의 진화를 거쳐 새로운 전투용 사브르 모델을 개발하고 폴란드 내에서 바토루프카Batorówka로 알려진 헝가리의 사브르 형태를 개선했다. 먼저 헝가리-폴란드식 사브르 형태가 만들어졌고, 그런 다음 이 형태를 바탕으로 윗뿔개에 엄지손가락 링을 추가하고 사브르 칼날을 자르고 찌르기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다듬었는데, 그 결과 후사르 사브르 형태가 생겨났다. 브워지미에시 크바시니에비치 Włodzimierz Kwaśniewicz(1988)에 따르면 “1630년경 사브르의 형태에 새로운 진화가 시작된다. 오픈 손잡이가 달린 현재의 동양식 사브르 외에도 손잡이가 점차 변화하여 원통형 손잡이에서 새의 목과 부리를 닮은 독특한 ‘캐리벨 carabel’ 손잡이로 변형된 ‘날이 넓은 후사르 칼’이 있다.”

체스와프 야르누슈키에비치 Czesław Jarnuszkiewicz(1973)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사브르를 채택하게 된 것은 기병대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 후사르 덕분이다. “폴란드 기병이 그토록 빨리 검을 버리고 사브르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였을까? 십중팔구 새로운 기병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는데, 이 새로운 기병은 1506년에 클레츠크 근방에서 타타르족과 전투를 벌였으며 1514년 오르스하에서의 승리에 기여했다. 이들은 ‘라차’라고 불리던 세르비아인 후사르 용병 기병대였다. 이미 1500여 명의 후사르 부대가 일부 사브르로 무장하고 폴란드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후사르가 사브르를 택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 16세기 후반에 사브르가 귀족들의 마음을 얻게 된 것이다. 폴란드인들은 몇 가지 디자인의 사브르를 채택했다. ‘언월도’라고 불리는 터키식 사브르, 카라벨라, 마지막으로 블랙 사브르라고도 불리는 후사르가 있었다. 폴란드



후사르 사브르(치나르스키, 2009)

에서 사용된 사브르 가운데 고유한 구조를 지닌 것은 후사르 사브르다. “후사르 사브르는 절삭력이 가장 뛰어나며 순수 폴란드산 제품이기예 상세히 다를 만하다”(Kwaśniewicz, 1988).

폴란드 전투 사브르는 시그눔 폴로니츨, 즉 폴란드인들이 자신들만의 무기를 갖고 고유의 무예를 만들었다는 상징이 되었다. ‘크로스 아트’로 불리는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 스타일은 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1971년, 유명한 폴란드인 펜싱 선수이자 사브르 세계선수권 우승팀(1962 및 1963년 대회)의 일원이었던 보이치에흐 자브워츠키 Wojciech Zabłocki 교수는 이 분야의 권위자로서 폴란드 후사르 사브르의 전투적 자질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전투적 적합성을 설명했다. 그는 지상 혹은 마상 전투에서 후사르 사브르가 효과적이라는 연구를 증명하는 동시에 폴란드식 형태와 구조의 장점을 강조했다. “날이 넓은 후사르 칼은 특정한 유형의 사브르로 직접적인 반격이나 팔꿈치 혹은 어깨에서 끌어 내리듯 하는 공격, 어깨에서 아치형으로 움직이는 공격에 적합하며 따라서 가장 다재다능한 무기다.”

16세기 말 기독교 기사의 폴란드식 이상을 처음으로 구상했다는 평가를 받는 키예프 주교 유제프 베레슈친스키 Józef Wereszczyński도 전쟁 경험을 전투 지식의 원천으로 여겼다. 1594년, 그는 우크라이나에 기사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무예는 “폴란드 크라쿠프의 조약돌 위에서” 배울 수 없고 “천상의 지붕 아래 야생의 들판에서”만 배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베레슈친스키는 사브르가 젊은 귀족들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즉 적들로부터 자신과 조국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라고 생각했다. 기사학교를 세우면 폴란드의 미래를 이끌어갈 기사들을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폴란드 펜싱 스타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폴란드에서 고유의 전투 사브르 외에도 폴란드식 펜싱 스타일을 만들어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역사에 수많은 증거가 있다. 펜싱 철학에 따르면 상대에게 베기 cut를 시도하는 검객은 반격당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찌르기 thrust를 시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체를 더 감출 수 있다. 즉, 찌르기는 그 자체로 상대의 무기를 쳐내는 방어가 될 수 있지만 베기는 그렇지 않다. 헤트만 얀 타르노프스키 Hetman Jan Tarnowski(1987)는 사브르의 장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권한다. “쓸모없는 란츠크네히트의 캣츠발거보다 충분히 담금질된 칼이 더 좋다.” 스타니스와프 와스키 Stanisław Łaski(1599)도 사브르 사용법에 대해 유사한 ‘설명’을 한다. “상대를 베어 상처를 내고자 하는 사람은 자세를 낮춰야 하나 상대를 찌르려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숨길 수 있으니 전자는 쓸모없는 란츠크네히트의 캣츠발거 대신에 좋은 품질의 무기를 사용하길 권한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다. “나는 칼날이 아니라 칼끝으로 공격하는 것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한 번의 찌르기가 두 번의 베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인, 스페인인, 프랑스인이 이를 이미 알고 있으며 독일은 비록 늦었지만 이제 깨달았고 투르크인도 알고 있다. 그러나 말을 탄 사람의 안장 발아래와 그의 옆구리에는 반드시 사브르가 있다.”

다음은 몇 가지 다른 예이다.

- ① 프란치셰크 살레지 예지에르스키 신부 Father Franciszek Salezy Jezierski(1792): “경쾌한 움직임은 피상적인 징후로 전통 춤사위에 담긴 민족성을 드러내며, 분노의 움직임은 칼의 소유 자체를 드러내는 듯하다. 모스크바인들은 위에서 헝가리인들은 좌측에서 투르크인은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폴란드인들은 사브르로 십자가를 만든다.”
- ② 유제프 웹코프스키 Józef Lękowski(1857): “폴란드식 사브르 사용법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용법과 전혀 다르다. 고유한 특성이 있고 크로스 아트, 레요프스키어 Rejowskie, 레퍼런더리 Referendary 등의 특수 용어를 쓰며, 독일이나 프랑스 펜싱과 규칙이 다르다.”
- ③ 지그문트 글로게르 Zygmunt Gloger(1978): “곡면 날의 사브르가 폴란드에 보급된 후,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브르 기술을 개발했다. 폴란드인들은 곡면 날의 사브르를 다루는 데 비범한 솜씨를 발휘하며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들의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다.”

‘폴란드 제4자세’로 불리는 베기, 베흐르(17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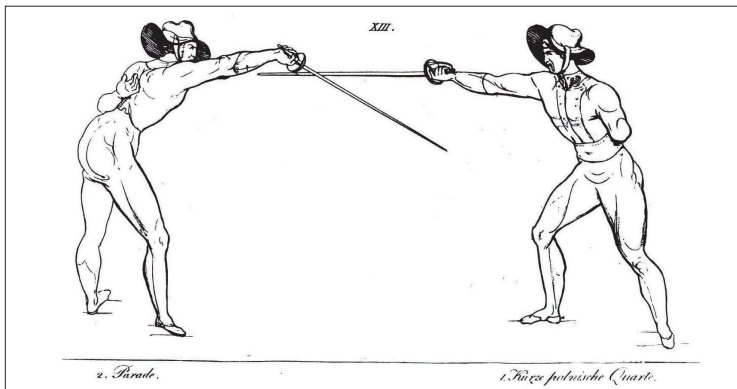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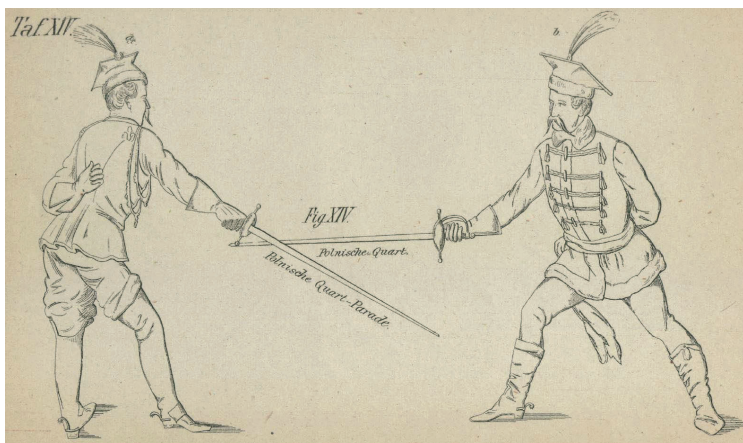
이 펜싱 기술의 흔적은 18세기까지 살아남았으며, 19세기에도 ‘폴란드 제4자세 Polish quarte’라고 불리는 가장 유명한 폴란드식 베기의 형태로 재현되었다. 그것은 펜싱 교과서, 특히 독일 교과서에서 등장했다. 1791년 초에 한 저서에 그러한 베기를 폴란드 제4자세라고 명명한 예도 있다 (Behr, 1791). 이 베기는 니제크 *nyżek*(로우 컷) 또는 ‘지옥의 폴란드 제4자세’라고 부른다.

1824년부터 독일 교과서에 이 베기에 대한 훌륭한 설명이 등장했다.

또한 같은 라인에도 폴란드 혹은 지옥의(?) 제4자세라고 부르는 베기가 등장한다. 이 베기는 제3자세와 반대되는 것으로 제4자세는 하프 혹은 내측의 제2자세와 비슷한데 우측에서 좌측으로, 아래에서 위로 움직인다는 점에서만 다르다. 이 베기는 가장 힘든 자세 중 하나인데 주먹을 돌리는 자세가 가장 불편하기 때문이다. 주로 상체를 뒤로 움직이는 습관이 있는 상대에게 사용되는데, 이렇게 하면 대개 약한 쪽이 의도된 베기에 노출된다. 베기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불리하기 때문에 모든 약점을 노출하며 검객의 신체 안쪽이 드러난다. (Werner, 1824)

‘폴란드 제4자세’, 베르너(1824)





‘폴란드 제4자세’, 몬타크(1868).

1868년에 나온 펜싱 교과서에서 같은 베기에 대한 비슷한 설명이 완벽하게 묘사된다. 1791년 베흐르 교과서가 출간된 지 거의 100년 만에 나온 이 책에 폴란드 제4자세라고 불리는 폴란드식 베기 스타일이 실려 있다(Montag, 1868). 여기서 저자는 폴란드의 국가 전통 의상을 입은 검객의 실루엣을 그려 이 베기의 기원을 분명히 강조한다. ‘악마 혹은 지옥의 폴란드 제4자세’라고 불리는 폴란드식 베기의 존재와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의 존재가 글뿐만 아니라 그림으로도 확실히 증명된다. 그동안 접한 다른 펜싱 문헌에서 폴란드처럼 사브르 베기의 ‘국가적’ 임무가 이토록 명백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

폴란드 사브르 펜싱과 폴란드 전투 기술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은 폴란드 검객들의 뛰어난 실력이었다.

- ① “그니에즈노 출신의 모들리세프스키 Modliszewski 가문은 오랜 전통의 힘 있는 집안이었다. … 안제이 Andrzej는 헝가리 왕비 가브리엘의 궁정에서 일한 작가이자 집행관이었는데, 위대한 인물이자 보기 드문 검객으로 솜씨가 매우 좋아서 소년의 머리에

올린 작은 동전을 자를 때 소년의 머리카락은 건드리지도 않았다.”(Paprocki, 1584)

- ② 폴란드 고대 유물의 뛰어난 연구자인 암브로지 그라보프스키 Ambroży Grabowski(1852)는 비슷한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지그문트 3세의 궁정 집행관인 그라노보 시에니아프스키 출신의 프로코프 Prokop는 여섯 마리의 말이 빠른 걸음으로 끌던 마차를 멈춰 세웠다. 그는 단 한 번의 사브르 베기로 말이나 소를 베어 몸통을 두 동강이 냈다. … 자크로침의 성주인 토마시 올렌츠키 Tomasz Ołędzki는 다섯 개의 동전을 쌓아 놓고 사브르로 잘랐다.”

유제프 웹코프스키 Józef Lepkowski 교수(1857)는 사브르로 “종이 책 한 권, 촛대 위의 수지 양초 한 자루 등을 벨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브르 명장의 또 다른 예는 미하우 스타제프스키 Michał Starzewski(1932)를 통해 알려지는데, 그는 가장 유명한 폴란드식 베기인 니제크 베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베기는 소위 터키식 베기라고 부르는데 터키인의 배를 가르는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스타제프스키는 보잘 것없는 한 검객도 이 베기를 써서 자신의 상대인 보이보데의 허리띠를 훌륭한 솜씨로 잘라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했다고 묘사하고 있다. 스타제프스키에 따르면 이는 “당신을 존경하지만 당신이 졌습니다!”라는 의미이다.”

펜싱 기술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려면 폴란드인 외의 사람들은 펜싱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메리 바튼 Mary Barton은 1864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16세기 초 폴란드에서는 권총을 들고 결투하는 일이 드물었다. 개인 간의 대결에서 주로 사용된 무기는 사브르였다. 폴란드에서는 13세부터 사브르 기술을 가르쳤기에 청년 교육에 있어 사브르가 필수품이었다. 학생

들은 사브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막대기로 펜싱을 연습하곤 했다. ... 사브르 기술을 완벽하게 익히려면 중거리에서 던져진 작은 돌멩이가 칼날을 맞고 튕겨 몸에 맞지 않도록 격렬하게 칼날을 휘둘러야 했다. 또 다른 테스트로는 결투 중에 자기 무기의 칼끝으로 상대의 몸에 사전에 정한 단어를 새겨야 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이 두 번째 증거를 남기려면 첫 번째보다 더 뛰어난 솜씨가 필요했다. (Sawicki, 2012)

위의 몇 가지 사례들은 폴란드 선조들의 펜싱 기술 수준이 예상롭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특히 펜싱 공예와 사브르에 숙달해 이 분야에서 최고의 스승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준다.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의 원천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전해지는 전통과 전투 경험이었고, 이는 유제프 테오도르 그웬보츠키 Józef Teodor Głębocki가 19세기 기사학교에 대해 쓴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사색적이기보다 감정적이었고, 체계적이기보다 자기희생적이어서 학교 책상이 아닌 전쟁의 혼란 속에서 적군을 상대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확신했다.”



시그눔 폴로니움의 상징(스타투트, 1994)

폴란드 공식 기술, 시그눔 폴로니움

폴란드에서는 곡면 날을 채택한 이후 후사르 사브르라고 불리는 무기와 ‘크로스 아트’로 알려진 올드 폴란드 사브르 펜싱을 만들었으며, 청년들이 사브르를 사용하기 전에 기초를 익히도록 막대기를 사용하는 펜싱을 개발했고 18세기에 이런 형식으로 수련했다는 점도 확인된 사실이다. 이런 사브르 펜싱은 과거에

공식 명칭이 있던 것이 아니라서 (수 세기 동안 ‘휘두르기’라고 지칭했다) 1986년에 복원했을 때 폴란드 고유의 민족적 전통을 가진 무예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폴란드식 기술의 표식이라는 뜻의 ‘시그눔 폴로니춤’이라고 불렀다.

오늘날 폴란드 무예협회 시그눔 폴로니춤 Polish Association of Polish Martial Arts Signum Polonicum이 이 전통을 국가 유산의 한 형태로 이어가고 있다. 그 기반은 비엔나 전투(1683년)로부터 전해지는 미하우 스타제프스키 Michał Starzewski의 지식, 여러 문헌과 연구 결과, 40여 년 넘게 수련된 훈련 과정을 통해 얻은 경험은 물론이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일어난 폴란드 제2공화국의 영국 이주자 집단(‘소콜Sokol’ 국민 체육 운동 집단, 폴란드 제2공화국 장군들 등)이 즈비그니에프 사비츠키 Zbigniew Sawicki에게 전한 지식 등이다. 이 전통은 오늘날에도 시그눔 폴로니춤으로 알려진 조직적이고 완전한 무예 체계(스타일)로 계속 발전하면서 폴란드와 유럽의 유산에 상당한 국가적, 문화적 가치를 부여한다.

- Behr, F. L. (1791). *Fluchtige Bemerkungen über die verschiedene Art zu fechten einiger Universitäten*. Hale: n.p.
- Bernolak, K. (1898). *Podręcznik szermierczy i krótki opis szabli polskiej*. Przemyśl: Józef Styfi.
- Bielski, M. (1569). *Sprawa Rycerska według postępków i zachowania starego obyczaju rzymskiego, greckiego, macedońskiego i innych narodów pierwszego i niniejszego wieku tak pogańska iako i krześcijańska, z rozmaitych ksiąg wypisana, ku czytaniu i nauce ludziom rycerskim pożyteczna*. Cracow: M. Siebeneicher.
- Cynarski, W. (2009). "Próby restauracji polskiej sztuki militarnej na przełomie XX i XXI wieku." *Ido – Ruch dla Kultury*, 9, 44–59.
- Czacki, T. (1800). *O Litewskich i Polskich prawach*. Warsaw: Wydanie J. C. G. Ragoczego.
- Czarnecki, R. (2016). "My za Polskę naszą i za sławę naszą—wojujemy was." [Online] *Niezależna*, May 9. Available at <https://niezalezna.pl/80171-my-za-polske-nasza-i-za-slawe-nasza-wojujemy-was>.
- Głębocki, J. T. (1866). *Wýwód o szkołach rycerskich czyli wojskowych w Polsce w ciągu dziejowym*. Cracow: author.
- Gloger, Z. (1978). *Encyklopedia staropolska*, vol. 4. Warsaw: Wiedza Powszechna.
- Górnicki, Ł. (1634). *Dworzanin polski*. Cracow: Andrzej Piotrowczyk.
- Grabowski, A. (1852). *Starożytności polskie*, vol. 2. Poznań: Jan Konstanty Żupański.
- Jarnuszkiewicz, Cz. (1973). *Szabla wschodnia i jej typy narodowe*. London: R. Wernik.
- Jezierski, F. S. (1791). *Niektóre wyrazy porządkiem abecadła zebrane i stosownemi do rzeczy uwagami objaśnione*. Warsaw: M. Gröll.
- Kitowicz, J. (1985). *Opis obyczajów za panowania Augusta III*. Warsaw: Państwowy Instytut Wydawniczy.
- Kuczyński, S. M. (1965). "Polskie siły zbrojne za Kazimierza Wielkiego i Andegawenów." *Studia i Materiały do Historii Wojskowości*, 11, 5.
- Kukiel, M. (1929). *Zarys historii wojskowości w Polsce*. Cracow: Krakowskiej Spółki Wydawniczej.
- Kwaśniewicz, W. (1981). *1000 słów o broni białej i uzbrojeniu ochronnym*.

- Warsaw: Ministerstwo Obrony Narodowej.
- Kwaśniewicz, W. (1988). *Szabla polska od XV do końca XVIII wieku*. Zielona Góra: Lubuskie Towarzystwo Naukowe.
- Kwaśniewicz, W. (2017). *Encyklopedia dawnej broni i uzbrojenia ochronnego*. Warsaw: Bellona.
- Łaski, S. (1599). *Spraw i postępów rycerskich i przewagi opisanie krótkie z naukami w tej zacnej zabawie potrzebnymi*. Lviv: Stanisław Karliński.
- Laskowski, O. (1935). "Odrębność staropolskiej sztuki wojennej." *Pamiętnik VI Powszechnego Zjazdu Historyków Polskich w Wilnie, Referaty*, 375. Lviv: Polskie Towarzystwo Historyczne.
- Łepkowski, J. (1857). *Broń sieczna w ogóle i w Polsce uważana archeologicznie*. Cracow: Czcionkami "Zasu."
- Mickiewicz, A. (1921). *Pan Tadeusz*. Lviv: Wydanie J. Kallenbach, J. Łoś.
- Modrzewski, A. F. (1557). *O poprawie Rzeczypospolitej księgi czwore*. Basel: n.p.
- Montag, I. B. (1868). *NeuepraktischeFechtschule auf Hieb und Stoß, sowie auf StoßgegenHieb und HiebgegenStoß. Für Militärschulen und Turnanstalten wie auch zum Selbst-Unterricht für die Liebhaber der Fechtkunst eingerichtet*. Erfurt: Bartholomäus.
- Paprocki, B. (1584). *Herby rycerstwa polskiego*. Cracow: Macieja Garwółczyk.
- Piasecki, E. (1925). "Wychowanie fizyczne w Polsce przedrozbiorowej." *Wychowanie Fizyczne*, 6(1), 2.
- Sawicki, Z. (2010). *Polska Sztuka Walki Signum Polonicum. Tło historyczne, charakterystyka i główne wątki systemu*. Zawiercie: Signum Polonicum.
- Sawicki, Z. (2012). *Traktat szermierczy o sztuce walki polską szablą busarską. W obronie Ewangelii*. Zawiercie: Napoleon V.
- Sienkiewicz, H. (1949). *Ogniem i Mieczem*. Warsaw: Państwowy Instytut Wydawniczy.
- Sikora, R. (2012). *Husaria pod Wiedniem 1683*. Warsaw: Instytut Wydawniczy ERICA.
- Spieralski, Z. (1958). "Z problematyki szlacheckiego pospolitego ruszenia. Przyczynek do statutów Kazimierza Wielkiego." *Studia i Materiały do Historii Polskiej Wojskowości*, 4, 417.
- Starowski, S. (1634). *Wyprawa y uwiad potężnego y nie ogarnionego woyska, napotężniejszego y najsroższego Monarchy Sultana Amurata, cesarza Tureckiego terazniejszego na wojnę do Korony Polskiej*. n.p.
- Starzewski, M. (1932). "O Szermierstwie." In J. Starzewski (ed.), *Ze wspomnień o*

- Michała Starzewskim, pp. 101–136. Cracow: n.p.
- Statut Klubu Miłośników Dawnego Oręża Polskiego i Sztuki Walki tym Orężem
Signum Polonicum (1994). Zawiercie: Signum Polonicum.
- Tarnowski, J. (1987). *Consilium Rationis Bellicae*. Warsaw: Ministerstwo Obrony
 Narodowej.
- Tazbir, J. (1976). “Wzorce osobowe szlachty polskiej w XVII wieku.” *Kwartalnik
 Historyczny*, 4, 790.
- Wereszczyński, J. (1858). “Publika na sejmiki przez list objaśniana, tak ze
 strony fundowania szkoły Rycerskiej synom koronnym na Ukrainie.”
*Pisma polityczne ks. Józefa Wereszczyńskiego, biskupa kijowskiego, opata
 benedyktyńskiego w Sieciechowie*. Cracow: K. J. Turowski.
- Werner, J. A. L. (1824). *Versuch einer theoretischen Anweisung zur Fechtkunst im
 Hiebe*. Leipzig: Hartmann.
- Zabłocki, W. (1971). “Funkcjonalno-konstrukcyjna charakterystyka rękojeści
 dwóch typów polskich szabel bojowych z wieku XVII.” *Studia i Materiały do
 dziejów Dawnego Uzbrojenia i Ubioru Wojskowego*, 5, 83.

15

전통춤과 무예에 나타난
한국 신체문화의 보존

산코 루이스 Sanko Lewis 박사

한국 삼육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춤과 무예

춤은 한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발전시킨 종합 문화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다듬어진다. 그래서 춤은 한 민족의 특성과 감정을 구현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춤에서 동작과 스텝 하나하나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관과 삶을 전해준다. (File, 2013)

춤과 무예에 내재된 동작과 동세는 세대를 통해 전승되며 반복적으로 구현되고 그 안에서 발전한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전통춤과 몇몇 전통 무예에서 형성된 구체적인 동작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문화유산의 일부를 발견하고자 한다. 또한 무예가 K-pop 음악과 같은 현대적인 트렌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통적 특성을 상실하게 되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자료를 상호 참조하는 문화기술지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연구 결과는 한국 무예와 춤, 악기(장구)를 연습하면서 직접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춤 공연 등 한국 전통 동작 및 동세에 대한 다년간의 관찰과 전통 안무가, 무용가, 무예가와의 비공식 인터뷰를 통해 보강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 전통춤과 다양한 한국 무예 모두에서 존재하는 구체적인 동작 특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궁중 무용, 민속 무용, 종교 및 제례 무용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춤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여기서는 춤의 유형 대부분에 나타난 공통적

동작 특성에 초점을 맞춘 다음 일부 한국 무예에서 확인되는 유사한 동작 특성을 파악하도록 한다. 모든 동작에 이러한 특성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작에서 인식되며 전통적인 동작 분야에 한국적인 ‘맺’을 내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

전통춤과 무예에 나타난 한국의 신체문화

전통적인 한국의 신체문화

한국의 전통춤과 무예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몇몇 동작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종종 상호 의존적이며, 그 시너지 효과로 인해 동작 부문에서 ‘한국성’이 두드러진다.

곧은 자세

한국의 전통춤과 무예는 머리, 어깨, 엉덩이를 자연스럽게 일직선으로 정렬해서 척추를 곧게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척추를 뻗뻗하게 경직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세우는 것이다. ‘엉덩이를 빙빙 돌리는 몸짓은 일반적으로 선정적으로 여겨서’ 탈춤에서 희극적 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전통춤에서 이런 동작은 피한다(File, 2013). 일부 춤 동작에서 무용수가 엉덩이를 구부리거나 약간 숙이는 동작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척추는 대개 곧게 유지된다.

이것은 무예에도 해당되며, 곧은 자세는 균형 유지와 관련이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전통무예 택견을 예로 들어보면, 다리걸기와 던지기를 통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상대가 곧은 자세가 아니면 균형이 무너져서 더 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 택견의 일부 분파 수련자들은 기본 훈련에서 관절 가



검무를 추는 한국 무용수들 ©ShareAlike 2.0 Generic License

동성을 높이기 위해 엉덩이를 좌우와 앞뒤로 과도하게 밀기도 하지만, 실제 대련에서는 그런 과장되게 구부리는 동작은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태권도와 합기도와 같은 보다 현대적인 한국 무예에서도 곧은 자세를 강조한다. 비록 메치기, 낙법, 구르기 등 일부 특정 기술에서는 곧은 자세 원칙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전통 레슬



씨름 선수들은 경기 중에 코어 근육을 사용해 등을 곧게 유지한다. ©산코 루이스

링에 해당하는 씨름에서 선수들이 상대 선수의 체중을 지탱하면서 신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곧은 자세는 아니다. 하지만 몸은 엉덩이에서 구부러지지만 씨름 선수들은 척추를 둥글게 구부리지 않고 코어 근육을 이용해 곧게 유지한다.

단전호흡

적절한 호흡은 효과적인 신체 활동의 핵심이며 좋은 자세의 기본이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춤에서는 호흡선과 척추선을 동일시한다(Lim, 2003). 무예 수련에서도 자세와 호흡이 붙어 다닌다는 점은 유사하다(Pearlman, 2006). 구부정한 자세는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원활한 호흡을 방해해서 불필요한 근육 긴장, 조기 탈진, 부정확한 기술로 이어진다.

한국의 춤과 무예에서는 단전호흡을 강조하는데, 배꼽 아래 아랫배 안쪽에 위치한 천골 차크라에 해당하는 단전 부분에 집중하는 일종의 복식호흡이다. 단전호흡으로 복강과 흉강이 삼차원적으로 팽창함에 따라 들숨과 날숨마다 몸은 시각적으로 ‘팽창’하고 ‘수축’하게 된다. 단전호흡에서 중요한 개념은 호흡이 폐가 아니라 단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들숨을 ‘숨을 올리다’로, 날숨을 ‘숨을 내리다’라고 묘사하기도 한다(Van Zile, 2018). 들숨은 단전에서 위쪽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숨이 가시화되고, 날숨은 단전으로 가라앉거나 수축하는 호흡으로 보인다.

한국 춤에서 동작은 호흡에 의해, 호흡을 통해 이루어진다.

섬세한 궁중 무용에서 들숨은 구부러진 무릎을 부드럽게 들어 올리고 척추는 위로 늘린다. 이때 이완된 어깨를 아주 살짝 미세하게 밀어 올리고, 이로 인해 옆에 늘어져 있는 팔이 들어 올려지고 뒤이어 손이 부드럽게 따라간다. 무용수가 숨을 내뿔을 때에는 과정이 반대로 진행된다. 척추는 아래로 짧아져서 어깨도 내려가고 무릎이 구부러진다. 팔은 아래로 살짝 떨어지고 손목이 수축해서 이때도 손은 뒤에서 부드럽게 따라간다. (Van Zile, 2008)

한국 전통춤 동작은 대개 리듬의 첫 박자에 들숨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 들숨은 동작의 준비 단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Kim, 2009). 무예 동작 역시 대개 들숨으로 시작하고 날숨으로 마무리된다. 한국 춤과 무예 모두에서 날숨은 상대적으로 짧은 데 비해 들숨은 대개 길다.



발차기를 하면서 기합을 외치는 저자의 모습 ©VSC



단전호흡은 한국 무예에서 명상 수련의 일부로 종종 진행된다. ©VSC

무예에서 날숨은 종종 기합의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데 기합은 몸과 마음, 호흡이 대상과의 충격에 집중하는 기술의 정점에서 나온다. 기합은 충격의 순간에 큰 외침과 같이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국제태권도연맹 ITF 태권도에서 하듯이 소리를 내지 않지만 날숨에 집중하는 ‘날카롭게 내뿜는 호흡’(Choi, 2019)이 될 수도 있다. 택견에서 기합은 ‘이크’나 ‘에크’로 언어적으로 나타나는데(Kim, 2012), 첫 번째 음절에서 소리를 내고 몸은 다소 긴장하고 두 번째 음절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고 근육 긴장이 이완되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 춤에서 관객은 이것을 ‘부유의 순간’과 표면적으로는 ‘동적인 긴장감’, 그리고 이어지는 ‘안도의 한숨’으로 인지할 수 있다(Van Zile, 2001).

전통적인 한국의 신체문화는 항상 호흡으로 시작하거나 호흡과 함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호흡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수련자에게 자주 편안한 호흡을 하도록 지도한다(Do, 2007).

마지막으로 단전호흡은 한국 무예의 명상 수련에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호흡법이다.

굴신과 수직적 흔들림

전통적인 한국의 신체문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상하 흔들림이다.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으로 전통적인 한국 동작에 파도나 바운스 같은 느낌을 준다.

반 자일 Van Zile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 전통춤에는 위로 올라가는 동작과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이 계속해서 번갈아가며 나타난다”. 오금춤이라고도 불리는 ‘무릎을 반복해서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어깨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Van Zile, 2018).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은 ‘전사들이 말을 타고 평원을 가로지르며 움직이는 방식’을 연상케 한다(File, 2013).

한국의 신체문화에서 핵심적인 특성인 굴신(굽힘과 펼침)은 섬세하게도 과장되게도 표현된다. 굴신의 섬세한 표현은 단전호흡을 통해 들이마시는 호흡에 몸이 확장되고 척추가 길어진다(Van Zile, 2018). 과장된 표현은 팔과 다리에서 일어난다. 관절의 굽힘과 펼침은 오금질이라고 하며, 무릎 뒤와 같은 관절 안쪽을 구부리는 동작이다. 그 결과 발을 디딜 때 파도와 같은 물결질이 생기는데, 택견과 태권도와 같은 무예는 물론 한국 춤에서도 눈에 띈다.

한국 전통춤의 스텝은 반동으로 표현되는 탄력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반동은 스텝을 밟을 때 발이 지면에서 튕기는 듯한 리바운드 효과를 말한다. 품밟기로 알려진 택견의 기본 동작에서 수련자는 각 스텝에서 무릎을 눈에 보이게 폈다가 구부린다. 그 결과는 춤에서 보이는 반동과 흡사하다. 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에서 스텝은 무릎의 스프링 동작을 통해 이루어지며(Choi, 2019), 이는 한국어로는 ‘활동 파도’(활동 모양과 같은 파도)(Choi, 1990)로, 영어로는 ‘사인 웨이브 sine-wave 동작’(Choi, 2019)으로 묘사되는 웨이브 같은 스텝이 된다. 국기/올림픽 태권도 역시 오금질을 사용하지만 ‘엄지발가락 아래쪽의 동그란 부분으로 반동’한다(Kil, 2006). 한국 무예 역사가 김혜영은 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의 파도 동작과

국기/올림픽 태권도의 도약 동작은 “같은 유형의 한국의 전통적인 신체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동의한다.

오금질과 굴신이 씨름과 합기도와 같은 유술계 무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지만, 확장하고 수축하는 굴신 원리는 두 무예의 잡기, 던지기 동작과 관련이 있다.

삼박자 리듬

한국 전통음악은 일반적으로 하박 downbeat으로 시작하고 상박 중지 upbeat cadence가 있는 삼박자 리듬을 따른다(Sheen, 2013). 이는 한국의 전통춤에서도 되풀이된다.

동작의 단위는 삼박자 단위로 안무가 이루어지며 기본적인 음악의 박동은 삼박자를 세 개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삼박자 강조는 수직성(수직적 흔들림 등)과 부유와 빈번하게 결부된다. 처음 두 번의 박동에서 짧은 부유로 이어지는 위로 올라가는 행동, 두 번째 박동의 끝에 살짝 강조, 세 번째 박동에서 아래로 내려와 이완하는 행동으로 구성된다. (Van Zile, 2001)

일부 한국 전통무예의 기본 동작 역시 삼박자 리듬으로 실행된다. 일례로, 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 기술의 사인 웨이브 동작에서 삼박자 리듬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처음 이완한 다음 몸을 위로 올리는데 이것이 반 자일이 언급한 ‘짧은 부유’에 해당한다. 그런 다음 몸의 무게를 내려놓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아래로 내려와 이완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택전의 기본 동작 역시 삼박자 패턴을 따른다. 품밟기는 정삼각형 품밟기로 구성되는데, 수련자는 한국의 전통음악 리듬에 맞춰 삼각형의 세 꼭짓점을 번갈아 밟는다.

삼박자 리듬은 기본적인 기술 훈련에 사용되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택견은 종종 한국 타악기 반주에 맞춰 연행된다. 사진의 왼쪽 아래에 고수가 보인다. ©황인무

특정한 리듬을 엄격하게 고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의 의도를 상대 선수에게 불가피하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운동 사슬

운동 사슬(kinetic chain)이란 “신체 분절에서 시작된 동작이 주변 분절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흐름으로, 확실히 호흡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Van Zile, 2018). 이것은 한국 춤에도 적용된다.

손목에서 미세한 맥박이 뛰는 것처럼 신체의 말초 부위에 작은 움직임이 있을 때조차 그 움직임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몸통에서 시작된 들숨으로 척추가 수직으로 늘어나고 어깨를 들어올리고 팔 전체로 에너지와 동작을 가동시켜서 마침내 손목 동작을 ‘유발’한다. (Van Zile, 2018)



운동 사슬에 따라 팔을 뻗는 한국 무용수 ©ShareAlike 2.0 Generic License

반 자일에 따르면, 한국 춤의 “동작은 중심에서 시작해서 신체의 말초 부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런 한국식 움직임은 연행하기 위해서는 몸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진행되는 동작의 순차적인 전달이 일어나야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몸통과 팔다리를 단일 단위로 움직이는 일본의 춤 形態와는 다르다(Van Zile, 2008).

운동 사슬은 또한 많은 한국 무예 기술에서 힘을 생성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예 기술을 제대로 시전하면 바닥이나 몸의 중심(예: 단전)에서 시작해 신체의 말단 부위로 채찍처럼 펼쳐지고, 응축된 운동에너지가 충격의 형태로 대상에게 전달된다. 채찍질이라는 용어가 이런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때때로 사용된다. 일부 집단에서는 발산하는 힘을 이르는 발경(發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개념은 중국 내가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름다운 곡선

한국의 춤과 여러 무예에서 나타난 미학적 특징은 곡선으로, 한 손으로

는 명확하게 원형을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일부러 직선을 취하는 것과 다르다. 움직임이 딱딱한 직선 궤적이 아닌 곡선 궤적을 따른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사슬 운동의 결과다. 하지만 곡선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미적 감성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다. 한국 단어에서 곡선미는 이런 개념을 가장 잘 보여준다. 한국인들은 곡선이 아름답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곡선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전통춤에서 어깨는 다소 둥글고 가슴은 살짝 오목해서 팔을 양옆으로 펼치면 일반적인 전통춤 의상인 긴 소매와 어우러져 학이 날개를 펼친 모습을 연상시키는 특징을 살릴 수 있다. 곡선의 긴 목과 날개를 가진 학이 한국 전통예술의 단골 주제이고 전통적인 한국의 동작 분야에 영감을 주었다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

굴신과 오금질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곡선은 한국 춤과 무예에서 물결질이라는 파도 같은 스텝 동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춤에서 운동 사슬의 사용은 팔을 감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자연스러운 곡선 움직임을 낳는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 무예의 발차기와 치기에서는 신체의 일부를 단일 분절 단위로 움직이기보다는 운동 사슬을 빠르게 풀어 펼치는 채찍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동작 역시 곡선과 나선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저자가 한국 무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틀어차기를 하고 있다. 비틀어차기는 대상을 향해 곡선 궤적을 그린다. ©VSC

균형 잡힌 동작

한국의 전통춤 동작은 균형 잡힌, 오히려 평형을 맞춰주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한국 춤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으로 허리감기사위가 있다. 동작의 시작에서 한 손을 몸 앞쪽에 두고 이때 손바닥은 마치 단전을 안는 듯이 위로 향하고, 반대편 손은 같은 높이로 몸의 뒤편에

둔다. 무릎도 함께하는데 굴신의 준비 단계로 살짝 구부린다. 허리감기 사위는 단전에서부터 들숨으로 시작하고 동시에 무릎을 유연하게 하고 팔을 양옆으로 풀어놓는다. 순차적으로 내뺄는 숨에서는 무릎을 다시 구부리기 시작하고(오금질) 팔을 감아올려서 앞에 있던 손이 이제 뒤로 가고 뒤에 있던 손이 앞으로 나온다. 앞서 다른 사례에서처럼 균형을 잡아주는 동작이 대칭적 도치일 필요는 없지만, 대칭적으로 시각화되는 다른 신체 부위가 개입할 수 있다. 가령, 왼쪽 발을 올릴 때에는 오른쪽 팔을 뺀어 균형을 잡아준다. 이와 유사한 균형 잡힌 동작은 한국 전통무예에서도 눈에 띈다. 택견의 품밟기는 팔을 좌우로 흔드는 활개흔들기를 하면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균형을 잡아주는 동작이 특징인 또 다른 대표적인 기술로 활개돌리기가 있다. 두 팔을 서로 교차해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것으로 한 손이 높이 올라가면 다른 손은 낮게 위치한다. 다양한 무예에서 나타난 그 밖의 일반적인 사례로 지르기나 치기에서 ‘손을 잡아당기는’ 동작이 있다. 한 팔을 대상을 향해 뺀을 때, 다른 팔은 대개 엉덩이까지 뒤로 당긴다.



택견 수련자가 상대방에게 발회목잡고 어깨잡이 기술을 걸고 있다. 이는 균형 원칙의 실제 응용에 해당한다 ©황인무

무예에서 이처럼 균형 잡힌 동작은 주로 실용적인 기능이 있다. 첫째, 말 그대로 균형을 잡아준다. 발차기를 할 때, 양팔은 발차기 궤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져와서 균형 추의 역할을 해서 발차기의 추진력 때문에 수련자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다. 둘째, 균형 잡힌 동작이 전술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 가령, 반대 손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앞서 언급한 ‘당기는 손’이 실제로 상대방을 잡고 당기기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택견의 경우, ‘발회목잡고 어깨잡이’라는 넘어뜨리기 기술이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수련자가 한

손으로 상대방의 어깨를 밀고 다른 손으로는 상대의 반대편 다리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리는 것이다. 많은 씨름 기술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뒷무릎치기의 경우, 씨름 선수는 상대 선수의 무릎 뒤쪽을 당기면서 상대의 상체를 밀어서 넘어뜨리는 기술이다.

한국 무예와 춤 모두에서 균형 잡힌 동작은 도교 우주론에서 비롯된 개념인 음양의 현상(Yoo, 2007)으로 철학적 해석을 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한국 신체문화에서 분리된 현대 태권도의 발전

태권도는 한국 무예로 일본의 가라테와 깊은 관련이 있다(Moenig & Kim, 2016). 그러나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국기/올림픽 스타일과 1970년대와 1980년 국제태권도연맹 스타일에서 태권도는 동작 특성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겪었고 가라테와 그리고 한국 무예와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 특성상에 상당한 차이를 갖게 되었다. 문화기술지적으로 태권도를 한국의 전통 신체문화와 관련된 동작 특성을 구현하는 한국 무예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태권도는 곧은 자세와 기합 등 단전호흡을 강조한다. 태권도의 스텝과 겨루기 발놀림은 굴신과 오금질로 인한 뚜렷한 수직 흔들림을 보여준다. 많은 태권도 동작, 특히 발차기는 열린 운동 사슬 방법에 따라 유선형을 나타내 곡선의 궤도를 그리며 가속과 힘의 생성을 높인다. 또한 균형 잡힌 동작은 태권도의 품세에 내재되어, 겨루기에서 동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평형 동작으로 기능을 하거나 시합에서 전술적으로 잡기로 사용된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태권도의 동작 특성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기/올림픽 스타일의 태권도에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다. 첫째, 겨루기 대회 규칙과 새로운 규칙의 도입은 태권도 기술을 수련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는 기술을 제대로 펼치고 상당한 파워가 있는 경우 점수를 받았다

(Moenig, 2017). 물론 여기에는 기술의 질에 대한 심판의 주관적인 판단이 요구된다(Moenig, 2017). 심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점수 정확성과 투명성에 대한 IOC의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Moenig, 2017), 자동으로 채점하는 전자호구판정시스템 PSS이 도입되었다. PSS가 채점을 위해 상대방의 접촉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기록하지만, 훨씬 가벼운 충격도 점수로 허용하고 있어 '적절한' 태권도 기술과 PSS를 유도하기 위한 단순한 동작 사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다. 과거 선수들은 강력한 기술을 펼치기 위해 열린 운동 사슬을 통해 동작을 적절하게 가속화해야 했다. 이제는 강력한 힘을 쓰는 것에는 관심 없이 전자기록이 되는 목표 영역을 향해 단지 발을 뻗을 뿐이다. 따라서 운동 사슬과 그로 인한 곡선이라는 초기의 동작 특성은 겨루기 대회에 도입된 많은 새로운 기술에서 사라지고 있다. PSS의 도입 이후 태권도 대회는 극적인 변화를 겪었고 과거에 연행되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권도가 되었다(Capener, 2019).

둘째, 태권도 시범에 대중음악(K-pop 등)과 춤을 접목하는 것이 인기를 끌게 되었고 이는 태권도의 운동적 특성에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의 전통 신체문화는 5음계와 삼박자로 진행되는 한국 전통음악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대중문화는 '랩뮤직과 힙합 감성을 한국 대중음악에 접목'하고 있다(Lie, 2012). 힙합 댄스의 일부 운동적 특성으로 신체의 긴장이나 조임, '각도와 비대칭으로 관객을 놀라게 하는 동작', '세련된 형태나 거친 표현에서 나온 성적 에너지', 동떨어진 신체 분절을 튕기거나 신체의 일부를 '분절된 방식으로 움직이는 방식', '복잡한 박자의 변형'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는 전통적인 한국의 신체 문화와 관련된 동작 특성과는 많은 부분에서 상반된다. K-pop을 접목한 시범에서는 대중음악에 맞춰 변경하느라 실제 무예로는 의미가 없는 몇몇 동작이 생겨났다(Capener, 2019). 기합은 상대에게 타격을 가하는 순간에 몸을 긴장시키는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었는데,

이제 단순한 연극적인 요소가 되었다. 태권도 수련자들은 이제 기술에 맞춰 기능적으로써 기합을 사용하기보다는 기술 시범을 보이기 전이나 후에 규칙적으로 기합을 외친다.

무형유산의 진화와 보존의 길

문화기술지적 기록은 무형유산을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한국 춤과 무예라는 전통적인 동작 분야에서 고유한 한국의 멋을 보여주는 일곱 가지 동작의 특성을 다루었다. 파악된 동작 특성으로는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 곧은 자세, 단전호흡, 굴신과 수직적 흔들림, 한국의 삼박자 리듬, 운동 사슬, 자연스러운 곡선과 움직임, 균형 잡힌 동작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 전통춤을 비롯해 택견과 태권도 등 몇몇 한국 무예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세계화 시대에 문화유산에 가해지는 소멸 위험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증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중문화에 눈을 돌리는 유흥에 빠질 수 있다. 일례로, 한국의 전통무예는 수련 관습과 대회 규칙을 변경하고 K-pop 음악과 댄스와의 접목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랄지 모른다. 이런 변화를 통해 더 많은(젊은) 청중과 만날 수 있는 노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현대 태권도는 동작 특성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다. 그 결과는 전통적인 한국의 신체문화와는 동떨어진 완전히 다른 것으로의 진화다. 태권도의 경우 진화하는 무예로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의 본질을 지키고자 하는 무예라면 대중화 시도에 있어 전통적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바로 그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 변화를 피하는 일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Capener, S. (2019). The Dismantling of a Martial Sport: How Korea Created and then Destroyed Taekwondo.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for Taekwondo 2019: Overcoming the Self to Benefit the World*.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February 16–17.
- Choi, H. H. (1990). 태권도: 배달민국 호신술 [Encyclopedia of Taekwon-Do], vol. 4, 3rd edn. Pyeibgyang: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 Choi, H. H. (2019). *Encyclopedia of Taekwon-Do* (digital edn). Vienna: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 Defrantz, T. F. (2004). “The black beat made visible: hip hop dance and body power.” In A. Lepecki (ed.), *Of the Presence of the Body: Essays on Dance and Performance Theory*.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 Do, G. H. (2007). 우리 무예 택견 [Our Martial Art Taekkyeon]. Seoul: Dongjae Publications.
- File, C. (2013). *Korean Dance: Pure Emotion and Energy* (Korea Essentials no. 15). Seoul: The Korea Foundation.
- Lie, J. (2012). “What is the K in K-pop? South Korean popular music, the culture industry, and national identity.” *Korea Observer*, 43(3), 339–363.
- Lim H. S. (2003). “A study on breathing type in breath structure of Korean dance.” *Korean Journal of Dance*, 35, 139–152.
- Kil, Y.S. (2006). *Competitive Taekwondo*.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Kim, J.G. (2009).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ance by Breathing Analysis of Lee Mae Bang-typed Folk Dance. Master’s dissertation, Department of Dance,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Kim, Y. M. (2012). 택견 기술의 과학적 원리 [Scientific Principles of Taekkyeon Techniques]. Paju City: Korean Studies Information Co.
- Kimm, H.Y. (2013). *Taekwondo History*. Baton Rouge: Hando Press.
- Moenig, U. (2017). *Taekwondo: From a Martial Art to a Martial Sport*. New York: Routledge.
- Moenig, U. and Kim, M.H. (2016). “The invention of taekwondo tradition, 1945–1972: when mythology becomes ‘history’.” *Acta Koreana*, 19(2), 131–164.
- Pearlman, S. (2006). *The Book of Martial Power: The Universal Guide to Combative Arts*. Woodstock: Overlook Press.
- Sheen, D.C. (2013). Calm and Dynamic: Two Differing Aesthetic Aspects of

- Korean Traditional Music. Lecture given for the *Royal Asiatic Society – Korea Branch*, January 22, Somerset Palace, Seoul.
- Van Zile, J. (2001). *Perspectives on Korean Dance*. Connecticut: Wesleyan University Press.
- Van Zile, J. (2008). “Visible breathing: the use of breath in Korean dance.” *Society and Culture (Journal of the Socio-Cultural Research Institute, Ryukoku University)*, 10(June), 80–89.
- Van Zile, J. (2018). “Aesthetics of Korean dance: concepts and techniques.” 言語社会 第12号. 一橋大学大学院言語社会研究科. <http://doi.org/10.15057/29158>.
- West, C. (1992). “On Afro-American popular music: from bebop to rap.” *Sacred Music of the Secular City: From Blues to Rap*, Jon Michael Spencer (ed.), a special issue of *Black Sacred Music: A Journal of Theomusicology*, 6(1) (Spring), 282–294.
- Uhm, W.K. (2017). *Uhm Woon Kyu: A Single Path of 70 Years, the Pioneer of Modern Taekwondo's Foundation*. Seoul: Kukkiwon.
- Yoo, Mi-Hee. (2007). “Principal concepts in the aesthetics of Korean traditional dance.” *Society and Culture (Journal of the Socio-Cultural Research Institute, Ryukoku University)*, 9 (May), 77–80.

16

중국 마을의
종교 의례와 무예 수련

어니스트 코진 Ernest Kozin 박사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교 수레스키 중앙도서관

무예와 종교, 의례

중국 무예는 맨손과 무기 무예에 맨손체조, 호흡 운동, 명상, 중국 한의 학 요소들이 어우러진 고유한 조합을 나타낸다. 민간의 맨손 무예는 중국 후기 왕조(명나라와 청나라, 1368~1912)에 이르러서야 격투라는 협소한 틀에서 벗어나 여러 요소가 더해진 다면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현존하는 문헌을 통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절 많은 수련자가 무예를 종교적 의례로 여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교와 불교 역시 영적인 깨달음이나 불사와 같은 다양한 종교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맨손 무예 훈련을 활용했다. 하지만 최근에 발견된 문헌 자료는 중국의 토속신앙이야말로 무예 수련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중국 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국의 맨손 무예 전통은 농촌 생활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이는 현재에도 그렇다. 또한 중국 마을의 종교적 관습과 의례 활동에서 특히 생생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본질적으로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갖는 중국의 토속신앙에는 확실한 무예적인 요소가 있다. 가령, 초자연적인 사악한 힘에 맞서 육체적 힘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육체적 힘이 주문이나 부적과 같은 다른 의례적인 보호 수단만큼이나 효과적이고 강력하다고 믿었다. 인간이 맨손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민간신앙은 이미 4세기 경에 문학 작품에 반영되었다. 간바오(280?~336)가 엮은 『수신기 In Search of the Supernatural』에 실린 이야기가 그 사례에 해당한다. 송다셴이라는 인물이 귀신이 나오는 정자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고 귀신으로부터 맨손

으로 무예를 겨루자는 도전을 받고 드잡이 기술로 귀신을 가까스로 물리쳤다는 이야기다.

귀신이 떠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맨손으로 대결할 수 있지?”라고 물었다. 다셴이 “좋아”라고 답했다. 말을 내뱉자 귀신은 그의 앞으로 나섰지만 허리를 꼭 움켜쥐자 “아이고, 나 죽네”라며 고통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 다셴은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귀신을 죽였다. 다음날 아침 귀신은 늙은 여우로 밝혀졌다. (De Groot, [1910] 1964: 다소 각색)

간바오의 이야기는 무예를 사용한 초기 퇴마 의식 사례로 볼 수 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에 무예가 집단이 참여해 사원 뒤뜰에서 맨손으로 하는 다양한 권법 시범을 보여주며 귀신으로부터 신성한 장소를 정화한다. 마을 사람들은 퇴마 의식 의례의 과정에서 현천상제, 손오공, 관우, 금강역사, 나타 등 무예의 신을 불러내면 더욱 강력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의식에는 검, 미늘창, 투창 등 다양한 유형의 전통 무기가 등장한다. 지방 사찰은 무예 사부와 그들의 제자에게 인기 있는 훈련장으로 종종 활용된다.

전근대 중국에 나타난 폭력 문제를 역사, 인류학, 종교학 부문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무예가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춘 청나라 말기 지방 종교와 무예 수련과의 관계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 논문의 증가는 청조 말기에 (그 자체로 폭력적인) 무예 수련과 (경우에 따라 유혈의 호전적인) 종교 의례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과학적 연구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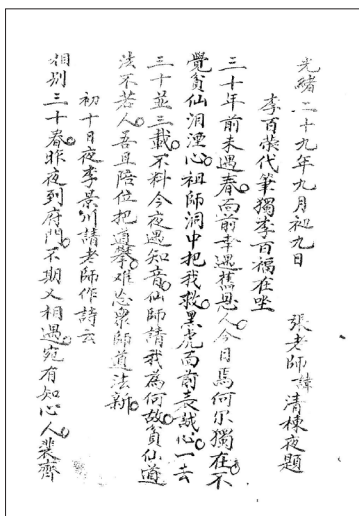
허난성 필사본과 저자

앞서 언급한 주제를 다룰 때, 학자들은 중요한 방법론적인 문제에 종종 직면하게 되는데, 바로 신뢰할 수 있는 문헌 자료의 부재다. 맨손 무예 기술은 문맹 인구가 많은 계층에서 발전했고 중국 지식층에게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는 주제로 간주되었다. 근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최근에 발견된 필사본은 중국 북부 농촌 지역의 무예와 지방 종교 사이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새로운 실마리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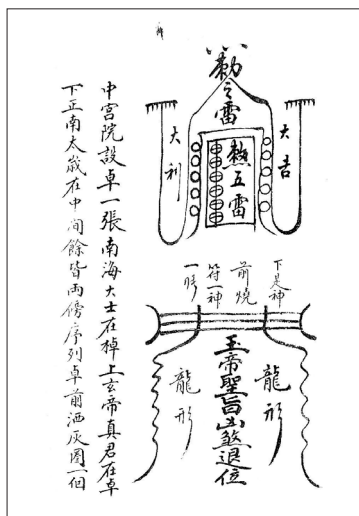
청나라(1644~1912) 말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필사본은 허난성의 불교 무예의 중심지로 유명한 소림사를 둘러싼 마을들 가운데 한 곳에서 발견되었다. 예비 단계의 내용 분석에 따르면, 발견된 필사본은 더는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무예 백과 교본의 일부분으로 보인다. 문서 곳곳에서 언급된 참고 문헌에 미루어 책의 제목은 『문파 연합의 맨손 무예 기술: 권법 교본』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필사본의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 없지만 남아 있는 부분은 1855년에서 1907년까지를 다룬다.

허난성 필사본에서는 교본의 목차와 일련의 서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교본은 다양한 무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널리 알려지고 수련되었고 현재도 행해지고 있다. 책에는 권법과 무기 기술에 대한 그림은 물론 해부도와 침술도를 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운문과 시를 비롯해 기氣 에너지, 음양과 오행과 같은 전통적인 철학 범주에 대한 이론적 담론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운 문헌 자료로서 허난성 필사본은 청조 말기 중국 북부지방의 무예 훈련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제시한다.

이 필사본은 중국 마을의 무예와 종교 의례와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중국 무예는 고유한 문화적 틀 속에서 민간



허난성 필사본 표지 ©소림사 기록보관소



필사본에 첨부된 부적 4개 중 2개 ©소림사 기록보관소

제례 활동과 끊임없는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사실은 필사본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내용의 시작 부분에 보호 주술과 더불어 신과의 합일 상태에서 글을 쓰는 행위에 대한 설명, 주문, 폭력적인 퇴마 의식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주술은 19세기 후기 봉기에서 의화단을 불사신으로 만들어주는 의례에서도 확인된다. 게다가 필사본 전체에서 언급되는 중요한 무예 사부이자 주인공은 심령 글쓰기 교령회의 주요 참여자, 아마도 영매로 역할을 한다. 이 하나의 현상만으로도 대중 신앙과 전통무예 사이에 또 다른 유형의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필사본 전체는 허난성 공이현 샤오샹 마을의 토박이 리징환(1835~?)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내용을 통해 리징환은 세 명의 대가로부터 맨손 무예 가르침을 받은 숙련된 무예가였으며, 그의 스승 중 두 명은 지역 문파 황련 자오(노란 연꽃파)의 일원이었다. 리징환은 말년에 무예 관련 고문서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상당히 방대한 『권법 교본』



리징촨이 훈련에 사용한 리프트용 석재 ©길리 코진-윌메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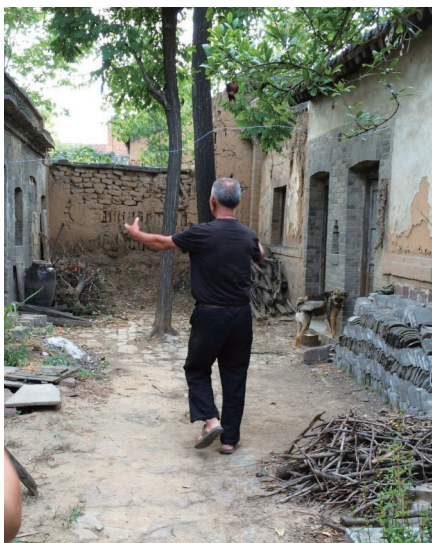


리징촨 저택 앞에 있는 직계 후손 2명 ©길리 코진-윌메르

을 편찬하기에 이른다.

2016년 여름과 가을에 필사본에 언급된 인물의 후손을 찾아보고 지역의 무예 전통과 종교 생활을 연구하기 위해 허난성 농촌 지역을 몇 차례 방문했다. 샤오샹 마을의 주요 정보 제공자는 리 선생으로, 『리 가계 족보』(2009) 편찬위원회 부회장이자 운 좡계도 리징촨의 직계 후손이었다. 리 선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리씨 가문은 오래된 가문의 건물을 복원하고 가문의 역사를 공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리징촨의 이름을 오늘날 마을 주민에게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리 선생은 족보에서 14대 구성원들 가운데 리징촨을 쉽게 찾았고 그가 한때 살았던 집으로 안내해주었다. 나에게 보여준 다양한 가족 유물 가운데, 리징촨의 훈련용 도구로 유일하게 현존하는 물건은 그가 체력과 근력을 키우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리프트용 50kg 석재였다.

여러 정보 제공자들에 따르면 부유했던 리씨 가문의 수장들은 명나라



리정찬 훈련장의 흔적 ©길리 코진-월메르

말기에서 청조에 이르기까지 지역 자선 활동으로 명성을 이어갔고 전통적인 유교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리씨 가문의 한 나이 많은 어르신은 부모로부터 청나라 말기와 중화민국 시절 리씨 가문은 마을 아이들을 위해 지역 학교와 무예 훈련을 위한 수련장을 운영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후손들의 설명에 따르면 리정찬은 “어린 시절 유교 경전을 공부했지만 실용성이 없는 무의미한 글쓰기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하니 그의 공부에 깊지는 않았을 것이다.

무예 의식과 무예

맨손 무예 교본으로 종교적인 기록과 무예 내용이 결합되는 단 하나의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허난성 필사본이 유일하다. 필사본에는 허난성 북동부의 한 마을에서 1903년과 1904년에 열린 세 번의 심령 글쓰기 교령회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송나라 시대(960~1279)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심령 글쓰기의 관습은 중국 민간 종교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민간에서 점괘를 보는 의식에서 시작되었는데 점차 문인 사회에서도 인기를 얻게 되었다. 교령회에서는 신성한 존재(신, 불, 열, 신격화된 민족 영웅 등)의 혼령이 영매와 접촉해 치료나 예언, 도덕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 이야기하거나 글을 쓴다고 믿는다. 게다가 교령회에는 모래나 밀가루로 덮인 표면에 영매가 남긴 글자를 읽는 사람과 드러난 문자를 종이에 기록하는 필경사가 필요하다(Jordan & Overmyer, 1986).

필사본의 내용에 따르면 리징완은 심령 글쓰기 교령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어쩌면 영매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교령회 과정마다 대개 문인 관료 계층에서 최하위 관직에 있던 인물이었던 교령회 참석자들은 고인이 된 리징완의 무예 스승 장칭동의 혼령을 불러냈다. 다음은 교령회 동안 ‘불멸의 스승 장 선생에게 받치는 주문’으로 허난성 필사본에 수록된 주문 중 하나다.

사대 천성장군, 팔대 금강역사, 오대 성령, 십삼태보, 강철 같은 몸을 가진 리춘샤오가 모두 나를 보호하사 혼령이 몸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주소서. 가장 위대한 신 라오를 대신해 율법에 따라 나의 명령을 즉시 수행하도록 하소서!

주문에서 언급된 신령 대부분은 전사의 신이나 신격화된 민간 무예 영웅들이다. 사대 천성장군은 네 명의 주요 천둥의 신, 오대 성령은 아마 오방신에 해당할 것이다. 두 집단은 영적 군대의 지휘관으로 승배되고 보호 의례에 소환된다(Meulenbeld, 2015). 금강역사는 불교에서 무예의 신으로, 몽둥이 바즈라를 든 무서운 얼굴의 힘이 센 전사로 그려진다. 금강역사는 절의 입구 양쪽에 혼자 또는 2명이 짝을 이뤄 서 있다. 소림사에서는 금강역사를 육체적인 힘을 주는 존재로 숭배되었다(Shahar, 2008). 십삼태보는 영웅적인 13명의 수호신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리커용 장군의 양아들로 그를 섬기던 13명의 용맹한 전사들이었다. 리커용 장군(856~908)은 당나라 말기(618~907)에 북부 산시성을 통치한 군벌이었으며 후당의 장종 황제(923~937)의 아버지다.

리춘샤오(활약기 894)는 리커용의 양자인 십삼태보 가운데 하나였다. 리커용의 다른 양아들과의 음모와 반목으로 인해 리춘샤오는 아버지의 적군에 가담했지만 아버지 리커용에게 패하고 감옥에 갇혀 반군으로 처형된다. 공공연하게 효와 충의 기본적인 덕목을 어긴 인물이 민간 영웅이

되어 유교 지식인들 사이에서 신으로 회자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확실히 무예를 수련하는 이들에게 리춘샤오의 무예 기량과 무자비한 전사라는 명성이 매력적으로 비취진다. 포위 공격 중에 그의 도전적인 태도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준다.

특별히 선출한 기마병 오백을 이끌고 그곳에 도착한 리춘샤오는 비안 진지를 에워싸고 크게 외쳤다. “우리도 좀 다쳐보고 싶다. 너희 통통한 병사의 살을 먹을 것이니 가장 뚱뚱한 병사들이 나와 싸우도록 명해라.” (Sima [1084] 2001)

이런 허세는 적을 위협해 굴복시키려는 의도만은 아니었다. 메이크 샤하르 Meir Shahar가 보여주었듯이 중국 초기에는 정치적 폭력의 한 승인된 형태로 식인 풍습이 실제로 행해졌으며, 주나라 병사들은 패배한 적군을 잘라 먹었다. 상대적으로 최근인 문화 대혁명을 비롯해 중국 역사를 통틀어 적군을 먹는 식인 풍습은 굴복한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동시에 승리를 공고히 하고 병사들 사이에 형제애같은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Shahar, 2015).

리춘샤오의 ‘강철 같은 몸’이라는 묘사도 의미심장한데, 그 이유는 철포삼 Iron-Cloth Shirt으로 알려진 상처를 입힐 수 없는 기술의 일부와 그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일 수 있다. 청나라 말기 무예 수련에 포함된 이 기술은 일반적으로 ‘단단한 기 수련(기공)’으로 현대적인 맨손 무예 문파에서는 널리 수행되고 있다. 그 방법으로는 강도가 각기 다른 도구(목재 막대, 벽돌, 금속 막대)를 사용해 몸을 타격하는 행위로 점차 그 강도를 높여가며, 이때 호흡 훈련이 함께 이루어진다. 전통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 특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겨졌다.

청나라 말기에 철포삼 수련법은 의화단을 비롯해 여러 반군 세력의 일원들이 연마했다. 이들 문파들은 초자연적인 힘에 도움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철폐삼 기술을 강화시켰다. 부적이나 주술과 같은 방법을 통해 무예의 신과 신격화된 민간 영웅의 혼령을 불러내고 이들 혼령이 내려와서 사람의 몸을 지배하면 겁이나 창, 심지어 총알도 관통할 수 없게 한다고 믿었다. 그 결과 짧은 훈련, 심지어 입단 의식을 치르고 2~3일이면 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경우 단단하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몸을 찌르는 행위는 신체를 강화하는 훈련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헌신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대가 되었다(Esherick, 1987).

허난성 필사본의 내용은 리징환을 뛰어난 무예가이자 인내심 많은 사부로 칭송한다. 책에서 언급한 26가지 권법은 리징환의 폭넓고 전문적인 무예 기술을 잘 보여주며, 동시에 청나라 말기 중국 북부 농촌 지역에서 수련되었던 무예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다. 필사본에 따른 기간의 한계를 고려하면 광서제 제위(1875~1908) 기간에 권법이 눈에 띄게 확산되었다는 언급이 있다. 이 글에서는 형식상 제약으로 인해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권법만을 언급하기로 한다.

푸즈 취안(부자권)

오늘날 메이화 취안(매화권)으로 알려진 이 기술은 중국 북부의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널리 행해지고 있다. ‘매화’라는 이름은 이 기술의 주요 특성을 언급하는데, 중심점에서 다섯 방향으로 뻗어나가며 펼치는 훈련 방식 때문이다. 꽃과 같은 발놀림의 궤적과 매화의 다섯 꽃잎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 기본자세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아버지와 아들을 뜻하는 수식어 푸즈와 관련한 매화권 설화에 따르면



매화권 문파의 오래된 사당에 있는 제단 모습 ©길리 코진-월메르



매화권 문파의 새로운 사당에 있는 제단 ©길리 코잔-월 메르

부계 혈통으로만 전수되는 맨손 무예의 계승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고 한다. 양빙 Yang Bing(1672 출생)이 저술한 현존하는 교본 매뉴얼 『무예 수련 입문』(1742)에 따르면 매화권은 17세기 초 허난성에서 수련되었다. 19세기 무렵 매화권은 청나라 공식 문서에 맨손 무예의 문파이자 독자적인 교리와 뚜렷한 영적 수행법을 가진 종파로 등장한다. 메이화 취안 자오(매화권 문파)로 불리는 문파에 소속된 일부는 무예에 종사한 반면, 다른 이들은 향을 태우는 의식을 전문으로 하는 치료사와 의례 사부로 활동했다(Zhou, 2015). 2016년 허베

이성 광증현의 농촌 지역 현장 답사에서 매화권 문파의 사당에서 열리는 의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사당은 매화권 문파의 사부가 거주하는 사택의 작고 어두운 방이었다. 고풍스러운 제단 위에는 매화권 문파의 장문 이름이 적힌 위패가 일렬로 세워져 있고 그 앞에 향로가 여러 개 놓여 있었다. 향로에는 재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데 의례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부러 그대로 두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의례 사부와 나란히 나이 든 노인이 의례에 참석했는데 향에 불을 붙이고 두 사람이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기도문을 읊는 것으로 의례는 다소 간단하게 치러졌다.

의례가 끝난 후 상징적으로 주머니에서 약간의 현금을 기부금으로 꺼 내놓자 그 노인은 나에게 자선은 필요 없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내가 원한다면 관대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가족을 위한 힐링 의식을 기꺼이 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얼랑 단산 취안(이랑단산권)

필사본에서 언급한 다음 권법의 이름은 얼랑 단산 취안(이랑단산권)으로 '이랑 이 산을 메고 옮기며 태양을 뒤쫓다'는 유명한 설화에서 유래되었다. 설화는 멜대로 산을 메고 옮기는 이랑이라는 신이 지구를 태우는 불필요한 태양들을 어떻게 뒤쫓았는지 이야기한다. 태양들을 잡은 이랑은 산으로 눌러 태양을 진압한다. 이러한 위업을 이룬 인상적인 신화 속 이미지에 서 확실한 영감을 받은 무예 수련자들은 맨손 무예 기술을 설명하는데 그의 모습을 사용했다. 양손을 반대 방향으로 수평으로 뻗어서 하는 타격은 수련자의 모습에서 힘이 센 영웅 이랑의 부러지지 않는 멜대를 연상시켰다. 이런 연상 기능 이외에도 마음속으로 그리는 강력한 모습은 기술을 연마하는 데 심리적인 자신감을 더해 그 효능을 높일 수 있다. 탄트라불교 수행에서 사용하는 시각화 기술의 한 요소로 추측할 수 있다. 어쨌든 신과 자기 동일시는 퇴마 의식에서 귀신과 싸우기 위해 만든 도교 명상 기법의 일부였다. 이런 방법은 신이 외부에서 그 사람 위에 내려 앉아 인간 자아를 대신하고 육체를 지배하라는 의미로 개념상 신들림 의식과는 다르다.

의례와 무예의 정통성

허난성 필사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무예 교본에 기록된 심령 글쓰기 교령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시 교령회를 되짚어봐야 한다. 기량이 뛰어난 무예 사부이며 아마도 영매인 리징완이 지금은 불멸이 된 작고한 그의 스승 장칭동의 영혼을 '불러낸' 것으로 보인다. 교령회가 진행되는 동안 작고한 스승은 그의 제자 리징완의 요청에 따라 신체 보호를 위한 교리와 부적, 주술을 한정된 참석자들에게 계승한다. 첫 번째 교령회의 시작에서

불멸의 스승은 자신의 장문이자 사부를 불러내어 장문-불멸의 스승 장 칭둥-리징촨으로 이어지는 전승 혈통에 대한 허락을 구한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이러한 혈통은 리징촨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전승되는 가르침의 전통성에 대한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명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무예 교본에 수록된 덕분에 심령 글쓰기 교령회에서 받은 계시는 교육 용에서 불멸의 사부의 인정을 받은 일종의 중요한 신임장이 되었다. 리징촨의 수제자에게 남겨진 교본은 가르침을 전수하는 그의 권리를 영적으로 정당화하고 신성화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 심령 글쓰기에 관한 기록은 리징촨의 계승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로 기능을 한다. 게다가 이러한 기록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록된 '진정한 전승' 의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교령회 과정에서 훈령은 가치 있는 사안을 선택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속신앙과 맨손 무예의 결합

종교와 맨손 무예와의 결합은 청나라 말기 중국 무예에 나타난 독특한 특징이다. 중국의 전통적인 맨손 무예는 수련자들이 다양한 종교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하는 강력한 의식적 수단으로 여겨졌다. 최근에 발견된 문헌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토속신앙이 무예 수련과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맨손 무예 전통은 각 지역 공동체의 삶의 여러 제반 요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공동체의 의식, 철학 사상으로 다시 통합된다. 현존하는 문헌 자료와 근대의 문화기술지적 자료는 청나라 말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통무예와 중국의 토속 신앙이 서로 얹혀왔음을 보여준다.

- Boretz, Avron (2011). *Gods, Ghosts, and Gangsters: Ritual Violence, Martial Arts, and Masculinity on the Margins of Chinese Societ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De Groot, J. J. M. ([1910] 1964). *The Religious System of China*, vol. 4. Leiden: Brill.
- Esherick, Joseph W. (1987). *The Origins of the Boxer Upris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Jordan, David K., and Overmyer, Daniel L. (1986). *The Flying Phoenix: Aspects of Chinese Sectarianism in Taiw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atz, Paul R. (2005). *When Valleys Turned Blood Red: The Ta-pa-ni Incident in Colonial Taiwa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Meulenbeld, Mark R.E. (2015). *Demonic Warfare: Daoism, Territorial Networks, and the History of a Ming Novel*.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Naquin, Susan (1981). *Shantung Rebellion: The Wang Lun Uprising of 1774*.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Shahar, Meir (2008). *The Shaolin Monastery: History, Religion, and the Chinese Martial Art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hahar, Meir (2015). *Oedipal God: The Chinese Nezha and His Indian Origin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ima Guang 司馬光 ([1084] 2001). *Zizhitongjian* 資治通鑑 (Comprehensive Mirror to Aid in Government), 1084 edn. Reprint. Beijing: Xianzhuangshuju.
- Ter Haar, Barend J. (1998). *The Ritual and Mythology of the Chinese Triads: Creating an Identity*. Leiden: Brill.
- Zhou Weiliang 周偉良 (2015). "Meihua quan ruoganwenxianjianshu." 梅花拳若干文獻簡述 (A sketch on some documents of Plum Flower Fist). *Zhonghuawushu yanjiu* 中華武術研究 (*Chinese Martial Arts Research*), 4(12, December 2015), 12.

17

싱가포르의 말레이 무형유산
펜각실랏

모하멧 에펜디 Mohamed Effendy 박사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남아시아학과

싱가포르 내 말레이 무예를 찾다

펜각실랏Pencak Silat은 공동체 고유의 문화 표현이며, 사회의 유익을 위해 스승이 전승한 가치를 수련자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펜각실랏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수련되고 있다. 하지만 싱가포르 펜각실랏의 경우, 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싱가포르 국립문화유산위원회NHB가 후원하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남아시아학 모하멧 에펜디 박사가 진행한 프로젝트 '무형유산의 보존: 싱가포르 내 말레이 무예 계파의 역사와 문화, 기억의 기록'은 참으로 시의적절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싱가포르 내 말레이 무예 계파의 과거 행적과 문화 활동을 정리하고 기록하여 전통무예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것이었다.

마리돌 하니 빈 하심이 전투 시작 전에 단도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립문화유산위원회(NHB)



압둘 무이즈 빈 로슬란이 서서 마리돌 하니 빈 하심의 무기를 빼앗고 제압하고 있다 ©NHB



동시에 필자의 이 글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펜카실랏의 역사적 기원과 싱가포르 공동체가 어떤 방식으로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펜카실랏이 싱가포르 내 말레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성공에 기여한 점을 분석하고, 펜카실랏의 가치를 활용하여 향후 공동체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도 검토해본다.

싱가포르 펜카실랏 공동체의 역사적 기원

말레이 전통 설화에는 비범한 신체 능력과 마법의 힘을 지닌 인물이 자주 등장한다. ‘바당의 전설’에 나오는 어부 바당은 자신이 잡은 물고기를 훔쳐 먹던 악령의 토사물을 먹고 초인적인 힘을 얻게 된다(Winstedt, 1938). 또 다른 전설의 주인공인 항 나딤은 황새치의 공격에서 싱가포르를 구하기 위해 해변에 바나나나무로 요새를 쌓아 황새치를 무찔렀다(Winstedt, 1938). 또한 상 닐라 우타마라는 힘센 왕자가 수마트라 팔렘방에서 싱가포르로 건너왔다는 이야기가 여러 신화에 등장하는데, 그는 훗날 싱가포르(싱가포르) 왕조를 세운다(Winstedt, 1938).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싱가포르로 왔다는 이야기는 스탬퍼드 래플스 Stamford Raffles경이 싱가포르를 영국의 무역기지로 삼은 1819년까지 계속 등장한다(Skott, 2010). 그 뒤에도 술라웨시, 자바, 순다열도, 수마트라, 바웬섬, 말레이반도 등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싱가포르로 이주해온다(Chew, 2013). 그중 다수가 뛰어난 무예가인 폰드카르 pendekar(‘전사’란 뜻으로 펜카실랏 고수를 이르는 말)였다. 폰드카르는 ‘영리한’, ‘능력 있는’이란 의미의 ‘판다이 pandai’와 ‘정신’을 의미하는 ‘아칼 akal’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다(Wilson, 2015).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많은 폰드카르가 여러 지역에서 싱가포르로 모이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당시 ‘뛰어난 인물들이 싱가포르로 건너와 명성과 힘을 쌓고 많은 추종자를 얻었다는 역사적 사실과도

일치한다(Wolters, 1999). 이는 많은 싱가포르 펜카실랏 무예 계파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더욱 흥미롭게 만든다. 바당과 항 나뎀, 상 닐라 우타마와 같은 펜카실랏 고수는 싱가포르에 건너와 명성을 얻은 후, 강력한 문화적 존재감을 쌓고 많은 추종자를 모았다.

프드카르들은 싱가포르에 정착하여 공동체와 마을을 형성하고 많은 제자에게 펜카실랏을 가르쳤다. 이 마을들에서 싱가포르 최초의 펜카실랏 계파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오늘날 많은 펜카실랏 계파의 토대가 되었다. 캄퐁 페른힐(오늘날 오차드 로드 인근의 샹그릴라 호텔이 위치한 장소)과 같은 말레이 마을에서 바웬섬과 부기에서 유래한 실랏 무예를 수련하는 셀리기통갈 Seligi Tunggal 계파가 시작됐다(Berita Harian, 1963). 부킷 티마 마을에서는 순다 무예를 수련하는 마찬파스라 Macan Pasrah 계파를 볼 수 있다(Berita Harian, 1988). 20세기 초반부터 파시르 판장의 여러 마을에 많은 부기실랏 스승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2018년 8월 스승 안디 모하맛 파이살 빈 노르딘의 인터뷰).

많은 계파가 펜카실랏을 수련하며 고유의 문화적 뿌리를 느끼고 창시자의 가치를 구현한다. 예를 들어, 아만차투마섹 Amanca Tumasek 계파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보네 지방에서 시작된 부기실랏 Bugis silat을 수련한다. 부기실랏은 19세기에 라 싱케루 루카 카라엥 압둘라라는 부기인이 최초로 싱가포르에 전해주었다. 그가 바로 위대한 스승 안디 모하맛 파이살 빈 노르딘의 조상이다. 현재까지 그의 후손들이 싱가포르에서 부기실랏을 가르치고 있다. 부기실랏 계파의 최고 지도자인 안디 파이살 스승은 싱가포르에 사는 부기족 후손이 대부분인 자신의 학생들이 수련을 통해 창시자를 비롯한 부기족의 유산과 문화를 다시 느끼고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아만차투마섹 계파의 수련생들은 용감하고 대담한 술레와탕(부기 말로 ‘왕의 섭정’이라는 뜻)이었던 창시자처럼 싸우라고 지도받는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시자가 보여준 겸양, 정직, 용맹과 같은 덕목을 삶 속에



압둘 무이즈 빈 로슬란이 바닥에서 마리둘 하니 빈 하심의 단도 공격을 피하며 그의 목을 발로 차 제압하고 있다 ©NHB



압둘 무이즈 빈 로슬란이 전투 시작 전에 단도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NHB

서 실천하는 것이다. 2019년 기준, 부기실랏 학교의 등록 학생은 총 77명이었다(2019년 8월 스승 안디 파이살 인터뷰). 스승 안디 파이살은 술레와탕의 역사적 역할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싱가포르 역사에서 술레와탕은 매우 특별한 존재였다. 국민의 수호자로서 술레와탕은 전투력과 지략, 상황 판단력을 갖춰야 했다. 심지어 그들은 술라웨시 내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이었다. 관련 연구가 더 진행되어 싱가포르의 부기인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싱가포르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안디 파이살 스승이 술레와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사료와 일치한다. 1826년 6월 17일자 영국 보고서에 영국 선박의 선원들이 중국 남성을 만난 사건이 언급된다. 중국 남자는 형이 살해당한 뒤, 선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중국인이 왜 선원들에게 접근했는지, 선원을 만나기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상황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 선원들은 그 남성에게 싱가포르로 가서 영국 상주 주재관을 만나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자신이 싱가포르의 부기 족장의 부하와 동행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를 듣고 선원들은 싱가포르의 술레와탕이 조호르 지방의 부기족을 관장하는 권한도 갖는 것으로 짐작했다고 한다(Moor, 1837).

위 이야기는 술레와탕이 19세기 초 싱가포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술레와탕이 그 지방의 사법체제에서 주요 권한을 가진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다. 영국 선원들이 만난 중국 남성은 형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술레와탕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을 것이다. 술레와탕은 술라웨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존 크로퍼드에 따르면, 술레와탕은 부기왕이 원정이나 전쟁에 나설 때 왕의 총독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Crawford, 1820). 섭정이 그 정도의 신뢰를 받았다는 것은 당시 술레와탕의 강력한 지위를 암시한다. 그러므로 스승 안디 파이살이 술레와탕을 제자들이 따를 본보기로 삼은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부기인 외에도 인도네시아 바웬섬 출신 사람들이 19세기에 싱가포르로 건너와 공동체를 이뤘다. 싱가포르의 바웬실랏 Baweanese silat 계파들은 자신들의 기원이 셸리기통갈 형식을 가르치던 캄퐁 페른힐이라고 말한다. 반당안 아슬리(말레이어로 '원조 춤')의 위대한 스승 무하맛 이르완 빈 무하맛 아르섹에 따르면, 1920년대 초반에 보네 출신 부기인 다앵 오마르 다앵 아맛 Daeng Omar Daeng Ahmad이 최초로 셸리기 형식을 싱가포르에 전수했다고 한다. 1930년대 후반에 그의 제자였던 이피 빈 수후르 Ifi bin Suhoor가 싱가포르에 오기 전에 바웬섬에서 바웬실랏을 배운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과 능력 덕분에 그는 다앵오마르 Daeng Omar 펜각실랏의 창시자가 되었다. 탁월한 실력 덕분에 그는 순식간에 명성을 얻었고 1940년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제자가 그를 따른다. 전후 몇 년간, 싱가포르 사회는 매우 불안정하여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다. 영국 군정이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소요와 폭력 사태도 발생했다(Ng, 2012). 이로 인해 펜각실랏 같은

무예가 호신술로 큰 인기를 끌었다. 당시에는 셀리기 계열 펜칫실랏이 많은 지역에서 수련되었다(Berita Harian, 1985). 당시의 셀리기 형식이 진화하여 오늘날, 셀리기통갈 앙카탄 Seligi Tunggal Angkatan, 븐드랑페르사다 Benderang Persada, 셀리기통갈 싱가포르 Seligi Tunggal Singapura, 펜칫바웬 드운 Pencak Bawean Dheun, 반당안자티 Bandangan Jati와 같은 많은 바웬실랏 계파가 생겨났다.

부기실랏과 마찬가지로 펜칫실랏의 바웬식 수련도 많은 계파가 자신의 역사·문화적 뿌리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창시자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펜칫바웬 드운 계파이다. 이들은 실랏을 수련하며 바웬의 역사와 문화적 뿌리를 체험한다. 바웬 언어가 사용되고, 더욱 중요하게는 ‘바웬 사람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펜칫바웬 드운의 위대한 스승 압둘라 바리 빈 마클리는 바웬실랏 수련자라면 바웬의 방식과 문화, 관습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말레이시아 조호르주와 바웬섬에서 활동하는 폰드카르 고수들과 그들의 학생들, 그의 학생들을 한데 모아 합동 수련회를 개최한다. 수련회는 매우 강렬한 경험으로 참가자들은 바웬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 또한 바웬실랏의 정수도 이해하게 된다. 빈 마클리는 바웬실랏의 가장 큰 특징이 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적을 응시하지 않고 먼저 공격하지도 않는다. 바웬실랏의 움직임은 머리에서 눈, 다리, 손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보는 사람은 우리가 춤을 추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속고 있다.”(2018년 압둘라 바리 빈 마클리 인터뷰).

셀리기통갈 앙카탄, 븐드랑페르사다, 셀리기통갈 싱가포르 등 셀리기 계열 실랏을 가르치는 스승들도 창시자가 제자를 훈련하던 방식을 따르고 그 가치를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자 양성 과정에서 이러한 노력이 두드러진다. 사범들은 규율, 용기, 끈기를 강조하는데, 이는 다엥 오마르 다엥 아맛과 이피 빈 수후르가 싱가포르에서 최초로

실랏을 가르치며 실천했던 원칙이다.

역사·문화적 뿌리를 느끼고 창시자의 가치를 실천하는데 음악을 매개로 이용한 계파도 있다. 순다펜각실랏 중 하나인 순다파자자란 Sunda Pajajaran 계파가 그 예이다. 1950년대에 렉 목티 Lek Mokti가 창립한 이 계파는 순다의 가믈란 연주를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적 뿌리를 경험하는 매개체로 이용한다(Straits Times, 1987). 이 계파의 많은 스승이 순다 문화가 실랏 수련과 공연을 통해 보존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렉 목티는 순다파자자란 실랏이 언제나 가믈란(자이퐁안)과 함께 공연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왜 그런지 이유를 묻자, 그의 아들 목신 빈 목티가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우리는 음악과 하나로 움직인다. 실랏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순다 문화 전체를 보여준다. 실랏은 거대한 순다 문화의 일부일 뿐이다.”

펜각실랏이 싱가포르 말레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성공에 기여하다

여기에서는 실랏 계파가 저소득층, 높은 이혼율, 약물 남용 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성공에 기여했는지 분석해볼 것이다(AMP, 2012).

불안정한 가족관계의 해결

시룸푼파디 Si Rumpun Padi 계파의 위대한 스승 우스타즈 바룰 울룸은 펜각실랏 수련을 통해 어린 학생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중요한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고 말한다. 학생은 또한 윤리와 도덕, 기본적인 이슬람 기도법과 목욕재계법까지 교육받는다. 또한, 부모도 학생의 수련에 참여할 수 있다.

수련이 끝나기 전에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윤리 강의와 기도법을 짧게 가르친다. 부모는 이 모습을 보고 매우 흐뭇해하는데, 자녀가 좋은 실랏 훈련뿐 아니라 종교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련에 직접 참여하는 부모도 있다. 나는 2시간 동안 밖에서 기다리는 대신 부모도 함께 수련하자고 자주 말하는 편이다. 우리 학교는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 열려 있다 (2019년 우스타즈 바를 올룸 인터뷰).

시름폰파디 계파는 불안정한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공동 훈련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존중, 협력, 신앙의 중요성 등 공동체의 본질적인 가치를 배우고, 그 과정에서 가족 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약물 남용 문제의 해결

다른 실랏 계파들도 말레이 공동체의 약물 문제 등 여러 사회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1989년에 설립되어 현재 스승 압둘 라시드 빈 무슬림이 이끄는 실랏붕아(Silat Bunga) 계파가 그 예이다. 빈 무슬림은 싱가포르 마약 재활 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데, 현



무하맛 자이피레안 빈 자이누딘(오른쪽)이 압둘 무이즈 빈 로슬란(왼쪽)의 크리스 검을 이빨로 물어 상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NHB

재 그의 학생 중 대다수가 과거엔 약물 중독자였다고 한다. 실랏을 이용해 약물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고 학생들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훈련이 본격화되면 많은 학생이 책임감을 기르고 약물을 멀리하게 된다. 또한, 신체·정서적으로 건강해져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

마찬파스라 계파와 그 창시자 합자 카심 Hamzah Kassim, 또는 팍 암자 Pak Amjah도 증독자 재활에 힘을 쏟고 있다. 1970년대에 팍 암자는 공동체를 돌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랏 지식을 이용해 약물 증독자와 조직 폭력 배였던 자들의 재활을 도왔다.

문화 유실에 대한 대응과 자긍심의 회복

싱가포르 사회는 196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급속히 도시화되었다. 이 시기에 일부 펜각실랏 계파들이 말레이 문화, 특히 말레이 무예의 연행에 집중했다. 대표적인 예가 실랏세니가용파삭 Silat Seni Gayong Pasak 계파이다. 창시자 하지 후사인 카슬란 Haji Hussain Kaslan은 어린 학생들이 방사완 Bangsawan과 산디와라 Sandiwara와 같은 전통 말레이 공연을 통해 고대 펜각실랏 고수 폰드카르가 실천했던 용기와 충성심 등 전통적 가치관을 배우고 전통문화를 체험하길 원했다. 펜각실랏을 이용하여 전통문화 유실을 막고자 했던 그들의 노력을 생각해보면, 1960년대와 70년대에

싱가포르 국경일에 공연 중인 실랏세니가용파삭 계파 ©NHB



싱가포르 국경일 퍼레이드에서 말레이 전통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공연팀으로 그들을 선택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정으로 보인다(Straits Times, 1971). 이후, 실랏세니가용파삭 계파는 국내의 청중 앞에서 공연하며 명성을 얻었고,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휴일에 공연하는 대표적인 펜각실랏 계파로 부상했다.

펜각실랏의 가치가 공동체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사회적 가치 증진

펜각실랏은 싱가포르 말레이족의 무형유산으로 그 역사와 문화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펜각실랏은 문화적으로 다양성이 매우 높다.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토착 문화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독특한 문화유산인 펜각실랏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싱가포르 펜각실랏 계파들은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고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그들의 노력을 보완하고 지원해야 한다.

많은 펜각실랏 계파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해온 풍부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킴방왈리 Kembang Wali 계파의 위대한 스승 라잘리 Razali는 아버지가 생전에 자바 중부 형식의 실랏을 가르치며 진정한 펜각실랏 수련자의 조건에 대해 한 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진정한 수련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을 먼저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남을 도울 때 우리의 정신력이 강해진다. 진정한 펜각실랏 수련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선한 사람이 되어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그가 전수받은 가문의 정신을 살펴보면 그의 선조들, 특히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융맹했는지 알 수 있다. 증조할아버지는 자바 섬에서 네덜란드인에 대해 싸웠고, 할아버지는 왓튼 에스테이트 Watten Estate에서 일본군과 싸웠다. 라잘리 빈 하산은 펜각실랏 수련이 문화뿐

아니라 후손들이 본받아야 할 가치들, 특히 용맹성과 같은 성품을 전승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치들이 공동체에 내면화되면 공동체 전체의 사회·경제·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 공동체는 더욱 많은 사업가와 지식인, 지도자를 배출할 것이고, 그들이 공동체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둔 기업가, 의사, 투자 전문가 중 많은 이들이 펜각실랏 수련자들이다. 그중 한 예가 싱가포르 실랏연합 대표 셰익 알라우딘 야츨 마리찬이다. 그는 싱가포르 종합격투기연합도 설립했다(Channel News Asia, 2013). 열다섯 살 때부터 펜각실랏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른 예로는 의학박사 사이폴 니잠 빈 수바리가 있다. 실랏세니가용 파삭 싱가포르 연합 Silat Seni Gayong PASAK Singapura의 회장을 역임한 그는 열일곱 살 때부터 펜각실랏을 수련했다(Kuchit, 2014). 또한, 수말레키 암자는 싱가포르 실랏 계파 여섯 개를 통솔하는 마찬연합 Macan Association의 의장이자 세계적인 식품기업의 사업개발부를 이끌고 있다. 그는 마찬 파스라 펜각실랏의 창시자 합자 카심(딱 암자)의 아들로 열 살부터 아버지한테 실랏을 배웠다.

큰 성공을 거둔 위 인물들은 펜각실랏 최고의 가치관이 내면화되면 말레이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들의 끈기와 집념, 규율은 평생 받은 폰드카르 훈련의 자연스러운 산물이자 결과이다.

문화 발전 증진

싱가포르의 말레이 공동체는 또한 펜각실랏을 이용하여 말레이 문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실랏 계파의 기원을 추적하여 각 형식이 어떻게 싱가포르에 유입됐는지, 이후 언제, 어떻게, 왜 다른 모습으로 진화했는지 종합적으로 설명하려면 실랏 계파들의 자발적 연구가 필요하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남아시아학 명예교수 존 노르만 믹싯 박사는 실랏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

므로 말레이-인도네시아 문화권에 존재하는 다양한 실랏 계파를 비교하여 연구하고 그 기원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연구라고 믿는다. 다양한 자세를 연구하고 그 기원을 추적 조사하며 해당 형식이 어떻게 그리고 왜 동남아시아에 퍼지게 됐는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2018년 믹싯 박사 인터뷰).

종합격투기와 격투무예

이 글에서는 펜각실랏과 그 역사적 기원이 싱가포르 공동체와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펜각실랏이 오늘날 싱가포르 말레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성공에 기여한 바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펜각실랏의 정신이 향후 공동체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검토해보았다. 19세기와 20세기 싱가포르와 술라웨시 사이의 역사적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수록 많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늘날 펜각실랏이 싱가포르와 다른 지역의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에는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남아 전통무예 펜각실랏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존 Wick」, 「레이드 The Raid」, 「레이드 2 The Raid 2」와 같은 무술영화의 흥행과 종합격투기의 인기 덕분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무예 사범들이 펜각실랏 무예 형식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시켰다. 종합격투기는 조르기과 그라운드를 허용하고, 서브미션을 받아내는 것을 강조한다. 종합격투기를 고대 격투무예를 부활시키는 기회로 보는 펜각실랏 사범들은 이를 매우 반가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향후 흥미로운 펜각실랏 연구의 기반이 될 것이다.

- AMP(Association of Muslim Professionals) (2012). *The Next Decade: Strengthening Our Community's Architecture: 3rd National Convention of Singapore Muslim Professionals*. Singapore: Association of Muslim Professionals. Available at www.amp.org.sg/wp-content/uploads/2017/06/7-Section-4_Social.pdf (accessed June 2, 2020).
- Berita Harian* (1963). "Angkatan seni silat di-Singapura." *Berita Harian*, October 14. Available at <http://eresources.nlb.gov.sg/newspapers/Digitised/Article/beritaharian19631014-1.2.75> (accessed June 2, 2020).
- Berita Harian* (1985). "'Seligi Tunggal' bergerak semula." *Berita Harian*, December 10. Available at <https://eresources.nlb.gov.sg/newspapers/Digitised/Article/beritaharian19851210-1.2.17> (accessed June 2, 2020).
- Berita Harian* (1988). "Bahasa Arab." *Berita Harian*, December 8. Available at <http://eresources.nlb.gov.sg/newspapers/Digitised/Article/beritaharian19881208-1.2.13.1.3>.
- Channel News Asia (2013). "Silat veteran sets up MMA association in Singapore." Channel News Asia, November 14. Available at www.channelnewsasia.com/news/sport/silat-veteran-sets-up-mma/885508.html (accessed June 2, 2020).
- Crawford, J. (1820). *History of the Indian Archipelago: Containing an Account of the Manners, Arts, Languages, Religions, Institutions, and Commerce of Its Inhabitants*, vol. 3. London: A. Constable and Company.
- Ghim-Lian Chew, Phyllis (2013). *A Sociolinguistic History of Early Identities in Singapore: From Colonialism to Nationalism*. Basingstoke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Hussain [Hussein] Kaslan (2001). [Interview recording, MP3] Sports Personalities of Singapore, Accession Number 002551, Reel No. 7, August 21. Available at www.nas.gov.sg/archivesonline/oral_history_interviews/record-details/8f780514-115e-11e3-83d5-0050568939ad.
- Kuchit, Adli Yashir (2014). "Doktor, guru silat turun gelanggang curah bakti." *Berita Harian*, April 12. Available at www.beritaharian.sg/setempat/doktor-guru-silat-turun-gelanggang-curah-bakti (accessed June 2, 2020).
- Moor, J. H. (1837). *Notices of the Indian Archipelago, and Adjacent Countries: Being a Collection of Papers Relating to Borneo, Celebes, Bali, Java, Sumatra, Nias, the Philippine Islands, Sulus, Siam, Cochinchina, Malayan Peninsula,*

- Etc.* Singapore: n.p.
- Ng, K. (2012). "Reappraising the aftermath of war: the problems of the British Military Administration and Singapore's place in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of empire, 1945–1946." In N. Tarling (ed.), *Studying Singapore's Past: C. M. Turnbull and the History of Modern Singapore*, pp. 146–170. Singapore: NUS Press.
- Rahim, Aidi Abdul (2016). "The Nusantara ethnic communities of Singapore—Javanese, Baweanese, Minangs and Banjarese." In Zainal Abidin Rasheed and Norshahril Saat (eds), *Majulah! 50 Years of Malay/Muslim Community in Singapore*, pp. 519–525. Singapore: World Scientific.
- Skott, C. (2010). "Imagined centrality: Sir Stamford Raffles and the birth of modern Singapore." In K. Delaye (author), K. Hack and J. Margolin (eds), *Singapore from Temasek to the 21st Century: Reinventing the Global City*, pp. 155–184. Singapore: NUS Press.
- Straits Times* (1971). "Mass silat gayong show on N-Day." *Straits Times*, July 19. Available at <https://eresources.nlb.gov.sg/newspapers/Digitised/Article/straitstimes19710719-1.2.108> (accessed June 2, 2020).
- Straits Times* (1987). "Efforts to popularize Sundanese Pencak." *Straits Times*, May 27. Available at <http://eresources.nlb.gov.sg/newspapers/Digitised/Page/straitstimes19870527-1.1.37> (accessed June 2, 2020).
- Vredenburg, Jacob (1964). "Bawean migrations: Some preliminary notes." *Bijdragen tot de Taal-, Land- en Volkenkunde*, 120(1), 109–139.
- Wilson, Lee (2015). *Martial Arts and the Body Politic in Indonesia*. Leiden: Brill.
- Winstedt, R. (1938). "The Malay Annals of Sejarah Melayu." *Journal of the Malay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16(3) (132), 1–226.
- Wolters, O. W. (1999). *History, Culture and Region in Southeast Asian Perspective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8

태권도에
평화 연구 패러다임을

존 A. 존슨 John A. Johnson 박사

한국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

무예와 격투스포츠로서의 태권도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무예가 되어 올림픽 격투스포츠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은 흥미진진한 만큼 복잡하다. 이 과정에 많은 사람이 개입되어 있지만 두 개의 태권도 운영조직과 이들의 국제 관계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조직 중 하나는 대한민국 육군 장군이 이끈 국제태권도연맹^{ITF}이다. 그는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열렬히 투쟁했던 인물이며 자신이 이름 붙인 무예인 태권도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할 수 있기를 바랐다. 또 다른 조직은 현재 세계태권도연맹^{WT}으로 알려진 단체이며 태권도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올림픽 종목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두 조직은 서로 다른 교수법과 철학을 가지고, 수련생들은 소속 연맹



2015년 뉴멕시코 라스크루시스에서 열린 제1회 국제태권도 학술회의(ICT)에 참석한 론 드지웬카 박사(오른쪽)와 존 A. 존슨 박사(왼쪽). 드지웬카 박사와 존슨 박사는 각각 국제태권도 학술회의의 회장과 부회장이다. ©제이슨 로페즈

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태권도를 수련했다. 현재 우리는 이 두 개의 주요 태권도 스타일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두 연맹의 지도자들은 수많은 이유로 서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수십 년 동안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러나 두 연맹 모두 태권도를 비참했던 일본 점령기와 잔인한 내전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족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Johnson, 2018). 두 집단

모두 태권도를 사랑했지만 수십 년 동안 서로 논쟁하고 다투었다. 이제 태권도의 옛 수호자로 여겨지는 두 연맹은 한국의 국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반대편에 있는 신세대 지도자들에게 태권도의 미래를 물려주었다.

이 글에서는 평화 연구 관점에서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갈등을 새롭게 개념화한다. 다학제적, 질적 연구를 위해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스타일에 대해 광범위한 문헌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학문적, 일반적 관점 모두를 고려했다. 또한, 평화 연구 학문 분야의 문헌을 검토하고 미국평화 연구소 USIP의 ‘갈등 주기 Cycle of Conflict, USIP, n.d.’를 활용하여 두 연맹의 갈등을 재구성했다. 최근까지 태권도의 역사는 세계태권도연맹

학자들에 의해 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국제태권도연맹이 무예와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를 세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미친 영향과 해당 연맹 지도자들의 기여는 무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갈등은 역사적 관점에서만 조명되었으며(Moenig, 2017),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태권도를 통한 외교 노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태권도 발달 과정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통해



2015년 뉴멕시코 라스크루시스 국제태권도학술회의 실기 세션의 론 드지웬카 박사 ©제이슨 로페즈



2015년 국제태권도학술회의 실기 세션에서 김제경 사범의 가르침. 김제경 사범은 1992년 태권도 헤비급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다. ©제이슨 로페즈



2015년 국제태권도학술회의 실기 세션에서 김병철 사범의 가르침. 김병철 사범은 1992년 태권도 페더급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다. ©제이슨 로페즈

갈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제공된다면 태권도를 통한 남북한 외교 노력의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이 서로 화해하고 남북한의 화합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 연구 체계가 적절한 선택일 수 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정의를 먼저 내리면 태권도는 로마자로 ‘taekwondo’로 표기되며 이는 무예와 격투스포츠

로서의 태권도, 즉 태권도 전체를 지칭한다. 국제태권도연맹이 지향하는 태권도 스타일은 ‘창현 태권도’라 하고, 세계태권도연맹 및 기타 대한민국 기반의 단체에서 지향하는 스포츠 스타일은 ‘국기 태권도’라 한다.

태권도를 관리하는 조직과 태권도 스타일

대한민국의 최흥희 소장(2성 장군)이 창현 태권도를 만들기 시작한 것은 1945년경이지만, 1955년에 태권도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야 일본에서 영감을 받은 무예 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Moenig & Kim, 2019). 그러나 캐프너(Capener, 2016)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따르면 태권도의 전신에 해당하는 일본 무예와 태권도가 구별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다. 이와는 별개로 최흥희 장군은 태권도를 한국의 명예를 높이고, 사병에게 실질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문화 외교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Choi, 2000).

최흥희 장군은 이후 1980년에 자신의 호를 따서 이름 붙인 창현 태권도를 북한에 소개한다. 이로 인해 최흥희 장군과 대한민국의 태권도



앞줄 왼쪽부터 윌리엄 하워드 사범(국제태권도연맹 세계 챔피언), 김제경 사범(세계태권도연맹), 김병철 사범(세계태권도연맹). 뒷줄 왼쪽부터 그렉 점프 합기도 명장과 무명의 여성. 2015년 국제태권도 학술회의 실기 세션에서 찍은 사진.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 사범 및 세계 챔피언들이 함께 태권도를 가르친 최초의 행사였다. ©제이슨 로페즈

관계자들의 갈등이 심화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에 소개된 태권도는 외교수단으로서 긍정적 역할을 했다(Johnson, 2018). 2002년 최흥희 장군이 사망한 후 국제태권도연맹은 분열되었고 2020년 기준으로 대략 20개의 창현 태권도 조직이 존재한다. 여기에서 논의된 국제태권도연맹은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두고 북한 시민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 단체가 모든 국제태권도연맹 조직과 실무자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창현 태권도가 북한에서 수련되는 스타일의 태권도라는 이유로 종종 ‘북한 태권도’로 불리지만 이는 잘못된 지칭이다. 국제태권도연맹은 최흥희 장군이 1966년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했다. 일제강점기(1910~1945)에 한국 역사와 문화의 근절을 막고 한국전쟁(1950~1953) 당시 사랑하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희망한 최흥희 장군은 자신의 무예에 한국 고유의 개념을 불어넣음으로써 일본과 중국에 뿌리를 둔 무예에서 벗어

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그는 쇼토칸(송도관) 가라테의 여러 기본 동작을 변형하여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동작을 만들고, 이러한 기술을 한국 신체문화 고유의 동작 유형들을 사용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가르쳤다(Lewis, 2017, 2019). 또한, 유명한 한국인이거나 사견 또는 개념을 따서 자신의 형식(성문화된 공격 및 수비 움직임)을 명명했다. 그러나 공정하게 말하면, 최홍희 장군이 신체적, 철학적으로 가르친 내용의 대부분은 일본 유학 당시 배운 쇼토칸 가라테를 기반으로 하였고 창현 태권도가 만들어지기까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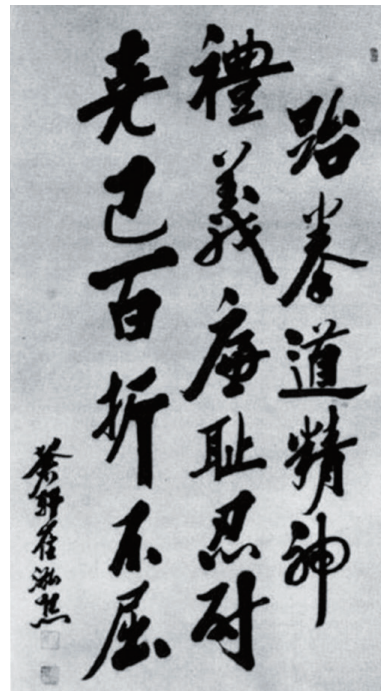
오늘날 대한민국의 태권도는 매우 다르게 발전했으며 ‘국기 태권도’로 인식되고 있다(Moenig & Kim, 2017). 최홍희 장군의 경쟁자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태권도 단체와 지도자들은 한국을 발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 장군과 같은 마음이었지만, 태권도의 무예적 측면은 버리고 올림픽 종목으로 선발될 수 있는 격투스포츠를 만들었다(Son & Seo, 2017). 국기 태권도 스타일은 현재 올림픽 스포츠 격투 종목이며 여러 운영 위원회가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의 본부로도 알려진 국기원은 국기 태권도 교육원 및 심사원(즉, 국기 태권도 검정때에 대한 심사 요건을 설정하고 승품 심사를 실시)이다. 국기원이 국기 태권도 스타일의 수련을 연구하고 위임하는 협회이고 서울에 있는 협회 본부가 위치한 건물 이름 또한 국기원이기 때문에 국기 태권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대한태권도협회KTA는 현재 세계태권도연맹의 국가연합 회원으로서 한국 내 태권도 대회를 감독하고 있지만, 한때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태권도 단체였다. 2017년까지 WTF로 알려졌던 세계태권도연맹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회원이며 다양한 유형의 국제태권도대회를 감독하고 있다.

최홍희 장군은 대한민국의 초창기 태권도 지도자였으며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었다. 최 장군의 회장직을 두고 불신임 투표가 이루어진 1965년에 교육적, 철학적으로 태권도가 분열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최 장군은 군에서 영감을 얻어 창현 태권도를 무예로 계속 발전시킨

반면, 대한태권도협회 후계자들은 민간인 중심의 스포츠를 확립하려 노력했다. 최흥희 장군은 후배들의 도움으로 자신만의 형식을 개발하여 ‘틀’이라고 불렀으며 새로운 스파링 스타일과 규칙을 확립하고 자기 수련을 목적으로 한 태권도 교육학을 만들었다(Johnson, 2018). 그의 무예는 국기 태권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예를 들어, 두 단체의 형식(국기 태권도의 형식, 오늘날 품새라고 함)과 경기규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은 전 중앙정보부 장교이자 대한태권도협회 초대 회장인 김운용 박사이다. 그는 앞서 언급한 국기 태권도 단체 세 곳 모두에서 회장직을 역임했으며 태권도의 올림픽 종목을 기획한 인물로 인정받는다. 김운용 박사는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의 회장으로서 태권도라는 이름 아래 한국의 무예가와 단체들이 통합되도록 도왔다. 새로운 국기 태권도 양식이 만들어졌고 그의 지시에 따라 국제 대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전에 길리스(Gillis, 2016)가 제시한 의견대로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갈등을 최흥희 장군과 김운용 박사, 두 지도자 사이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태권도가 만들어지고 두 경쟁 단체에 분열이 일어나기까지 여러 당사자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이 해당 조직의 유일한 일인자이며 최흥희 장군이 무예가이자 창현 태권도의 중심이고, 김운용 박사는 행정가이자 올림픽 태권도(국기 태권도)의 지도자라는 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이는 간결함을 위한 설명일 뿐이다.

북한과 관련된 국제태권도연맹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태권도연맹의 태권도 외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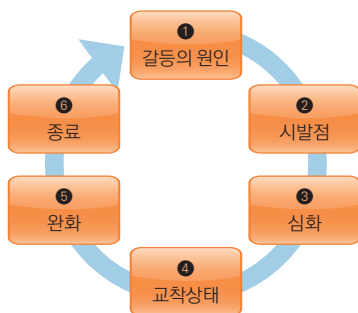


창현 최흥희 장군이 쓴 태권도 정신: 예의 엄치 인내 국기 백절불굴 ©최흥희

제한적으로는 성공을 거두었다 하더라도(Johnson & Lewis, 2020), 전쟁 중이던 남북한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세계태권도연맹은 빈에 본부를 둔 국제태권도연맹과의 외교 행사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최흥희 장군의 아들인 최중화 회장이 운영하는 단체 등 다른 국제태권도연맹 조직들을 소외시켰다. 빈에 본사를 두고 북한 시민이 근무했던 국제태권도연맹과의 협력을 통해 태권도를 통한 화해의 혜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세계태권도연맹은 다른 국제태권도연맹 회원들의 목소리, 특히 창현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최흥희 장군이 직접 선택한 인물들을 소외시켜 버렸다.

갈등 주기

미국평화연구소에서 제시한 갈등 주기는 총 6단계로 갈등의 원인, 시발점, 심화, 교착상태, 완화, 종료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갈등은 순서대로 진행된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의 갈등 주기. 그림에서는 지속 가능하고 반복적인 평화가 확립(즉, 종료 단계)되지 않는 한 갈등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USIP, n.d.).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갈등을 갈등 주기를 통해 바라봄으로써 이해와 접근 가능한 패턴이 생겨난다. 두 연맹의 관계를 갈등 주기와 연계시키면 평화 연구 체계 내에서 태권도에 대한 논의를 재구성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를 통한 외교 노력을 이러한 관점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다음은 갈등 주기 6단계에 대한 정의와 태권도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갈등 재개념화

갈등 주기의 첫 번째 단계는 ‘갈등의 원인’이다(USIP, n.d.).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의 갈등은 태권도 단체들이 형성되기 수십 년 전인 1940년대에 한국의 다양한 무예 지도자들이 권력을 놓고 경쟁하면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두 연맹의 갈등 원인을 지적하면, 1950년대에 최흥희 장군이 태권도의 무예 문화를 유지하려 했던 반면(Choi, 2000) 다른 무예가들은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의 격투스포츠로 발전시키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Moenig, 2017).

최 장군은 1959년 대한태권도협회의 초대 회장이 되었고(Kim, 2013), “군 지휘관으로서의 권력과 이승만(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1948~1960) 정부와의 좋은 관계로 인해 교육부와 한국 아마추어스포츠협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Moenig & Kim, 2017).” 대한태권도협회의 이런 관계는 “1960년 4월 무너지기 시작했다(KTA, 2018).” 그러나 한국의 국내외 정치와 태권도의 관계가 끝이 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쿠데타로 이승만의 뒤를 이은 박정희 대통령(1961~1979) 정권에 대한 최 장군의 혐오는 최 장군이 군사법원에서 복무했을 때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군사법원에서는 여수 순천 군란에 가담한 일로 1948년 박 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최 장군은 박 대통령의 독재정권에 격분했던 듯하다(Choi, 2000). 최 장군은 한국군에서 강제로 물러난 후 최초의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가 되었다(Kimm, 2013). 1964년 말 귀국한 그는 한국의 무예 지도자들이 태권도를 ‘태수도’로 개명하고 1959년 자신이 시작한 대한태권도협회와는 다른 조직인 대한태수도협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 장군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1965년에 대한태수도협회의 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KTA, 2015). 그러나 “독재적이고 거만하다(Moenig & Kim, 2017)는 이유로 최 장군은 회장으로 선출된 지 1년이 채



한국 무주 태권도원에서 존 A. 존슨 박사(국제태권도연맹, 계명대학교 태권도학과)와 레오 정 박사(세계태권도연맹) ©세계태권도연합뉴스

못 되어 불신임투표에 붙여져 직위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되었다(Moenig & Kim, 2019). 한편, 이보다 앞선 1965년 8월 5일에 최 장군은 해당 조직과 무예의 공식 명칭을 태권도로 변경했다. 최 장군은 이후 1966년 3월 22일에 서울에 본부를 두고 국제태권도연맹을 창설했다(Kimm, 2013). 흥미롭게도, 대한태권도협회와 후속 조직은 최 장군이 국제적인 태권도 출판물을 저술하고 국외에 이미 3개 이상의 국립태권도협회를 설립한 것 때문에 태권도라는 이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1965년 최 장군의 대한태권도협회 두 번째 회장직 해임은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 분쟁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다. 더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 심사 및 교육 정책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예로서의 태권도에 대한 최 장군의 비전은 국제태권도연맹을 통해 독립적으로 발전했다. 반면 대한태권도협회(후에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는 태권도를 올림픽 격투 종목으로 개발하고자 했다(Son & Seo, 2017). 이러한 대조적인 목표가 태권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창헌과 국기 태권도는

서로 다른 신체 역학 이론에 기반하여 개발되었으며 오늘날 서로 다른 교육과정과 경기규칙을 따른다. 최 장군의 1965년 대한태권도협회 해임으로 인해 태권도가 상반된 교수법과 목표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사건을 갈등의 촉매제이자 ‘시발점’(USIP, n.d.)으로 볼 수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이 국기 태권도를 올림픽 종목으로 추진하자 최 장군이 공개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과 김운용을 모욕했고 갈등이 더욱 확대 또는 ‘심화’(USIP, n.d.)되었다. 1972년 최 장군이 한국을 떠난 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이며 이후 대한민국에서 태권도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Choi, 2000). 최 장군은 국기 태권도가 자신의 창현 태권도를 모방했고 국기 태권도 지도자들이 태권도라는 이름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Choi, 1985, 2000). 한국 정부의 재정적, 정치적 지원에 힘입은 국기 태권도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태권도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한 대표자라고 믿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태권도를 국가 스포츠로 지정하자 이러한 믿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을 것이며, 올림픽위원회가 1980년에 세계태권도연맹을 태권도 관리기구로 인정했을 때 국기 태권도 수련자들의 이러한 믿음은 더욱 강해졌을 것이다. 최홍희 장군은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Kimm, 2013).

최 장군이 태권도를 사회주의 국가와 북한에 소개함으로써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그는 올림픽위원회 헌장에 나온 대로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배경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다(IOC, 2017). 한국에서 최 장군을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로 인해 세계 태권도 공동체에서 그를 더욱 억압했다(Choi, 2000). 그러나 최 장군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수십 년 후 남북한 공동 세계태권도연맹/국제태권도연맹 태권도 시연(즉, 문화 외교)이 가능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후 남북한 문화의 공통점은 태권도 외에는 거의 찾을 수 없는 수준으로

달라져 ‘태권도 외교’가 한국의 화해에 있어 핵심 요소가 되었다(Johnson, 2018).

한국 정부가 국제태권도연맹 회원들을 괴롭히고 세계태권도연맹을 위해 연맹을 떠나도록 강요하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 장군이 배신자로 낙인찍혔을 때 국제태권도연맹을 떠난 많은 강사로 인해 최 장군은 더욱 비통했을 것이다(Gillis, 2016). 최 장군이 교육 철학에 따라 정치적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과 소련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태권도를 소개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재정적 필요로 인해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 장군이 공산주의자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Johnson & Lewis, 2020), 이러한 의혹 제기가 국제태권도연맹의 발전을 극도로 저해하고 최 장군과 국제태권도연맹 사람들의 세계태권도연맹을 향한 분노를 심화시켰을 것이다.

‘교착상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도 양쪽 모두 서로를 이길 수 없을 때 발생한다(USIP, n.d.). 교착상태의 시작은 1990년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이 충돌한 때였을 것이다. 이 무렵 세계태권도연맹은 올림픽 지위를 획득했고 국제태권도연맹은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강력한 지지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도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갈등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쪽 지도자들에 벌어진 말의 전쟁이 곧 오랜 편견과 근거 없는 비난을 낳았고 두 연맹의 다음 세대에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남한과 북한은 태권도를 외교 수단의 소프트 파워로 사용하여 민족과 문화의 우월성을 입증하려 했다(Johnson & Vitale, 2018). 1982년에는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 사이에 합병 협정이 체결되었으나(Kim, 2017) 어떠한 결실로도 이어지지 않아 관계가 정체되었음을 보여준다.

갈등의 멈춤 또는 단계적 ‘완화’(USIP, n.d.)는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2014년 협정 체결로 시작되었다. 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흐(Thomas Bach) 위원장은 두 태권도 단체에 협상을 촉구하고 태권도를



한국 무주 태권도원에서 존 A. 존슨 박사 ©세계태권도 연합뉴스 제공



산코 루이스 박사(국제태권도연맹, 삼육대학교 인문학부 교수)와 존 A. 존슨 박사(한국 무주 태권도원에서) ©세계태권도 연합뉴스 제공

한국 화해의 상징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올림픽위원회의 바람을 표명했다. 이 역사적 합의 이후 국제태권도연맹과 세계태권도연맹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일명 평화 올림픽) 개막식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공동 시연을 선보였다. 1950년대 최 장군이 한국의 문화적, 물리적 힘을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군인들을 해외로 데리고 나가 태권도를 선보인 이후부터 이러한 시연이 “태권도 외교의 축(Choi, 2017)”을 이루었다(Johnson, 2018). 이를 스포츠 외교라고 말하지만 남북한 팀 사이에 실제 경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 외교라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Johnson & Lewis, 2020).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태권도 스타일이 매우 다르고 아직 누구도 양측 모두에 적합한 공동 대결 수단을 제안한 적이 없기에 오늘날 서로에게 공개적인 적대감이 없음에도 태권도를 진정한 스포츠 외교로 활용하려는 꿈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 사이의 갈등은 무기한 중단되었다. 미국평화연구소가 갈등의 ‘종결’(USIP, n.d.)이라고 부르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향한 전진은 불가능하다. 합의할 경우 양측 모두 잃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동양 무예로서의 태권도를 홍보하는

국제태권도연맹은 태권도가 서양 스포츠가 되어 정체성이나 교육 철학을 잃게 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두 조직 중 더 큰 규모인 세계태권도연맹은 수십 년 동안 태권도 홍보에 대략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제 와서 올림픽 종목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은 더는 서로에 대해 외부적으로 적대적이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비폭력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태권도 연구에 평화 연구 패러다임을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갈등은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 상황에 대한 제유提喻이다(Johnson & Vitale, 2018). 빈에 본사를 둔 국제태권도연맹(북한 시민이 근무)과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세계태권도연맹의 관계는 남북한이 서로 평화적 의도를 보여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남북 화해의 희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두 단체 모두 갈등의 해결을 원하지만 둘 다 핵심 정체성을 포기할 의사가 없기에 평화를 향한 속도는 더딜 수밖에 없다.

태권도 단체들이 현대의 평화 연구 사례들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인다면 남북한 정부 또한 영감을 받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스포츠 외교 노력은 다른 외교적 조치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Murray, 2013)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공동 시연 같은 지속적인 행사는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연구에 평화 연구 패러다임을 도입하면 남북한의 지속적인 평화 구축에 있어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갈통(Galtung, 1996, 2004)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평화는 현재의 관계를 초월하여 새로운 재설정(재설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얻어질 수 없다. 협정

의정서가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 사이에 새로운 화해의 시대를 여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남북한 사이에 실제 스포츠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둘 사이의 갈등 상황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 연구자와 태권도 관계자들이 기존의 평화 구축 기술을 활용한다면 현재의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정체된 관계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태권도 조직체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갈등 해결로 직접적인 혜택을 얻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등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갈등 종결에 개입해야 한다(USIP, n.d.). 북한 시민이 운영하는 국제태권도연맹과 대한민국의 세계태권도연맹의 협상에 다른 국제태권도연맹 조직과 실무자들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세계태권도연맹과 북한이 지원하는 국제태권도연맹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세계 태권도 공동체의 모든 목소리가 고려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갈등이 재진화하여 표면화될 수 있다.

태권도 외교가 진정으로 작동하려면 태권도 운영조직들이 평화를 중개해야 한다. 평화 연구 패러다임 내에서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의 갈등을 재조명한다면 갈등 해결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운동선수 스포츠 경기를 활용해 "정부의 외교 정책 목표에 개입하고, 정책을 알리고, 유리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지만(Murray, 2012)" 태권도는 여느 스포츠와 마찬가지로(Coalter, 2010) 남북 화해의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무예와 격투스포츠로서의 태권도는 계속해서 남북한의 핵심 소프트 파워 외교 도구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Capener, S. D. (2016). "The making of a modern myth: inventing a tradition for Taekwondo." *Korea Journal*, 56(1), 61–92.
- Choi, H. H. (1985). *Encyclopedia of Taekwon-Do*, vol. 1. Toronto: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 Choi, H. H. (2000). *Taekwon-Do and I, Volume 2: The Vision of Exile: Any Place under Heaven is Do-Jang*. Toronto: 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 Choi, Y. K. (2017). "The role of Taekwondo as a means of sports diplomacy." *Proceedings from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aekwondo: Promoting Diplomacy through the Taekwondowon*, December 1, 2017, Muju, Korea, pp. 132–136. Yongsi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aekwondo Research.
- Coalter, F. (2010). "The politics of sport-for-development: limited focus programmes and broad gauge problems?" *International Review for the Sociology of Sport*, 45(3), 295–314. <https://doi.org/10.1177/1012690210366791>.
- Galtung, J.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Galtung, J. (2004). *Transform and Transcend: An Introduction to Conflict Work*. Boulder: Paradigm.
- Gillis, A. (2016). *A Killing Art: The Untold History of Tae Kwon Do*, updated and revised edn. Toronto: ECW Press.
- IOC (2017). "Olympic Charter." [Onlin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September 15. Available at <https://stillmed.olympic.org/media/Document%20Library/OlympicOrg/General/EN-Olympic-Charter.pdf> [accessed October 4, 2018].
- Johnson, J. A. (2018). "Taekwondo and peace: how a killing art became a soft diplomacy vehicle for peac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35(15–16), 1637–1662. <https://doi.org/10.1080/09523367.2019.1618838>.
- Johnson, J. A. and Lewis, S. (2020). "From individual heroes to national performers: the shift in Taekwondo's peace promotion activities." *Physical Activity Review*, 8(2), 64–71. <https://doi.org/10.16926/par.2019.07.23>.
- Johnson, J. A. and Vitale, G. (2018). "Taekwondo diplomacy: new possibilitie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hysical Activity Review*, 6, 237–250. <https://doi.org/10.16926/par.2018.06.28>.
- Kim, J. C. (2017). ITF and WTF merging contract. [Online] Facebook, June 19. Available at www.facebook.com/photo?fbid=1906530339667165&set=pcb.190

- 6w536052999927 [accessed April 22, 2020].
- Kimm, H. Y. (2013). *Taekwondo History*. Baton Rouge: Hando Press.
- KTA. (2015). *50 Years of th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Seoul: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nibig.
- KTA. (2018). "History of Taekwondo." [Online] Korea Taekwondo Association. Available at www.koreataekwondo.co.kr/d002 [accessed January 25, 2018].
- Lewis, S. (2017). "ITF's sine wave motion and Korean body culture." [Blog] *Soo Shim Kwan*, April 16. Available at https://sooshimkwan.blogspot.com/2017/04/itfs-sine-wave-motion-and-korean-body.html?fbclid=IwAR0ZiuggHwCm9ElUyaEHaQyZr6MLSbIz5_H-rzvtEQOr0Jm2C6baWKBzzNw [accessed May 3, 2020].
- Lewis, S. (2019). "2019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for the Promotion of Traditional Martial Arts." [Blog] *Soo Shim Kwan*, November 19. Available at https://sooshimkwan.blogspot.com/2019/11/2019-international-academic-conference.html?fbclid=IwAR0yFfkNpB6K-_uYTydaV4DW2mKyAGc96YX-JETG6hKcNieXAB48CtFJdv0 [accessed May 3, 2020].
- Moenig, U. (2017). *Taekwondo: From a Martial Art to a Martial Sport*, 2nd ed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oenig, U. and Kim, M. (2017). "A critical review of the historical formation of Olympic-style taekwondo's institutions and the resulting present-day inconsistencie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istory of Sport*, 34(12), 1323–1342. <https://doi.org/10.1080/09523367.2017.1385603>.
- Moenig, U. and Kim, M. (2019). "The origins of World Taekwondo (WT) forms or *p'umsae*." *Ido Movement for Culture. Journal of Martial Arts Anthropology*, 19(3), 1–10. <https://doi.org/10.14589/ido.19.3.1>.
- Murray, S. (2013). "Moving beyond the ping-pong table: sports diplomacy in the modern diplomatic environment." *Public Diplomacy Magazine*, 12, 11–16.
- Murray, S. (2012). "The two halves of sports-diplomacy." *Diplomacy and Statecraft*, 23, 576–592.
- Nahm, A. C. and Hoare, J. E. (2004).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Republic of Korea*, 2nd edn. Lanham: Scarecrow.
- Son, C. T. and Seo, S. W. (2017). *A Single Path of 70 Years, the Pioneer of Modern Taekwondo's Foundation: Uhm Woon Kyu*. Seoul: Kukkiwon.
- USIP. (n.d.). Introduction to Peacebuilding – Micro Course. [online] United States Institute for Peace. Available at www.usip.org/academy/catalog/introduction-peacebuilding-micro-course [accessed December 2, 2018].

19

토착무예:
문화, 연속성, 투쟁

토마스 A. 그린 Thomas A. Green

미국 텍사스A&M 대학교 고고학부

토착무예, 무형유산의 자격을 갖추다

토착무예(vernacular martial arts)는 무예로 분류되는 다양한 현상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교차문화적 관점으로 “무예는 (적에… 대한) 공격술 및 방어술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방대한 지식, 믿음, 관습으로 정의할 수 있다”(Green & Svinth, 2010). 자세히 살펴보면 이 포괄적 용어에 속하는 행위는 규칙을 따르는 스포츠 시합의 생사를 다투는 싸움부터 표현양식까지, 그리고 세계적인 격투스포츠부터 지역에 국한된 무예 문화까지

연무장. 2010년 중국 산둥성 허쩌시 ©토마스 A. 그린



상당히 다양하다. 필자는 이 범주에서 마지막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토착무예라고 보며, 이 토착무예는 다양한 무예 표현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무형유산의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구분 방식은 해당 논의에 유용하다.

격투스포츠

조셉 스빈스(Joseph Svinth)의 정의에 따르면 무예 스포츠는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운동 경기이다. 복싱, 레슬링, 펜싱 등 개인 격투스포츠는 본질상 결투와 닮았지만, 축구, 아이스하키, 라크로스 등 단체 격투스포츠는 본질상 소부대 전투와 유사하다”.

무예

가라테, 태권도,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한국 등 특정 지역이나 민족과 연관되지만 대부분 지역보다 큰 범주와 관련이 있다.

토착무예

여기서 토착무예라 명명하는 이 ‘민속’ 전통은 진행되는 지역 집단의 요구에 충족하는 무예 관습으로 외부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보존된다. 토착무예는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공동체 생활 속에 섞여 있다. 학교 운동장이나 교도소 마당, 도로나 신성한 장소에서 발견된다. 토착무예의 동작 체계(움직이는 유형)는 경기, 의례, 축제 등 대규모의 문화적 연행 및 공동체 생계 활동의 양식과도 일치한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집단의 일상 활동과 관련된 도구를 무기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토착 전통은 일반적으로 주술사의 의례, 부적, 마법 등 그 지역의 초자연적인 힘의 도움을 받는다.

‘토착’ 용어의 기원

본 글에서 사용되는 ‘토착’은 언어학과 예술 비평에서 차용한 용어이다. 국가적 차원이나 국제적 차원에서 무예 연행을 표준화하려는 시도에서 겪는 어려움 중 일부는 토착 언어를 일반적인 표준 언어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언어학에서 ‘토착’은 해당 언어에서 규정된 형태의 특징을 천편일률적으로 구체화하지 않는, 지역의 언어, 방언이나 양식을 의미한다. 예술 비평에서는 미술의 동향이나 흐름과 거리를 두는 예술가의 창조물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무武에 적용하면, 토착무예는 집단의 필요를 충족하는 지역 전통으로서 외부 제재 기관의 요구사항과 무관하게 집단에서 보존된다. 따라서 시대를 불문하고 교과과정을 결정하고, 계보를 유지하고, 떠나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와 극명히 대비된다. 토착무예 간에는 교육, 문화적 연속성, 무기 선택 등에서 교차문화적 유사성이 있다. 아래에서 논의할 사례는 주로 미국 흑인과 중국 전통에 관한 내용이다. 제일하우스록 Jailhouse Rock은 직접적인 자기방어 방법으로 미국 흑인의 토착무예이다. 매화권 Meihua Quan(단 한 차례의 공격이 아닌 하나의 체계로서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다소 의역하면 매화권법)은 방어뿐 아니라, 승배, 공동체 결속, 역사적 지속성 때문에 현대 중국에서 존재한다.

교육

토착무예는 도장, 체육관, 학교나 이와 유사한 전용 구역에서 가르치지 않고, 공동생활의 기본 원리로서 전승된다.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약식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다. 정보 제공자는 토착무예 기술을 습득한 장소로 공원, 길모퉁이, 마을 공유지, 술집, 감방 모두를 언급했다. 일부



마당에서 왕 슈에시앙을 지도하는 허 칭후이. 2016년 중국 구이저우성 원수이현 ©토마스 A. 그린

기술은 정식 무예에 공통되는 준비 운동이나 스트레칭 없이 몇 분 만에 전수될 수 있어서 어느 곳에서나 습득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은 아예 격식이 없거나, 즉석에서 만들어진다. 토착무예는 수련생이 기초 수준에서 복잡한 기술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방식을 규정하지 않는다. 교육은 숙련자가 아끼는 신참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식은 보통 인쇄물, 영상 등의 매체가 아니라 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구두로 전승되며, 도장, 학교, 체육관에서 지켜야 할 행동에 관한 규범과 달리 상대적으로 격식이 없는 편한 방식이었다. 위 사진은 매화권 마을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보통 격투 방법 중 일부는 교육이 아닌 관찰을 통해 배운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복잡한 콤비네이션의 경우 스승이 똑같은 순서의 구성 요소를 전수하기 전에 이미 길거리 싸움을 관찰하며 습득할 수 있다. 이로써 개인

수련자의 무기와 토착무예의 기술 모두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발달한 ‘52가지 수기 Fifty-two Hand Blocks’ 또는 ‘52가지 52s’라 불리는 제일하우스록의 지역적 변형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한 이는 격투 방식에서 동작 체계 측면의 ‘공여자’로 국제 복싱, 1970년대 무예 영화, 브라질 카포에이라 Capoeira와 브레이크 댄스를 언급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례도 여러 무예가 혼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토착무예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데니스 뉴섬의 제일하우스록 방어 동작.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토마스 A. 그린

토착무예의 경우 그 자체로는 관습이 없다. 기술과 전략은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황에서 전투나 표현 양식(경기)을 통해 정교해진다. 이 원칙은 ‘길거리 싸움’의 역사적 모습에 적용된다. 브라질 흑인의 카포에이라의 최초 기록 형태와 18~19세기 미국 남동부에서 발전한 비무장 결투 전통이 그 사례이다. 남동부 토착무예에서는 눈을 도려내는 등 적을 불구로 만드는 상해가 살인을 대신하였다(Gorn, 1985). 이 학습 형태가 21세기까지 지속되었다.

문화적 연속성

토착무예에 표준화된 관습과 정식 훈련이 포함되지 않지만, 전투 상황이 아닐 때 필요한 기술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적 연속성이 국지화된 무예와 다른 전통 사이에 존재한다. 경기, 춤, 축제는 무예 기술의 양성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타격, 잡기, 반사 신경, 머리 움직임, 발놀림, 신체적 압박을 견디는 능력은 훈련, 연습처럼 행위에 집중해서라기보다, 그 행위에 참여한 당연한 결과로 발달한다. 따라서 토착무예는 그 자체가

무형유산의 전형일 뿐 아니라, 토착무예와 무형유산은 서로의 가치를 높이는 상호 지원적 관계에 있다.

경기

전통적인 모의격투 시합은 토착무예 기술의 발전을 고려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모의격투를 통해 실제 싸움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할 수 있다. 슬랩복싱, 체스트(오픈 체스트) 치기 등의 타격 경기는 미국 흑인 공동체에서 널리 확산했다.

뉴욕시 브롱크스 남쪽 지역은 유난히 거칠고 무법천지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제프리 캐나다Geoffrey Canada의 기억에 따르면 슬랩복싱 경기에서 “얼굴과 머리가 주요 타겟이었고, 이름의 의미대로 손을 펴서 쳐야 했다”(Canada, 1996). 슬랩복싱의 공격과 페인트 동작은 국제 복싱을 기초로 하며, 학교와 소년원에서 남자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체스트’ 또는 체스트복싱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텍사스 델러스에서 열렸던 경기의 규칙에 따르면(Boyd, 2003, 인터뷰) 두 명 이상의 선수가 전력을 다해 서로의 가슴을 가격할 기회를 찾으면서 동시에 가드를 계속 세워 비슷한 공격을 막는다. 체스트와 슬랩복싱 둘 다 체격 강화뿐 아니라, 조정 능력, 치고받는 능력,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물론 시합과 경기력 발달의 관계는 미국 흑인의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연계성은 교차문화적 현상이다.

춤

앨런 로맥스Alan Lomax(2000)에 따르면 춤은 집단의 문화적 동작의 본보기(아니면 아마도 거울)이다. 그는 이러한 표현 행위가 일상 행위에서 유래한 동작과 자세를 모방하므로 문화적 연속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춤이 전투를 모방하든, 또는 전투가 신체적 표현 형식 때문에 춤에 의지

하든, 많은 토착춤에서 무武와 표현의 유사성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춤과 싸움의 공통분모는 미국 흑인 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이클 흄 Michael Hume은 탭 댄서로 일했던 부친으로부터 몸을 빠르게 숙여 적의 바짓단을 잡고 똑바로 서서 적을 던져버리는 ‘업셋^{upset}’을 배웠다. 아버지는 “일단 놈을 뒤집고 머리랑 몸 위에서 탭댄스를 추라”고 말했다(Hume, 2005, 인터뷰). 이 정보가 일대일 인터뷰 상황에서 전달됐기에 필자는 시연을 위해 적 역할을 맡겠다고 자청했다. 그 결과 보는 것 이상으로 업셋을 느낄 수 있었다.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발과 발꿈치의 킁이 연달아 쓰러진 적의 갈비뼈, 가슴, 배의 위아래로 전달되었다.

춤은 순화된 훈련이나 전투 의례의 서막으로서 무예 연행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쓰일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경기를 앞두고 열리는 춤 의식은 격투술을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태국의 무에타이와 크라비 크라봉, 브라질의 카포에이라이다.

프레투 벨류 장인이 카포에이라를 가르치고 있다. 2009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토마스 A. 그린



구전에 따르면 어번댄스 urban dance 스타일의 ‘업록’, 그리고 제일하우 스톱과 52가지 등 미국 흑인의 토착무예는 출발선이 같다(Green, 2012). 사실 공격적인 업록은 미국에서 1970~1980년대 도시 범죄 조직의 순화된 길거리 전투라고 할 수 있다. 이 전투에 대해 제프 창 Jeff Chang은 이렇게 기록했다. “경쟁자들은… 마치 서로 출랑대고, 찌르고, 두드려 패는 것처럼 정면으로 맞섰다”. 대니얼 마크스 Daniel Marks는 업록과 52가지의 전후 및 좌우 발놀림이 같다고 지적한다. “52가지는… 거칠고 길들여지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은 의도적이다. 업록(동작 패턴)이 그 속임수에서 거대한 지분을 차지한다. 52가지도 기껏해야 춤에 불과한 것이다”

로버트 패리스 톰슨 Robert Farris Thompson은 서아프리카 춤의 미학적 원리에 관한 연구에서 특히 “공연에서 타악기적 개념의 지배, 멀티플 미터 multiple meter(싸움의 ‘브로큰 리듬’과 ‘체인지업’ 참조)… 그리고 언어와 동작의 조소”를 발견했다. 이 원리는 미국 흑인 공동체에서 유래한 대중음악 및 댄스 장르(힙합, 재즈, 브레이크 댄스)와 흑인 운동선수의 영향력이 미치는 스포츠 종목(복싱과 야구)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미국 흑인의 토착음악 장르(노동요와 블루스)와 토착무예 모두에서 명백히 작용하고 있다.

축제

격투 경기 및 이와 유사한 무예 시연은 영국제도의 정기적인 검무, 카리브해 카니발의 막대 싸움, 중국 사자춤에서 보듯 축제의 교차문화적 공통 요소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표현 활동은 대형 행사의 주요 관심사와 상통한다. 매화권의 양권 Liangquan에서는 격투가 주요 관심사다. 용어 ‘매화’는 중국의 다양한 권법 방식과 관련이 있지만, 아래에서 논의할 매화권은 중국 허베이성 호우마 마을 차원에서 연행하던 토착무예이다. 민중 역사에서는 이 권법 방식이 저우 홍이 Zou Hongyi의 작품이라고 본다. 전통 역사에 따르면 스승 저우의 제자들은 저우 집에 모여 최초로



양권. 2012년 중국 허베이성 호우마 마을 ©토마스 A. 그린

양권(직역하면 ‘보여주기 권법’)을 연행했던 등축제(봄축제 마지막 날) 때 저우가 가르친 기술의 숙달 정도를 시연했다. 최근 호우마에서는 매화권 권법가들이 창시자인 저우의 무덤에 모여 저우와 지역 도교 신앙에 경의를 표하고 최초 행사를 재연한다. 허난성의 주자이와 여러 마을에서도 이와 유사한 재연 의식이 열리고 있다. 이 관습은 보통 도교 의례와 관련이 있지만 양권의 조상 숭배는 도교, 유교 및 그 이전의 주술적 연행이 혼합된 형태였다. 장문인 저우에 대한 숭배는 옛것과 삶의 연속성을 함께 기리는 방법을 보여준다.

매화권 연행에 앞서 매화권 수련자, 전직 수련자나 수련자의 부인 등 여성들이 수작업한 매화 ‘품품’을 들고 춤을 춘다. 이 춤은 정식 무예가 아니다. 그 뒤 권법이 시작되며, 여러 권법 집단(주로 마을 연합)이 연속적으로 연행한다. 차례대로 신속하게 무대 중앙을 거친 후 집단들의 동시 연행이 시작한다. 이때 미묘한 경쟁의식이 흐른다. 최대한 많은 추종자를



정 다니 장인이 리 윤 박사에게 철편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2012년 호우마 마을 ©토마스 A. 그린

모으기 위해 각 집단의 동작은 점점 화려해지고 이에 동반되는 북과 징 소리는 점점 커지고 대담해진다. 일부 동작은 겉보기에 적대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축제의 일반적 기능인 결속력이 나타난다. 호우마에서 열린 2012년 양권 때를 예로 들면, 두 수련자 간의 권법 시연이 실제 싸움으로 번졌다. 하지만 다른 참가자들의 중재로 싸움은 곧 멈췄다.

운동과 격투

폴 코너튼 Paul Connerton은 “습관 형성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의 신체”라고 주장한다. 또한 바강은 『신체와 영혼 Body & Soul』(2001)에서 복싱의 신체적 행위가 경기 참가자에게 문화적으로 발달한 습관, 능력, 신체적 체질 등 독특한 체질을 부여한다고 분석한다. 코너튼의 적절한 문구로 다시 돌아가서, 훈련은 우리 몸에서 체질을 ‘침전’시킨다. 운동 훈련과 표현 문화와 마찬가지로, 한층 더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수준으로 일상생활에서 연행되는 생존 활동은 훨씬 더 그러하다. 집단 안에서 습관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등의 기구도 토착무예에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농기구도 기본적인 필수품으로 역할이 축소되면 단지 변형된 막대일 뿐이다. 원예가는 예전부터 구멍 파기 막대라 불리는 뾰족한 막대를 사용해서 씨앗을 심을 구멍을 내고, 정원의 흙을 갈고 흘트리며 작은 밭을

일켰고, 굽은 막대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쟁기로 변신한다. 보통 축산업자는 가축을 모는 도구로 사용하는 막대와 씨름했다. 아일랜드의 실레라 shilleleagh가 그 예로 전통적으로 양몰이 용도로 사용했다. 이 도구를 항상 가까이 두고 절호의 무기, 즉 다툼이 발생했을 때 편리한 수단으로 개인 방어뿐 아니라 아일랜드에서 유명한 의례적인 알력 다툼에서도 사용한다(Hurley, 2007). 이와 유사하게 유목 생활을 하는 에티오피아 무르시족의 장대는 자연의 포식자, 적대적인 인간에 대한 방어와 '성년식' 의례에서 사용되었다(The Mursi Tribe: Day of the Donga, 2000). 대다수 토착무예의 사정과 마찬가지로 막대 싸움도 현대에 들어와 유도, 종합격투기 등 국제적인 격투스포츠에 밀려났지만, 예술 행위 및 사회종교적 의례로 보존되었다.

또한 교역을 통해 얻은 도구를 조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신체적 특징, 조정 능력, 체력의 발달은 전통 무기를 다룰 때 빈번하게 활용된다. 중국의 많은 전통 마을 주민들은 밀고 당겨 땅을 갈 수 있는, 손잡이가 긴 원예 도구에 의존했다.

사진에서 필자가 굉장히 어색하게 휘두르는 12피트 창은 과거에는 말을 탄 적을 상대할 때 사용되었다. 이 전략은 특정 훈련뿐 아니라, 일상적인 생존 노동의 부산물로 생기는 힘줄, 근육, 조정 능력, 균형 감각을 사용하여 연습했다. 이제는 마을 치안을 위해 창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80대의 매화권 수련자들은 마치 전통 예술 행위를 하듯 창을 능숙하게 휘두른다.



매화권창. 2012년 중국 산둥성 허쩌시 ©토마스 A. 그린

도구가 무기화되자 당국에서 이를 인식하여 관리하는 사례도 있다.

핀란드의 푸코 puukko 칼이 그렇다. 푸코는 실용적인 절단 도구로 설계되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다. 푸코는 핀란드인의 휴대용 무기로도 사용되는데, 지금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다. 푸코와 토착무예와의 연관성은 에드가Edgar가 수집, 분석한 ‘검객knife-men’ 민요에 기록되어 있다. 칼은 “목공에 사용되고… 그리고 노래의 늙은 불량배들은 싸울 때 무기로 사용했다”. 해당 가사는 아래와 같다.

바사의 피는 전혀 차갑지 않고, 카우하바의 검도 녹이 슬지 않아,
그가 굴복하지 않으면 목을 잡고, 등에 칼을 꽂아.
멜투 주카의 푸코 같은 화살처럼 예리하지. 하르실라 마르티
헛간 뒤에서 케톨라의 주카는 죽었다네.

남북전쟁 재건 시대(1863~1877) 이후로 성문법과 관습법(관습적 연행) 모두 흑인의 무기 소지, 특히 화기 소지를 금지했다. 동시에 노예로 일했던 흑인의 취업 기회가 제한되어 시종이나 이발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일을 하는 흑인은 업무 도구로 일자 면도기(손잡이 속으로 날이 접혀 들어가는 면도기)를 안전하게 소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면도기를 이용해 치명상을 입히는 방법도 개발했다. 리차드 메릿 Richard Merritt에 따르면 그 중 하나 이상이 복싱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는 부친에게서 이 방법을 전수받았다. 부친은 수학자였지만 20세기 초 흑인에게는 그 직업이 허용되지 않았다. 결국 부친은 이발사가 되었고, 이발 기술과 함께 복싱을 접목한 토착무예도 함께 습득했다(Merritt, 2012, 인터뷰).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짐꾼The Porter」에 이 토착무예에 대한 설명이 있다. 짐꾼이 손에 면도기를 들고 “주먹을 쥐자 마디 사이로 면도날이 나왔다”. 그리고 고전적인 복싱 콤비네이션을 묘사한다. “조지는 피하고 면도날로 세 번을 찔렀다”(Hemingway, 1987).



베이베이 소방서가 재현한 충칭 용춤. 2016년 중국 충칭 ©토마스 A. 그린

토착무예는 단독 현상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발전한다

토착무예를 보존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무예의 의도가 폭력적일 경우가 질문은 특히 적절하다. 그 답은 토착무예가 ‘단독’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토착무예는 구체적인 다른 행위와 관련되어 유기적으로 발전했다. 세계화가 시도되면 국가나 민족적 자부심에 의해 보존된 토착무예는 지역의 지원 공동체와 분리된다. 지역보다 더 큰 무대를 목표로 무예를 변형하는 절충 과정에서 무예는 본연의 모습에서 상당히 달라진다. 지역 차원에서 최소한의 변형으로 무예를 보호하려고 한다. 21세기 세계화 대 보호에서 가장 힘든 난제는 세계 무대의 평가를 고려하면서 문화적 맥락에서 토착무예를 보호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토착무예의 특징은 앞서 서술한 내용과 같다. 입문생의 실력 향상을 위한 체계화된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부족, 관찰과 비공식적인 지도를 통한 학습, 그리고 지식 전승이 대체로 구전에 의한 약식인 점이다. 이 중 마지막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 공동체에서 집단 구성원 간에 전달되는 문서 형식으로 무예 유산을 보존할 때도 있지만, 전통 집단의 외부에서 배포가 허용되는 문자나 시각적 교부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토착 지식은 엄격한 무예적 상황뿐 아니라 관련된 표현 양식이나 노동을 통해서, 그리고 연행자의 문화적 동작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형성되어 전승된다. 현대적 맥락에서 볼 때, 이러한 전승 수단은 토착무예의 보호와 전승을 취약하게 만든다.

- Canada, G. (1996). *Fist, Stick, Knife, Gun: A Personal History of Violence in America*. New York: Beacon.
- Chang, J. (2005). *Can't Stop, Won't Stop: A History of the Hip-Hop Generation*. New York: St. Martin's.
- Connerton, P. (1989). *How Societies Rememb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rson, R. M. (2008). *Bloodstoppers and Bearwalkers: Folk Traditions of the Upper Peninsula*, 3rd edn, J. P. Leary (ed.).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Edgar, M. (1949). "Ballads of the knife-men." *Western Folklore*, 8(1), 53-57.
- Gorn, E. (1985). "'Gouge and bite, pull hair and scratch': the social significance of fighting in the southern backcountry." *American Historical Review*, 90(1), 18-43.
- Green, T. A. (2012). "Sick hands and sweet moves: aesthetic dimensions of a vernacular martial art."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125(497), 286-303.
- Green, T. A. and Svinth, J. (eds) (2010). *Martial Arts of the World: An Encyclopedia of History and Innovation*. Santa Barbara: ABC-CLIO.
- Hemingway, E. (1987). "The Porter." *The Complete Short Stories of Ernest Hemingway*, pp. 571-578. New York: Scribner.
- Hurley, J. (2007). *Shillelagh: The Irish Fighting Stick*. Pipersville: Caravat Press.
- Lomax, A. ([1968] 2000). *Folk Song Style and Culture*.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The Mursi Tribe: Day of the Donga* (2000). [VHS] Directed by Michael Willessee and Ben Ulm. Princeton: Films for the Humanities and Sciences.
- Svinth, J. (2003). "Appendix." In T. A. Green and J. Svinth (eds), *Martial Arts in the Modern World*. West Port: Praeger.
- Thompson, R. F. (1999). "An aesthetic of the cool: West African dance." In Gena Dagele Caponi (ed.), *Signifyin', Sanctifyin' and Slam Dunking: A Reader in African American Expressive Culture*, pp. 2-86.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 Wacquant, L. (2001). *Body and Soul: Notebooks of an Apprentice Box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의 전통무예를 만나다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발행일 2020년 12월 24일

펴낸이 금기형, 박창현

펴낸곳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책임편집 박성용, 류석열

기획·편집 박규리, 장연석, 이강혁, Nanoï Lauwaert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우)55101

충청북도 충주시 옷갓길 73 (우)27438

제작 도서출판 학교재

ISBN 979-11-91300-01-7 93380

본 도서에 포함된 견해는 저자의 것으로 발행기관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문화 분야 최초의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국제기구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형유산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인식 제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무형유산은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이다. 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관 및 공동체와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무형유산의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국제기구이다.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는 무예의 철학과 가치를 전파하고 무예를 통해 청소년의 교육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켜 건강한 문화, 소통의 문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센터는 무예 연구 및 지식 공유, 무예 역량 강화, 선진국-개도국 협력, 무예 정보의 축적과 유통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